

연구보고 2010-14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

-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

-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김진경 유해미 조혜주

외부 공동연구진: 김명순 서영숙 이완정 한유미 나종혜

이영환 김혜금 이미정 오연주 황혜정

서소정 성지현 이유진 황옥경 최혜영

김선영 박진옥

요약

1. 서론

-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실태 및 관련 요구를 파악하며, 새로 마련되는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설서를 새로이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2007년에 제정된 표준보육과정령 및 고시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표준보육과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
 -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문제점 및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
 -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해설서를 작성
- ☐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 관련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하였으며, 영국의 교육과정 사례를 수집, 제시하였음.
 - 시설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문제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의견 수렴
 - 보육관련 학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운영하여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의 적용을 위한 해설서 작성 작업을 추진

2. 이론적 배경 검토의 시사점

- ☐ 교사와 시설장들은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으나 교사지침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하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표준보육과정 활용에 장애가 되는 여건으로는 '활동준비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표준보육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활동 준비 시간 확보가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냄.
 - 교재·교구 부족 해소, 시설장과 교사의 전반적인 보육 역량 강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감소, 교재교구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됨.
- 평가인증 과정이 진행 중인 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아서 평가인증에 대한 준비가 표준보육과정 인지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음. 이는 평가인증의 지표에 표준보육과정의 수행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표준보육과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냄.

3. 외국 사례 검토의 시사점

- 먼저 법적 근거 하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거점 전달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전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영국은 2007년 0~5세 영유아기 교육과정인 EYFS를 개발하여 교육과정관리국(QCA)이 관리하며,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하였음.
 - 일본은 교육기본법(2006년)을 기초로, 유치원교육의 기본목표,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시간 종료 후에 행하는 교육활동 등을 제시하고, 5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교육목표 및 내용을 포함하였음.
 - 호주도 교육과정으로 아동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질높은 교육 및 학습이 경험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영아기부터 아동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 영역 간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EYFS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보육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 단계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발달의 '연속성'을 강조

- 호주의 EYLF 체계의 기초는 아동의 삶이 소속감, 존재감과 변화의 특징을 가진다는 시각임.
-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적용 가능한 원리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EYFS 원리는 아동의 고유성, 긍정적 관계, 학습 촉진 환경, 학습과 발달 등 네 가지 원리를 제시
- 호주의 EYLF에서도 교수법 원리로써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적인 관계, 동반자 관계, 높은 기대 및 형평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속되는 학습 및 반성적인 실천을 제시하며 지침으로 전체적인 접근, 아동에게 반응적임, 놀이를 통한 학습, 의도적인 가르침, 학습환경, 문화적 유능성, 학습의 연속성 및 전환점, 학습의 평가 등을 제시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 호주 모두 교육과정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다음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됨.

4.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와 정책방안

-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실태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음.
-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표준보육과정을 보육과정 지침서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교과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표준보육과정의 접근성은 매우 낮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며, 주된 인지 경로인 교육 경험은 일회성이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표준보육과정”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료책자의 배포 등 보급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평가 및 적용

-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외하면,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높게 나타남.
- － 영역별/수준별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자연탐구 영역의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영역별 비중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며, 특히 영아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음.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은 주로 평가인증과 연계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적용 방식은 대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나타남.
- 실제 적용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용어간의 혼동,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의 부족, 복잡한 내용 기술로 인한 활용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됨.

□ 활용 제고 방안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증진 방안으로는 1) 전달체계의 확충 2) 홍보 강화 3) 교육(연수) 강화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기됨.
- － 특히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시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장 뿐만 아니라 이용 부모 대상 홍보도 필요함.
- － 체계화된 교육인프라를 마련하고, 교육주체를 일원화하며, 교육시간을 늘리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연수) 강화가 필요함.
- －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구축된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보육계획안을 제공해야 할 것임.
- －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해설서 작성

-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¹⁾에 대한 해설서(안)을 작성, 수록하였음.

1)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마련하였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 방법	3
II. 연구의 배경	6
1. 표준보육과정 개요	6
2. 선행연구	10
3. 시사점	21
III. 외국의 유아교육과정	23
1. 영국의 유아교육과정	23
2. 일본의 교육과정	30
3. 호주의 교육과정	35
4. 시사점	47
IV.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및 정책방향: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50
1.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50
2. 내용 평가 및 적용	56
3. 표준보육과정 활용 제고 방안	65
4. 요약 및 정책제언	72
V.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해설서(안)	75
1. 기본생활	75
2. 신체운동	105
3. 사회관계	138
4. 의사소통영역	169
5. 자연탐구	206
6. 예술경험	248

참고문헌	280
부록	283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영역의 수준별 비교	285

표 목 차

〈표 I-3-1〉	면담 질문 내용	3
〈표 I-3-2〉	심층면접 대상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4
〈표 I-3-3〉	연구진 구성	5
〈표 II-1-1〉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총론구성 비교	7
〈표 II-1-2〉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8
〈표 II-1-3〉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목적	9
〈표 II-1-4〉	표준보육과정과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의 목표	9
〈표 II-1-5〉	표준보육과정과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영역과 시간	10
〈표 III-2-1〉	건강 영역 목표와 내용	32
〈표 III-2-2〉	인간관계 영역 목표와 내용	32
〈표 III-2-3〉	환경 영역 목표와 내용	33
〈표 III-2-4〉	말 영역 목표와 내용	34
〈표 III-2-5〉	표현 영역 목표와 내용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국가의 보육과정은 그 나라 보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미래의 국가경쟁력인 능력 있는 민주 시민 양성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으나 만 0세에서 5세까지 6개 연령층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보육지침인 표준보육과정 개발은 2005년 이후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전문 개정되면서 제 29조에 ‘여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여성가족부는 2005년에 연구사업으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고 2007년에 최초의 입법화된 표준보육과정령(안)과 고시(안)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보편적 적용을 위하여 그 내용을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게 교육용 영상자료로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보급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교사지침서, 해설서, 홍보 및 교육용 영상자료를 제작하였으나 이를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에 충분히 보급하지 못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사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 사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표준보육과정을 읽어보거나 홍보·교육용 영상자료를 본 경험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시설장이나 교사가 표준보육과정을 보육프로그램이나 교재로 오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숙 외, 2009).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은 특히 민간 보육시설에서 미흡하였고(정을순, 2007), 일과 운영시 특기교육의 활성화로 외부강사를 이용한 신체활동, 영어, 가베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상당수라는 점(유희정 외, 2009)도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충분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그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표준보육과정 개발 시점이 2005년도로 당시와 현재의 보육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몇 가지 점에서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최근 5년간 종일제 중심의 보육시설 운영, 특별활동의 확대, 이용시간의 다양화 요구 등 2005년 표준보육과정 논의 시점에 비하여 환경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²⁾ 또한 유아교육도 최근에 만5세아 조기취학,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종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 등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유사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연령별, 수준별 적합성 등 실행가능한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 개정안 마련과 같은 맥락에서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실태 및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 새로 마련되는 표준보육과정령 개정안, 고시 개정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해설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 도모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실태 및 관련 요구를 파악하며, 새로 마련되는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설서를 새로이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에 제정된 표준보육과정령 및 고시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표준보육과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문제점 및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2)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1969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7차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고, 최근에 연령별 교육과정 개발 작업 중임.

셋째,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해설서를 작성한다.

3.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및 문헌 및 해외자료 고찰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관련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하였으며, 영국의 교육과정 사례를 수집, 제시하였다.

나. 심층면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보육현장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및 표준보육과정 적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시설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가지고 면접대상자들의 반응에 따라 질문순서와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담방법을 사용하였다. 소집단 면접을 주로 하였으며 1회의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소요되었다(표 I-3-1, I-3-2 참조).

〈표 I-3-1〉 면담 질문 내용

구분	내 용
이해	- 표준보육과정 인지 경로 -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육 시간 및 내용, 만족도 - 표준보육과정의 문제점 - 표준보육과정 정의
적용	- 표준보육과정 또는 보육프로그램 적용 실태 - 표준보육과정 또는 보육프로그램 적용 문제점 - 부모 대상 표준보육과정 홍보
효과	- 표준보육과정 적용 이후 달라진 점 - 표준보육과정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발전방안	- 향후 표준보육과정 보급, 교육, 적용 등 개선방안

〈표 1-3-2〉 심층면접 대상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구분	지역	연령	성별	시설 유형	최종학력	전공	자격	근무 경력
1	서울	43세	여	국공립	대학원졸	유아교육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12년
2		41세	여	국공립	대학원졸	유아교육	보육교사 1급 시설장	14년
3		50세	여	민간	대학원졸	아동복지	시설장	29년
4		39세	여	가정	대학원졸	사회복지/ 아동복지	시설장 사회복지사 1급 유아교육 1급	13년
5	경기도	49세	여	국공립	대학원졸	유아교육	시설장	12년
6		42세	여	국공립	대학원졸	유아교육	시설장	4년
7		52세	여	민간	대학원졸	유아교육	시설장	27년
8		53세	여	가정	대학원졸	사회복지	유치원 원감 시설장 사회복지사 1급	17년
9	대구	53세	여	국공립	대학원졸	유아교육/ 사회복지	시설장	28년
10		45세	남	국공립	대학원졸	유아교육	중등교원 2급 유치원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13년
11		50세	여	민간	대학교졸	사회복지	시설장 보육교사 1급	14년 4개월
12		47세	여	가정	대학원졸	사회복지 /교육학	시설장	16년

녹음한 파일을 전사한 후 분석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개선 방안,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의 실태와 개선에 대한 견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 연구진 구성 및 해설서 작성

보육관련 학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운영하여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의 적용을 위한 해설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였다. 연구진 회의 및 부처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표 1-3-3〉 연구진 구성

역할	연구진	소속
연구총괄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문헌정리, 총괄 영역	김진경	
심층면담 실시 및 분석	유해미	
문헌 고찰, 심층면담 실시	조혜주	
총괄영역	김명순	연세대
	서영숙	숙명여대
	이완정	인하대
	한유미	호서대
	나종혜	한남대
기본생활	이영환	전북대
	김혜금	동남대
신체운동	이미정	여주대
	오연주	대림대
사회관계	황혜정	경기대
	서소정	경희대
의사소통	성지현	성균관대
	이유진	삼육대
예술경험	황옥경	서울신학대
	최혜영	창원대
자연탐구	김선영	명지대
	박진옥	동원대

라. 자문회의 개최

표준보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을 포함하여 보육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등 보육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및 이를 위한 해설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표준보육과정 개요

표준보육과정 개요로 먼저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 표준보육과정 구성 특성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과정은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신체운동 및 기본생활 영역이다. 각 영역은 인간의 5개 발달영역인 사회, 언어, 인지, 정서, 신체발달 영역에서 밝히고 있는 연령에 적합한 내용과 그 영역에서 영유아가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본생활 영역은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에서 결정적인 영유아의 건강, 안전, 영양 및 예절과 질서 등을 내용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각 영역은 연령집단별로 구분되어 있다. 연령집단은 2세 미만 영아, 2세 영아, 3-5세 유아의 세 연령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은 연령별로 목표와 내용이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2세 미만부터 5세까지의 보육목표와 내용이 어떻게 계열성 있게 경험되도록 기술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목표와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관계의 2세 보육목표와 내용, 의사소통의 2세 보육목표와 내용 등과 같이 각 영역의 연령 부분을 분리하여 재조직할 수 있다.

셋째, 각 연령집단내의 보육내용은 1-3수준까지 세분화하였다. 수준이란 연령, 발달, 개인차를 포함한 의미이다. 표준보육과정의 2세 미만 보육내용은 3수준으로 되어 있고 2세 보육내용은 2수준, 3-5세 보육내용은 3수준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4세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3-5세 보육 내용의 2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여 빠른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3-5세 보육내용의 3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3-5세 보육내용을 다시 연령별로 분류하기보다는 융통적인 사용을 위해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한편 연령별 보육내용을 다시 수준별로 구분하여 보육교

사들이 자신이 맡은 연령 집단의 보육목표와 내용에 대한 수준을 명확히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보육교사를 위한 연령집단별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영유아를 위한 연령별 보육목표와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위한 연령집단별 지침이 함께 제시된 것이 표준보육과정의 특징이다. 지침에는 해당 연령에서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유아의 발달적 지식, 물리적 환경 구성방법, 지도방법, 지도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의 비교

1) 구성체계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체계를 비교하면 <표 II-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점은 유사하나, 표준보육과정의 총론에는 구성방침이 빠져 있고, 유치원교육과정 총론에는 구성체계, 내용, 운영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좀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맞게 구성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II-1-1〉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총론구성 비교

구성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성격	○	○
구성체계	○	-
추구하는 인간상	○	○
목적	○	○
목표	○	○
내용	○	-
운영	○	-
구성방침	-	○
편성·운영지침	○	○
교수학습방법, 평가	○	○

2)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표 II-1-2>와 같다.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의 ‘가. 자율적인 사람’은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나. 창의적인 사람’은 ‘나.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다. 민주적인 사람’은 ‘다.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과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유사하다. 그리고 표준보육과정의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과 유치원교육과정의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르지 않다.

〈표 II-1-2〉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가. 자율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나.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마.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3) 목적 및 목표

두 교육과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유아의 심신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을 도우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에는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고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더 서술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II-1-3 참조).

〈표 II-1-3〉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의 목적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유치원 교육은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과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의 목표의 차이점은 그리 크지 않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이 고시되어 있는 반면,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이 고시되어 있다. 즉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 영역을 따로 제시하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들에 대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대상인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1-4〉 표준보육과정과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의 목표

구분	표준보육과정의 목표	유치원교육과정의 목표	영역
기본 생활	건강하며 안전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생활습관을 기른다.	건강 생활
신체 운동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능력을 기른다.		
사회 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회 생활
예술 경험	자연과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표현 생활
의사 소통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생활 습관을 가진다.	언어 생활
자연 탐구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탐구 생활

표준보육과정과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의 목표에서 공통 어휘를 찾아보면 건강한 몸, 바른 습관, 더불어 사는 태도, 언어능력, 바른 언어생활습관, 창의적 표현, 호기

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 등이다. 두 교육과정 모두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관련된 어휘들로 목표가 진술되어 있어,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I-1-4 참조).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영역의 수준별 비교는 부록에 수록하였다(부록 1 참조).

4) 운영 등

표준보육과정의 보육일수는 연중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에는 <표 II-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교육 일수를 180일, 하루 교육 시간은 180분을 최소 기준으로 하되 지침과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구체적으로 종일제 운영을 위한 수업 일수 확대 운영가능 지침을 제시하고,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 다양한 교육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교육인적자원부, 2007a) 유치원도 보육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서의 교육시간 운영의 다양성은 계속해서 두 기관 간의 논의의 여지로 남아 있다.

〈표 II-1-5〉 표준보육과정과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 영역과 시간

구분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일수	· 연중	· 연간 180일 이상
운영시간	· 종일제를 기본으로 연장보육, 시간제 등 다양하게 운영	· 하루 교육시간은 최소180분을 기준, 시·도 교육청의 지침과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2. 선행연구

2004년 1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하여 정부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2007년 1월에 고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표준보육과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표준보육과정과 기타 교육·보육과정과의 비교연구들도 살펴보았다.

가.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전 연구

2007년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표준보육과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들이다. 보육시설의 급증에 따라 보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전환만 큼이나 현장의 요구도 다양해졌고, 그 중의 하나로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표준보육과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유희정 등(2003)은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에서 여섯 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는데, 유형별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실제적인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적한 바 있다. 보육시설의 수가 2003년 현재 2만 개소를 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표준보육과정’개발이 요구된다는 점, 2002년 연령에 기초한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보육과정의 보완 및 확산을 위해 후속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표준보육과정’의 후속작업으로 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의 실제’가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3~2004년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아보육, 시간연장 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과정의 실제’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사회를 이용한 연계활동 개발 및 양성 평등 교육활동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끝으로 각각의 보육과정은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문희(2004)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영·유아보육 법령·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보육과정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아동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일관성 있는 보육의 방향 및 가치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과정은 보육과정령으로 따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임명희(2004)의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보육과정 개발 연구’에서는 보육계에 등장하고 있는 현안 과제로서, 표준보육과정 제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당위성을 살펴본 바 있다. 연구결과, 보육시설의 보육과정이 국가적 표준보육과정으로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보육을 하는 시설장 및 교사들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그 지침이 되는 과정령이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제정함에 있어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과정을 그 기저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미경(2005)도 ‘표준보육과정의 제정을 위한 보육과정의 개념 및 구성요인에 관한 고찰’에서 보육과정에 대한 개념 정

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반응적 보육과정을 제안하고 반응적 보육과정의 구성요소 및 내용 선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반응적 보육과정이란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학습방법을 고려하여 아동의 흥미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보육과정으로, 이를 근거로 제시한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나.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후 연구

정부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 고시하여 2008년부터 보육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현장 적용률이 높지 않았다.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후 연구들을 표준보육과정 사전경험, 표준보육과정 운영실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프로그램,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 표준보육과정 운영시 장애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표준보육과정 사전경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 정을순(2007), 이효순(2008), 이훈희(2008), 한순화(2009, 서진경(2009) 등이 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준보육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보육현장에서 보육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험·이해·실시정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보육교사의 사전경험은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경험과 이해정도가 표준보육과정 실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서진경, 2009; 이훈희, 2008; 정을순, 2007). 이는 표준보육과정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먼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홍보 및 교사 교육 강화, 표준보육과정 전달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 적용 실태를 연구한 이효순(2008)은 설립주체 유형별 직장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다수가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김나경(2008)의 연구에서도 만 2세 영아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있어서 교사의 인식과 실재를 비교하여 교사의 실재는 인식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보육과정 영역에서 기본생활 영역을 가장 잘 실시하고 자연탐구영역은 가장 낮은 인식과 함께 잘 실시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운동 영역에서 교사의 인식과 실제 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알고 이에 맞게 진행하는 것에 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교수방법 및 기술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한다.

반면 한순화(2009)의 연구에서는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연령별 표준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를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표준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 활용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개인적, 정보적, 결과적 관심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연수 및 워크숍을 경험한 후에는 교사의 관심이 협력적, 대안탐색의 높은 단계로 변화되었다. 이는 관심의 단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사연수가 필요하며 적절한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2009년에 조사된 연구의 표준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는 2007·8년 조사된 관심도보다 높게 나와 표준보육과정 실행이 진행됨에 따라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감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교사의 경력, 학력, 보육시설 유형, 평가인증 여부 등이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이 높은, 즉 5년 된 교사가 1년 미만, 1-5년된 교사보다 이해정도가 높았으며(이동률, 2008; 이훈희, 2007; 정수미, 2009), 학력이 높은 교사인 경우 이해도가 높았다(정수미, 2009). 반면 이한은(2008)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들어보거나 읽어보거나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사전 경험도는 교사의 경력과 학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 유형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국공립과 직장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이해정도가 높으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이한은, 2008; 이훈희, 2008; 정수미, 2009). 또한, 표준보육과정 내용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는 보육과정의 구성의 포괄적 부분, 즉 영역구성, 연령집단, 연령집단별 수준 등은 이해하는 편이나 교사지침, 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및 방법 등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은, 2008; 이훈희, 2008; 정수미, 2009).

최근 2010년에,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된 ‘표준보육과정과 보육 프로그램 활용 및 효과 분석’에서 서영숙 등은 시설장과 교사의 표준보육과정 활용 및 효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다(56.9%)’와 ‘잘 알고 있다(26.1%)’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3.0%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육시설의 시설유형, 평가인증 통과, 직위, 학력, 경력과 같은 일반적 배경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

는데, 직장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진행 중인 시설과 통과된 시설이, 시설장이, 대학교졸과 대학원졸이, 경력이 높을수록 표준보육과정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시설장이 교사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서 영유아를 직접 보육하며 적용해야하는 교사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가 89.1%로 나타나 다수의 시설장과 교사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기관은 보수교육기관과 보육정보센터가 77.1%로 비중이 높았고 어린이집 내부 연수도 24.4%로 나타나 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보육시설의 여건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많이 도움이 되었다'에 48.7%가 응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보수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를 '적용사례 교육 부족(32.6%)', '교육시간 불충분(21.7%)', '이론이해 부족(18.5%)', '적용여건 미비(18.3%)'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통과 시설의 경우에는 '사례교육 부족'을, 평가인증 진행 중인 경우 '교육시간 불충분', 미신청·미통과 시설인 경우 '적용여건의 미비'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보육시설의 상황과 교사의 여건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충분하고 상세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등 보육시설의 요구에 맞게 다각적으로 교육연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표준보육과정 운영실태

보육계획안에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훈희(2007)의 연구에서는 약 75%가 반영하고 있으며, 정수미(2007) 연구 또한 71.5%로 전체적으로 반영률이 아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한은(2008)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3.16, 이동률(2008)의 연구에서는 20점 만점에 13.32으로 평가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별 실시정도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에 따라서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순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자연탐구나 예술경험의 적용실시에 가장 어려움을 보였다(이한은, 2008; 정수미, 2009). 계획된 보육과정의 적용시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활동자료와 교구의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수미, 2009). 또한 전체적인 활용도나 하위 6개 영역인

이론적 근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자료, 평가전반에 걸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사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대상 연령과 보육교사 학력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활용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수미, 2009; 한순화, 2009).

구체적인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 실시와 보육활동(일과운영)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었다.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과 설립연도가 오래된 어린이집에서 전반적인 표준보육과정의 긍정적인 적용 실태를 보인 반면,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적용은 미흡한 것으로 도출되었다(이효순, 2008; 정수미, 2009; 정을순, 2007; 한순화, 2009). 표준보육과정에 준하는 보육계획에 대한 결과로 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근무교사의 계획안 작성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교사의 개인변인(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과정을 계획시 보육과정에 대한 보육목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순, 2008; 정수미, 2009).

또한, 구수연·최대훈(2009)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보육과정 계획에 있어 보육교사들은 '유아교육 월간지'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참고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만 2세 미만 영아보육에서의 표준보육과정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김경미, 2009), '영아에게 충분한 개수의 놀잇감이나 활동자료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영숙 등(2010)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이 보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는 '6개 영역을 고려한 균형있는 보육활동'을 하게 된 것과 '연령에 적절한 보육활동을 제공'하게 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효과는 '평가인증 준비에 용이하다'는 것과 '보육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외적 인식제고와 공보육의 성격강화'는 낮게 나타났다. 표준보육과정이 부모나 실습생과 같은 관련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보육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이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7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표준보육과정의 보급 및 적용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 90.6%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표준보육과정에서 의도한 보육목적, 보육내용 및 활동, 보육방법, 보육평가가 보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이 의도하는 바와 실행되는 보육과정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을 밝혔다(서영

회, 2008).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인식 부족은 그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시 보육현장에서 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성공적인 표준보육과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교사의 자질 향상을 기본전제로 해야함을 시사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실제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모르지만 활동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면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박지영, 2009).

3)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표준보육과정을 보육활동이나 보육프로그램에 반영한 현황을 분석한 연구로는 박애경(2007), 황인주(2008), 강보라·이숙재(2009), 조희진(2009), 김숙자·김희경(2009) 연구 등이 있다. 먼저 박애경(2007)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교사와 유아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져야 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교육 내용, 범위와 방법, 주제에 따른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미생물, 식중독, 개인위생, 식품첨가물,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식품 및 식기 취급, 환경호르몬 등을 영역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교육내용, 활동목표, 활동명, 활동유형, 그리고 활동자료로 구성하였다.

또한, 영아반 보육프로그램에서 표준보육과정의 반영 실태를 파악한 황인주(2008)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표준 보육프로그램의 만 2세 영아 음악 경험인 노래 부르기과 동작활동이 음악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음악적 개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고, 듣기활동과 악기활동이 적어서 다양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활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리와 악기에 대한 탐색과 연주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강보라·이숙재(2009)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예술 경험 영역에 제시된 영아 음악활동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영어음악활동 실재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영아 음악활동에서 표준보육과정은 보통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는 '예술적 표현'영역을 가장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심미적 탐색', '예술 감상'활동 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희진(2009)은 '표준보육과정에 나타난 전통문화교육'에서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 영역별 내용에 있어서 전통문화와 관련한 내용이 빈약함을 지적하였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가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전통문화 분류영역별, 수준별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육 기회를 높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숙자·김희경(2009)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에 나타난 경제 관련 개념 분석'에서 여성가족부가 2007년에 발행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총 7권 중 3·4·5세 보육프로그램 총 3권에 나타난 경제관련 개념을 분석하였다. 보육프로그램의 연간주제에 나타난 경제관련 개념을 분석한 결과, 3·4·5세 보육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로 나타났으며, 경제관련 개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연간주제는 3세 보육프로그램에서는 '우리의 이웃', 4세는 '우리 동네', 5세는 '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해경·오숙현(2009)의 '표준보육과정 보육프로그램 과학관련 활동 내용 분석: 만 3, 4, 5세를 중심으로'에서, 표준보육과정 보육프로그램에 수록된 과학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과학 관련 활동은 5세가 가장 많았으나 활동목표가 과학과 관련없는 경우가 3, 4세는 17.95%, 5세는 18.18%로 나타났다. 목표영역에 따른 분류의 경우, 4, 5세 모두 과학적 탐구에 해당되는 목표가 많았고, 하위영역 중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에 해당되는 목표가 많았다. 활동자료는 3, 4세의 경우 '기본도구'가 가장 많았고, 5세는 '물체와 물질의 특성 및 움직임과 관련된 도구'가 가장 많았다. 보육프로그램에 제시된 교사의 언어형태 및 교수법은 연령별로 발달적 특징 및 수준을 고려한 것임을 밝혔다. 김정원과 김유정(2007)의 연구에서는 4점 척도에서 2세 미만의 경우 수학적 탐구영역의 수량지각하기 2.71점과 비교하기 2.96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3점 이상으로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육과정으로 기본생활, 자연탐구영역을 제외한 3점 미만의 낮은 적절성 평가를 받은 내용도 적지 않았다.

4)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훈희(2007)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1.1%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96.6%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한 경우, 지역 보육정보센터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보육시설연합회, 학회, 세미나 순이었다. 연수시 표준보

육과정 영역별 구체적 보육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67.3%), 교사지침(20.2%),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6.5%), 운영평가(5.4%) 순이었다. 이동률(2008)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 연수실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97.5%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선호하는 시간대는 사이버, 평일야간, 평일주간 순이었다. 박지영(2009)의 연구는 가정보육 시설 영아반 교사의 대부분이 표준보육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나(76.9%), 관련 교육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육시설 근무 영아교사들의 경우, 일일보육계획안 작성 비율이 낮았고, 주로 영유아 관련 잡지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육계획에 활용하고 표준보육과정 활동자료를 주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사이버 강의나 평일 오후 시간대를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방법은 강의와 현장견학, 현장사례발표가 적절하며 총 연수시간은 1일 8시간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박지영, 2009; 정수미, 2009). 표준보육과정 현장적용 방안 연구(김영명, 2007)에서는 현직교육과 직전교육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 정도와 각 보육시설의 특성이나 여건, 피교육자의 교육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연령별, 수준별 보육에 대한 교육, 보육 원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시설에서 실제 적용해 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학습이야말로 표준보육과정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성낙영(2008)은 취업모의 0세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0세 영아반 교사의 전문적 교육 지원과 0세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영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 표준보육과정 운영관련 장애요인

영아보육에서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시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성낙영(2008), 이한은(2008), 최영미(2006)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이한은(2008)에 의하면 표준보육과정 실행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업무량 과다'를 들었고, 다음으로 '내면화할 시간 부족', '자원인사 미비', '충분한 계획 활동 부족', '현직 연수 및 워크숍 등의 교사교육 부족'과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보육관련 지침서들에 더 익숙함' 등으로 나타났다.

최영미(2006)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표준보육과정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의 부족, 얻고자 하는 정보가 미흡하여 적절한 표준보육과정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또한 종일제 보육활동으로 인한 시간부족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71.1%), 96.4%의 교사가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사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반영한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육의 확대 방안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이훈희, 2007). 또한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육에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별 구체적인 보육내용에 대한 지침이라고 응답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이 구체적인 보육내용의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준보육과정 적용시 장애요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보육활동을 위한 교재교구부족, 교사들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부족, 시설장의 인식 및 지원부족, 교사의 전문지식 및 실행경험 부족, 교사의 소극적 연구태도 및 노력부족 등이었다(이동률, 2008; 이훈희, 2007; 정수미, 2009).

또한, 표준보육과정이 자칫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시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 표준보육과정과 기타 교육·보육과정 비교

1)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비교한 연구로는 지성애(2008), 신화식·박진옥(2008), 이석순(2007) 등이 있다. 먼저, 지성애(2008)는 영유아교육·보육 과정의 동향을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교육·보육과정,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지역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유·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의 통합화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또한, 신화식과 박진옥(2008)은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목적 및 목표, 영역과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준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지역화 명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영유아가 어느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든 모두 초·중학교에 들어가므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 교육

과정에는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므로,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석순(2007), 노은호(2008)는 유치원교육과정과 보육과정 비교를 통하여 이들의 관련법과 행정조직이 다르나 편성운영체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가 매우 유사하게 기술되었고, 편성·운영 지침 역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용의 구성 체계는 매우 유사하며, 교수학습방법, 평가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표준보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과 각 기관의 실정, 유아에 대한 적합성, 교사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단위 보육과정에 대한 세부적 지침과 절적인 보육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표준보육과정과 일본 보육소보육지침

한국의 표준보육과정과 일본 국가수준 보육과정에 해당되는 ‘보육소보육지침’을 비교한 오연주(2007)는 두 보육과정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에 맞추어 능력 및 태도의 관점에서 연령과 수준별로 구조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달 목표에 대한 진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일본 보육소보육지침은 보육소의 가정양육의 보완적 역할을 분명히 기술하면서 유아 주체적 활동에 바탕을 둔 보육자의 보조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진술하였으며, 내용 체계는 연령을 세분화하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서술하는 성숙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은 6개 내용영역에 여러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어 보육과정 구성의 체계성이나 수준별 활동 내용의 세분화는 보육소보육지침에 비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영아기의 빠른 발달 시기인 0세부터 2세 미만을 하나의 연령 그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보육소보육지침과 같이 연령의 세분화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박진옥·최순자·윤매자(2007)도 보육과정의 법적 근거, 보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 영역, 내용, 운영 및 평가지침을 준거로 비교하였다.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아를 위한 연령 세분화와 내용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일본의 경우 3세 이상 연령은 유치원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가지고 개정되어 시행됨을 참조하면

서, 유치원교육과정과의 상호연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도 아동권리 입장에서 영유아가 어느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든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교육내용을 가지고 보육·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초·중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과정의 보급과 운영 실천면에서 교사용 지침서의 조속한 개발 및 보급과 한국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보육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준보육과정에 장애아 보육, 연장보육, 야간보육에 대한 항목이 일본 보육소보육지침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사용 지침서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3. 시사점

첫째, 보육교사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경험 및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와 시설장들은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으나 교사지침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적용·활용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 유형, 교사의 개인 변인(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과 관련된 인쇄물, 파일, 동영상 CD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 보급을 담당하는 전달 체계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강화하여서 표준보육과정 보급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하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와 선호 시간대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이나 각 보육시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나 대학, 연합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 하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 유형, 교사경력 등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차별화를 둔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육기간이 적고 보육경험이 적은 교사,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강의중심의 대집단 교육보다는 보육시설 유형, 교사경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며 다양한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보육과정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재·교구의 부족을 해소하고 시설장과 교사의 전반적인 보육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재교구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건으로는 '활동준비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보육과정이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활동 준비 시간 확보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재 보육여건에서 표준보육과정의 보급과 적용의 확대는 교사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실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교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할애하지 않고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육과정의 운영과 평가인증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표준보육과정이 평가를 받기 위한 한시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체계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평가인증 과정이 진행 중인 시설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통과된 시설, 미신청·미통과 순이었다. 즉, 평가인증에 대한 준비가 표준보육과정 인지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평가인증시 표준보육과정의 수행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표준보육과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서영숙, 2010). 그러나 장기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안정적이며 적극적 보급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보를 주는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표준보육과정의 정착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I. 외국의 유아교육과정

외국의 유아교육과정으로 영국, 일본 호주,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영국의 유아교육과정

가. 영국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개요

영국의 교육개혁법 1988(the Education Reform Act 1988)과 함께 5~16세 아동들을 가르치는 모든 학교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만들었다. 1999년 영유아기 학습목표(Early Learning Goals)를 설정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전에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단계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에 근거하여 영국은 2007년에 0~5세로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 EYFS(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개발하였다. 그 후, 2008년 5월에 개정된 EYFS가 소개되었다.

EYFS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보육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Under 8s Daycare and Childminding),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Birth to Three Matters),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 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을 대체한다. EYFS는 '연속성'을 강조하며, 모든 만 5세 이하 아동이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교원자격 및 교육과정 관리국(QCA)에 의해 개발되었다. EYFS는 시범적으로 시행된 후,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모든 ECEC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YFS의 목적은 안전(Staying safe), 건강(Being healthy), 즐거움과 성취(Enjoying and Achieving), 긍정적인 기여(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제적인 안정(Achieving economic well-being)의 다섯 가지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나. EYFS의 기본 원리

EYFS 원리는 모든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네 가지 구별되면서도 상호보

완적인 주제들로 집단을 구성할 것을 지도한다. 이 지침들은 유아교육자들이 아동의 발달, 학습과 보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 이 네 가지 지침은 각각 네 가지 책무에 의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원리로 자세히 기술된다.

1) 아동의 고유성(A Unique Child)

출생 때부터 아동이 유능한 학습자라고 인식한다. 아동은 탄력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자신감 있는 존재이다.

가)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아동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비율(속도)로 발달한다. 발달의 모든 영역(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은 똑같이 중요하다.

나) 포괄적인 실제(Inclusive Practice)

개인과 사회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아동도, 어떤 가족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안전(Keeping Safe)

어린 아동은 상처받기 쉽다.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이 성인에 의해 보호받을 때, 탄력성을 지니고 발달한다.

라) 건강과 안녕(Health and Well-being)

아동의 건강은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안녕의 통합이며, 그러한 측면들에 집중함으로써 지켜야 한다.

2)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s)

아동은 부모 등 중요한 사람과의 안정되며 애정어린 관계에 있을 때 독립적이고 강인해진다. 아동이 부모 및 중요한 인물들과 안정애착을 이룬 것에 기반하여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가) 상호존중(Respecting Each Other)

모든 상호작용은 능숙한 관계와 아동과 가족을 존중하는 느낌에 기초한다.

나) 동역자로서 부모(Parents as Partners)

부모는 아동의 첫 번째이며 가장 지속적인 교육자이다. 초기에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다.

다) 학습 지지(Supporting Learning)

지식있는 성인들 간의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는 어떤 다른 원천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아동의 학습을 지지한다.

라) 중요인물(Key Person)

중요한 사람은 적은 수의 아동과 활동하는데 특별한 책임감을 가진다. 그들은 아동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안심시키고 부모와도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3) 학습 촉진 환경(Enabling Environment)

환경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지하고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관찰, 평가와 계획세우기, 각 아동을 돕기, 학습하는 환경, 보다 넓은 맥락-전이, 지속성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가) 관찰, 평가와 계획(Observation, Assessment and Planning)

어린 영아는 처음에 독특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다. 스케줄과 일상온 아동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아동의 현재 관심, 발달과 학습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은 아동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 모든 아동 지지(Supporting Every Child)

환경은 도전을 주고 성취할 만한 활동들과 계획된 경험들을 통하여 모든 아동의 학습을 지지한다.

다) 학습 환경(The Learning Environment)

풍성하고 다양한 환경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지지한다. 안전하지만 도전을 주는 실내외 공간에서 아동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하고 탐험하는데 기여한다.

라) 폭넓은 맥락(The Wider Context)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련된 성인들이 아동의 발달과 진보를 지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4)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

아동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속도로 배우고 발달하며, 학습과 발달의 모든 영역은 똑같이 중요하며 서로 관련이 있다. 아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 개별적인 속도로 발달하고 학습한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학습과 발달이 동등하게 중요하며, 이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가) 놀이와 탐구(Play and Exploration)

아동의 놀이는 폭넓고 다양한 흥미와 심취를 반영한다. 놀이에서 아동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학습한다. 또래들과의 놀이는 아동 발달에 중요하다.

나) 활동적인 학습(Active Learning)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도전들을 통해 가장 잘 배운다. 활동적인 학습은 다른 사람, 사물, 아동을 포함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아동이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생각하며 놀이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관련성을 발견하고, 새롭고 더 탁월한 이해수준으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인의 지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창출하는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 학습과 발달 영역(Areas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YFS는 6개 영역의 학습과 발달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과 발달의 모든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똑같이 중요하다. 학습과 발달의 모든 영역은 EYFS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 EYFS의 구성요소와 영역

1) EYFS의 구성요소

EYFS은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에 근거하여 학습목표, 교육프로그램, 평가계획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목표는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해에 습득해야하는 지식, 기술, 이해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이 배워야하는 내용, 기술, 과정이다. 또한 평가계획은 아동의 특정한 성취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이다.

2) EYFS의 영역

초기의 학습 목표는 EYFS의 끝에 모든 아동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이것들은 EYFS의 과정에 걸쳐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YFS가 끝나갈 때쯤에 어떤 아동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다른 아동은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여전히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거나 학습 장애가 있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 그렇다. 초기의 학습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동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Practice Guidance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이다. 아래에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과 발달의 여섯 개 영역에서 각각 아동이 도달해야하는 학습 목표에 따른 것이다. 교원자격 및 교육과정 관리국(QCA)은 Practice Guidance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개발하여 6개 교육과정 영역별 학습목표에 대해 안내하고 아동들이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및 평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YFS는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의사소통, 언어와 문해(communication, language and literacy), 문제 해결, 추론과 수개념(problem solving, reasoning and numeracy),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신체발달(physical development), 창의성 발달(creative development) 6개 학습 영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여섯 가지 영역은 다른 영역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이수될 수 없다. 모든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는 영역 간에 서로 지지를 해야 한다. 이 모든 영역은 미리 계획되고 의도적이며 성인이 주도하는 것과 아동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가)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은 영유아교육기관이 영유아들에게 스스로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긍정적 자아감을 발달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들의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효과적으로 이뤄나가도록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격려를 준다.

나) 의사소통, 언어와 문해

의사소통,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은 학습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해 유능감을 개발시켜주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이 담긴 광범위한 책을 읽고, 간단한 교재를 이용해서 읽고 쓰는 활동을 포함한다. 영유아들의 의사소통, 언어와 문해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발달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조기판별을 한다.

다) 문제해결, 추론과 수개념

문제해결, 추론과 수개념은 핵심적인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자신감과 유능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이 영역의 학습은 세기, 분류, 연결, 모양찾기, 연결하기, 관련성 인식과 수, 모양, 공간과 측정에 대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수학적 이해는 동화, 노래, 게임과 상상놀이 등 다양한 실험적 활동들을 통해 영유아들이 즐기면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의 학습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연계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자연에 대한 학습에서 지식, 기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 학습은 과학, 디자인, 기술, 역사, 지리,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기초를 제공한다. 영유아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탐구, 관찰, 문제해결, 예측, 비판적 사고 등이 가능하다. 또, 성, 종족, 언어, 종교와 문화, 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 신체발달

다섯째, 신체발달은 협응, 조절, 조작과 동작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전활동을 제공하고,

활동실행을 위한 충분한 실내외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과 교재, 교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독립성을 증가시키도록 격려한다. 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물리치료사와 직업적 치료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바) 창의성 발달

창의성 발달은 성공적인 학습에 근본적인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유아들이 학습의 각 영역들을 연결하여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영역의 학습에는 미술, 음악, 무용, 역할극과 상상놀이가 포함된다. 영유아들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한 환경과 활동을 조성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평가

1) EYFS 과정 중의 평가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학습과 발달 과정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평가자들은 교사가 아동을 관찰하며 적절하게 반응하여 아동의 초기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 지원받아야 한다. 평가는 아동이 일상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교사의 관찰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양한 학습 맥락에서 수집된 관찰 증거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성인 및 부모가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EYFS를 위한 실천 지침은 형식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지침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체계적으로 관찰을 하고 각 아동의 성취, 흥미 및 학습 유형을 평가해야 한다. 교사의 평가 및 관찰을 통해 학습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개별 아동에게 적합하고 이들에게 내적 동기화를 하도록 하는 학습 계획을 짜야 한다.

2) EYFS 후의 평가

EYFS 후에 개별 아동의 발달과 학습 성취를 종합하는 방식이다. 이는 6가지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 및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각 아동의 발달 수준이 각 학습 목표로부터 도출된 13개의 평가 지표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EYFS의 마지막 해에 어떤 아동들은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고 많은 교사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EYFS의 작성은 아동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관의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특별한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평가 지표 및 필요조건보다 낮은 수준에서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안적인 평가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아동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체계를 사용한다.

EYFS 끝에 아동이 EYFS의 13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규제는 Childcare Act 2006의 Section 99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정책 제공자들은 EYFS Profile을 감시하고 중재하는 의무가 있다. 이들은 여러 유아교육기관에 걸쳐서 평가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들이 기록물의 일부 또는 EYFS 프로파일 및 평가와 관련된 다른 문서를 가지고 가서 평가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평가자들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중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자들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관이 합리적인 이유로 EYFS 프로파일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2. 일본의 교육과정

가. 일본 국가수준의 영유아 교육과정의 목적 및 이념

일본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요령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내용이다. 교육기본법(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 120호)에 제시한 교육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일본 교육의 목적은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1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목적과 목표 아래 “영유아의 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인격형성의 기초를 기르는 중요한 것임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양호한 환경의 정비와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그것의 진흥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교육기본법 제 11조)라고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 및 그 이후 교육의 기초를 배양하는 곳으로, 유아를 보육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교육법 제3장 유치원 제22조). 제 22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23조에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을 기르고 신체 모든 기능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것.
- 집단생활에 즐겁게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동시에, 가족과 주변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주·자율·협동의 정신과 규범의식이 싹트도록 키울 것.
- 주변의 사회생활과 생명 및 자연에 대한 관심을 키워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 및 사고력이 싹트도록 키울 것.
- 일상의 회화나 그림책, 동화 등에 친숙해짐으로써, 언어의 사용법을 올바르게 이끌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키울 것.
- 음악, 신체에 의한 표현, 조형 등에 친숙해짐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표현력을 배양할 것.

유치원은 유아기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보호자 및 지역주민 그 밖의 관계자들로부터 상담에 응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한다(제23조). 또 사회에 대한 책임규정도 있다(제24조). 유치원 입원대상자는 만 3세에서 소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제26조). 교육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39주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있다(제37조).

나. 유치원 교육요령에 나타난 영유아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유치원 교육요령은 제1장 총칙에 제1 유치원교육의 기본, 제2 교육과정의 편성, 제3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시간 종료 후에 행하는 교육활동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건강, 인간관계, 환경, 말, 표현 등 5개 영역에서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제3장 지도계획 및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시간 종료 후에 행하는 교육활동 등의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교육과정의 목표는 유치원 수료에 이르는 동안에 살아가는 힘의 기초가 되는 마음, 동기, 태도 등을 기르는 것이다. 심신의 건강에 관한 영역(건강),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인간관계),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환경), 말의 획득에 관

한 영역(말), 감성과 표현에 관한 영역(표현) 등 5개 영역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목표는 유아가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점차 달성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일본 영유아 교육과정 5개 영역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길러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건강 영역 목표와 내용은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건강 영역 목표와 내용

구분	내 용
목표	- 밝고 자유롭게 행동하여 충실감을 느낀다. - 자신의 몸을 충분히 움직여서 스스로 운동하려고 한다.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과 태도를 몸에 익힌다.
내용	-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안정감을 갖는다. -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통해 몸을 충분히 움직인다. - 바깥활동을 한다. - 여러 가지 활동에 익숙해져서 즐겁게 임한다. -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는다. - 건강한 생활리듬을 몸에 익힌다. -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옷 갈아입기, 식사, 배설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한다. - 유치원에서의 생활방법을 알고 스스로 정리한다. - 자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질병의 예방 등에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한다. - 위험한 장소, 놀이방법, 재해시의 행동요령을 알고 안전에 주의하여 행동한다.

2)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서로 도우며 생활하기 위해 자립심을 기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힘을 기른다. 인간관계 영역 목표와 내용은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인간관계 영역 목표와 내용

구분	내 용
목표	- 유치원 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에 충실감을 맛보는 것. - 주변 사람과 친해지고 애정이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 - 사회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습관이나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

내용	-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기쁨을 안다. -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면서 모든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 친구와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 스스로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준다. - 친구의 좋은 점을 알고 함께 활동하는 즐거움을 맛본다. - 친구와 즐겁게 활동하는 가운데 공통의 목적을 찾아내고 협력한다. -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 - 친구와 즐겁게 생활하는 가운데 규칙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 공동의 놀이기구나 교재, 교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쓴다. - 지역 사람 등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여러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진다.

3) 환경

주변의 여러 환경에 호기심, 탐구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것들을 생활에 적용하려는 힘을 기른다. 환경 영역 목표와 내용은 <표 III-2-3>과 같다.

<표 III-2-3> 환경 영역 목표와 내용

구분	내 용
목표	- 주변 환경에 친숙해지고 자연과 접촉하는 가운데 갖가지 현상에 흥미나 관심을 갖는다. - 주변 환경에 적극 관여하여 발견을 즐기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한다. - 주변 현상을 보거나 생각하는 가운데 사물의 성질이나 수량, 문자 등에 대한 감각을 풍부하게 한다.
내용	- 자연과 접하며 생활하여 그것의 크기, 아름다움 등을 깨닫는다. - 생활 속에서 여러 사물과 접하며 그 성질이나 구조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 계절에 따라 자연이나 인간의 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자연 등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논리를 적용한다. - 주변의 동식물에 친밀감을 가지고 접하여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소중히 한다. - 주변의 사물을 소중히 한다. - 주변의 사물이나 놀이 도구에 흥미를 가지며 실험해본다. - 일상생활 속에서 수량이나 도형 등에 관심을 가진다. -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표지나 문자 등에 관심을 가진다. -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정보나 시설 등에 흥미나 관심을 가진다. - 유치원 내외의 행사를 통해 국기에 친숙해진다.

4) 말

경험한 것이나 생각한 것 등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의욕이나 태도를 길러 말에 대한 감각이나 말로 표현하는 힘을 기른다. 말 영역 목표와 내용은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 말 영역 목표와 내용

구분	내 용
목표	-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안다.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이야기 하여 서로 나누는 기쁨을 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그림책이나 이야기 등에 친숙하게 되어 선생님이나 친구와 마음을 통할 수 있게 한다.
내용	- 선생님이나 친구의 말과 이야기에 흥미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밀감을 가지고 듣고 이야기한다. - 행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등을 자기 나름대로 말로 표현한다. - 하고 싶은 것,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모르는 것은 묻는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해서 듣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 생활 속에서 필요한 말을 알아듣고 사용한다. - 친밀감을 가지고 일상의 인사를 한다. - 생활 속에서 말의 즐거움이나 아름다움을 안다. -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미지나 말을 풍부하게 한다. - 그림책이나 이야기 등에 친숙하게 되어 흥미를 가지고 듣고 상상의 즐거움을 맛본다. - 일상생활 속에서 문자 등으로 전하는 즐거움을 안다.

5) 표현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풍부한 감성이나 표현하는 힘을 길러 창조성을 풍부하게 한다. 표현 영역 목표와 내용은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표현 영역 목표와 내용

구분	내 용
목표	- 여러 가지 것들의 아름다움 등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가진다. -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즐긴다. - 생활 속에서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즐긴다.
내용	- 생활 속에서 갖가지 소리, 색, 형태, 감촉, 움직임 등을 깨닫거나 느끼는 것을 즐긴다. -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접해 이미지를 풍부하게 한다. - 갖가지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서 감동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을 맛본다. - 느낀 것, 생각한 것 등을 소리나 움직임 등으로 표현하거나 자유롭게 써보거나 만들어본다. - 여러 가지 소재에 접하면서 생각하며 논다. - 음악에 친숙해져서 노래를 부르거나 간단한 리듬 악기를 사용하는 등의 즐거움을 맛본다. - 쓰거나 만드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놀이에 사용한다. - 자신의 이미지를 움직임이나 말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

3. 호주의 교육과정

가. EYLF(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이것은 유아교육자들을 위한 호주 최초의 국가적 수준 유아교육 체계이다. 0-5세 아동의 학습 및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호주 정부의 국회는 교육자들이 유아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미래의 학업 성취의 기초를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돕고자 이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체계는 유아기가 아동의 학습과 발달의 최적기라는 국제적인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이 체계는 아동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 및 학습이 경험되도록 기초를 제공한다.

유아교육자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들이 유엔아동권리조약의 항목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권리조약은 모든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들의 가족, 문화, 다른 정체성요소들 및 언어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아동이 놀이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다 포괄적으로 이 체계는 Melbourne Declaration on Education Goals for Young Australians의 목표 2를 지지하는데, 이것은 모든 호주의 유아들이 성공적인 학습자이고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이며 활동적이고 지식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아동의 학습에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교육과정은 상호 작용, 경험, 일과, 계획된/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다. 이 체계가 강조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인 측면이다. 아동은 다양한 범위의 경험에 수용적이다. 무엇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제외되는가에 따라서 아동이 세계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 체계는 교육과정의 의사결정이 계속 진행되는 사이클이라는 모델을 지지한다. 이것은 교육자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족과 협력하여 일 하면서 교육자들은 그들의 기준을 아동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육자들은 아동의 능력과 흥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교수 전략을 선택하며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체계는 0-5세 및 초등학교로의 전이기 동안 아동들이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 자아에 대한 강한 개념
- 아동이 세계에 연결되어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 행복에 대한 강한 감각
-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학습자인 아동
-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인 아동

나. 아동의 학습에 대한 비전

“모든 아동은 삶의 성공의 기초가 되는 학습을 경험해야 한다.” 체계의 기초는 아동의 삶이 소속감, 존재감과 변화의 특징을 가진다는 시각이다. 출생 이후로 아동은 가족, 지역사회, 문화 및 장소에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초기 발달과 학습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특별히 가족은 아동이 처음 경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자이다. 아동이 일상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흥미를 발전시키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며 세계를 이해한다.

아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구성하며, 타인의 학습에도 기여한다. 그들은

학습을 시작하고 주도하는 그들의 agency와 능력, 그리고 학습을 시작하고 주도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식한다. 아동을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의사결정자로 보는 시각은 교육자들에게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지 미리 인식된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자들은 개별 아동의 독특한 능력을 존중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자들의 실천과 교육자들이 아동 및 가족과 형성하는 관계는 아동의 학습 개입 및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가족과 교사가 협력할 때 살아남을 수 있다. 아동의 초기 학습은 그들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웰빙과 연결에 대한 강한 감각, 긍정주의 및 참여는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1) 소속감(belonging)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 즉 당신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인간 존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아동은 처음에 가족에 소속됨을 느끼고, 나아가 문화 집단, 이웃,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에 소속됨을 느낀다. 소속감은 아동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정체성을 규명하는 관계의 기초가 된다. 초기 아동기 및 전 생애에 걸쳐 관계는 소속감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소속감은 존재감과 becoming의 중심 요소인데 왜냐하면 소속감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2) 존재감(being)

아동기는 세계의 의미를 찾고 또 만들어가는 시기이다. 존재감은 아동의 삶에서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존재감은 현재,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쌓고 유지하고 삶의 즐거움과 복잡성에 관여하게 되는 동시에 삶의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 것과 관련있다. 아동기는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 자체로 중요하다.

3) 변화(becoming)

아동의 정체성, 지식, 이해, 능력, 기술 및 관계는 아동기에 걸쳐서 변화한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사건 및 상황에서 형성된다. 변화는 이러한 과정의 빠르고 의미심장한 변화들을 반영한다. 변화는 학습이 사회에 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을 강조한다.

다. 원리

1)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적인 관계

아동의 사고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유아교육자들은 유아의 학습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연구들은 영아가 취약한 동시에 유능하다고 밝힌다. 영아가 가족 내에서 이루는 첫 번째 애착 및 다른 관계에서 형성하는 신뢰는 탐색 및 학습의 안전한 기지가 된다. 안정적인 관계망을 넓히기 위하여 아동은 자신감을 발달시키고 존중받고 가치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2) 동반자 관계

학습의 결과물은 유아교육자들이 가정과 동반자 관계에서 일할 때 성취된다. 유아교육자들은 가정이 유아의 가장 첫 번째가 영향력 높은 교사라는 것을 인식한다. 교육자들은 아동과 가족이 모두 존중받으며 교육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반자관계는 상대방의 기대 및 태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서로에 대한 지식을 힘으로 하여 구성된다.

3) 높은 기대감 및 형평성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는 유아교육자들은 모든 유아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 아동은 그들의 부모와 교사가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질 때 성취를 거둘 수 있다.

교육자들은 아동이 교육적 성공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에 반응한다.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발달시키고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일하면서 교사들은 점진적으로 모든 아동이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4) 다양성에 대한 존중

살아가며 존재하고 알아가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아동은 한 문화에

소속된 상태로 태어나며,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뿐만 아니라 개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얻는 경험, 가치관 및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안에서 개별 가정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교육자들은 역사, 문화, 언어, 전통, 양육방식 및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동의 서로 다른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족 간의 차이를 존중한다.

유아교육자들이 가족 및 지역사회의 다양성 및 그들의 열망을 존중할 때 그들은 아동의 학습 동기를 지지하고 아동이 자신을 유능한 학습자로 여기도록 힘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자들은 아동이 문화, 정체성, 능력이 강조되고 가치있게 여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만든다.

5) 지속적인 학습 및 반성적인 실천

교육자들은 전문 지식을 쌓고 지역사회를 알아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교육자들은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학습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지역적 지식의 연속성 및 풍부함에 가치를 둔다.

반성적인 실천은 지속되는 학습의 형태로 철학, 윤리 및 실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반성적 실천의 목적은 아동의 학습을 지지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유아교육자들은 그들의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났으며 무엇이 의해 그들이 변화되었는지를 되돌아본다. 비판적 반성은 사건 및 경험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성을 위해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개별 아동에 대해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 나의 작업을 형성하고 보조하는 이론, 철학 및 이해는 어떤 것들인가?
- 내가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유익하며 누구에게 해가 되는가?
- 나의 작업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직면하고 있는가?
- 내 작업의 어떠한 측면들이 내가 평상적으로 의존하는 이론 및 지침에 근거하지 않는가?
- 내가 경험했거나 관찰한 것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론이나 지식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이론 및 지식이 나의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 실천

유아교육의 교수법 원리는 실천을 뒷받침한다. 교육자들은 교수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풍부한 실천의 방법들을 이끌어낸다.

1) 전체적인 접근

교수 및 학습에서의 전체적인 접근은 정신, 신체 및 영혼이 연결되어 있음을 지각한다. 유아교육자들이 전체적 접근법을 취할 때 아동의 신체적, 인성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학습의 인지적 요소도 고려한다. 교육자들이 특정 결과나 학습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유아의 학습을 종합적이고 상호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유아, 가족 및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된 것을 인식해야하며 학습에서의 상호적인 관계 및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종합적인 접근은 자연세계와 연결되는 것에도 초점을 둔다. 교육자들은 유아가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하며 인간, 식물, 동물 및 환경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2) 아동에게 반응적임

교육자들은 아동의 힘, 능력 및 흥미에 반응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아동의 힘, 기술 및 지식과 학습에 대한 동기 및 개입에 가치를 둔다. 교육자들은 아동의 전문지식, 문화적 전통, 배움의 방식, 아동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 등에 대해 반응적이어야 한다.

- 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교육자의 결정과 행동이 아동의 학습을 강화시킨다.
- 교육자는 또한 유아의 아이디어 및 놀이에도 반응적이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아동의 생각 및 흥미를 반영하여 교육자들은 아동의 학습을 개방적 질문, 피드백사용 등을 통해 평가하고 기대하며 확장한다. 그들은 아동의 학습에 비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을 사용한다.

3) 놀이를 통한 학습

놀이는 아동이 발견하고 창조하며 즉흥적으로 꾸미고 상상하는 가운데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래와 어울려 놀면서 아동은 사회 집단을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며 타인의 사고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해를 쌓게 된다. 놀이는 아동이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놀이는 아동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으며 그들의 학습 동기를 높인다.

유아교육자들은 놀이의 다양한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학습을 지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아동과 대화를 공유하여 그들의 사고를 확장한다. 그리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학습을 지지하며 계속되도록 한다. 유아교육자들은 아동이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하고 구성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만든다. 교육자들은 영아 및 유아와 애착을 이루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며, 이를 위해 놀이 및 일과 활동을 활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활용한다.

4) 의도적인 가르침

교사는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적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한다. 의도적인 가르침에 개입되어 있는 교육자들은 학습이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상호작용 및 대화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교사들은 모델링, 시범보이기, 개방형 질문, 깊이 생각하기, 설명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유동적으로 취하며 맥락이 변화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략도 바꾼다.

5) 학습 환경

학습 환경은 아동 및 가족의 삶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풍부하게 하는 장소로 그들의 흥미 및 요구를 반영한다.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은 활기차고 유동적인 공간으로 개별 아동의 흥미 및 능력을 반영하는 곳이다. 학습 환경은 개별 아동의 학습 능력, 학습 방식에 맞추어 그들의 사고, 흥미 및 질문에 도움을 준다.

야외 학습 장소는 실내 학습장소가 가질 수 없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식물, 나무, 과수원, 모래, 바위, 진흙, 물과 다른 자연적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소는 자연에서의 개방적인 상호작용, 즉흥성, 위험감수, 탐험, 발견,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실내 및 실외 환경은 아동의 다방면적인 학습을 지지하고 아동, 교사 및 가족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들은 사고를 공유하고 협력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재료는 그것들이 익숙하고 자연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때 학습을 강화한다.

6) 문화적 유능성

문화적으로 유능한 교육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방법을 존중한다. 이는 교육자가 가족 및 지역사회와 이원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적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때 매일의 현장에서 가능하다.

교육자들은 가족의 문화 및 맥락이 아동의 존재 및 소속에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교육자들은 또한 아동의 문화적 유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문화적 유능성은 문화적 차이에 신경을 쓰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문화적 유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자신의 세계관을 깨닫는다.
- 문화적 차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킨다.
- 다양한 문화적 관습 및 세계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다양한 문화 간에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발달시킨다.

7) 학습의 연속성 및 전환점

전환점은 가정에서 처음에 유아교육기관으로 가는 것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데 아동에게 기회와 도전을 준다. 낯선 장소들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 기대 및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동이 이전 기관에서 경험한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며 친숙한 사람, 장소, 사건 및 이해와 연결되어 있도록 한다. 아동, 가족 및 교사는 기관 간에 성공적인 전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가족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유아교사들은 유아가 전환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유아가 앞으로 가게 될 기관의 전통, 일과 및 활동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며 변화의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유아교사들은 특히 아동이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 그들의 지위 또는 정체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이 새로운 현장으로 옮겨갈 때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의 교사는 아동의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이 기존에 쌓아올린 학습을 기초로 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아동의 새로운 교사와 협력한다.

8) 학습 평가

아동의 학습을 위한 평가는 아동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계획, 기록, 평가의 순환 고리의 일부분이다. 유아교육자들은 아동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종합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맥락 속에서의 아동의 학습을 기술하기 위하여 풍부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모으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보다 최신 접근법들은 아동의 학습전략 및 아동과 교사가 개별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구성된 학습에서의 반성적인 방법 또한 평가한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때 이러한 방법들은 학습의 성취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 체계의 다섯 가지 학습 결과는 이후에 제시되겠지만, 유아교육자들에게 아동의 성취가 파악되고 기록되며 가족 및 다른 아동 전문가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제시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교사들은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며 복합적인 생각에 몰입하고 정교한 학습 경험에 참여하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

지속적인 평가 과정은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학습의 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작은 발걸음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학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평가의 접근은 문화적, 언어적인 상대성을 취하게 된다. 평가는 또한 가족의 조력을 받을 때 가정에서 아동의 학습을 지지하고 유아교육기관 에서가 아니더라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마. 0-5세 유아의 학습 결과

0-5세 아동의 종합적인 학습과 발달을 종합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학습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에 대한 강한 감각

아동은 그들 자신에 대해 배우고 가족 및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것은 사람, 장소, 사물, 타인의 행동과 반응 등의 관계를 포함한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아동이 긍정적 경험을 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의미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개념을 발달시키게 되고 소속감을 느낀다. 관계는 정체성의 구성에 기초가 된다.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탐색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게 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아동은 그들이 받아들여지며 애착을 형성하며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될 때 소속감을 느낀다. 아동이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감과 동시에 그들은 놀이 및 상호관계를 통해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한다(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인지적).

존재감의 개념은 교육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아동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아동이 아동기에서 누려야할 즐거움의 경험을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존재감은 아동이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을 지각하고 이 세계에서 그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아동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지받고 있다고 느낀다.
- 아동은 그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탄력성 및 주체성을 발달시킨다.
-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알고, 또 자신감을 발달시킨다.
- 아동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운다.

2) 자신이 세계에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및 참여의 경험은 아동의 소속감, 존재감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출생 이후부터 아동은 다양한 범위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학습하게 된다.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며 존중받고 반응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동이 그들의 세계에서 적극적인 공헌자가 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은 또다른 관계 및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동이 타인과 연결되고 서로 참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영아는 미소, 울음, 모방, 소리내기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관심 수준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걸음마기 아동들은 몸짓언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보다 나이든 아동은 타인을 자신이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 또는 소속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

교육자들은 아동이 상호적으로 즐거우며 배려할 수 있고 존중받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이 매일의 일과, 특별한 사건 및 경험, 의사결정에 협력하고 참여할 때 상호의존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아동은 가족 및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배우게 된다.

- 아동은 집단 및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발달시키며, 활발한 공동체 참여를 위해서는 상호적인 관계 및 책임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 아동은 다양성을 존중한다.
- 아동은 공정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아동은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3) 행복에 대한 강한 지각

행복은 신체적, 심리적 상태 모두를 포함하며 소속감, 존재감과 발달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행복은 좋은 신체적 건강, 행복감에 대한 감정, 만족도 및 성공적인 사회 기능을 포함한다. 이것은 아동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행복에 대한 강한 감각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감과 긍정적 관점을 가지게 하여 그들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복은 아동의 내면적인 탐색 충동, 주체성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발달시킨다.

점점 발달해가는 탄력성과 자조기술, 기본적인 건강 생활일과 등은 아동이 독립심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한다. 아동이 교육자 및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고 돌보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동은 생활의 중요성 및 타인과 상호의존적으로 사는 방법을 학습한다. 영양, 면역, 운동, 감정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배우는 것이 행복 및 자신감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신체적 행복은 아동이 집중하고 협동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점차 독립적으로 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건강, 면역 및 자기관리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된다. 일상적인 일과는 아동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영양 상태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각 유아교육기관은 아동이 다양한 범위의 건강 음식을 경험하게 하고 음식 선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근육 및 소근육 기술에 대한 신체 활동은 아동이 독립심과 만족감을 키워가도록 한다.

- 아동은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행복 안에서 건강함.
- 아동은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 및 행복에 책임감을 가지게 됨.

4)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학습자

안정됨과 행복을 느낌으로서 아동은 새로운 생각을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들의 자신감이 발달하고 활동적으로 되며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아동은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 경험의 유아교육현장에 반영되어 있을 때 몰입하여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아동에게 연결됨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아동을 돕는 학습 환경에서 자신감 있고 몰입된 아동은 그들 자신의 학습, 개인 규제 및 사회 환경에의 공헌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서로 다른 현장에서 겪는 학습 경험 간의 연결됨과 지속성은 학습이 보다 의미있게 되도록 하고 아동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한다. 아동은 적극적이고 직접 탐색함을 통해 자신 및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켜간다. 아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학습 환경은 아동이 깊은 집중과 관심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다.

학습에서의 적극적 몰입은 아동이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생애에 걸친 학습에서 필수적이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에 도전하고 그 생각의 폭을 넓히며 협동적인 상호작용과 협상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 아동은 호기심, 협동, 자신감, 창조성, 헌신, 열의, 인내, 상상과 융통성과 같은 성향을 발달시킨다.
- 아동은 문제해결, 질문, 실험, 가설 설정, 연구 및 탐색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기술 및 과정을 발달시킨다.
- 아동은 한 맥락에서 학습한 것을 다른 맥락에 변환 적용시킨다.
- 아동은 학습을 위해 사람, 장소, 기술, 자연 및 인공 재료를 연결한다.

5) 효과적인 의사소통자

의사소통은 소속감, 존재감과 발달에 결정적이다. 출생 이후로 아동은 몸동작, 소

리, 언어 등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한다. 아동은 사고, 의견, 질문, 감정을 교환하는 것에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회적 존재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범위의 도구와 재료를 사용하는데 음악, 춤, 극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그들의 학습을 넓힌다.

아동의 모국어 사용은 정체성의 감각과 개념 발달의 기초가 된다. 아동은 자신의 언어, 상호작용 유형 및 의사소통 유형이 가치 있게 여겨질 때 소속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존중받으면서 표준 호주 영어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문해능력은 언어를 여러 유형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자신감과 성향이다. 문해는 말하기, 듣기, 보기,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언어, 동작, 극, 이야기, 시각미술, 대중매체와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산술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과 성향이다. 아동은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수학적 이해를 할 수 있다. 아동의 수학적 발상은 그들의 현재 생활의 맥락과 관계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자들이 아동의 수학적 발상과 산술 능력의 발달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풍부한 산술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공간 감각, 구조와 유형, 수, 측정, 자료를 통한 논증, 연결, 등은 아동이 산술 능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 아동은 다양한 범위의 목적에 대해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한다.
- 아동은 다양한 문서를 읽고 이로부터 의미를 찾아낸다.
- 아동은 다양한 범위의 매체를 사용하여 발상을 표현하고 의미를 만든다.
- 아동은 상징 및 유형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 아동은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한 발상을 시도하며 그들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하여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한다.

4. 시사점

외국의 교육과정을 통해 시사받을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법적 근거 하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거점 전달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전달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07년 0~5세 영유아기 교육과정인 EYFS를 개발하여, 모든 만 5세 이하 아동이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교육자격 및 교육과정

관리국(QCA)이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기반여건을 마련하였다. 또, 일본의 경우,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기본법(2006년)을 기초로, 유치원교육의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간 종료 후에 행하는 교육활동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호주의 EYLF도 호주 최초의 국가적 수준 유아교육 체계이며, 이 체계는 아동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 및 학습이 경험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착안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표준보육과정을 만들고 또 이를 개정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외국의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시사받을 점은 영아기부터 아동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영역 간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EYFS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보육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 단계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발달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호주의 EYLF 체계의 기초는 아동의 삶이 소속감, 존재감과 변화의 특징을 가진다는 시각이다. 아동의 지식, 능력 및 기술 등은 아동기에 걸쳐서 변화하므로 발달의 연속성 상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한다는 논지가 포함된다. 또한, 교육과정의 영역을 제시하고 영역 간 상호관련성과 통합을 중시한다. 영국의 EYFS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의사소통, 언어와 문해, 문제해결, 추론과 수개념,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신체발달, 창의성 발달 6개 학습 영역을 제시하며 이 영역들은 다른 영역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이수될 수 없으며 상호 관련되어 균형적 발달을 이뤄야한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표준보육과정이 영유아기의 연령을 아우르며, 영역 간 통합성을 기하도록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현장 가능한 원리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EYFS 원리는 아동의 고유성, 긍정적 관계, 학습촉진환경, 학습과 발달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며, 호주의 EYLF에서도 교수법 원리 지침으로 전체적인 접근, 아동에게 반응적임, 놀이를 통한 학습, 의도적인 가르침, 학습환경, 문화적 유능성, 학습의 연속성 및 전환점, 학습의 평가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적인 관계, 동반자 관계, 높은 기대 및 형평성,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속되는 학습 및 반성적인 실천을 제시하며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표준보육과정에서 교수지침원리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적용한 실제적인 원리가 더욱 보

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넷째, 외국의 경우, 교육과정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다음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영국의 EYFS는 과정 중 평가와 과정 후 평가가 있는데,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교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을 지원받으며, 아동이 일상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관찰한다. EYFS 후에 개별 아동의 발달과 학습 성취를 종합하는 방식은 6가지 영역에 대해 13개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아동의 학습을 위한 평가는 아동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평가를 통해, 계획하며 교육과정을 실제로 기록하고 이를 다시 평가하는 절차와 전략이 효과적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교사들이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각 아동의 성취, 흥미 및 학습 유형을 평가하며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표준보육과정 활용 실태 및 정책방향

-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실태와 활용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실태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실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표준보육과정 내용의 평가와 적용,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증진 방안을 질문하였다.

우선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성격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은 표준보육과정에 관해 잘 모르거나 관련 문서와 각종 자료들을 숙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기 때문이다(서영숙, 2010 등). 다음으로는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보육과정 내용과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각 부문별 평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보육과정 활용 시 애로사항과 활용증진을 위한 개선점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면접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 표준보육과정의 보유 여부와 교육경험 등 인지 경로를 질문하였다. 이에 따르면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나, 표준보육과정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과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개념 및 목적에 대한 이해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숙지하고 있었다. 표준보육과정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므로 모든 기관에서 일괄 적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표준보육과정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이해는 보육시설장을 비롯한 모든 보육관계자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어린이집도 유치원 교육과정처럼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아동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선으로 알고 있구요.... (J시 보육 시설장)

보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이잖아요. 필요한데, 이게 2007년도에 나왔나요? 지금 3년 4년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보육교사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걸 하다가 이것 새로 도입하려니까 변화하기가 힘든데..... (K시 보육시설장)

저도 시설장 8년인데, 표준보육과정이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이나 평가를 위해서 적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J시 보육시설장)

나. 성격에 대한 이해

표준보육과정은 보육활동 시의 지침서 또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설장은 많지 않았다. 즉 보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표준보육과정을 보육과정 지침서로 활용하기 보다는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일종의 교과서나 교재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특히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적용 시에는 경직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저는 오히려 때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특히 신입교사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육교사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교과서처럼 사용하는데, 보완된 부분만 보완되면 좋을 것 같아요.... (K시 보육시설장)

읽기에 관심가지기 그러면 되는데 너무나 세심하게 되어있으니까 뽕짝 뽕짝을 못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가서 뭘놀이 하자.... 그런 것까지도 주지 못하는 게 표준보육과정의 한계예요. (D시 보육시설장)

이해와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은 표준보육과정의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친 나온 시기가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기라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자해서, 이것 그대로 한번 해봐라 했어요.... 표준보육과정과 관련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대로 하다 보니 100%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유아원간지를 접목해서 해야 하는지.... 원장 눈치를 보더라구요. (K시 보육시설장)

따라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일종의 활용 사례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학부모의 요구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다. 인지 경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표준보육과정의 보급이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전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서영숙, 2010: 161).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이후에도 보급 방식과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탓에, 본 연구에서도 표준보육과정의 접근성이 낮고, 주된 인지 경로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접근성

표준보육과정의 접근성은 매우 낮아 구입조차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표준보육과정의 중요성 자체가 간과되기도 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은 PDF파일로 다운받아 전부 출력하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고, 그것 가지고 뭐든 안 읽어보는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D시 보육시설장)

인터넷상에서도 해석서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매 하는 데도 문제가 있구나. 서점에서 살수도 없고, 유치원은 서점에서 해석서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책을 구매하는 것도.... 책이 있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필수 아니네, 중요한 거 아니네, 선택할 수 있는 거네, 그런 인식을 주거든요.... (F시 보육시설장)

종일반을 하는 어린이집에 맞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개발된 것인데,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모든 보육시설에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J시 보육시설장)

접근성이....저희도 이거 한권 달랑 있고, 교사들이 거의 안 봐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시면 볼 것 같고.... (K시 보육시설장)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연수) 경험

표준보육과정의 인지는 주로 시설평가 인증을 위한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은 일회성에 머물거나 교육 내용도 충실하지 못해 인지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보육과정의 연수 경험은 전혀 없어요. 보육정보센터 같은 데서 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교사들이 시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연수를 한다고 해서 갔다 오면, 이상하다고 해요. 자기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이지, 표준보육과정은 아니라고 얘길 해요. (K시 보육시설장)

저도 처음에 한번 받고 안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과 출신이 많으니까 유치원교육과정을 많이 다루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많이 다룬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J시 보육시설장)

제가 원장연수, 교사연수 할 때 표준보육과정을 지도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1시간 반. 보수교육과정에 작년부터는 거의 의무인데, 수업할 때 직의를 해요. 한 반에 40명씩 앉아 있잖아요. 교사든, 시설장이든....그걸 물어봐요. 가정부터 공립 법인까지 흔재 되어있는데, 손들어보세요 하면....이름은 거의 알고 내용은 반 정도, 적용하냐고 물어보면 4분의 1도 안 나아요. (J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활동

시에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려면 시설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교육이 엄청 중요하구요. 보통 2년 정도면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교육이 영 안 터요....세 번 들었는데, 세 번을 들어도 완전히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D시 보육시설장)

저희 어린이집에서 신입교사들을 교육할 때, 표준보육과정의 한 영역, 기본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세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 활동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 그 목표가 뭐냐를 밝히지 못하고....실습생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K시 보육시설장)

라. 인지 실태

표준보육과정이 2007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표준보육과정”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³⁾을 혼동하고 있었다.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편적 보육 목표와 연령별·수준별 보육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하며,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

표준보육과정을 5가지 프로그램을 막들어주셨잖아요....보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그냥 그게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연간, 월간, 주간(보육계획)을 그대로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D시 보육시설장)

선생님들도 표준보육과정은 1,2,3수준까지 되어 있고 목표가 제시되어있다고 아시는데, 일반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있죠. (F시 보육시설장)

이처럼 표준보육과정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간에 혼동이 야기되는 것은 표준보

3)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2007년 표준보육과정 제정에 따라 총론,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보육프로그램으로 개발됨.

육과정의 보급과 홍보 특히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즉 보수교육이나 평가인증 준비교육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소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을 때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혼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교육과정에 익숙한 데 이게 딱 들어오니깐 헷갈리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D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는 학생들조차도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유아교육과정은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육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심지어 보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정으로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D시 보육시설장)

마. 보유 실태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를 보유한 경우는 많지 않았고, 책자로 구입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의 경우는 인지조차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입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보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는 13년째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표준보육과정이 나오면서 샀어요. 또 다운받아서도 가지고 있는데..... (K시 보육시설장)

평가인증을 대비하면서 30개 시설이 같이 했어요. 표준보육과정을 접할 때 평가인증에서 반영해야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그동안은 주제 중심이었대면, 연령별 발달도에 맞춘 책이 나왔대.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어요. 지침을 보유한 데는 거의 없어요.... 인지는 하고 있어요. (G시 보육시설장)

저도 해설서가 뭐지?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프린트 해놓은 게 있더라구요.... 해설서는 볼 때 세트에 안 들어 있으니까, 일부러 출력해서 보지 않으면....

또 해석서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야하니깐.... (K시 보육시설장)

따라서 향후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모든 보육시설에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은 물론 해설서 등 관련 책자를 최소 1권씩 무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2. 내용 평가 및 적용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내용전반에 대하여 평가토록 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의 평가에 따라 실제 활용도가 달라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평가와 연령별·영역별 내용구성의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적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보육활동 시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범위와 방식, 그리고 적용 시 유용성과 애로사항을 질문하였다. 이에 따르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적용 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제기되므로 활용증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1) 전반적 평가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용어간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대체로 학교와의 연계가 미흡하지 우수해요. 근데 유아교육학과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알아는 거예요.... 용어랑 다르게 해놔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비슷해요. 근데 왜 어린이집에서 등한시 하나면, 일단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초등연계 부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수준차가 3살이라고 해서 3살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기준이 모호해요. (D시 보육시설장)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거죠. 유치원 교육과정과 똑같이 가고....개
발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개발해 주면 되지 않겠나....이중 비용을 들어서....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삼성 프로그래밍하고 다를 게 거의 없어
요.... (K시 보육시설장)

초기에는 6개 영역의 용어 자체가 유치원 교육과정과 비슷하지만 틀려서 현장
에서는 병행해서 사용했어요. 예술경험면, 자연탐구....이런 것도 생소했어
요. 신체운동 이런 것도....유치원 교육과정과 내용은 비슷하나, 용어 자체는
약간씩 변형을 준거였기에 초창기에는 모호했구요....지금 현재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많은데, 저희는 연가(보육계획안)에는 표준보육과정에서 제
시한 영역들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Y시 보육시설장)

한편 표준보육과정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특히 사회관계 영역에서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육프로그램에 장애아, 빈곤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사 입장에서는....사회관계 영역에서 특별한 아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
더라고요. 쯤 달라도 우리는 친구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Y시 보육시설
장)

세부 내용들 중에서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이혼이나
재혼가정에 대한 것이 한 단원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 다문화 같은
것은 매 단원마다 조금씩 들어가 주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성 정체감에 대해서....자신의 성이 일생동안 변하지 않음을 알
고 나고 되어있는데....사실 그것은 너무 정형화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않 그럴지 않을 수도 있다는....용어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
가 필요하지 않을까.... (Y시 보육시설장)

사회관계 영역의 경우는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특히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회
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표준보육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은 일반적인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므로 다
문화 가족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포괄되

어야 할 것이다.

2) 영역별/수준별 내용구성의 적절성

우선 영역별 적용 시에는 특히 자연탐구 영역의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과학적 기초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과학적 탐구에서는 영유아가 주변의 사물, 생명체, 자연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는데(정효정, 2010: 26),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탐구 영역이 제일 안돼요. (K시 보육시설장)

다른 건 괜찮은데, 탐구영역만 가면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읽어본다고 하든... 교사가 하나하나 수집하고 얻거나 하지 않으면 어려워니까. (K시 보육시설장)

또한 연령에 따라 영역별 비중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기본생활 영역의 경우 3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을 축소하거나 사회관계 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종일제니까 기본생활습관이 필요하지만, 3-5세는 기본생활습관을 사회생활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해요. 교과목이 6개잖아요. 유아교육과정은 5개 영역 안에 그 영역들이 녹아들어가 있고, 근데 0-2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3-5세 아이들은 그걸 따로 떼지 않고 사회관계 안에 기본생활습관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걸 또 떼라고 하니까, 교사들이 나눌 때 애로사항이 있어요. (Y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건강과 안전에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과목내용을 열어보면 건강과 집착에 너무 쏠려있어요. 우리는 아동이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데 넘어져도 안 되고... 0-2세는 이해하는데, 큰 아이들까지도 안전과 건강 부문, 성폭력 부문 프로그램도 그렇게 가있어요. 그런 게 중복되다 보니 기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요. (9시 보육시설장)

다음으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영아의 경우는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주로 영역별 수준이 해당 연령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인데, 이는 각 영역별로 엄밀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까지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막 2세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개인차가 너무 크니까....3세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수준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3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단계(수준)를 (적용)하기 원하는데, 그걸 단정 지어놔기 때문에 교사들이 덩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2시 보육시설장)

1세반 선생님의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춰서 하려니 어려웠는데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2세 선생님은 조금 너무 쉽다. 3세는 중간인데, 언어 부분이나 연마들이 많이 원하는 읽기나 그런 것이 좀 약하고....낮잠 부분에서 지켜야 하는 게 어렵죠. (2시 보육시설장)

자연탐구는 좀 수준이 낮아요. 특히 수 탐구의 목표 수준으로 제시된 부분이....영아 탐구요, 유아인 경우에, 유아의 3수준 정도 군데군데 조금씩....이것도 상황별로 특정 수 있겠지만, 연구해보면 어떻게 싶은 게, 아이들이 수 이런 부분은 많이 빨라졌어요. (9시 보육시설장)

막 1세는 수준이 낮다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1학기 때는 가능한데, 2학기 때는 막 2세 1수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4세반 아이들도 신체운동 영역에서 3수준을 수월하게 한다....그래서 낮이도를 좀 높여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9시 보육시설장)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현행 연령 구분에서 특히 만 2세 미만의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현재 표준보육과정은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만 2세 미만 아동은 급속한 발달을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개선사항들 중 하나로, 만 2세 미만은 월령별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정효중, 2010 등).

연령은 세분화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0세, 1세....세분화 하는 게 좋아요. 워낙 그 때가 발달이 급등 할 때잖아요. (K시 보육시설장)

현장은 0세로 구성 되어있는데, 보육과정은 2세 미만....그게 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현장은 0세가 있는데, 왜 2세 미만으로 해서.... (K시 보육시설장)

이외에도 만 5세의 경우는 초등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가 향후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므로 초등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신화식·박진옥, 2008).

만 5세라고 하는 부분이....초등연계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어린이집이 0세부터 5세까지 이뤄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시 보육시설장)

나. 적용 실태

1) 전반적 활용

영아보육 위주인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하면, 표준보육과정의 활용은 주로 평가인증과 연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와 무관한 경우는 보급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특히 유아의 경우는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표준보육과정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냐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곳은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원래 지향하고 있는 보육,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잘 안 되고 있었어요. 왜 그전까 봤더니 앞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연결해서 했는데 전수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 (D시 보육시설장)

지금 현재 아이들이 유아교육과 아니고, 일반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보육과정

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현장에 있는 원장들도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듣고 수업하시겠어요.... (D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의 적용 방식은 주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였다. 이는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는 발달에 적절한 보육계획안이 제시되어있어 교사 입장에서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적용은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아 영유아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보육 목표가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실제로 활용하느냐면, 유아정책개발센터에서 나온 총론을 읽고.... 사실 읽지도 않죠, 실제로 펴놓고 하는 연령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구요. 저희 어린이집도 연간 계획 같은 것을 짤 때도 주제나 이런 것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보육과정 영역이나 보육세부 목표나 내용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 적용하느냐면 그렇지 못해요. (K시 보육시설장)

한편 활용 범위는 보육계획 수립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경우와 일부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어린이집의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연간수업계획에 100프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12월에 교실배정하고 나면,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실운영 계획서에 기본근간인 표준보육과정을 가지고 써요. 연간, 월간, 주간 그리고 중점보육사항....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반영율은 70% 정도, 나머지 30%는 아이들이나 지역,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K시 보육시설장)

2) 활용시 유용성과 애로사항

가) 활용시 유용성

표준보육과정은 특히 영아 보육 시에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지침서

가 없었으므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활용이 가능한 3세 이상 유아들에 비해 그 유용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기본생활 영역은 종일반 위주인 보육시설의 특성에 잘 부합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0세, 1세, 2세까지 있는데, 처음 표준보육과정을 받고 두근거리더라구요. 월간 유아나 그런 것도 막 3세부터 나오지.... 그리고 뭔가 용어도 편 알잖아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표현이구나.... (D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 적용 시 수업 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0-2세 프로그램은 만족을 해요, 없었기 때문에....유치원하고 다른 점은 기본생활습관이 있거든요. 종이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참 좋다고....특히 영아반의 경우는 참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F시 보육시설장)

또한 표준보육과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영역별로 균형 잡힌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표준보육과정에는 연령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어있고, 기본생활을 비롯하여 각 영역별로 발달수준에 맞는 보육활동 내용이 제시되므로 체계적인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하였다.

목표가 제시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영아들의 지침서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계획을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그 다음에 교사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표준보육과정에서 얘기하는 6개 영역을 골고루 지도할 수 있고....발달 단계에 맞춰서 일과운영을 짜인새 있게 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이나 기본생활습관, 사회성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K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달라진 점은 수준별로 6개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수업을 계획할 때 한 영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체계적인 수업이 된다.... 또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춰서 1,2,3,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아동들도 교사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F시 보육시설장)

이외에도 부모들에게 국가지침인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한다고 표방함으로써 보육시설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돕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들한테도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K시 보육시설장)

나) 활용시 애로사항

선행 연구에 의하면,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교육(연수) 프로그램 부족”, “교재교구 부족”을 들고 있는데 (서영숙, 2010: 73~74),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도 이와 유사하였다.

우선 용어 활용상의 문제들이 지적된다. 표준보육과정의 용어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유사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유치원 교육과정에 익숙한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용어 자체가 어렵고 관련 내용이 많아 숙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나의 일을 스스로 하기’,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등 용어만 다르지 거의 내포하고 있는 건 비슷한데,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내려 받기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인데 다시 용어를 바꿔야 하니까.... 기본생활습관, 자연탐구습관, 비슷한 게 용어를 다시 바꿔야 하는 거예요. (D시 보육시설장)

2년, 3년차 선생님들이 우리 보육시설에 오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나는 신입생 같아요. 1년차 같아요. 그래요. 교사편언태 이렇게 단순하게 가다가 그게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예술영역 이렇게 영역 이층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D시 보육시설장)

현장 적용에서 어려운 점은....저도 읽다가 지쳐요. 교사들은 대부분 칼라에 익숙한 세대인데 너무 설명이 많아요. 내용이 좋아도 양이 많고 흑백이고 사진 하나 없으면....읽다가....읽을 시간도 없어요....교사들은 바르바르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그런 것을 좋아해요. (F시 보육시설장)

다음으로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시간 근무 등을 고려하면 보육교사들이 매일 보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해도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 해에는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프로그램 안에서 했던 부분들에서는 쉽게 받아들이 지구요, 그렇지 않았던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하는 것들은... 워낙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K시 보육시설장)

내년에는 다른 것라 접목해서 해야 하는 건지... 가장 큰 원인은 추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런 자료나 CD 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력 있는 교사들은 다른 거랑 같이하면 안 되냐고 요구하구요... 새로운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이집이 표준보육과정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자기가 했던 것라 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요. (K시 보육시설장)

예술경험 같은 건 제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교육을 못 시켜요. 특히 음악감상 등이 힘든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모든 교사가 취약해요... 무슨 음악을 듣고 어떻게 감상하는지 지침이 필요하고... (Y시 보육시설장)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기술 방식이 복잡하여 활용 시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테면 해당 연령에 적용할 경우 수준별 각 영역내용들이 분리 기술되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음악본처럼 한 장에 쫓 나오는 거... 연령별로 만 2세 미만이다, 수준이 3수준이 되어있는데 과목 별로 6개가 있으니까, 다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축약되어 있으면 자기가 보고... 또 막막에 기본생활 영역이라고 하면 만 2세부터 3, 5세까지 한 장에 그게 다 보이면 동시에 보면서 주제를 찾아갈 수 있고... (Y시 보육시설장)

교사들이 활용할 때는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니까 접근을 아예 안하고 덮어버려요. 연령별 목표한 내용에서도, 문을 깨끗이 하기를 보기에서 또 아래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통째로 해서 제시해주면... (K시 보육시설장)

이들 애로사항을 종합하면, 표준보육과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실제 활용이 용이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현행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 방식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표준보육과정 활용 제고 방안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증진 방안으로는 전달체계의 확충, 홍보 강화, 교육 및 연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기되었다. 즉 표준보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해와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내실화하며, 실제 활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교수 자료와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 전달체계의 확충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심의회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표준보육과정의 개발은 별도의 심의기구나 자문기구 없이 용역사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탓에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가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을 이수하신,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물론 제대로 된 보육과정을 제시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현장에 제대로 녹여내고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육과정과 관련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지만 현장에 전달이 될 것 같아요. (K시 보육시설장)

각 시·도에서 맡겨진 보육정보센터에서 재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은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하죠. 그분들도 표준보육과정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요. (D시 보육시설장)

평가인증 신청하면 평가인증국에서 설명회를 열어서 주치가 되어서 하잖아요. 표준보육과정도 정보센터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한 사람의 의도가 희석해서 강의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서 강의를 해요. 선생님도 갖다 써서 별 다른 거 없어요.... 일 년에 몇 차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기회는.... (K시 보육시설장)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시행 성과는 장학, 유치원 평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지만, 표준보육과정의 시행 성과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에 보육과정 영역을 평가하

고 있으나 정확하게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육시설에도 유치원의 장학지도와 유사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은 물론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장학이라고 해서, 한 기관에서 잘한 것을 오픈해서 서로 알게 하거든요. 일종의 자유허택 형식을 띄지만 관이 관여하는 장학이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삼성도 그런 장학등을 기관 연계해서 해요.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가 핵심이 되어서 이 기관이 잘하는 걸 타 기관에 오픈해서 장학하게끔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처음엔 소수로 출발하겠지만....그게 하나의 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K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은 도입되었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연계가 안 되었는데, 평가를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교육내용을 평가해서 재교육을 짜야 하는데.... (Y시 보육시설장)

이와 관련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등 관련 책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제작하여 강사들을 연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서영숙, 2010: 164). 이에 의하면, 동일한 교육과정과 공동 교육자료를 가지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강사교육을 하고 교육을 실행한다면 지역 등에 상관없이 질적 수준이 보장된 균형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주체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 홍보 강화

표준보육과정 보급을 위한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편되면 이를 보급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련 공공기관의 교육은 물론 온라인 홍보 및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이후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장님한테 홍보활동하고, 원장들도 이해가 되어야 하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재교육 시키든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야 하면 바로 그걸 받아야 한다든지.... 해서나도, 안하면 어렵다는 거죠.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보수교육을 해준다든지.... (D시 보육시설장)

유치원 교육과정은 내놓고 나면 교육청에서 지역단위로 자체 연수도 하고, 사이트도 많고.... 표준보육과정의 경우도 현장에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거죠. 기초단위의 교육을 국가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보육교사들은 연구하고 잘 가르쳐 달라.... (K시 보육시설장)

한편 홍보와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장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에게 표준보육과정을 홍보하게 되면 보육시설에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활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영숙, 2010: 127~128).

다. 교육(연수) 강화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은 표준보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교육기관, 교육방식, 교육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체계화된 교육 인프라의 마련이 강조되는데, 특히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주체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일원화된 교육기관으로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보센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개발자들이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맡고 현장에서 곧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초기 교육은 물론 재교육 시에도 표준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과정상 어려운 점은 재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 취약해짐. 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재교육도 하고 장학지도와 동료장학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적 지도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D시 보육시설장)

또한 교육방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므로 실제 교육 내용은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우리 연합회에서 연수를 한다고 하면 오후에 두 시간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종일제니까.... 두세 시간 강의를 통해서 교사들이 목말라하는 부분을 해결어요. (9시 보육시설장)

서울시의 보수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연수 자료를 봤는데, 공적인 연수에서는 개론밖에 없어요.... 1, 2 수준으로 되어 있다, 몇 몇 세로 되어있다, 그런 개괄적인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보수교육은 현실적으로 일주일을 하지 못 하루에 한 시간 반씩 열 몇 과목을 해야 해요. 하루에 4과목씩 하거든요. 개론하고 훑어요. 선생님들도 목마르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당당한 거예요.... (9시 보육시설장)

이와 더불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는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선 지역 교육청 단위로 반복교육이 이루어진다(서영숙, 2010: 43). 연구개발팀을 중심으로 1차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교육받은 지역 강사진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게 되므로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표준보육과정의 경우는 재교육 시스템이 부재하여 지속적인 재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가 만약에 표준보육과정을 하면 누가 장학지도를 오는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장학지도를 정부가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학지도가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계속 혼란이 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한다. (9시 보육시설장)

3년이 지나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하니까, 재교육을 받아서, 신입교사가 들어오면 또 해야 하는데, 재교육 받는 갭이 너무 커요. 교사가 바뀌어도 몇 번씩 바뀌었을텐데.... (9시 보육시설장)

영아는 이런 게 없다가 싫든 좋든 이것만 써야 하지만, 유아는 유아교육도 아이들이 전혀 접하지 않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재교육을 하자니, 전에 접하고 있었던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꿔야 하니까, 보수교육, 재교육 이런 데 집중하

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D시 보육시설장)

보육과정 교육 시 어려움은.... 교사교육이 안되어 있어요. 라거에 보육과정 야간에 강의하려고 나가서 보면 제가 낡아 강의한 걸 쪽 봤어요. 아직도 보육 관련학과의 강사들이 표준보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유아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만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 배출되는 것부터 국가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또 현장에 나온 선생님들은 표준보육과정을 여기서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보수교육이 연결이 안 되니까.... 좋은 과정인데, 충분한 교육이 안 되고 자주 듣지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F시 보육시설장)

특히 초임교사의 경우는 대학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과정에서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대학의 보육과정 과목에서 필수 교과내용으로 지정하거나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육을 하고 있음에도 표준보육과정을 배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표준보육과정은 재교육이 없고, 용어도 숙지가 안 되고, 교사 숙지 시간도 안주고 그냥 자격증만 냈었기 때문에.... 보수교육도 40시간 할 때도 교육계획안 만드는 거 실습시키고, 통과되면 연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학력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지, 제도적으로.... (D시 보육시설장)

교육과정을 모르는 교사가 어떻게 보육현장에 투입이 되겠어요. 보육학과 2학년생들이 표준보육과정 1, 2수준을.... 몰라요. 하물며 보육학과 학생도 모르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급될 때는 반드시 표준보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실제적인 것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본이 흔들리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수를 하는.... 시스템이었으면 해요. (F시 보육시설장)

또한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교육 참여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수교육이나 승급교육 등에서 한두 시간 이뤄질 게 아니라 특별한 쪽에 표준

보육과정을 넣어서 그게 승급교육에서도 인정될 수 있게 해주면....한 두 시간 가지고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거든요. 보육과정 활용도를 높이려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K시 보육시설장)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 중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육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육시설장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요구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위한 재정 확보와 대체교사 인력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반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승급기간 동안에 대체교사를 받았는데....2달 전에 요구했는데도 없대요.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시에도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으면 구할 데가 없어요. 근데 3개월 하고 그깟돈 교사를 어디서 구해요.... (K시 보육시설장)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강의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대체교사 지원에 비해 재정적·행정적 비용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교사가 최소한 숙지 할 수 있도록 상시 사이버 과정이라도 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계해야 해요. (K시 보육시설장)

라. 적용의 용이성 증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이루어졌다 해도 보육프로그램 활용 시 필요한 교재교구를 개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이 용이하려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들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다가도,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없는 것도 있고 그런 자료는 작년에 있는 건 쓰기 싫고 그런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어렵고, 프로그램은 이해는 많이 하고 있지만 만들면서 하기에는 어렵다. 유치원(교육)과정은 개정되면 연달아서 그런 자료를 연계해서 다 나오잖아요. 출판사에서 세트로 묶어서....근데 이건 좋은 게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일일이 맞춰야 하니까....버거운 거예요. (K시 보육

시성장)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보육과정 적용 시에 실제 활용 가능한 보육프로그램이 한정적이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구축된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계획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을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차 때 이것 적용하자... 하고 안하고 있다는 거죠. 표준보육과정과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면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고 시행할 수 있겠다... (D시 보육시설장)

현장에서 교수매체가 모든 표준보육과정과 이어지는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신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음악, 식물자료를 온라인상에 다 링크가 될 수 있거든요. (9시 보육시설장)

표준보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개발되어서 교사들이 필요할 때 즉시 열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다... (K시 보육시설장)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비슷하지 않아요? 표준보육과정 자체는 어렵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는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활용하기 쉽거든요. 표준교육과정과 똑같으면 이상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활용하면 되니까 이미 정해진 것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우리도 사실 자부심을 갖고 싶거든요. (D시 보육시설장)

또한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등을 한 책으로 통합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요약본을 제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요약본의 제작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방식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을 교사들이 활용하는데 내용등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찾아서

보려면 해석서 봐야하고 지침을 봐야 하고....그런 것도 선생님들은 번거로운 거죠. 1세 프로그램이다 하면 1세 선생님은 그거 하나만 보면 한 책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수준별 내용도 많이 맡쉴해 주셨는데 학장활동도 다양하게 많이 제시가 되고, 개정할 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자료라든가, 제작 방법이라든지.....(K시 보육시설장)

이외에도 표준보육과정의 영역 및 수준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테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는 연령별 수준 판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체크리스트가 존재하므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어떤 사례까지 나와 있냐면 아이들 발달 평가하면 각 영역과 관련해서....말약 언어 영역의 체크리스트 문항이 20개라면, 상중하나 5점 척도로 체크를 했을 때, 말을 어떻게 맞들어서 쓸 것인가 까지도 다 제시해서 준다 말이지....말 2세 아이가 자연탐구 영역 부분과 관련된 발달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하나요. 한 개 두 개를 세 수 있다....그런 체크리스트 형태로 전문가들이 맞들어서 제시해주면 교사들이 활용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요....(K시 보육시설장)

4. 요약 및 정책 제언

가. 요약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 적용 실태, 활용 증진 방안에 관한 심층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과 혼동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 수준은 미흡하였다. 게다가 표준보육과정의 주된 인지 경로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부실하여 일회성이 머물거나 개괄적 수준의 교육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표준보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영아 보육과 기본생활 영역의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활용 가능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수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적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는 물론 보유조차 미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준보육과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의 시행이 3년을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 적용 시에 교재교구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2011년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활용 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들과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보육과정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홍보와 관련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시에 모든 보육시설에 무상으로 한 부씩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의 인지가 주로 평가인증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인증 시 표준보육과정 적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인증 미신청·미통과 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시간의 확대,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은 물론 일원화된 교육기관, 교육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또는 교육 의무화, 교육매체의 다양화 등 교육전반에 걸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내용은 개괄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보육프로그램 사례 중심의 심화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표준화된 교육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기관으로는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로는 보육정보센터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보육과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용의 용이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의 인지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적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실제 보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수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과 교수자료들은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야간 근무 등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을 고려하면 시간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종 활용 사례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에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모든 보육시설에서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보육시설에서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표준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표준보육과정의 적용이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주로 평가인증 시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표준보육과정의 활용 증진의 핵심은 표준보육과정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심의, 모니터링, 평가 보급, 교육 등을 지원하는 표준보육과정 관련 지원 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표준보육과정의 확대 적용에 필수적인 표준보육과정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보급, 표준화된 교육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영역별로 해당 연령과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 8조에 규정된 ‘보육개발원’의 기능을 육아정책연구소가 하고 있으므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등 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해설(안)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⁴⁾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 수록하였다.

1. 기본생활

가. 목표

- ☐ 건강, 안전, 바른 생활에 관한 지식·기술·태도를 배우고 익혀서, 건강하고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고 바른 습관을 갖는다.

 - 청결과 위생, 수면과 휴식,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 위험을 알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한다.
 - 일상생활에서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지키며 자원을 아낀다.

○ 청결과 위생, 수면과 휴식,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영유아는 몸과 주변의 청결, 적당한 수면과 휴식,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발달할 때 일과에 잘 적응하여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건강은 신체적인 질병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동안 누려야 할 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어른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로서 건강하

4)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마련함..

고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을 알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비상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한다.

영유아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반면 위험에 대해 잘 모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입기 쉽다. 특히 질식사, 화상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은 영유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며 이외에 학대, 납치, 유괴와 성폭력 등의 사회적인 범죄도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영유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알고 조심해야 하며 비상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서 자신의 안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생활에서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지키며 자원을 아낀다.

영유아기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발달 시기이다. 바른 태도로 인사하기, 웃어른에게 존댓말 사용하기 등 집단생활에서 익혀야 할 바른 예절에 대해 영유아가 알아야 하며 구체적인 지도를 통해 바른 예절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지 않는 등의 규칙을 지키고 질서의 중요성을 알고 지켜야 한다. 한편으로는 영유아가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고 재활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지키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영유아기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되며 평생동안 지속된다.

나. 연령별 목표와 내용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목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주변의 위험을 알고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며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에 관심을 갖는다. 1) 위생적인 생활, 알맞은 수면과 휴식,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2) 주변의 위험을 알고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3) 일상생활에서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에 관심을 갖는다.	건강에 관심 갖고 주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며 안전하게 놀이하고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안다. 1) 위생적인 생활을 익히고,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2) 주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며 안전하게 놀이한다. 3) 일상생활에서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안다.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자원을 아낀다. 1) 위생적인 습관, 적절한 수면과 휴식,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여 질병을 예방한다. 2) 안전하게 행동하고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며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하게 놀이한다. 3) 일상생활에서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자원을 아낀다.	
내용 범 주	건강한 생활	· 몸을 깨끗이 하기 · 즐겁게 먹기 · 알맞게 잠자기와 휴식하기 · 즐겁게 생활하기 · 규칙적인 배설습관 익히기	· 몸을 깨끗이 하기 · 바른 태도로 먹기 · 알맞게 잠자기와 휴식하기 · 즐겁게 활동하기 · 규칙적인 배설습관 갖기 · 스스로 옷 입고 벗기 · 건강에 관심 갖기	· 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 바른 식습관 갖기 · 적당한 잠자기와 휴식하기 ·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 바른 배설습관 갖기 · 상황에 맞게 옷 입기 · 건강의 중요성 알고 건강 생활 실천하기 · 질병 예방법 알고 실천하기
	안전한 생활	·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 위험한 상황을 알기	· 안전하게 놀이하기 · 위험한 상황을 알고 조심하기 · 교통기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기	·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안전하게 놀이하기 · 안전하게 행동하고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 ·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니기
	바른 생활	· 바른 예절에 관심 갖기 · 기본 질서에 관심 갖기	· 바른 예절을 알기 · 기본 질서를 알기	· 바른 예절을 지키기 · 기본 질서를 지키기 · 자원을 아끼기

1) 만 2세 미만

가) 건강한 생활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몸을 깨끗이 하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	스스로 손 씻기를 시도한다.	
		도움을 받아 이를 닦는다.		

영아는 신체활동과 대사활동이 왕성하여 피부를 통하여 노폐물을 활발하게 배출하게 되므로 자주 목욕을 해야 하며, 흡수성이 좋은 의복으로 청결상태를 항시 유지하도록 한다. 교사는 수유, 식사 전후, 놀이가 끝났을 때, 배변 후에 영아의 손이나 몸을 씻어 주거나 영아 스스로 씻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를 씻어주고 닦아줄 때, 영아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즐겁게 먹기	편안하게 안겨서 우유(모유)를 먹는다.	고형식에 적응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한다.	
		도구를 사용하여 먹는다.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여 먹는다.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다.		

영아는 치아가 완전히 나지 않아 구강 위생에 소홀해 질 수 있다. 구강위생을 소홀히 하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영아의 구강 점막에 붙어있는 우유나 토물 찌꺼기를 떼어 내기 위해서는 온수를 적신 거즈에 아기용 구강세정제를 묻혀 손가락 사이에 끼어 넣고 잇몸, 혀, 구강 점막을 깨끗이 닦아준다. 식사 후에는 영아들이 이를 닦도록 지도하고 이 닦는 것이 서투른 영아를 부드러운 개인용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질을 해준다.

영아기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 식사예절, 위생적인 식습관 등 바른 습관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영아가 편식이 심하고 식욕도 고르지 않아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경험하게 하여 먹는 일이 인생의 즐거운 경험 중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영아가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예절을 몸에 익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모유는 출생 후 6개월 동안의 영아에게 소화하기 쉬운 상태의 균형 있는 영양소와 면역체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이다. 영아는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장에서 우유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가 잘 발생한다. 그러나 모유는 이러한 알레르기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완전식품이다. 모유는 냉동상태에서 1개월, 냉장상태에서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모유를 가져오면 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알맞은 온도로 데워 젖병수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조제유를 선택하여야 한다. 조제유를 수유할 때는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합하여야 하며, 모유를 먹이는 기분으로 수유하도록 한다.

교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아를 안고 미소를 보이거나 부드럽게 말을 걸면서 느긋한 기분으로 수유하고 영아의 먹는 속도에 맞추어 먹이도록 한다. 수유 과정에서 교사와 영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영아 혼자 우유병을 잡고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영아 혼자 우유병을 잡고 마실 경우, 우유를 토하거나 폐로 흘러드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유나 우유 이외의 음식 맛을 알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영아가 15~18개월경이 되면 대부분 이위가 완료되고 식성도 뚜렷해진다. 영아 개인의 기호와 식습관,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당한 음식의 양과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적응하도록 하고 그 음식들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주며, 영아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알려준다.

만 1세 영아는 수저와 식기, 식탁을 사용하게 되고 여럿이 어울려 식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식사예절을 지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대인관계의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사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영아에게는 처음 음식을 줄 때 양을 약간 적게 제공하고 영아가 원하면 더 주도록 한다. 또 영아가 음식을 거절하

면 강요하지 않는다. 억지로 먹이면 음식 섭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아가 식사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제는 되도록 적게 하되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알맞게 잠자기와 휴식하기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편안하게 쉰다.			

신생아는 수유할 때 이외에는 밤과 낮 구분 없이 잠자기와 깨어나기를 반복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가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락하고 조용한 수면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수면시간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영아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영아는 활동량이 많고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충분한 야간 수면은 물론 일과 중에 쌓인 피로를 낮잠으로 해소해야 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낮잠을 월령에 따라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또는 하루 1회로 하는 것이 좋다. 18개월 이후에는 오후 1회 정도의 낮잠을 잔다. 영아들의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크고 같은 영아라도 그날의 활동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영아의 수면은 얼마나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숙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하고 원기 왕성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아의 생활시간이 불규칙적으로 흐트러지면 수면 시간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과도한 운동, 지나친 즐거움으로 인한 흥분, 그 반대로 만족스러운 활동을 못한 경우에도 영아는 숙면하지 못한다.

수면의 양은 물론 수면 습관도 영아마다 다르므로 평소 영아 개개인의 수면 양상을 관찰해 두었다가 영아가 잠들기 쉬운 환경에서 편안해하는 자세로 재운다. 곧 잠드는 영아도 있으나 쉽게 자지 않는 영아도 있다. 영아의 이름을 불러 주거나, 조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들려주거나 이야기를 해 주고, 쓰다듬어 주거나 영아가 좋아하는 이불이나 인형을 안고 자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아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영아가 잠에서 깨어 편안하고 기분 좋게 눈을 뜰 수 있도록 교사는 온화한 눈빛으로 영아의 곁에 있어 준다. 낮잠을 자는 동안 영아들은 손가락을 빨 수도 있고 이불이나 옷자락을 빨기도 한다. 이러한 습관이 영아에게 안락

감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러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훈계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 영아들의 개별적인 특징과 상황을 존중해야 하며 영아 각자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즐겁게 생활하기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보육실은 영아의 생활 장소이며, 동시에 놀이의 장이기도 하다. 보육교사는 영아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여 영아가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지 늘 관찰해야 한다. 보육실 환경은 영아의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이 어우러지도록 공간을 구성하며, 교사는 영아에게 부드러운 말씨와 표정으로 다가가 편안하고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아는 신체 움직임을 즐거워하며,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면 잠을 잘 자고, 잠버릇도 좋아진다. 영아에게 신체체조를 시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영아의 발달 단계를 아는 일이다.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자발적인 운동이 많아져서 영아는 교사가 움직여 주는데 대단히 흥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 때 영아는 팔의 관절이 빠지기 쉬우므로 무리하게 영아를 끌지 않도록 주의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규칙적인 배설습관 익히기		배설 의사를 표현한다.		정해진 곳에서 배설한다.

교사는 영아의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영아 개개인의 배뇨간격을 파악하며, 영아의 울음소리와 불편한 표시, 배설하고자 하는 욕구 표현을 잘 관찰하도록 한다. 영아가 배설 했을 때는 영아가 긴장하지 않도록 즐거운 분위기에서 바로 갈아주어 깨끗하고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기저귀를 갈 때 영아의 피부에 남아 있는 소변과 대변의 성분을 말끔히 닦아주고 보습제를 발라준다. 흡습성이 좋은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면 기저귀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으나 피부가 민감

한 영아의 경우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 쉽다. 또한 영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기저귀를 간 헛수와 대변의 상태 등을 기록하여 부모에게 알려준다.

생후 15~18개월경부터, 차츰 대변 지도를 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건강한 영아는 배설패턴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영아 개개인의 대변 시간을 알아 두었다가 그 시간 쯤이면 정해진 장소에서 변기에 앉힌다. 대변 훈련시기에 비해 소변 훈련은 좀 늦게 시작한다. 만 14~18개월의 영아는 2시간 이상 소변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영아들의 소변 예상 시간에 맞추어 화장실에 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영아에게 알리고 변기에 앉혀서 소변을 보도록 지도한다. 영아가 변기에 소변을 보면 칭찬을 해주어 배설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배변훈련은 영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너무 강요하지 말고 차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도해야 한다. 배변훈련은 대소변의 마려움 인식, 대소변 보유능력, 대소변 배설 표현하기, 적절한 장소 선택과 접근, 하의 벗기, 대소변 배설하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아에게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배변훈련을 시도하기 전에 영아가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한 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시도한다. 너무 빠르게 시도하면 영아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너무 늦어지면 영아의 자율성 발달이 지연되거나 또래들에게서 소외될 수 있다. 여러 면으로 영아의 준비상태를 확인하여 성공적인 배변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한 생활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놀잇감을 안전하게 살핀다.		놀잇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무엇이든 입에 넣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물건을 삼키거나 음식물이 기도에 넘어가서 발생하는 이물질 흡입에 의한 질식사사고가 많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독성이 없는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아가 놀잇감을 안전하게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가 놀잇감이나 작은 물건을 입에 넣어 삼키지는 않더라도 영아의 침이 묻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진 놀잇감이나 물건을 다시 만지게 되면 위생상 안전하지 못하므로 영아의 놀이 후 놀잇감을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영아에게 제공되는 놀잇감은 발달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직경 3.2cm, 높이 5.7cm 정도보다 커야 한다. 영아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탐색하므로 놀잇감은 영아가 입으로 빨아도 안전한 소재이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영아의 오감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잇감이 좋은데, 영아가 손바닥으로 쥐었을 때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촉감용 공 등이 적합하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므로 영아가 놀잇감을 쥐거나 건드렸을 때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영아가 움직이는 공간에는 모서리 보호대를 둘러서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위험을 알기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	

만 2세미만 영아는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기고, 앉고, 서고, 이동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신체협응력과 운동능력이 발달한다. 특히 머리 부분이 먼저 발달하여 신체적 균형을 잡기 어려우며 주변을 탐색하고자 하는 열의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면 쉽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를 인식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위험한 물건(칼, 가위, 작은 이물질 등)과 위험한 장소(높은 곳, 물 주변, 화기 근처 등)에 대해 알게 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성인의 부주의는 곧 추락, 질식, 독극물 중독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영아의 곁에서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깊게 감독하여야 한다.

교사는 영아 주변에 칼이나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않고 단추, 구슬, 동전 등은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작은 부품으로 나뉘지는 놀잇감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영아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사는 위험한 장소나 물건의 주변에는 보호대를 두르고 계단의 위·아래 그리고 복도나 현관에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층 이상의 모든 창문에는 창문 보호대를 설치하고, 욕조에 영아 혼자 두지 않으며 온수의 온도는 49℃이하로 유지한다. 뜨거운 라디에이터나 수도 파이프는 영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감싸거나 만져도 뜨겁지 않게 조치한다. 정수기

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수가 나오지 않게 고정해 놓거나 영아의 힘으로 열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다) 바른 생활

만 2세미만 영아는 점차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엄마와 아빠나 교사에게 웃음과 말소리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갖게 되면서 보고 웃거나,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고, 인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바른 예절에 관심 갖기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한다.	

예절교육은 영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유아기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며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교사는 등원할 때나 집에 돌아갈 때,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부모나 교사는 물론 또래 친구와 헤어질 때 인사하는 모습을 영아에게 보여주고 인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영아가 바른 예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기본 질서에 관심 갖기			자기 순서를 안다.	
			놀잇감이 있는 자리를 안다.	도와주면 놀잇감을 정리한다.

만 2세미만 영아는 집단생활 속에서 순서가 있음을 알고 자기 순서를 잠시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다. 또한 만 2세미만 영아는 놀이 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놀잇감의 자리를 알고 도와주면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활동 중에는 짧은 순간이라도 영아가 순서를 기다리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교사는 영아에게 자기 순서를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화장실에서 손 씻기를 하거나, 간식을 먹기 전, 바깥놀이 등 다양한 활동 중에 자기 순서를 알고 기다리도록 해야 하는데 영아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사는 영아가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아에게 “조금만 기다려줄래?”라고 이야기 하여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도와준다. 한편 놀잇감을 정리하는 시간에

정리음악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어 정리시간임을 알리고 놀잇감의 자리에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하여 영아가 놀잇감의 자리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 후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영아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칭찬으로 격려하도록 한다.

교사는 보육실 안전점검표에 의해 보육실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놀잇감이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모서리 보호대를 하거나 문에 손끼임방지장치를 하거나 콘센트에 안전덮개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장구를 활용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2) 만 2세

가) 건강한 생활

내용	1 수준	2 수준
몸을 깨끗이 하기	스스로 이닦기를 시도한다.	
	스스로 손과 몸 씻기를 시도한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닦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2세의 영아는 칫솔을 입 안에 넣어서 겨우 닦는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양아가 스스로 양치질을 하도록 격려하고 뒷마무리는 교사가 도와주도록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영아로 하여금 이 닦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결한 습관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젖병을 늦게까지 사용하는 영아는 앞니에 충치가 잘 생길 수 있으므로 이닦기에 더 유의해야 한다.

손이 더러워지면 혼자 씻도록 도움을 준다. 식사 전후, 놀이가 끝났을 때, 배설 후,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후 손을 씻도록 지도하며 청결한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손 씻기는 질병의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활동이다. 일과 속에서 손 씻는 방법, 손을 씻어야 되는 때를 영아에게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반복시켜 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바른 태도로 먹기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한다.	
	식사에 즐겁게 참여하며 스스로 먹는다.	

만 2세는 일반식에 적응되어 가족들과 동일한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균형 있는 영양섭취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식생활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영아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골고루 먹기, 그릇과 수저를 바르게 사용하기, 꼭꼭 씹어 먹기, 먹으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바른 자세로 먹기, 먹는 양 조절하기 등을 익히도록 한다. 또 불결한 음식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에 넣었던 음식, 컵, 식기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식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식사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식사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제는 되도록 적게 하되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식사를 마친 후 사용한 식기는 스스로 갖다 놓도록 지도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알맞게 잠자기와 휴식하기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한다.	

만 2세 영아는 오후 1회 정도 낮잠을 잔다. 교사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영아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영아의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고 같은 영아라도 그날의 활동량에 따라 수면시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각자 독특한 수면주기와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교사는 보호자에게 영아의 개별적 수면 시간과 수면 습관을 물어서 되도록 집에서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주어 영아가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피로가 쌓이면 생리적인 균형이 파괴되어 질병이 발생하고 행동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피로한 영아는 자발적인 활동이 줄고 청얼거리거나 표정의 변화가 적어진다. 영아에게 감기 기운이 있거나 외출, 목욕 등 과도한 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로를 풀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쌓인 피로

를 해소함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건강한 발달의 바탕이 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즐겁게 활동하기	또래와의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교사는 영아가 보육실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한다. 영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자주 영아를 관찰하여 영아의 심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영아가 교사나 또래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놀잇감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영아의 개별적인 놀이 및 또래와의 놀이에도 참여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규칙적인 배설습관 갖기	정해진 곳에서 배설한다.	
	배설 후에 손을 씻는다.	

만 2세 영아는 배변훈련이 되었음에도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영아가 성공했을 때 칭찬해주고, 실패하더라도 꾸짖지 말고 격려해주어 영아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며, 배설 후 항상 손을 씻도록 지도한다. 배설훈련은 영아에게 힘든 과제로서, 척수신경이 발달하고 항문과 요도의 조임근의 긴장력 조절 능력이 생겼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영아를 변기에 5분 이상 앉혀 두거나 배설훈련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배설하는 장소는 청결하게 하고, 영아가 깨끗하고 즐거운 장소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훈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생기거나 갑작스런 주거 조건의 변화,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 때 퇴행될 수 있다.

내용	1 수준	2 수준
스스로 옷 입고 벗기	스스로 옷 입기와 벗기를 시도한다.	

영아는 혼자 옷 입고 벗기를 잘 해내지 못한다. 옷의 앞과 뒤를 거꾸로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영아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옷 입는 새로운 기

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영아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서서히 줄여 나간다. 옷을 입기보다 벗기가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벗기 지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팔을 끼우는 것 같은 어려운 동작은 교사가 도와 주지만, 바지를 올리는 것 같은 쉬운 동작은 영아가 직접 하도록 하여 스스로 하는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건강에 관심 갖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교사는 영아의 안색과 표정,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영아의 체온, 변을 보는 횟수와 색, 수유 횟수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며, 체온과 맥박, 호흡상태 등도 측정할 뿐 아니라 영아의 표현을 귀담아 듣는 등 영아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병은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항력이 약한 영아기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법에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할 만큼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일일 연락장을 작성하여 부모에게 보내어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영아의 특별한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다음날 가져오도록 한다. 영아가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어른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안전한 생활

내용	1수준	2수준
안전하게 놀이기구	놀이에 규칙이 있음을 안다.	규칙을 지켜 놀이한다.
	놀이기구와 놀잇감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만 2세 영아는 다양한 이동능력과 대·소근육의 발달이 이전보다 진행됨과 동시에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 이전의 의존적인 존재에서 좀 더 독립적인 존재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아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놀잇감이나 놀이기구를 혼자만 사용하려 하고 또래와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이 시기의 영아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는 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놀잇감을 원래의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다루거나 놀이기구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의 안전을 위해 차례대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또래에게 놀잇감을 던지지 않고, 놀잇감 사용 후 제자리에 정리하기 등 놀이에 규칙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규칙에 따라 놀이하게 함으로써 영아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고 놀잇감이나 놀이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려주어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지도한다.

보육실 안전점검표와 실외놀이터 안전 점검표에 따라 영아용 놀이기구와 영아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깥놀이터에 깨진 유리나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가 있는지 바깥놀이를 하기 전에 점검하고 바깥놀이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영아가 주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위험을 알고 조심하기	시설물의 위험을 안다.	시설물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한다.
	화재의 위험을 안다.	화재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
	위험물질(약품류, 세제류 등)을 안다.	위험물질(약품류, 세제류 등)을 알고 만지거나 먹지 않는다.
	유괴의 위험을 안다.	유괴의 위험을 알고 혼자 다니지 않는다.
	성폭력의 위험을 안다.	성폭력의 위험을 알고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

만 2세 영아는 이동능력이 커지고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위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취약하다. 만 2세 영아는 지속적인 감독과 안전교육이 제공될 경우, 주변 환경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영아에게 주변 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위험을 인지하고 조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시설물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려주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이나 창문을 닫을 때 손이 끼 수 있고, 전기 콘센트에 이물질을 넣거나 만지면 위험하며, 실내에서 뛰거나 부주의하게 다니다가 미끄러지거나 부딪힐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교사는 매달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영아로 하여금 화재의 위험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며 화재의 원인에 대해 알려주어 영아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지도한다. 소방훈련에서는 영아가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피 훈련을 했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또한 어린이집 전체 층에 연기(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각 층이나 주방 근처에 ABC 유형의 소화기를 구비한다. 소화기에는 이용

지침과 소화기 구입 날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약품류, 세제류, 살충제 등 여러 가지 위험물질을 알게 하고 영아가 먹거나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영아에게 어른이 주는 약만 먹도록 지도하고 영아 혼자서 함부로 약을 먹지 않도록 가르친다. 교사는 영아에게 약을 먹일 경우 부모의 투약의뢰서에 따라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지키고 약을 먹인 다음에는 투약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약물오남용 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중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유괴의 위험에 대해 지도하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의 위험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유괴나 성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아가 신변의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설비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안전 점검표에 따라 보육시설 실내·외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위험한 시설·설비는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한다. 특히 보육실은 영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보육실 안전점검표에 의해 위험한 요인은 없는지 매일 점검하여 영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교통기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기	교통기관의 위험을 안다.	교통기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
	신호등의 의미를 안다.	신호등의 신호에 맞춰 성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다.

만 2세 영아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의 색 이름을 알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의 간단한 모양을 구분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이 많다. 영아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움직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차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교사는 영아에게 차가 멈춘 후에 차에 오르거나 내려야 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도 움직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주차장이나 자동차 뒤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영아로 하여금 교통기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도로에 혼자 나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들이 다

나는 인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신호등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신호에 맞추어 어른과 함께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두 달에 한 번 이상(연간 12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아로 하여금 기본적인 교통규칙을 익히도록 지도하고 부모에게도 교통기관 이용 시 영아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공지하여 가정과 연계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른 생활

내용	1수준	2수준
바른 예절을 알기	바른 태도로 인사한다.	
	바른 말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	

만 2세 영아는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성이 발달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함을 안다. 어휘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3개의 낱말로 된 문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존댓말과 부정문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기 자신이나 인형을 상대로 말을 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지배적이며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 있다.

교사는 매일 영아가 등원할 때마다 영아를 반갑게 맞이해 주어, 영아에게 인사하는 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친구와 어른에게 바른 태도로 인사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에게 바른 말을 사용하여 좋은 모델링이 되도록 하며 영아의 말을 존대어로 다시 한 번 반복해주어 영아로 하여금 어른에게 존대어를 사용해야 함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영아가 다른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거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은 좋지 않음을 이해시키고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기본 질서를 알기	자기 순서를 안다.	순서를 기다린다.
	물건을 도움 받아 정리한다.	물건을 스스로 정리한다.
	간단한 약속을 지킨다.	

만 2세 영아는 자조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로 자신의 물건을 알고 정리할 수 있지만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지 못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자기의

순서를 잠시나마 기다릴 줄 알고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제 자리에 정돈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의 영아는 놀이 지속 시간이 짧고 쉽게 놀잇감에 흥미를 잃지만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며 간단한 약속을 지킬 줄 안다.

교사는 영아가 간식이나 식사 시간에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익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놀이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싶은 놀잇감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친구가 건네줄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도하되 오래 기다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한다. 영아는 유아와는 달리 교사가 대부분을 정리하고 영아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영아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기회를 점차 늘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정리 전에 미리 정리할 시간임을 알려주고 정리 음악을 들려주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정리를 하게 하여 정리 시간을 재미있게 이끌어준다. 놀잇감의 그림이나 사진을 교구장에 붙여두어 영아가 쉽게 정리하도록 하되 정리를無理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많은 놀잇감 정리는 영아가 힘들어할 수 있으므로 영아가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놀잇감을 지정해주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사용한 물건이나 놀잇감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며 교사와 함께 정리하는 경험을 해 보며 정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한편으로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영아에게 알려주고 영아가 간단한 약속을 지키면 칭찬으로 격려해준다.

교사는 순서를 기다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벽에 부착하여 영아로 하여금 순서를 기다려야 함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하루 일과 중 정리정돈 시간을 활용하여 정리정돈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가 약속을 지킨 경우 칭찬을 통해 격려해주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은 일임을 알게 해 주고 영아가 놀잇감을 사용한 후에는 원래의 자리에 정리하도록 하여 놀잇감 때문에 영아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교사가 먼저 놀잇감 정리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유아가 따라서 해보도록 지도함으로써 점차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만 3~5세

가) 건강한 생활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스스로 이를 닦는다.		이를 깨끗이 닦는 습관을 갖는다.
	스스로 손을 씻는다.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다.	
	몸을 씻는다.	스스로 몸을 씻는다.	몸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몸을 깨끗이 하는 행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닦기와 손 씻기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의 기초이다. 이 닦기는 대근육 활동이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는 것은 소근육 활동이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만 3세 유아는 성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만 4~5세가 되면 이를 닦는다는 행동 자체보다는 효과적으로 이를 닦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식후와 자기 전에 이를 닦도록 지도하며, 당분이 많은 음료수나 캐러멜, 초콜릿 등은 치아 사이에 침투하여 충치와 잇몸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먹은 후에는 즉시 닦도록 한다.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아에 손상을 주는 딱딱한 음식이나 물건을 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치아를 보호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유아가 스스로 깨끗하게 이를 닦으면 칭찬으로 격려해 줌으로써 성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닦는 것보다는 유아 스스로 이를 깨끗하게 닦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염병과 기생충 감염은 물론 각종 중금속 중독과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손을 거쳐 전해진다. 유아에게 비누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비누거품을 내고 손을 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유아 스스로 깨끗하게 손을 씻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만 4세 이상의 유아는 청결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다. 유아로 하여금 손을 씻어야 하는 시기를 알고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지도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샤워나 목욕은 교사보다는 부모와 더 자주 경험을 갖게 된다. 가정마다 상황과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몸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얼굴을 씻으면서 코와 입 안에 있는 질병의 근

원이 될 수 있는 콧물과 가래를 제거해야 한다. 유아가 어려워 할 수 있으므로 시범을 보이면서 지도한다. 손발톱 깎기와 같이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활동에 대해 부모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머리 감기와 머리 빗기는 어른의 지도에 따라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 3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콧물, 침, 가래 등의 체액이 전염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유아가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 콧물, 침, 가래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고름 등도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상처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흘러나올 때 어른에게 알려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호흡기질환의 병원체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확산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손이나 휴지로 적절하게 입과 코를 반드시 가리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유아에게 옷 입기는 체온조절뿐 아니라 신체에서 배설되는 땀과 피지 등을 흡수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 입기는 건강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하거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갈아입도록 지도한다.

유아에게 활동 후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는 방법이나 빗자루나 걸레로 주변을 청소하는 방법도 지도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지도하여 집이나 보육시설 등 유아가 생활하는 주위의 휴지 줍기를 생활화함으로써 환경을 아끼고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바른 식습관 갖기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영양이 건강에 중요함을 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안전한 음식을 안다.	안전한 음식을 먹는다.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식사 예절을 안다.	식사예절을 지킨다.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필수적이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신체에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인 동시에 식사예절을 익히는 기회가 된다. 또 식사 시간은 유아의 기호를 충족해 주고 만족감을 주는 등 개인의 행복감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날로 증가하는 비만의 원인은 대부분 영유아기 때부터 잘못된 형성된 식습관에 있

다.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된 식습관과 기호를 가지고 있으면 영유아에게 비만이 생길 수 있으며, 지나친 유아 스트레스도 식욕을 증가시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영아기부터 상품화된 획일적인 맛의 이유식보다는 다양한 재료로 식품 특유의 맛을 살린 이유식을 경험한 영아가 이후 편식할 비율이 낮다. 특히 유아기는 식습관과 기호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유아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균형 잡힌 영양의 음식을 적당량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근 아동 4명 중 1명의 비율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는 음식물과 생활 속의 먼지를 들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가 어떤 음식에 예민한지 부모와 함께 관찰해야 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물은 주로 우유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식품이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콩 단백질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는 에너지 공급, 신체의 구성, 신체 기능의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교사는 유아에게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지도하며, 음식에 포함된 기본 영양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유아기 영양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식 재료나 균형 있게 짜인 식단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야채나 과일도 골고루 먹도록 지도한다.

한 가지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데는 식품의 재배와 생육, 생산, 유통, 구매, 준비, 조리과 배식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유아에게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거나, 견학을 가거나, 직접 요리활동을 해 봄으로써 음식을 만드는 수고와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또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스스로 정리하고 남긴 음식의 처리과정, 남긴 음식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알게 함으로써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

음식은 다양한 영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처가 되며, 시중에 조리된 음식의 유통이 늘면서 음식의 조리과 포장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거나 변질된 음식이 유통되는 등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눈으로 관찰하고 코로 냄새를 확인하여 상한 음식이나 불결한 음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음식을 먹기 전 먹어도 되는 안전한 음식인지 확인하고 먹도록 지도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하는 일은 즐거운 하루 일과 중의 하나이다. 식사시간은 시장기를 해소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다. 교사는 식사를 하는 동안 큰 소리로 유아를 나무

라거나 유아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삼가고 꼭 타일러야 할 일은 식사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한다. 식사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 유아의 행동을 칭찬하여 다른 유아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서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적당한 잠자기와 휴식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적당한 휴식이 필요함을 안다.		스스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만 3~5세 유아의 권장 수면 시간은 낮잠을 포함하여 10~12시간 정도이다. 낮잠 지도는 일과 중에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낮잠에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수면시간은 개인차가 있어서 유아에 따라 낮잠을 길게 자기도 하고 짧게 자거나 연령이 높은 유아들은 자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낮잠시간을 획일적으로 지도하기보다 유아의 체력과 생리적인 특성, 가정에서의 수면시간과 취침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 배려를 하도록 한다.

피로는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유발된다. 피로 상태에서는 에너지 대사 중간 산물이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낮잠이나 휴식으로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고 중간 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안색이나 표정, 그리고 유아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피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피로한 유아의 특징은 안색이 창백하거나 어둡고 표정이 멍하거나 약간 찌푸리고 있으며 행동이 느리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피로가 쌓이면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활동과 수면정도를 파악하고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 스스로 피로하다고 느낄 때 어른에게 알리거나 스스로 적절한 장소를 찾아 휴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 수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여러 가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과거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건강상태가 신체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심리적인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는 놀이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러한 건강한 상태가 다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보육시설에서 다른 유아들과 함께 지내는 집단생활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키워 심리사회적인 건강을 증진하기도 하지만 유아가 하루일과 중에 개인적으로 쉬고 싶거나 혼자 있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교사는 유아가 하루일과에서 자신의 활동 욕구에 따라 편안하게 지내도록 개별적으로 배려한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공격적이라면 유아의 스트레스 근원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아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매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다. 유아의 과격한 행동을 무조건 나무라기보다는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유아가 어떠한 활동을 즐거워하는지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보육시설의 일과에 항시 즐겁게 참여하도록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바른 배설습관 갖기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배변 후스스로 적절한 뒤처리를 시도한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배설 후에 손을 씻는다.		

유아에게 화장실을 사용하여 배설하도록 강조하고 구체적인 화장실 사용절차와 방법을 지도한다. 배설 후 뒤처리 하는 방법, 특히 여아들에게 휴지로 뒤처리를 할 때 닦는 방향을 앞에서 뒤쪽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남아들에게는 소변을 볼 때 성급하게 바지지퍼를 내리지 않도록 한다. 놀이에 몰두하여 배설하기를 미루다 실수를 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배설의 욕구를 느꼈을 때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배설한 뒤 놀이에 계속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 장소이며, 불결한 화장실은 전염병의 주요 매개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아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배설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 수준
상황에 맞게 옷 입기	놀이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날씨에 맞는 옷을 입는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선택하여 입는다.	

인간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만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 기온이

27℃ 이하로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옷을 입어야 하며, 바람이 불면 체열의 방출이 커져 좀 더 보온력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처럼 의복은 환경의 변화를 완충하여 인체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중 대비 체표면적이 넓어 체열을 방출하는 면적이 넓고 기초대사율이 높으며 활동에 따른 체온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날씨나 놀이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

유아가 날씨에 따른 적절한 옷차림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나 장갑, 목도리, 햇빛을 가리는 모자 등 실제 옷을 이용하여 지도한다. 유아는 활동량이 많고 놀이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므로 흡습성과 흡수성이 우수하고 외부 충격과 유해한 광선이나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춘 의복이어야 한다. 여름에 햇볕 아래서 활동해야 할 때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긴팔 옷이 더 적합하다. 옷이 비에 젖으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으므로 젖은 옷을 벗고 몸의 물기를 닦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도록 지도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생활 실천하기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한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이해, 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마약취급, 건강에 대한 지식 등 도덕적, 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에게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기본 요건이지만 삶을 즐겁게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균형을 유지한 상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바람직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몸가짐 등이 건강에 중요한 기초가 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건강이 뒷받침되어 심신의 조화로운 건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질병 예방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한다.	
	질병의 위험성과 예방하는 방법을 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 중 한 가지는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은 몸에 약간의 병원체(항원)를 주입하여 이에 대한 특이 면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원리이다. 예방접종은 약간의 부작용과 고통이 있지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수단이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자의 보호자는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유아기의 예방접종에 대해 부모와 항시 연계를 갖고 유아에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만약, 예방접종에 대한 위임을 부모로부터 받을 때는 부모에게서 정확한 예방접종과 접종시기, 과거 예방접종 경력에 대한 사항, 유아의 특이 체질 유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확히 인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할 때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유아도 있다. 교사는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어 유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또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자신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유아에게 설명해 주어 유아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건강검진 항목과 관련된 신체 상태와 실천해야 할 건강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어 유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점차 기르도록 한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 이상 상태가 발견된 유아는 부모를 면담하고 추후 검진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추후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강기록부에 기록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아를 관찰한다.

나) 안전한 생활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논다.	
	안전한 놀이장소를 안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만 3-5세 유아는 영아에 비해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운동기술은 급속히 발달한다. 달리면서 방향 바꾸기, 올라가기와 뛰어내리기 등의 신체적 활동기술을 통해 공간 지각력을 갖게 되고 힘의 강도를 알게 되며 자신감과 자율성을 신장시킨다. 특히 눈과 손의 협응과 소근육이 급속히 발달하여 조각 맞추기, 가위로 오리기, 수저사용, 단추 채우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블록 쌓거나 끼우기 등이 가능해진다.

다.

교사는 놀이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놀이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야 한다.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놀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놀이 진행과정에서 규칙을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할 때 안전한 놀잇감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유아에게 필요한 실·내외 놀이기구의 사용법을 알려주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놀이 기구의 안전한 이용법을 가르치며 보호 장구가 필요한 놀이(자전거, 킥보드, 롤러 블레이드 등)의 경우에는 헬멧,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 장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한다. 유아가 교사는 놀이의 규칙을 지키고 놀이하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배려하는 태도 또한 익힐 수 있으며 놀이의 규칙을 알려주어 지키도록 지도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에게 안전과 위험의 의미를 알게 하며 놀이장소를 선택할 때는 놀이하기에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를 할 때는 어른이 지켜보는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를 하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하기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실외놀이터 안전점검표에 의해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안전하게 행동하고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화재, 재난, 사고의 위험을 안다.	화재,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행동한다.	화재, 재난, 사고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인식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알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만 3-5세 유아는 영아에 비해 위험을 더 많이 인지하고 안전한 행동에 대해 알게 되며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또한 익힐 수 있다. 그러나 흥분하기 쉽고 전체를 보기 보다는 한 가지 측면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고를 입기 쉽다.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의 감독이 필수적이지만, 교사는 유아 자신이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행동하고 사고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가 어떠한 상황이 위험한지를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에 위험을 알려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유아에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불안하거나 무서워서 울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가 위험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교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비상시 주변 어른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는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게 홍수와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난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며 자연재해가 주는 위험과 손상,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에게 위험한 시설물이나 설비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과 함께 규칙을 지켜 시설물을 이용해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교사는 그림 자료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올바른 시설물 이용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바닥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바르게 서 있도록 하고 내릴 때 어른과 함께 내리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거나 뛰지 않도록 지도한다. 계단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 오르내려야 하며 밀거나 뛰면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등의 시설물의 바른 사용법을 지도한다.

한편으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유괴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성폭력이나 유괴의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유아로 하여금 기본적인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 가지 않도록 지도하여 성폭력이나 유괴를 예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교사는 교육용 비디오를 이용하여 화재, 재난, 사고, 학대나 유괴 등의 위험에 유아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비상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는 개별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니기	교통규칙의 필요성을 안다.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닌다.	
	차량보호장구의 필요성을 안다.	차량 보호 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만 3~5세 유아의 사고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통규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유아의 교통사고 유형으로는 보행 중 사고, 차량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자전거와의 충돌,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안전한 보행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 보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서는 건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공사를 하여 인도가 없는 길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유아 혼자서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팔을 들고 건너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횡단금지’나 ‘위험’ 등의 기본적인 교통 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그림이나 사진자료 또는 놀잇감, 실물을 제공하여 지도한다.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기관에 대해 알려주고 도로와 교통수단의 위험에 대해 지도한다. 교사는 유아에게 버스, 승용차, 기차, 자전거 등의 교통기관의 주의 사항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어른이 있는 곳에서 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차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차량에 설치된 안전띠는 남자 어른의 체격에 맞추어 설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유아의 목이 졸리거나 깊은 상처를 입는 등 유아에게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의자는 영아용(생후 1세까지), 유아용(1~4세), 아동용(4~10세)의 세 종류가 있다. 교사는 유아를 위한 차량보호장구를 뒷좌석에 설치해 유아가 앞을 보고 앉게 하며 차량보호장구의 안전띠는 유아의 목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한다.

다) 바른 생활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바른 예절을 지키기	정직하게 행동해야 함을 안다.	정직하게 행동한다.	
	예절바른 언어를 안다.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약속의 의미를 안다.	약속을 지킨다.	
	실수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실수에 대하여 사과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을 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만 3-5세 유아는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결과 뿐 아니라 의도를 고려하여 옳고 그른 일을 구분하게 되며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자기와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유아는 규칙에 대한 이해가 생기므로 약속을 했을 경우 지켜야 함을 이해하고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좋은 모델링을 제공하거나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통해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정직의 중요성을 유아에게 알려주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예절 바른 언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반복 제시하여 유아가 자연스럽게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또는 실수를 사과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바른 예절과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유아에게 지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유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약속을 했을 경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유아에게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골고루 먹거나 바깥놀이 후 손을 깨끗이 씻기 등의 약속을 정한 후 약속을 잘 지킨 경우 칭찬을 통해 강화해 준다.

한편 유아는 자기중심성이 강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보도록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말로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적인 교사의 지도와 설명에 의해서도 바른 예절과 기본 질서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지만 친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나 비디오 등을 제공하거나 역할놀이, 게임, 이야기나누기 등의 보육활동을 제시하여 유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기본 질서를 지키기	공공규칙을 안다.	공공규칙을 지킨다.	
	자신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룬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소중하게 다룬다.	

만 3-5세 유아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 뿐 아니라 공공규칙에 대해 알고 지킬 수 있다. 유아는 어린이집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여러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예측하게 되어 규칙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유아는 나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야 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에게 나의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물건도 매우 소중한 물건임을 알도록 하여 나와 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도록 가르치고 유아가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의 개인사물함에 표시를 하여 자신의 물건을 유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도와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유아가 사용 후 제 자리에 정리·정돈하도록 지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인식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수시로 보육실내 파손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즉시 보수하여 모든 유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자원을 아끼기	자원을 소중함을 안다.	자원을 아끼고 재사용 한다.	

만 3-5세 유아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자원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의 노력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유아는 물건이

만들어져서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 수고하는 여러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교사는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로 하여금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아껴서 사용해야 함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산업의 발달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물자가 풍부해지고 빠르게 유통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이해시키고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준은 물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한다.

교사 스스로 아끼는 생활을 실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하고 유아에게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열어 서로 사용한 물건을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유아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할 수 있다.

2. 신체운동

가. 목표

- ☐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운동능력을 기른다.
 - 기본적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기본적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영아는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한다. 오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영아의 감각 운동과 연결되어 지각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기에 기본적인 오감각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아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발달 수준이나 흥미, 요구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속에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을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나 혹은 신체 움직임을 제공하여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몸에 대한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긍정적 인식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영유아기는 신체를 조절하고 균형감을 기르며, 기본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유아기의 건강한 성숙을 위해 기본 운동 능력과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사회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아기의 기본 운동 능력과 기초 체력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아기에 습득된 운동 능력은 후에 운동습관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놀이나 신체운동을 통해 기본운동 능력이 발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체운동 능력의 발달은 이후의 학습활동과 사회·정서적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운동 발달 이상의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신체를 조절하고 협응하는 능력을 키워간다. 놀이를 통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발견을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본다. 또한 신체운동을 통해 신체조절 능력을 획득하고, 균형있는 바른 자세를 형성하며, 기본적 운동수행능력의 발달을 도모하여 기초체력을 형성하게 되며, 만지고, 두드리고, 던지며 노는 가운데 눈과 손의 협응능력의 발달을 돕는다.

유아기의 기초 체력이란 생활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힘과 함께 신경 관련 체력 요소인 협응력과 비만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유아기의 기초 체력은 기본 운동 기능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향상되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체력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 운동 능력은 기본 운동 기능(걷기, 달리기 등)의 능력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동 운동(이동하면서 움직이기), 비이동운동(제자리에서 움직이기), 조작운동 (물체를 조작하며 움직이기)로 구분된다.

영유아의 기본운동능력은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유아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으며 탐구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신체적

능력이나 운동적 기능이 미숙한 상태이며 주변의 위험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많은 위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운동능력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과 직결되며, 특히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된다. 순발력이란 신체 전체의 위치를 이동하고 변화시키는 순간적인 힘을 의미한다. 민첩성이란 신체활동에 있어서 몸 전체의 동작이나 부분적인 동작을 급속히 변경하거나 또는 이동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장애물을 빠져나가 달리고, 발을 재빨리 차올리고, 담이나 장벽을 뛰어넘고 신속히 눕고 일어서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순발력과 민첩성이 획득되어짐에 따라 유아는 자신의 몸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신체활동을 할 때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고, 신체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체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간의 간헐적 참여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는 불안정한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며, 활발하게 해 준다. 영유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영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첫째, 정서적 유대가 결핍된 데서 오는 외로움이나 불안, 둘째, 목표 추구 활동이 저지당한 결과로 생기는 욕구좌절 등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는 경험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이는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영유아의 스트레스는 영유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신체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 연령별 목표와 내용

구분	2세 미만	2세	3~5세
목표	기본적인 감각능력으로 주변환경을 탐색하고, 신체조절 능력을 획득한다. 1) 감각기능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인식한다.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인 운동수행 능력의 발달을 꾀하여 기초체력을 기른다. 1) 감각적 차이를 알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	여러 가지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체운동 능력을 증진한다. 1)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구분		2세 미만	2세	3~5세
목표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3)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적으로 인식한다.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3) 안전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3)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내용 범주	감각 및 신체인식	·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 · 신체탐색하기	· 감각능력 기르기 · 감각기관 활용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 감각능력 기르기 · 감각기관 활용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 및 기본운동	· 대근육 조절하기 · 균형감 기르기 · 소근육 조절하기 · 협응력 기르기 · 이동운동 시도하기 · 비이동운동 시도하기	· 신체조절력 기르기 · 신체균형감 기르기 · 조작 운동하기 · 이동운동하기 · 비이동운동하기	· 신체 조절하기 · 움직임의 요소를 인식하고 운동하기 · 조작운동하기 · 이동운동하기 · 비이동운동하기
	신체활동 참여	· 몸 움직임 즐기기 ·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	·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 안전하게 신체활동하기	·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 안전하게 신체활동하기

1) 만 2세 미만

가) 감각과 신체 인식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감각적 자극을 느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생후 2세 미만까지의 영아기는 감각운동기로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 경험으로 뇌세포의 발달이 촉진되며 미숙했던 감각기능이 차츰 더 발달해가는 시기이다. 또 감각을 느끼고 이에 대해 반응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

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생아는 미각이 시각보다 먼저 발달한다. 특히 단 것을 선호하며, 후각은 미각과 마찬가지로 출생 시에 거의 완전하게 발달된다. 청각은 출생 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있다. 생후 20일 경에 이미 어머니의 목소리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 할 수 있고, 생후 1년이 되면 아주 작은 소리도 식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며 소리의 높낮이, 음색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신생아의 시각은 1개월경부터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응시가 가능하며 촉각은 출생 시 입술과 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피부접촉을 통한 자극은 신생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영아기를 지내는 동안 미각이나 후각, 촉각은 완전하게 발달한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감각자극이 매우 중요하다. 아기와 눈 맞춤을 해주고 부드럽게 이야기 해주면서 안아주고 가볍게 흔들어 주고 토닥여주는 등의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모빌, 간단한 그림이 있는 책 등 크기, 모양, 색깔, 형태가 다른 사물을 보여주면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악기 놀이감, 음악 들려주기, 여러 가지 음조의 목소리 들려주기, 이야기 해주기’ 등 활동을 통해 청각 자극을 제공한다. 또 영아의 손으로 여러 가지 물체를 만져보게 함으로써 각기 다른 촉감을 느껴보도록 한다.

생후 5개월째부터는 이유식을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쌀과 같은 곡물로 시작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의 음식을 맛보게 하면서 차츰 여러 가지 음식 맛을 느껴볼 수 있게 한다. 감각적 자극을 제공할 때는 영아가 관심을 보이고 반응할 때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자극을 한꺼번에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때 모든 수준에서 영아가 감각적 자극을 느끼고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하며, 수준이 높아질수록 좀 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영아는 일차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의 지각을 통해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영아는 관심 있는 물건을 보면 손을 뻗어 만져보고 입에 넣어보거나 다른 사물에 부딪쳐 보기 등의 감각적 활동을 통해 사물의 성질과 환경을 이해해 간다. 감각 자극이 좀 더 발달하면 기기, 걷기 등 이동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주변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해 간다.

교사는 영아가 관심을 가질만한 딸랑이나 오뎅이, 움직이는 물체 등 적절하고 안전한 놀잇감을 주변에 두어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한다. 이 때 입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물체나 목에 감을 수 있는 긴 끈, 뒤집어 쓸 수 있는 비닐봉지, 날카로운 물건, 마시거나 먹으면 위험한 독성 물질 등은 영아의 손닿는 곳에 두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입으로 가져가 빠는 놀잇감은 독성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주도록 하며 자주 세척하여 청결하게 보관한다. 또 가구 모서리에 부딪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위험한 부분을 살피며 전기 콘센트 구멍에 물체를 집어넣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항상 안전덮개로 막아두도록 한다.

교사가 일단 안전한 환경을 마련한 후에는 영아가 관심 있는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잠시 영아의 얼굴이나 손, 몸이 지저분해지거나 주변이 어질러져도 위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되도록 제재를 하지 않고 허용한다. 또 보육실 뿐 아니라 좀 더 넓은 놀이실, 야외 공간 등 허용되는 다양한 공간 속의 범위 내에서 환경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신체 탐색하기	손과 발 등을 바라보며 탐색한다.	얼굴, 몸 등 신체부분을 탐색한다.	팔과 다리 등 신체부분의 다양한 움직임을 탐색한다.	

영아기 초기에는 자신의 몸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몸 자체가 좋은 놀잇감이 된다. 약 3개월 이후에는 자신의 손을 빨고 눈앞으로 두 손을 모아 한참씩 바라보기도 한다. 또 다리의 움직임이 커지는 5, 6개월이 되면 두 손으로 물건을 잡고 쳐다보며 두 손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물 가까이 손을 가져가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아직 손의 소 근육 발달이 미숙하여 물건을 잘 잡고 있지는 못한다. 또한 구강기에 해당되므로 구강(입술, 혀, 입)으로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며, 발가락을 빨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몸을 탐색해 가는 과정이므로 손이나 발을 빠는 행동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 영아기 초기부터 아기의 눈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야, 여기가 머리고, 어깨, 팔, 다리, 눈, 코, 입이야.”라고 천천히 반복해서 자주 말해준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과 같은 노래를 하면서 리듬감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다.

어린 영아는 거울을 보여주면 자신의 모습인줄 인식하지 못하지만 거울 속에 있는 사람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 깨지지 않는 거울을 침대에 놓아 혼자서도 거울을

보고 놀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얼굴, 몸 등을 거울로 같이 보며 혀를 내밀거나 갖가지 표정도 따라 하게 하면서 자신의 신체부분을 탐색하고 자기 인식이 생기도록 도우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만 2세가 되어갈 때쯤에는 팔과 다리, 몸통 등을 교사를 따라 각각 움직여 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느껴볼 수 있게 한다.

나)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대근육 조절하기	목을 가누다. 뒤집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	누웠다 앉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	

영아는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몸을 가누고 자세를 바꾸는 등 기초적인 신체움직임으로서 대근육을 조절하게 된다. 영아는 근육과 신경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원시적인 반사는 사라지고 자의로 신체를 조절해 가기 시작한다.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 특히 신체발달은 머리에서 발쪽으로 이루어지므로 몸의 조절능력도 목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의 순으로 발달한다.

생후 4개월 정도 되면 안고 있을 때나 누워있는 영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목에 힘을 주어 잘 가눌 수 있게 된다. 5개월 전후해서 엎드려 누워있을 때 팔로 지탱하고 가슴을 들 수 있으며 몸을 뒤집을 수 있다. 7, 8개월 정도 되면 앉아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이 되면 영아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설 수 있게 되며, 19~24개월에는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서고, 걷고, 앉고,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

몸을 가누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그 월령에 적절한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으며,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에도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므로 신체조절 능력은 적절한 탐색 활동을 위한 기본이 된다.

교사는 머리를 가눌 수 없는 경우 목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영아가 깨어있는 동안 영아를 엎드리게 하여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거나 바닥을 손으로 짚고 머리, 가슴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바닥은 폭신하지 않고 딱딱한 것으로 하여 얼굴이 파묻히지 않도록 한다. 혼자서 몸을 가누고 잘 앉을 수 있을 때까지는 잠깐씩 붙잡아 주면서 앉혀놓으며, 완전히 혼자서 중심을 잡고 앉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앉아 있다가 앞이나 뒤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영아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쪽쪽 펴주는 등의 스트레칭 체조나 똑바로 누워 있는 영아의 발을 잡고 자전거를 타듯이 아기의 몸 쪽으로 한 다리씩 교대로 굽혀주는 ‘자전거 타기’ 동작은 영아의 굴근과 신근을 같이 발달시켜 대근육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생후 9~10개월에는 누워 있던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으며 소파나 가구를 붙잡고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또 앉아 있다가 기는 자세로 엎드리거나 무릎을 딛고 몸을 일으키기도 한다. 영아가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거나 허리를 굽혀 물건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조절할 수 있다하더라도 만 2세 미만에서는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기 쉬우므로 교사는 활동할 때 항상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균형감 기르기	앉히면 앉는다.	붙잡고 서 있기, 혼자 서 있기 등 자세를 시도한다.	안정되게 서있기 등 자세를 취한다.	

균형감은 앉기, 서기 등을 취한 자세에서 안정되게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유아는 근육과 신경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머리부터 발쪽으로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앉기, 서기 등의 자세를 차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생후 7~8개월 정도 되면 앉아서 중심을 잡고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생후 9~10개월에는 가구 등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다.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 발 한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를 시도할 수 있다. 그 후에는 혼자 잘 서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제자리에 서서 어떤 동작을 따라 하게 하면서 선 자세에서 균형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영아가 여러 가지 동작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팔과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균형감에 초점을 둔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소근육 조절하기	물체를 잡는다.	양손으로 물체를 잡거나 놓는다. 엄지와 검지로 물체를 잡는다.	간단한 쓰기 도구를 잡고 끼적인다.	

‘소근육 조절하기’는 손으로 잡기, 놓기 등의 동작을 하면서 굴근을 발달시키고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교사는 영아의 손에 물체를 쥐어 주면서 잡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하여 굴근의 발달을 돕는다.

생후 6~7개월에는 작은 물체를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를 이용하여 훑는 것처럼 잡지만 8개월이 되면 여러 손가락을 이용하여 집다가 10개월이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다. 생후 7~9개월에는 손뼉을 칠 수 있고, 원하는 놀잇감을 1분 이상 잡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양손에 물체를 잡고 양손의 물체를 서로 부딪쳐 소리 내보도록 하거나 양손으로 컵을 들기, 손으로 작은 음식물 집어 먹기 등으로 좀 더 세밀한 손의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게 한다.

10~12개월에는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킬 수 있고 각각의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아가 잡을 수 있도록 책장을 들어주면 책장을 넘긴다. 생후 12개월경에는 물체를 떨어뜨리고 다시 잡는 행동을 즐기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무줄 같은 끈으로 물체를 묶어 주면서 물체를 떨어뜨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놀이를 격려하거나, 크레파스나 색연필과 같은 간단한 쓰기 도구를 잡고 끼적이는 그림 그리기, 부드럽고 큰 공을 굴리거나 던지기, 1~2조각 퍼즐맞추기, 모래놀이, 반죽놀이, 물놀이 등을 시도하게 하면서 손의 힘과 조절력을 키워줄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협응력 기르기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는 등 눈과 손의 협응을 시도한다.	물체 쌓기 등 눈과 손의 협응을 시도한다.	물체를 끼우기 등 눈과 손의 협응을 시도한다.	

영아는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과 시각 발달을 기초로 눈과 손이 협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한다.

영아는 생후 1개월경이면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잠시 동안 좇을 수 있고, 4개월경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를 좇아서 쳐다 볼 수 있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물체를 쳐다보고 팔을 뻗친다. 3~5개월에 사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손을 뻗어 물체를 잡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딸랑이 등을 잡고 있는 것은 아직 어렵다. 5개월경이면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교사는 영아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물체를 놓고 영아의 관심을 유도하여 다양한 물체를 잡아볼 수 있게 한다.

영아가 눈과 손을 협응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쥐어주는 물체를 잡는데 그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보고 적절하게 팔과 손을 조종하여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달하면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며 팔과 손을 움직여 잡을 수 있다.

생후 7개월이면 영아는 팔을 뻗어 관심 있는 물체를 잡을 수 있다.

생후 9개월경이면 한 손으로 물건을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건을 잡기를 시작한다. 생후 1년을 전후한 시기에 영아는 눈과 손, 눈과 발 등 감각기관의 협응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생후 19~24개월경에는 구멍에 끈을 끼울 수 있는데, 3cm 크기의 구슬 3개 정도를 실에 끼울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동 운동 시도하기	배밀이 등 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기기, 붙잡고 걷기, 걷기 등 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이동 운동은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배밀이 등 이동 운동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영아가 배밀이를 시작하려 하면 영아 앞에 관심 있는 물건을 놓아 주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북돋워준다. 처음에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가거나 한자리에서 뱅글 뱅글 돌기도 하나 연습하여 차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동 동작을 위한 준비로 다리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워있을 때 발바닥을 손으로 가볍게 쳐주는 등 자극을 주어 영아의 발차기 연습을 도우며 목을 가누고 허리에 힘을 줄 수 있는 6개월 이후가 되면 교사가 겨드랑이에 손을 끼우고 세우는 연습을 시켜 차츰 다리의 힘을 기르도록 한다. 생후 7개월 정도면 영아를 붙잡고 바닥에 세웠을 때 온몸의 체중을 발에 실을 수 있다.

생후 10~11개월경부터 영아는 팔과 다리를 세워 기기 시작하며 소파나 의자 같은 가구나 물체를 붙잡고 걷는 등 이동 운동을 한다. 생후 10~11개월경 가구를 붙잡고 걸을 정도가 되면 교사의 발등 위에 영아를 세워놓고 같이 걸어 보거나 영아의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시도해 보면서 즐거운 놀이와 같이 느낄 수 있게 한다. 걸음마를 익지로 시킬 필요는 없지만 혼자 서기에서 한 걸음씩 떼려는 영아의 시도에는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해 준다. 생후 13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영아들이 혼자서 걸을 수 있으나 처음에는 팔을 뻗고 뒤통거리는 걸음에서 시작하여 아직은 불안정하다.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보다 좀 더 걸음이 자연스러워지지만 아직 자주 넘어지므로 교사는 교실 바닥이나 영아의 발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며, 영아가 걸려서 넘

어지는 물건이 없도록 주위를 안전하게 정돈한다. 걸거나 붙잡고 일어설 때, 위험하지 않도록 뽕족한 물체는 치우고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구만 배치한다. 생후 15개월경 영아는 거의 넘어지지 않고 혼자 서고 걸을 수 있으며, 16~17개월이 되면 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걷기에 능숙해진다. 그러나 아직은 모서리를 따라서 걷거나 갑자기 정지하지는 못한다. 생후 18개월이면 계단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고, 한 손을 잡아 주면 계단을 내려올 수 있으며, 초보적인 달리기 가능하지만 능숙하지는 않다. 생후 21개월경이면 난간을 잡고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24개월이 되면 보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달릴 수 있고, 달리다가 멈출 수도 있다.

영아가 걷기 시작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거나 약간 떨어진 곳에 놀잇감을 놓아둔다. 걷다가 서기, 그리고 다시 걷기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있는 영아를 뒤에서 불러 방향을 전환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안전하게 계단 오르기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비이동 운동 시도하기	팔다리 뻗기 등 간단한 비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팔다리 흔들기 등 비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서있기, 앉기 등 비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비이동 운동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영아는 점차 팔다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원하는 방향이나 물체를 향해 팔을 뻗거나 누워서 발에 닿는 물체를 발로 힘차게 찰 수 있다. 그러다가 점차 팔다리 흔들기 등을 시도해 보는데, 비이동 운동은 신체조절 능력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몸을 조절하여 균형감이 생기면 동요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음악 등을 듣고 몸을 리듬감 있게 흔드는 등으로 반응한다. 이는 신체 유연성을 키워 주며, 신체 움직임을 즐거운 활동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영아가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해 흥겨움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세웠을 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은 관절의 자극과 내이의 전정기관의 자극으로 하지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때 칭찬해주고 같이 장단을 맞추어 주며 영아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느껴볼 수 있게 한다. 이후 영아는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거나 의자에 앉기 등의 비이동 동작이 가능해지므로 교

사는 활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동작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다) 신체활동 참여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몸 움직임을 즐기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시도한다.	

영아는 여러 가지 몸의 움직임에 즐겁게 참여하는데 이는 영아의 신체운동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 영아기의 감각적 탐색 경험과 신체활동은 사물과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주며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 교사는 영아의 신체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일과 중에 잡기 놀이, 쌓기 놀이 등을 통해 영아가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놀이로서 인식하면서 즐겁게 활동하게 하고, 교사와 함께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접촉을 경험하게 하면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영아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해 본다. 교사는 영아의 활동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개별적인 발달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신체활동을 실내에서만 하지 않도록 교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외놀이와 야외활동을 계획하여 영아가 자연환경에서도 마음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		밀고 끌기 등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영아는 발달에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생후 7~8개월이 지나면 영아는 사물을 부딪쳐 큰소리내기, 넣어보기, 깨물기, 던져보기, 열고 닫기, 밀거나 당기기, 쏟고 채우기, 질질 끌고 다니기 등을 보다 많이 시도한다. 생후 12개월 이후에는 쌓기, 부수기, 뒤집어 비우기, 비우고 채우기 등의 활동을 즐기며, 18개월이 되면 공을 던질 수 있고, 유모차 등을 밀거나 잘 조종하고, 24개월에는 몸의 균형을 잡고 공을 앞으로 칠 수

있게 된다.

영아가 붙잡고 걷기에 흥미를 나타낼 때 특별히 걸음마 연습용으로 만들어진 바퀴와 손잡이가 있는 기구나 기타 유모차 등 바퀴달린 물건을 미는 신체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아가 아직 페달을 구르지는 못하지만 바퀴달린 자동차 등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타고 발로 밀면서 앞뒤로 왔다갔다하는 놀이를 흥미 있어 할 때는 ‘흔들이 말’ 등과 같이 올라타서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하는 기구는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2) 2세

가) 감각과 신체 인식

내용	1수준	2수준
감각능력 기르기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

영아는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 사물의 구별 능력의 기초가 되는 감각능력을 향상시킨다. 만 2세 영아는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감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이다. 교사는 영아들이 감각적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즉 아름다운 소리, 부드러운 느낌, 달콤한 냄새 등 여러 자극을 경험하게 한다. 간식을 먹을 때나 놀이를 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감각적 자극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교사가 간식을 먹으면서 “이것은 어떤 맛일까?”라고 질문을 하거나 부드러운 털의 인형을 안으면서 “아이~ 좋다. 어떤 느낌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영아들은 자신이 느낀 감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점차적으로 같은 종류의 감각 안에서 감각적 차이를 느끼고 변별해 볼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한다. ‘후각 상자’, ‘촉감 탐색 터널’, ‘여러 색의 셀로판지 부채’ 등과 같은 교구가 효과적이면 이것은 같은 교구로 후각 또는 촉각의 자극을 느끼게 한다. 또 ‘각 계절에 많이 나오는 과일 맛보기’, ‘악기의 다양한 소리 들어보기’ 등의 활동으로 영아들은 다양한 맛과 다양한 소리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어떤 것이 사과 맛일까?” 등과 같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니?” 또는 “어떤 소리가 가장 좋니?”라고 질문하며 영아가 다양한 맛이나 소리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원통에 입을 대고 말하는 활동은 영아가 그냥 말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음식이나 느낌

의 목소리를 만든다. 이 때 교사가 “소리가 이상해졌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라고 수수께끼 식으로 질문한다면 영아들은 두 목소리를 비교하고자 집중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감각기관 활용하기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영아는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탐색함으로써 사물의 특성과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만 2세 영아는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감각적 차이를 인식하며 이 감각적 차이에 따라 주변 환경에 있는 사물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시기이다.

교사는 영아들이 자신의 다양한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익숙한 주변 소리 듣고 알아맞히기’나 ‘수수께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만져보고, 보이는 사물들 중에서 찾기’ 등과 같은 활동은 영아들로 하여금 감각적 느낌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같은 색의 물건 찾기’, ‘같은 모양의 물건 찾기’ 등과 같은 활동은 영아가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물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때 교사가 “어떤 맛일까?”, “어떤 느낌이니?”와 같은 질문과 영아의 대답에 대하여 “이것은 파란 색이구나”, “이것과 이것은 같은 모양이구나.”처럼 반응해 준다면 영아들이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감각을 활용하여 알아가는 활동은 영아의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주변을 탐색하는 좋은 활동이다. 영아가 많이 접하지 않은 물건(예: CD)을 제시할 때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보고, 흔들고, 만지고, 냄새 맡는 활동을 한다면 영아들은 감각으로 물건의 특성을 알 수 있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손, 발, 얼굴 등 기본적인 신체 명칭을 안다.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영아는 자신의 신체 부분을 탐색하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에게 신체 각 부위의 위치와 명칭을 알려주며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과 기능을 탐색하게 한다.

만 2세 영아들은 기본적인 신체 명칭이나 세부적인 신체 명칭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며 이 때 신체 각 부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간다. 즉 영아

들은 눈, 코, 입, 귀, 다리, 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 명칭을 알고, 점차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팔꿈치, 무릎, 손가락, 발가락 등과 같은 세부적인 신체 명칭을 듣고 가리킬 수는 있다. 노래 가사에 신체 명칭이 들어있는 ‘머리 어깨 무릎 발’이나 ‘둘이 살짝 손잡고’와 같은 활동은 영아들에게 흥미를 주며 기본적인 신체 명칭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신체 명칭을 가리키는 “코는 어디 있나, 요기” 등과 같은 노래를 통해 신체 명칭을 바꾸어 가며 할 수 있다.

신체 각 부위의 명칭과 관련된 활동뿐 아니라 머리, 다리, 팔 등은 움직여 보게 한다. 두 손을 허리에 붙이기, 팔로 원 만들기, 팔꿈치끼리 붙이기, 발뒤꿈치 잡기, 코 붙잡기, 손바닥 마주잡기, 어깨 위아래로 움직이기 등의 움직임은 ‘나처럼 해 봐요, 이렇게’와 같은 활동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손으로 손바닥 치기, 손가락 마주치기, 손등치기, 손목 마주치기, 무릎 굽히기, 무릎 번갈아 들어보기(높게, 낮게), 발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잔걸음, 큰 걸음 걷기, 발 굴러 소리내기, 발바닥 부딪히기, 발바닥 움직여 보기 등은 유아 스스로 자기 몸의 움직임과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아가는 데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 때 교사가 “지금 우리 몸의 어디를 움직였을까?”라고 질문하여 영아들이 움직인 신체 부위를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 팔을 옆으로 뻗거나 옆으로 뻗은 채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은 영아들이 많이 아는 동요와 연결하여 ‘비행기처럼 움직이기’, ‘나비가 되어보기’와 같은 놀이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움직임 이외에 몸 전체로 움직이는 구르기, 기기, 걷기, 뛰기, 균형 잡기 같은 활동은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조절력 기르기	팔,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팔, 다리, 목, 허리 등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영아는 빈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신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만 2세 영아들은 이미 어른의 도움 없이 앉았다 섰다 하면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다. 교사는 앉았다 서기 위한 신체조절에서 더 나아가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영아는 한 발은 지금 있는 계단을 딛고 다른 한 발을 위 계단에 올리기 위하여 양발에 가한 힘이나 움직임을 조종하여야 한다. 영아들이 팔과 다리를 조정한 후에

는 목과 허리도 조종할 수 있다. 이 때 영아들은 미끄럼틀의 계단을 올라간 뒤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 미끄러져 내려올 때 영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미끄러져 내려오기 위하여 허리와 어깨, 목 등의 움직임을 조종하게 된다. ‘터널 통과하기’와 같은 활동을 할 때에도 영아들은 터널에 들어가기 위하여 목과 어깨를 앞으로 당기고 팔과 다리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조종하게 된다. 또 ‘그네 타기’에서도 영아가 스스로 그네를 움직이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네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당기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조종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균형감 기르기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영아는 자세와 신체 움직임을 지속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동작을 경험하면서 신체의 균형감을 기르게 된다. 만 2세 영아들은 안정된 자세로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다. 또 우레탄 블록 위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다. 이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영아는 다양한 자세를 안정되게 취하고 자신의 균형감을 기르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자세를 취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즉 ‘우리의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기’, ‘매트 위에서 걷기’, ‘크기가 큰 탱탱볼 위에 앉기’ 등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영아들은 신체의 불균형 상태를 느끼게 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팔을 벌리거나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때 영아가 균형을 잡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 교사는 적절한 제안을 하거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영아들이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잡을 수 있는 바가 있는 트램폴린 역시 영아의 균형감을 기를 수 있다. 바를 잡고 위로 뛰고, 내려오면서 다시 튀어 오르는 트램폴린 신체활동은 영아로 하여금 뛰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조작 운동하기	간단한 사물을 조작한다.	
	공 던지기 등 간단한 조작 운동을 한다.	공차기 등 간단한 조작 운동을 한다.

‘조작 운동하기’는 영아들이 자신의 신체로 사물을 다루어 봄으로써 신체와 사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물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만 2세 영아는 대소 근육을 활용하여 사물에 어떤 행위를 가한 후에 사물의 반응을 관찰하고 사물의 반응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움직임의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교사는 만 2세 영아들에게는 너무 세밀하지 않는 단순한 소근육 조작 운동을 먼저 경험하게 한다. 즉 ‘빨대에 구슬 끼우기’, ‘탑 쌓기’ 같은 활동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구멍에 맞는 모양의 도형 넣기’, ‘고리 끼우기’, ‘손잡이가 달려 있는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을 그 다음에 하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영아들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다.

만 2세 영아들은 공이나 원통 또는 탈것을 활용하여 대근육 조작 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공이나 콩 주머니를 위로 던지거나 앞으로 던지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놓여있는 공을 향해 몸을 움직여 찰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발이 빗나가는 등 정확하게 공을 차는 데 실패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가 공차기를 시도했을 때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공 던지기’, ‘풍선 치기’, ‘볼링 게임’ 등의 활동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물체의 움직임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영아가 볼링 핀을 맞추기 위하여 공을 굴릴 때 첫 번째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면,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가도록 공을 굴릴 것이다. 두 번째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간다면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공을 굴릴 것이다. “공을 어느 쪽으로 가게 해야 할까?”와 같은 교사의 질문은 영아들이 사물의 움직임과 신체의 움직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질문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이동 운동하기	안정된 걷기 및 변형된 걷기, 초보적 뛰기 등 이동 운동을 한다.	

‘이동 운동하기’란 공간 속에서 신체의 위치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운동으로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만 2세 영아의 경우 안정되게 이동 운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이동 운동을 잘 이행할 뿐 아니라 걷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동 동작(예: 기어가기, 걷기, 옆 구르기 등)을 시도한다. 또 만 2세 영아들은 서투른 달리기에서 능숙한 달리기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교사는 만 2세 영아가 할 수 있는 이동 동작을 충분히 경험해 보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이동 동작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게 한다. 뒷짐 지고 걷기, 뒤로 걷기, 옆으로 걷기, 양감질하며 걷기, 빨리 걷기 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걷기 동작을 해 보도록 격려한다. 빨리 걷기가 달리가 될 수 있도록 교사는 신체 게임에서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같은 방향으로 옆 구르기’, ‘기어서 목표물까지 가기’, ‘계단 오르기’ 등의 활동은 그 안에서 온갖 형태의 이동 동작을 즐겁게 경험해 보게 한다. 또 ‘나비처럼 걷기’, ‘코끼리 흉내 내기’ 등 동물의 특성을 흉내 내는 활동은 영아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다양한 이동 운동을 시도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비이동 운동하기	몸을 펴고 굽히는 등 간단한 비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팔과 몸통을 움직여 보는 등 간단한 비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비이동 운동하기’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중심을 수직-수평적으로서 움직이는 동작 즉 서 있는 상태, 앉아있거나 누워서 팔과 몸통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만 2세 영아들은 단순한 비이동 동작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는 간단한 비이동 동작을 다양하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가 양팔이 땅에 닿도록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기, 양손을 앞으로 옆으로 뻗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점차적으로 허리를 옆으로 움직이기, 몸통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움직이기, 두 발로 서 있다가 한 발을 떼기 등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와 같은 동작은 신체의 비이동 움직임을 탐색하게 하며 창의적인 신체 표현의 과정이 되므로 중요하다.

간단한 비이동 동작이 익숙해지면 영아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신체를 어떻게 얼마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탐색해 보게 한다. ‘서서 물건 건네주기’ 같은 동작을 앞뒤로 서거나 옆으로 서서 하게 하면 영아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이동 동작을 경험하게 된다. ‘터널 만들기’, ‘손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기’ 활동처럼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는 비이동 동작도 있다. ‘서서 리본 막대나 스카프 흔들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손 유희하기’와 같은 활동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비이동 운동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 된다.

다) 신체활동 참여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영아는 신체 활동을 즐기고 참여함으로써 신체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만 2세 영아들은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바꾸거나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는 활동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는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신체활동을 계획하여 규칙적으로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한다.

만 2세 영아의 경우 신체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진다. 영아들은 실내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서, 보육실에서 의자를 옮기면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잡고 놓으면서 자신의 신체를 움직인다. 보육실이나 강당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커다란 블록을 쌓거나 옮기며 물체 사이를 걸으며 신체를 움직인다. 또 ‘장애물 경기’ 활동을 하면서 매트를 통과하거나 30cm 정도 높이의 상자를 오르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실외에서는 친구를 쫓기 위해 달리기를 하거나 50cm 높이의 안전한 물건에 올라가거나 뛰어내리기, 제자리 뛰기 등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된다. 신체의 움직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 신체활동에 음료를 포함하거나 게임 형식으로 계획한다면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아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때 기본 운동 능력은 물론 신체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하기	아기용 미끄럼틀 등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아기용 세 발 자전거 등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영아는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만 2세 영아들은 여러 가지 아기용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거나 유아용 놀이 기구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우선 영아들은 아기용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 시기까지 영아들은 미끄럼틀의 미끄러지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올라가 엉덩이를 위로 하고 엎드려 미끄러졌다면 이 시기의 영아들은 계단으로 올라가 앞을 바라보며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 또 아기용 정글짐 같은 기구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영아들은 정글짐을 잡고 오르고 매달려 있는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기게 된다.

만 2세 후반부가 되면 영아들은 아기용 세 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페달을 이용해 움직이는 세 발 자전거는 다양한 신체의 움직임과 균형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수준에 있는 영아들이 즐기는 신체활동이다. 또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합 놀이 기구 역시 영아들에서 조심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데, 이것으로 계단 오르기, 난간을 잡고 다리 건너기, 밧줄을 잡고 경사면에 서기 등 만 2세 영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안전하게 신체활동 하기	안전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영아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만 2세 영아들은 신체의 움직임이나 도전적인 신체활동을 좋아하지만 그들의 신체적 균형감이나 안전에 대한 대처 행동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며 활동할 때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넓은 공간과 충분한 시간, 위험하지 않은 신체활동 교구나 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만 2세 영아는 규칙을 지키기 어렵지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 아는 시기이므로 안전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을 지속적으로 말해주어야 한다. 영아가 무리하게 신체활동을 하려고 할 때 교사는 영아의 그와 같은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영아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영아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 만3~5세

가) 감각 및 신체 인식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감각능력 기르기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3세 이상의 유아는 이전에 비해 감각 기능이 좀 더 예민해 진다. 이러한 감각 기능은 유아가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감각 능력을 길러주는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오감각 기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1수준과 2수준에서는 각 감각에 관련된 자극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러한 자극에 대해 차이를 느끼고 변별해보도록 한다. 비슷한 형태의 그림을 제시하고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식별해보도록 하는 활동이나 다양한 촉감을 가진 사물을 만져보고, 느낌의 차이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유아가 사물이나 경험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주의깊도록 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유아가 사물이나 경험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주의 깊게 반응하

도록 유도한다. 3수준에서는 좀 더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별해볼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감각 능력을 길러준다. 같은 종류의 소리 중에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구분한다거나 맛보기를 할 때 더 단맛과 약간 덜 단맛을 구별하는 활동 등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감각을 보다 예민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따뜻함과 차가움 등의 온도에 대한 감각적 경험, 무겁고 가벼운 물건을 손으로 들어보면서 무게에 대한 감각적 경험 등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감각을 활용해 보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감각 기관 활용하기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한다.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동시에 활용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유아는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에 반영한다. 유아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하고 협응하여 사물과 주변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3세 이상이 되면 한 가지 감각에만 의존하여 사고하기보다는 다양한 감각 기관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사물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으로 탐색하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청각과 촉각, 또는 미각과 후각, 시각과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협응하여 우리는 사물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

1수준과 2수준에서는 2가지 이상의 감각 기관을 동시에 활용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대부분의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통합적으로 반응을 하며 동시에 사용된다.

유아가 자신의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신체의 각 부분과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되고, 각 신체의 부분들은 원활히 협응할 수 있게 된다. 즉, 팔과 발의 협응, 눈과 손의 협응, 눈과 다리의 협응 등은 다양한 동작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박수소리나 악기 소리에 따라 움직여 보거나 뱀처럼 기어서 친구 발을 잡는 등의 활동을 통해 촉각과 운동능력의 협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3수준에서는 감각을 통해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예를 들어 리본 막대를 위아래로, 앞뒤로 흔들어 보는 활동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은 리본이 공중

에서 흐르는 경로를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리본 막대를 흔드는 움직임에 익숙해지면 리본 막대의 특성을 살려 원, 달팽이 모양, 8자 모양, 지그재그 모양을 공중에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움직임을 탐색해 볼 수 있는데 스카프 던지고 받기, 스카프를 앞뒤로 흔들기, 공간에 스카프로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		신체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알고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3세 이상이 되면 유아는 신체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신체와 운동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교사는 유아에게 신체 각 부위의 명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체부위의 명칭을 안다는 것은 신체의 구조, 신체부위의 명칭, 신체 각 부위의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함을 의미한다.

원활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그 움직임에 필요한 부위와 움직임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움직임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조화롭게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는 각 신체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다른 부위와 함께 움직여 어떤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에 대한 다양한 탐색 활동과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수준에서는 신체 부분을 가리키는 노래나 손 유희, 거울보기, 그림책, 몸을 움직여서 하는 간단한 놀이나 신체활동 등을 활용하여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의 명칭은 무엇이며, 몸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면서 각 부분의 모양과 특징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신체 부위의 명칭과 부위별 움직임의 특성을 알게 하는 질문들을 한다. 예를 들어 “머리는(발은) 어디에 있어요?”, “배(엉덩이)를 앞(뒤)으로 내밀어 보세요.”, “앞 사람의 어깨에 팔을 얹어 보세요.” 등 신체 부위의 명칭을 말하면 유아는 지시된 부위를 잡거나 움직이도록 한다.

2수준에서는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알고 움직인다.

유아들에게 손바닥끼리 대어 보기(치기), 두 손을 뒤로 맞잡기, 발바닥끼리 치기 등과 같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보게 하거나, 또는 몸을 이용하여 둥글게, 좁고 길게, 네모나 세모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 보기,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몸을 크게 또는 작게 해 보기, 어깨→엉덩이→허리→엉덩이→목 만져 보기, 몸의 제일 높은 곳 가리키기, 팔, 손가락, 팔꿈치, 팔 등을 만져보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3수준에서는 신체의 명칭뿐 아니라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때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우도록 말로 설명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공을 찰 때 다리와 발의 움직임과 기능을 관찰해보거나, 공을 던질 때 팔과 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신체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턱을 가슴에 닿게 해보세요.”, “귀를 양쪽 어깨에 닿게 해보세요.”, “팔꿈치를 허벅지에 닿게 해보세요.”, “두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만져보세요.” 등 신체의 부분을 구부리는 시범을 보여준 후 따라 하도록 하여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의 범위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렇게 유아가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과 특징을 인식하게 되면 보다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 1수준에서는 유아들이 몸의 각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움직여 몸에 대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 유아가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매일 일과 속에 간단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신체활동을 시작할 때 가벼운 몸풀기 체조로 팔, 다리, 어깨, 발 등 신체 각 부분을 다양하게 움직여보도록 격려한다. 팔(다리) 들어보기, 두 팔 쪽 뺨기, 다리 구부리기, 어깨 위로 올리기, 걷기 등 유아가 쉽게 할 수 있는 움직임부터 자세를 약간 변형한 움직임까지 시도해본다. 또한 2수준에서는 신체 각 부분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신체 각 부분에 따른 움직임의 특징을 알도록 한다. 몸의 각 부분의 특징이 나타난 그림카드를 보여준 후 오리 또는 게처럼 걷기, 캥거루 또는 토끼처럼 뛰기, 물고기처럼 헤엄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3수준에서는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활용하여 움직이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좁은 구멍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 위에 콩주머니를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의 어떤 부분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직접 움직여 봄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신체와 운동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전 단계보다 기술적으로 정확해지며, 즐겁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의 신체에 대한 인식은 움직임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이 중요하므로 유아의 신체 능력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 기구의 크기나 신체활동의 난이도, 개인차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을 준비하도록 한다.

나) 신체조절 및 기본 운동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신체 조절하기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유아는 근육과 신경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신체를 조절하고, 신체 각 부위를 움직이는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균형감을 기른다. 이러한 신체 조절이나 균형감은 유아의 바른 자세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운동기능 발달에 기초가 된다. 원하는 동작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몸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신체 조절(body control)이란 이와 같이 정지 또는 이동시 무게, 움직이는 속도, 힘, 연속성 등을 고려한 몸의 조정 및 균형유지 능력을 의미한다.

만 3세가 되면 똑바로 설 수 있고 의자에 앉을 수 있으며 도움을 받아 한 발로 설 수 있게 되면서 움직이려는 욕구가 더욱 커지며, 이전보다 다양한 자세로 움직임을 시도하므로 더욱 안정된 균형 감각이 필요해진다. 높이가 있는 놀이 시설에 오르거나 좁은 공간에서 걸으려할 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위에서 떨어지거나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자세를 취했을 때 안정된 자세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즉 좁은 공간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거나 걸어보는 활동, 바닥에 선이나 길을 그려 놓고 그 위를 걸어보는 활동,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평준대나 실외 놀이터 모래밭의 가장자리 위를 걸어보는 활동은 균형감을 기르기에 적절한 활동이다. 1수준의 유아들은 초기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넘어지곤 한다. 좁은 공간에서 잘 걷지 못하는 유아는 손을 잡아주는 등의 도움을 주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서서히 스스로 균형을 잡아 가도록 도움을 준다. 2, 3수준의 유아에게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한 발 들고 오래 버티기, 평형판 위에서 전후·좌우로 기울이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잡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콩 주머니와 같은 물체를 머리나 신체 부위에 올려놓고 걸어 다니는 게임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균형감과 신체조절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만 3세 이상 유아의 신체 조절에서는 특히 움직임의 조절해야 한다. 빨리 달리면서 가속이 붙게 될 때 통제가 안 되면 멈추어야 할 시점에서 잘 멈추지 못한다. 이런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움직임에 대한 조절을 연습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면 걷기 활동을 변형하여 점점 빨리 걷기, 점점 늦게 걷기, 신호에 따라 멈추기 등의 신체활동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세는 유아의 신체 발육과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게 한다. 교사는 항상 유아가 움직일 때보다 앉거나 서있을 때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움직일 때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강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등을 곧추세우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걸어보는 활동을 조금씩 시도해 보고, 점차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도하도록 도와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움직임의 요소를 인식하고 운동하기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의 요소를 탐색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의 요소를 인식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의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한다.

신체와 주위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유아들은 공간, 시간, 힘, 흐름 등의 요소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우선 ‘공간’은 개인적 공간과 일반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공간이란 유아가 신체의 이동 없이 정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 공간은 이동하면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유아는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부딪치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되고, 움직임 속에서 높이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동작의 범위와 공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움직일 방향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물을 갖고 움직이는 동작에 있어서는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움직임 요소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란 길고 짧음이나 빠르고 느림 등의 차이에 박자와 강도와 지속정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시간의 요소에 대한 인식은 움직임을 얼마나 빠르거나 느리게 하느냐 하는 속도와 관계가 된다. ‘힘’이란 유아들이 물체나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힘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힘은 근육의 긴장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움직임을 얼마나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흐름’이란 연속적인 움직임과 끊어짐에 대한 것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일정한 신호에 따라 멈추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부드러운 동작과 딱딱한 동작 등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 유아들은 이러한 움직임의 요소를 탐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체를 조절할 수 있다.

1수준에서는 유아들이 공간이나 시간, 흐름, 힘 등과 같은 움직임의 요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간은 거북이처럼 돌아보기, 구부러보기, 쭉 뻗어보기 등을 통해서, 힘은 하늘을 부드럽게 나는 새의 깃털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통해서, 시간은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따라해 보면서 탐색할 수 있다.

2수준에서는 유아들이 움직일 때 공간이나 시간, 흐름, 힘 등과 같이 움직임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유아들의 움직임에 대해 교사가 ‘빨리 움직였구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네.’, ‘아주 크게 또는 작게’ 움직였음을 이야기 해주면서 신체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르게 표현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3수준에서는 시간이나 공간, 흐름, 힘 등과 같은 움직임의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즉 걷기, 달리기 등을 할 때 앞이나, 뒤, 옆 등의 방향을 조절해 보게 하거나 움직임의 크기나 속도를 변화시켜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자전거처럼 움직여 보게 할 수 있다. 또는 유아들이 빠르거나 느리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일정한 신호에 맞추어 그 동작을 멈추거나 속도를 바꾸어 보게 할 수도 있다. 몸 전체나 팔이나 다리 등 신체 부분을 움직일 때도 빠르게 · 느리게, 높고 · 낮게, 크고 · 작게, 강하게 · 부드럽게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아들이 움직임의 다양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유아들에게 동작의 정확함이나 시간, 흐름, 힘 등의 요소를 지나치게 활용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만약 교사가 유아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유아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신체 움직임을

싫어할 수 있게 된다. 신체활동은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다양하게 움직여 보는데 초점을 둔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조작 운동하기	눈과 손을 협응하여 다양한 도구를 조작운동한다.		
	공을 던지거나 잡기 등 조작 운동을 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조작 운동을 한다.	

조작운동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움직임으로 이를 통해 유아들은 운동기술이 발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와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조작운동에는 물체에서 나오는 힘을 받아들이는 동작으로 예를 들면 ‘공을 받기’와 같은 흡수 동작과 물체에 힘을 가하는 ‘던지기’, ‘차기’, ‘치기’등의 추진동작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근육이 소근육보다 더 먼저 발달하므로 유아들에게는 대근육 활동을 위한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공은 조작적인 놀이활동의 대표적인 도구로 ‘던지기’, ‘잡기’, ‘차기’, ‘뛰기’, ‘치기’, ‘굴리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공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 활동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작은 공은 던지기 쉽고, 큰 공은 받기가 쉬우며, 스펀지로 만든 공은 비슷한 크기의 딱딱한 공에 비해 받기 쉽다. 스펀지공, 털실공, 신문지로 만든 공, 양말로 만든 공 등은 받을 때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 좋다. 공을 치거나 튀기기, 던지거나 받기, 굴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유아는 사물을 치거나 받기 위해 어떻게 팔을 굽히거나 뻗어야 하고, 힘이나 속도를 어떻게 조절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조작운동은 시각과 운동의 협응력이 함께 요구되므로 이동 동작이나 비이동 동작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 된다. 일반적으로 3-5세 정도에는 던지기를 할 때에도 몸통을 돌리거나, 던지는 손과 같은 발을 앞으로 내딛고 던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잡기’도 3세 이후에는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느끼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체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유아들이 무서워해 고개를 돌리는 행동을 보이므로 초기에는 큰 공을 천천히 던져주어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다가 점차 작은 공을 빠르게 던져주는 것이 좋다. 또한 ‘차기’도 초기에는 바로 서서 몸통을 움직이지 않은 채 단순히 차다가 4세 이후에 무릎을 굽히고 발을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차는 동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수준에서는 공을 손으로 던지거나 받는 등과 같이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리와 발로 다양하게 도구를 조작해 보게 한다. 던지기 동작도 초기에는 두 손을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올려 던지다가 점차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던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던지는 사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던지는 물체의 무게나 크기를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이때 너무 무리하게 정확한 동작이나 기술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신체의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여 움직여 보게 한다. 예를 들면 유아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오른쪽 팔이나 발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은 왼팔이나 발도 사용할 수 있게 격려하며, 양손을 사용하거나 한 손을 사용해 보는 경험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공을 던져 줄 때에도 유아들의 신체 능력에 적절하게 정확히 던져주어 유아들이 쉽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작운동이 즐겁고, 성공적인 경험이 되도록 한다. 공 이외에 훌라후프, 줄, 리본 등도 유아들의 신체 운동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들이다. 손과 팔의 힘을 이용하여 각각의 도구들을 굴리기, 돌리기, 던졌다 잡기, 신체에 연결하여 움직여 보기 등의 활동은 도구를 이용하여 경험하게 하거나 물체와의 다양한 관계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며, 손 이외에 발가락, 발과 다리, 허리, 턱, 팔꿈치 등의 신체부위로 도구를 다루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조작운동놀이에 유익하다. 예를 들어, 유아가 리본이나 스카프, 후프, 리듬 막대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위로 아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크게 작게 등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이동 운동하기	빨리 걷기, 달리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안정된 자세로 달리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한다.	두 발로 뛰기, 빠르게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능숙하게 한다.

이동 운동은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동작으로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등 다양한 동작으로 나타난다. 유아의 이동 운동은 놀이나 신체활동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발생하므로 교사는 모든 상황에서 유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해 주도록 한다.

1수준의 유아는 옆 걸음질, 뒷걸음질, 발 뒤꿈치로 걸을 수 있으며, 두 발 모아 뛰기 등의 기초적인 이동 동작이 가능하므로, 움직임을 요구하기보다는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걷기는 바닥과 접촉을 유지한 상태로 한 발의 발끝에서 다른 발의 뒤꿈치로 균형 있게 체중을 옮기며 공간 속에

서 몸을 옮기면서 움직인다. 달리는 순간적으로 양 발 모두를 바닥에서 떼고 한 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체중을 균형 있게 옮기며 공간 속에서 몸을 빨리 옮기면서 움직인다. 뛰기는 한 발 또는 양 발로 공중으로 균형 있게 뛰며 동시에 양 발로 가볍게 내려선다.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 보기, 주위를 걸어 다니다가 교사가 신호를 보낼 때 멈추기, 거북이와 같이 아주 천천히 주위를 걷기, 천천히 달리기, 깡충깡충 뛰어 보기, 기어가기,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작은 원 안의 주위를 걷기, 꽃게처럼 옆으로 걷기 등 다양한 동작을 해 보게 한다. 이러한 움직이는 활동을 할 때에는 유아들이 활동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동 동작은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탐색이 되므로 교사는 유아가 움직일 때 공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구나, ○○는 옆으로 걷네” 등 언어적인 묘사를 통해 움직임과 공간과의 관계를 느껴보도록 한다. 2수준의 유아는 안정되게 달릴 수 있으며 음악에 맞춰 스키핑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의 동작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일 때의 자세를 탐색해보도록 하고,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거나 한 걸음의 폭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안정된 이동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안정된 이후 3수준에서는 움직임의 다양성과 숙달에 중점을 둔다. 3 수준에서는 좁은 판자 위에서 평형을 취할 수 있고, 달려와 멀리 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등을 할 수 있다. 속도나 방향, 힘 등과 같은 기초 개념과 운동 요소를 적용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면, 움직일 때 속도와 방향 등을 변화해서 보다 빠르게, 느리게 걷기, 앞으로 뒤로 미끄러지기, 옆으로 걷기, 높낮이, 동작의 크기나 속도의 변화, 운동 기능과 관련된 동물의 동작을 상상하며 해보기 등을 할 수 있다.

유아의 움직임은 실내에서보다 실외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해진다. 높이 오르기, 내려오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등 유아의 이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이러한 유아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적절히 상호작용하여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비이동 운동하기	팔과 몸통을 움직여 보는 등 비이동 운동을 한다.	몸을 흔들거나 꼬기 등 여러 가지 비이동 운동을 한다.	한발로 균형 잡기 등 숙련된 자세의 비이동 운동을 한다.

비이동 운동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구부리기, 뺨기, 꼬기, 돌리기, 흔들기, 구르기, 무릎 꿇기, 앉기, 눕기 등이 있다. 유아는 비이동 동작을 통해 신체 중심을 잡고, 신체 부분 간의 관계를 탐색하며, 신체 부분을 움직여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서 바른 자세를 형성한다. 또한 유아는 신체 부분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유아가 충분히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움직여 보도록 격려해준다.

1수준에서는 제자리에서 안정된 자세로 동작을 취해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바닥에 앉아 허리를 똑바로 펴고 어깨는 수평으로 하여 앉기, 동그라미·네모·세모 등 여러 형태를 몸으로 표현해보기, 크게 작게 흔들기, 여러 방향으로 돌리기, 두 팔을 양쪽으로 쭉 뺨기, 누워서 다리를 벌려보기, 서서 몸을 펴거나 오므리기 등의 몸 전체를 이용한 간단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동물의 모양을 흉내내어 보도록 한다. 등을 휘어진 활처럼 만들어 강아지 등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거나 머리와 꼬리는 떨어뜨리고 중간 등은 높이 세우는 고양이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2수준에서는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보다 다양하게 시도해 보도록 한다. 팔, 머리, 몸통, 다리, 손가락 등 보다 다양한 신체 부분을 탐색하고 돌려보거나 꼬아보는 활동을 한다. 꼬기는 축을 중심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회전 시키는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음악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몸의 각 부분을 꼬아보거나, 친구와 손을 마주잡고 꼬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전하기는(돌기)는 몸 전체를 수직이나 수평의 축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팽이가 도는 것처럼 몸의 한 부분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에서 도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 돌아보거나 매트를 깔고 제자리에서 반 바퀴 돌기를 한 후, 또 반 바퀴를 돌고 양 발을 모아 앞쪽으로 뛰어가기 해볼 수 있다. 3, 4세 유아는 상상력이 풍부하므로 신체 동작에 사물이나 움직임을 연상하면서 창의적인 표현으로 연결해도 좋다. 바닥에 누워서 팔 다리를 높게 뺨어 자전거 타기, 나무에 달린 열매 따기, 와이퍼처럼 움직여 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신체의 유연성, 평형성, 신체 및 공간 지각 등을 경험하게 된다. 3수준에서는 이전 단계의 유아보다 신체 균형감이 보다 안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자세를 시도하면서 신체의 유연성을 기르도록 한다. 균형 잡기란 신체 중력의 중심이 몸을 잘 지지해 주는 상태인데 균형 잡기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다. 간단한 악기에 맞추어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발끝으로 걸어보기(앞, 뒤, 오른쪽, 왼쪽 등), 팔주머니 이고 걷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균형 잡기 활동을 할 때 교사는 ‘다섯을 셀 동안 한발로 서 있을 수 있니?, 다섯을 셀 동안 한 발로 서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니?, 다섯을 셀 동안 누가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발문 할 수 있다.

다) 신체활동 참여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새로운 신체활동과 기술을 시도한다.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여러가지 신체활동에 골고루 참여한다.	집단으로 하는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체활동을 할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운동 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는 유아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는 다양한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체운동 활동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뛰어놀고, 소리치고, 노래 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은 기초체력을 길러주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특히 실외에서의 규칙적인 바깥놀이 활동은 신체 기능의 필수적인 과정을 자극하여 혈액순환, 호흡작용, 배설작용 등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햇빛을 받게 됨으로써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도 만들어 낸다.

때문에 공통수준에서는 실내, 외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평균대, 그네, 시소, 등의 장비로 구성된 실내, 외 신체영역에서 오르기, 미끄러지기 등의 대근육 연습활동을 하거나, 유치원 마당에서 놀이기구, 나들이 활동, 산책하기 등 자연스럽게 대근육 활동을 하도록 한다.

집단 활동으로 게임은 규칙을 세워 한 명 이상의 유아가 경쟁적, 협동적으로 활동하는 목적이 있거나 없는 활동이다. 게임은 유아에게 하나의 운동 기술 또는 여러 공동 작용이 일어나는 기술(이동 운동, 비이동 운동, 조작운동)과 움직임 개념(공간

자각- 방향 변화, 힘- 속도 변화, 관계자각- 목표, 목적, 경계, 다른 유아)을 활용할 기회를 준다. 집단 활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 활동을 예를 들어 볼 때, 도래간의 경쟁은 긍정적인 승부욕과 페어플레이정신을 경험하게 하고, 팀원간의 협동심,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 활동의 과정 등을 유아 스스로 리더쉽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성숙한 활동이다. 따라서 유아는 움직이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흥분, 신기로움 등을 갈망한다. 게임은 적절히 사용하면 중요한 교육 도구가 된다.

유아들의 신체 운동능력은 연령에 따라서는 물론 발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같은 유아라도 운동의 종류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체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 운동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다른 유아들과의 선부른 비교는 삼가야 할 것이며, 능숙한 활동뿐만 아니라 미숙한 활동이라도 유아들이 열심히 수행했을 때 칭찬해주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신체운동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적절히 격려해 주어야 한다. 신체운동 활동에서는 되도록 유아들이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실패를 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초기에는 간단한 기본동작을 경험시키고 점차 다양한 조건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하기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능숙하게 한다.

유아의 신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는 미끄럼틀이나 그네, 오르기 기구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뿔뿔, 매트, 평균대 등 다양하다. 이러한 놀이기구는 유아의 대근육 발달은 물론 신체 유연성이나 근력, 근지구력 등 기초체력을 형성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들이 다양한 놀이기구를 접해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 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때 교사는 그네의 높이나 미끄럼틀의 경사도 유아의 연령에 맞게 조절해주어야 하며, 다양한 놀이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의 운동능력이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1수준에서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접해보고,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익히는 것에 중

점을 두었다. 아이들에게 놀이기구의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주고, 올바르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수준에서는 이러한 사용기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수준에서는 이러한 도구 활용 능력이 보다 능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러나 교사는 항상 유아의 개인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해야 하며, 잘하는 유아들뿐만 아니라 미숙하지만 이전에 비해 발전을 보이는 유아들의 모습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놀이기구에서는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음으로 유아들이 놀이기구나 시설을 사용할 때 교사의 철저한 감독은 물론 안전규칙에 대한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그네나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뿐 아니라 그네나 미끄럼틀 주변을 지나다닐 때 지켜야 할 안전규칙도 알고 지키게 한다. 또한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사가 옆에서 보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안전하게 신체활동 하기	안전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안전하게 신체활동 하기’는 안전한 장소에서 규칙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실내·외에서 접하는 놀이기구나 도구를 안전하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이다. 유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놀이 시설 및 기구를 활용하면서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신체활동을 할 때에도 필요한 규칙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달리기나 뛰기 등과 같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절을 풀어주거나 준비운동을 함으로써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한다. 경쟁적인 요소가 있거나 과격한 움직임에 의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아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다.

유아들이 신체 조절을 잘 하여도 환경이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유아들끼리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3. 사회관계

가. 목표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감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의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여 이를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 또래, 공동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가치를 습득한다.
 -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주도성 및 바람직한 성정체감을 형성한다.
 - 자신과 타인에게 다양한 정서가 있음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한다.
 -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동체에서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습득한다.
 -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한다.

○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주도성 및 바람직한 성정체감을 형성한다.

영유아기 초기에는 외부 대상보다는 먼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거울이나 사진으로 자신의 상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면서 발달하고, 인지발달 및 사회적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영아는 자기 인식과 함께 ‘나’, ‘내 것’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도움 받아 하던 것을 자기 스스로 하기를 고집하는 등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영아가 점차 성장하면서 유아기에 이르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복잡한 자기 묘사를 구성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특징을 평가하는 등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때 형성된 높은 자기존중감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숙련해야 하는 영유아기의 중요한 기능으로, 이들이 갖게 되는 자신감과 주도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 유아는 성유형화 과정에서 적절한 성역할을 습

득하게 되며, 이렇게 습득한 성역할 형태는 일생 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바람직한 성역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활동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자신과 타인에게 다양한 정서가 있음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한다.

영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며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중요한 능력이 된다. 어린 영아가 자신의 정서 표현이 다른 사람에 의해 민감하게 수용됨을 경험하는 것은 유아기에 이르러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또한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필요한 유능한 사회적 기술의 한 요소가 된다.

영아는 즐거운 감정이나, 무서움을 분명히 보이는 등 정서표현을 할 수 있으며, 생후 8~12개월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감을 나타내며 불안과 두려움도 표현할 수 있다. 만 1세가 되면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이나 영아들이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 인정해 주는 성인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유아기가 되면 자신의 정서에 주의할 기술이면서 정서와 행동을 분리하고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은 이러한 정서인식과 조절에 대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동체에서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습득한다.

영아가 초기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후 가정 이외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장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야 하는 영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교사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와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속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 안

에서 영유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교사나 또래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시작하는 첫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더 큰 사회생활인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 지키기, 협동과 양보하기, 나누기 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한다.

영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습득해 나간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체계가 공존하고, 세계가 가까워지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아기부터 사회적 지식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태도의 형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현상에 속하는 지리·환경·역사·정치·경제 등에 관련하여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식과 가치분석의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유아가 매일 접하는 가정, 지역사회,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식의 습득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정함, 책임감, 경제적 개념 등의 사회적 가치들을 알고 지키는 것은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나. 연령별 목표와 내용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목표		타인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분화된 자신의 기본 정서를 인식하며, 이를 표현한다. 또한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친숙한 관계를 형성한다. 1)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한다. 2) 분화된 기본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3) 주변 환경 및 주요 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자아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주변 성인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1) 자기존중감을 확고하게 형성한다. 2) 자신 및 타인의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한다. 3)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인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존중감을 키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과 주도성을 기른다. 2)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한다. 3)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4)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내용 범 주	자기 존중	·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서 인식하기	·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 자신감과 주도성 기르기 · 긍정체감과 양성평등 의식 갖기
	정서 인식과 조절	·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기	·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 갖기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기
	사회적 관계	·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 · 양육자와 애착 형성하기	· 가족관계 이해하기 · 또래관계 경험하기 ·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기 ·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적 지식			·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1) 만 2세 미만

가) 목표

타인과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분화된 자신의 기본 정서를 인식하며, 이를 표현한다. 또한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친숙한 관계를 형성한다.

- (1)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한다.
- (2) 분화된 기본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 (3) 주변 환경 및 주요 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나) 수준별 내용

(1) 자기존중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서 인식하기			거울속의 자신을 보고 웃거나 알아본다.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한다.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을 안다.	

영아들은 생후 1년 이전까지는 자신의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후부터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주변 환경과 분리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초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영아들은 주양육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생후 1년 정도가 되면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데, 특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것은 신체의 부분으로서 자신을 인식한 이후(18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영아가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타인과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이러한 경험은 영아 초기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영아의 이러한 발달을 돕기 위하여 영아와 개별적인 접촉을 자주 갖고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또 일 대 일로 눈맞춤을 하면서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등 영아가 자신을 독립된 한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아가 자

신의 모습을 타인의 모습과 구별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언어적인 상호작용과 격려를 끊임없이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2, 3명의 영아를 모아서 하기보다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예: “○○야, ○○는 이제 기저귀를 갈 거야. ○○가 팔을 움직이네. ○○가 다리를 쪽쪽 뻗는구나.”).

영아의 사물함이나 바구니도 자신만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아의 얼굴 사진을 붙여서 표시를 해주는 등 개별적인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 구성을 해준다. 그리고 거울을 영아가 볼 수 있는 높이에 비치하여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한 활동의 예로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보기, 거울보고 가리키기, 내 모습 보면서 이야기하기, 곤지곤지 짹짹하며 거울보기, 영아가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울 슬리퍼 신고 다니기 등의 활동이 있다.

(2) 정서인식과 조절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기			여러 가지 표정에 반응한다.	
	다양한 음성과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다른 사람이 알도록 표현한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가 있음을 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정서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의 정서에 반응한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정서는 미분화된 흥분 상태이나 생후 2개월이 되면 쾌와 불쾌의 두 갈래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생후 5~6개월이 되면 불쾌의 감정은 분노, 혐오, 공포의 감정으로 세분화되고 쾌의 감정은 1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로 지속된다. 이후 성장하면서 만 2세 미만 영아는 점차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이를 주양육자가 알게끔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영아는 자신의 신체적 욕구를 스스로 인지하고 울음으로 다양한 정서를 나타낸다. 영아 초기에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모습과 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 자극 및 적절한 환경 구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영아 자신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가 있음을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영아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민감하게 반응해 줌으로써 이후 영아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타인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시기에 초기 주양육자(교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아의 정서표현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가 자신의 모습과 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구성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영아의 정서표현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의 예를 들자면, 낮잠 시간에 우는 영아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기보다 다른 장소로 옮겨 영아의 정서를 그대로 수용해준다. 그리고 보육실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나의 방법으로 교사의 시선이 항상 미치는 약간 구석진 곳이나 낮은 곳을 이용하여 영아가 혼자 숨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 또 보육실에 거울을 걸어두고 영아가 자신의 모습과 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 자극을 해준다(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표정 보기, 감정 표현해 보기 등). 정서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외에 영아가 기쁘고 즐겁게 반복할 수 있는 활동(예: 흔들흔들 해주기, 간질이기, 까꿍 놀이 등)을 하는 것도 영아의 정서표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사회적 관계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한다.	친숙한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친숙한 대상의 관심을 끌기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맞춘다.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모방한다.

영아는 친숙한 사람을 먼저 인식하면서 낯선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낮가림을 보이게 된다. 친숙한 사람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46개월경이 되면 주양육자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인식을 먼저 하게 되고, 이는 점차 친숙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생후 초기부터 영아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며 생후 3~4개월에는 손을 내밀거나 만지려 한다. 사회적인 미소나 웅얼이를 하는 생후 6개월경에는 몸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친숙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눈이나 입, 귀를 만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기도 하며, 나아가 친숙한 사람에게 다가가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영아가 친근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거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즉 영아와 자주 눈을 맞추고 영아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이나 행동을 교사가 말로 표현해 주는 등 다른 사람의 시선과 목소리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영아가 좀 더 성장하면 모방행동을 하는데, 이때 교사가 영아에게 하는 것처럼 영아도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해 준

다. 아직까지는 또래 영아보다 어른에게 더 관심을 둘 때이므로 또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無理하게 요구하지 말고, 또래를 포함하여 교실에서 함께 지내는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두는 정도로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양육자와 애착 형성하기	양육자와 시선을 맞추거나 목소리를 인식한다.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관심 및 욕구를 표현한다.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애착은 보울비(Bowlby)가 모자간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영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나 정서적 결속을 의미한다. 생후 1년 가까이 되면 영아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애착 관계는 자의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와 행동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교사는 영아가 가정에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아가 초기 보육기관에서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사-영아간의 초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일단 영아가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와 헤어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떠나기 전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영아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함께 놀이하며 영아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리고 영아가 집에서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애착을 갖는 물건을 어린이집에 가져와 계속 지니거나 놀 수 있도록 해주어 집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준다.

교사는 영아를 자주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해주어 자신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도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가 부모와 떨어졌을 때 느끼는 슬픔이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대신 표현해주어 교사가 영아의 기분을 알고 있다는 믿음을 주도록 한다. 부모님이 꼭 돌아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부모가 데리러 왔을 때 영아 못지않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육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영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로 영아는 자신을 알아주는 담임교사와도 친숙해지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영아가 양육자와 헤어져 있으나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상황을 점

차 이해하게 되면 영아의 부모나 집에 있는 물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놀잇감 전화기로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 보기 활동 등을 하여 영아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2) 만 2세

가) 목표

자아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주변성인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1) 자기존중감을 확고하게 형성한다.
- (2) 자신 및 타인의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한다.
- (3)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인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나) 수준별 내용

(1) 자기존중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자신의 신체 부분을 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를 때 반응한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에 대해 안다.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기를 아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신체로 파악되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여 점차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데, 생후 21~24개월경에는 자기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된다. 초기에는 영아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돌아보거나 반응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신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명칭을 알게 되면서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아 개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초기 유아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아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가게 된다.

교사는 영아가 자기 인식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는 영아의 자기 인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영아와 계속적으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영아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한다.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영아의 얼

굴에 시선과 표정을 고정하여 자신을 지칭함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영아의 신체부분을 정확한 이름으로 지칭하되 개별성을 고려하여 이야기해 준다(예: ○○의 코, ○○의 손).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또래와 영아 자신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즉 영아들을 모아서 부르기(예: “다 같이 화장실 가자.”) 보다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해주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야 화장실 가자, △△도 화장실 가자.”).

만 2세 미만 영아와 마찬가지로 만 2세 영아에게도 개인 물건을 둘 수 있는 곳과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하여 영아의 개별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성해준다. 또 신체부분 명칭을 이야기해주고 영아가 가리켜 보게 하거나 영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영아가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물건, 음식 등 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 등을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신의 생김새와 신체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즐거움을 갖는다.	

영아는 만 2세가 되면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평가나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형성해 간다. 자기존중감은 영아가 여러 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며, 나아가 대인 관계를 맺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아 자신의 의도대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몸을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해보고, 이러한 일이 매우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영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이 시기 영아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나아가 영아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아의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에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등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자주 해준다.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교사의 애정 어린 미소, 밝은 표정 등 비언어적인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영아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표정과 표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아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거나 자주 되풀이되는 일이라도 매번 칭찬해주고, 이로써 영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에서 설명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활동을 하면서 영아의 긍정적인 자아감을 길러주는 상호작용을 해주면 좋다.

만 2세 영아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달려 있는 풍선치기, 약간 경사진 곳을 기어오르기 등 적절한 난이도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영아가 직접 도전해보고 이를 수행해 봄으로써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자아감과 직접 연관된 활동 외에도 음악에 맞춰 춤추기, 공굴리기 등 영아가 즐거워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활동은 영아의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을 도와줄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스스로 경험해 본다.	

영아는 운동·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주변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 이 시기 영아는 사회의 기대와 규칙을 배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율적 행동의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기존중에 회의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영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단추 하나 끼우기 등 작은 일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보도록 한다. 이처럼 영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시도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영아의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아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에게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보게 하고 또 이를 지켜보며 기다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교사는 영아가 독립적으로 하는 행동이 영아의 자기존중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한다. 영아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매번 칭찬해주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해준다.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수저 사용하기, 신발 혼자신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영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 교사가 약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영아가 못하니까 교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스스로 하는데 교사가 조금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

다. 예를 들어, 옷의 단추를 채울 때에도 어려운 부분인 목 바로 밑의 단추는 교사가 도와주고 영아가 쉽게 보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아래 부분의 단추 1~2개는 스스로 채워보도록 해서, 단추 채우기를 영아가 스스로 하였음을 격려해준다.

이 시기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을 게시하거나 놀잇감을 배치할 때 영아의 눈높이에 맞추고, 열고 닫기 쉽고 정리하기 쉽게 자료들을 배치한다. 신발 신고 벗기, 화장실 가서 옷 내리기, 점퍼 벗어서 걸어보기, 인형 옷 입히기, 인형으로 대소변 시키는 흉내 내기 등을 스스로 해보도록 경험을 제공한다.

(2) 정서 인식과 조절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정서를 인식한다.	
	자신의 감정을 동작과 언어로 표현한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만2세 전후로 영아는 자신에게 다양한 욕구와 정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초반에는 자신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동작과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한 제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를 이루다가 후반에 들어가서는 언어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자신의 다양한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이후 타인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발달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기분이 좋아서 까르륵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 뜻대로 안 돼서 발을 동동거리는 행동 등 영아의 정서 표현을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하며, 교사는 정서에 대한 언어적 표현들(예: “기분이 좋구나!”, “화났니? 속상한가보다.” 등), 영아의 정서나 기분을 소재로 한 이야기 나누기(예: “지금 기분이 어때니?”) 등의 상호작용을 자주 시도함으로써 영아가 정서를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 2세 후반이 되면 정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보다 언어 등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나타내도록 표현의 방법을 알려주고 교사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실에는 거울을 두어 영아가 자신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다양한 얼굴 표정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주어 교사와 영아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다. 거울을 보고 얼굴 표정 만들어 보기, 같은

표정의 사진 또는 그림카드 찾아보기, 정서 표현과 기분에 관한 그림책 읽어주기, “하지마! 싫어!”를 행동보다 말로 표현하기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 갖기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을 보인다.

만 2세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이다. 나와 구별되는 다른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정서가 있음을 알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만 2세 영아는 언어발달이 급격히 진행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 영아는 친숙한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이해를 발달시킨다. 초기에는 다른 영아의 놀잇감을 만지고 미소 짓거나 몸짓으로 반응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도를 나타내지만, 만 2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게 된다. 즉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등 분명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위로를 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초보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

영아가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는 영아 자신의 정서를 먼저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교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아와 다른 사람(또래, 또는 교사)의 정서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한다. 영아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교실 환경도 앞에서 다양한 얼굴 표정의 친구 사진이나 그림 등을 붙여주고, 친구가 기분이 어떨지 말해보기, 얼굴 표정 막대사진을 이용해서 선생님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기 등의 활동을 제공하여 영아가 다른 사람의 정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적 관계

내용	1수준	2수준
가족관계 이해하기	자신에게 가족이 있음을 안다.	가족 구성원을 안다.

만 2세경이 되면 영아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양육자인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

하게 되고, 나아가 점차적으로 형제, 자매나 친인척과의 경험으로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가정에서 영아가 가족 구성원과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아는 그 사회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영위해 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영아는 자신에게 가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알게 되는 등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후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교사는 영아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적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가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교사가 영아의 가족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해 준다. 영아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개별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 2세 후반이 되면 엄마, 아빠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의 여러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며, 이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영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가족사진을 어린이집의 교실 내에 잘 보이게 붙여주고 이를 자주 보면서 영아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외에도 놀잇감 전화기로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기, 엄마, 아빠 얼굴 꾸미기 등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가기 등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되살려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또래관계 경험하기	또래에게 관심을 보인다.	또래 영아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한다.
	또래 영아의 이름을 안다.	다른 영아와 의사소통을 하며 놀이활동에 참여한다.

영아가 보육기관에서 또래와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후 보다 확대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시기 영아는 또래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다. 영아가 또래영아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많이 할수록 단순히 다른 영아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이들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또한 또래와 더 많이 접촉하려고 한다. 또래와의 놀이형태도 초기에는 함께 놀이하더라도 옆에서 나란히 놀면서 서로 다른 놀이를 하는 병행놀이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다가, 점차적으로 다른 영아와 놀잇감을 주고받거나 함께 놀이를 시도하게 된다. 만 2세 후반경이 되면 영아는 점차 또래와의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이전의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맥락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게 되고, 인지 및 언어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좀 더 세련되고 조정된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놀이를 시도하게 된다. 이처럼 이시기영아가 다른 영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은 이후 영아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초보적인 사회적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영아가 또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 이시기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이러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가 또래와 자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와 함께 놀이하더라도 주로 병행놀이의 형태를 보이므로, 교사는 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상호작용을 한다. 즉 영아가 혼자놀이를 즐길 경우에는 조용하게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병행놀이의 형태를 보이면 다른 영아와 가까이 놀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주며 다른 영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준다. 그리고 영아가 놀잇감 바구니를 친구와 함께 들거나 친구와 손잡고 나가기, 친구 사진 찍어주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어울리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공해 준다. 또 영아 두세 명이 모여서 놀이할 때 교사가 놀이에 개입하여 영아들의 요구에 반응하며 놀이 친구로서 놀이를 확장해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속에서 친구 얼굴 찾기, 친구 이름 알고 불러보기, 개인장에서 사진보고 친구 찾기, 친구의 미술작품 함께 보기 등의 활동을 하며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 가지도록 도와줌으로써 또래와의 경험이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자신이 속한 반과 교사를 안다.	자신이 속한 반과 어린이집에는 기본적인 규칙과 약속이 있음을 알고 이를 따른다.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한다.

만 2세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영아가 점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는 자신이 속한 반과 교사를 알게 되고, 만 2세 후반이 되면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규칙과 약속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영아 초기의 어린이집에서 집단생활의 경험은 이후 영아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영아에게 초기 기관 경험이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무엇보다 영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영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고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 2세 후반경이 되면 반의 기본적인 규칙과 약속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교사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약속 및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아 스스로가 성취감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교실 내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노는 방법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예: 교실 내에서 걸어 다니기, 놀잇감 던지지 않기 등)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는 영아에게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하여 규칙을 계속 잘 지킬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해 준다. 또한 교사는 영아에게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기, 문제해결을 위해 “(내게) 좀 빌려 줄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등을 교사가 자주 영아에게 시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어린이집(반)이라는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아가 긍정적인 집단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교실 환경을 구성할 때에는 영아가 선호하는 놀잇감을 여러 개 동일한 것으로 준비하고 공간이 비좁지 않도록 배려하여 영아들끼리의 충돌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 이름, 교사 사진, 반 친구들의 사진 등을 영아가 볼 수 있는 눈높이에 붙여놓는다. 일과 사진책 보기, “이럴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선생님 심부름하기, 휴지 버리기, 청소놀이, “빌려 줄래?”라고 말해보기 등의 활동이나 경험을 자주 제공한다.

3) 만3~5세

가) 목표

자기존중감을 키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과 주도성을 기른다.
- (2)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한다.
- (3)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 (4)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나) 수준별 내용

(1) 자기 존중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안다.

영아기를 거치는 동안 유아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체로 인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꾸준히 형성해 나간다. 자기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을 능력 있고 소중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아기는 자존감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는 행복한 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존중감은 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나 또래에게 수용 받고 존중받을 때 빠르게 형성되므로, 보육교사는 유아의 자기존중감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교사는 유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어 유아 스스로가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준다.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가 자신의 모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개별 유아의 욕구나 필요, 그에 따른 행동을 가능한 한 존중해 주고, 유아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놓은 행동이나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수시로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유아와 대화할 때에는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어휘, 문장 등으로 이야기하고 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따뜻하고 친절함 표정으로 대하여 유아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유아를 훈육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체벌이나

교사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별은 사용하지 않고, 한계를 제시하여 유아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자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보육실에 보관하는 유아의 모든 소지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고, 일과 중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야기책을 만들거나, 유아의 작품을 게시판에 게시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과 친구들은 생각과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영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육실에 큰 거울을 준비하여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과 친구의 모습을 비교하여 자신만의 독특함과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신감과 주도성 기르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해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 있게 해본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계획해서 하고 마무리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선택한다.		독립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영아기를 거쳐 자기존중감과 독립심을 갖기 시작한 유아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우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형성해 나간다. 또한 독립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도성을 갖게 된다. 주도성은 이 시기의 유아가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서 유아는 스스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또래와의 놀이 활동에서도 주도성에 의한 자기주장을 하게 된다.

보육교사는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와 현재 수준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과제들을 제공하여 유아가 이를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결과보다는 과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유아가 지금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할 때에 적극 지지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유아 자신이 시작한 일을 스스

로 끝마치는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준다. 유아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에도 절대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유아가 기울인 노력과 과정 중에 얻게 된 성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준다.

보육교사는 보육실의 모든 가구나 놀잇감을 유아들의 신체 크기에 알맞고 안전한 것으로 준비하여 유아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다. 또한 보육실의 환경과 일과를 유아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진행하며 유아가 독립적으로 놀잇감이나 활동을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보육실 내에 일과표를 만들어 걸어주고, 한 가지 활동을 마치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는 전이 시간에는 신호 음악이나 악기를 정하여 유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구장에는 분류 표시를 해주어 놀잇감을 스스로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우미 순번을 정하여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성정체감과 양성평등 의식 갖기	자신의 성별을 안다.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차이를 안다.	외모와 행동이 변해도 일생동안 성은 변하지 않음을 안다.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유아는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별하여 명명할 수 있고, 성에 따라서 사회적·문화적으로 수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차츰 알아가게 된다. 또한 외모나 행동이 변해도 성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성에 따라 전형적인 행동, 태도, 가치, 취향 등을 특정 짓는다. 즉 유아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에 맞는 행동과 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여, 특정한 놀잇감이나 옷, 색깔 등에 취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자신의 성에 맞추어 여성스럽다거나 남자답다는 어느 한 가지의 성적 특성을 지니기 보다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는 양성성(androgynous)을 더욱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양성성의 특성을 모두 지닌 사람은 부드러우며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선을 이루려는 여성스러움과 독립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성취동기가 강한 남성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인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유아에게 정형화된 성역할 개념을 심어주기보다는 성에 관한 편견이 없고,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의 장점을 모두 갖춘 높은 잠재력을 지닌 유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타고난 자신의 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각자의 성을 소중하게 느끼며, 태어날 때 한번 결정된 성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런 성에 관한 의문이나 토론을 통하여 혹시 유아가 이미 획득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부위 명칭을 알고 신체를 아끼고 보살피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수용하도록 한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관심을 보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아에게 이미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나타날 때마다 보육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실제 행동으로 경험하도록 해준다.

보육실에서 활동을 위하여 집단을 나눌 때에 남아와 여아로 집단을 나누기보다는 다른 구분(예: 흰 옷 입은 사람, 동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도록 하고, 놀이영역을 재구성하여 쌓기놀이와 탈것은 남아가, 역할놀이는 여아가 독차지 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고 남아와 여아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정화된 성역할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과 놀이를 계획하여 소개하고, 가족의 역할이나 직업을 다룰 때에도 가사를 돕는 아빠와 가정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엄마,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아이, 여의사와 여자경찰, 남자 미용사와 요리사 등을 소개하여 유아가 기존의 정형화된 역할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역할모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더불어 역할놀이나 극놀이를 하면서 유아가 다양한 성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 정서인식과 조절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여러 정서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유아기가 되면서 유아는 영아기 동안 발달시켜온 정서표현 능력을 확장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양한 정서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유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다른 사람들과

이나 상황에 맞게 가려서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특정 정서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등의 정서 표현 규칙을 익힐 수도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유아는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 좀 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보육교사는 역할놀이 영역을 구성하여 유아가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유아에게 그림, 노래, 그 밖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적절한 정서 표현 방법을 알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에게 그리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정서와 그와 관련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정서를 나타내는 언어(예: 화가 났나보다, 즐겁구나)를 사용하여 유아가 표현하려는 정서에 반응을 해주고 자신의 정서 표현과 관련된 욕구 표현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맞는 것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예술작품이나 다른 친구의 작품에 표현된 정서에 유아가 공감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자신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이용한다.

유아는 만 3~5세가 되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긍정적 정서든 또는 부정적 정서든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유아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게 됨으로써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형태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유아는 자신의 정서가 사회문화적 기준에서 적절한지 판단하고 자신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여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정서를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유아는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정

서가 내포하고 있는 상황적 의미를 인식하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한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터득한 정서적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다른 사람의 즐거운 감정이나 기쁜 감정, 속상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 그리고 분노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감정에 공감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아가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그림책이나 이야기 자료를 같이 읽으며 정서에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유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어버린 상황과 슬픔을 연결하고 자유놀이 시간에 애써 만든 비행기를 보고 뿌듯함이나 성취감 등 기쁨과 관련된 정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조절과 활용 능력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10조각짜리 퍼즐만을 할 수 있던 유아가 15조각짜리 퍼즐을 시도하거나, 쌓기 블록으로 어제 만들었던 것보다 더 높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려고 망설이고 있을 때,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싶는데 혹시 실수를 해서 같은 편이 질까봐 걱정이 될 때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유아는 긴장과 불안, 두려움 등의 정서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보육교사는 유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알려주고 마음을 편히 하여 열심히 해보도록 격려한다. 보육교사의 부드러운 말소리와 따뜻한 눈빛, 격려는 유아가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주의집중을 할 수 있게 하여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맛 볼 수 있게 한다.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집단생활을 오래 경험하는 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게임을 하거나 조작 놀잇감을 가지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유아는 정서조절과 활용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림책이나 동시, 동극 등을 활용하여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다양한 역할, 관계, 규칙, 직업 등을 이해한다.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안다.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유아는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 관계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유형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가족구조가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는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서 가족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보육과정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도록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우선 유아와 가족의 개념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봄으로써 유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고 가족은 유아 개개인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와 함께 가족과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글로 써 보면서 가족과의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줌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유아에게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면서 가족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각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달라도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하여 유아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활동으로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협조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습관을 들이고 가족이 화목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실의 환경을 가족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한다. 보육실의 벽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모습이 묘사된 그림과 유아들이 그린 가족그림과 이야기를 붙여준다. 유아의 실제 가족

사진으로 가족 액자를 만들어 꾸며줄 수도 있다. 가족의 소중함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관련된 주제의 그림책과 가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각종 잡지들을 언어 영역과 도서영역에 준비해 준다. 유아의 가족 그림과 이야기를 묶어서 가족 이야기 책을 만들어서 비치해 줄 수도 있다. 유아가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사하여 그래프를 만들어 교실의 한쪽 벽면에 붙여줄 수도 있다. 듣기영역에는 카세트에 유아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유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녹음하여 유아가 들어볼 수 있도록 한다. 유아 자신이 가족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녹음하여 다른 유아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도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기	다양한 상황에서 또래와 놀이하는 것을 즐긴다.	또래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자신과 또래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	또래와의 갈등을 여러 방법으로 해결한다.
	자신과 또래가 다름을 안다.		다양한 또래의 차이를 인정한다.

이 시기는 유아가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며 또래와의 우정을 경험함으로써 우정의 소중함과 기쁨을 알게 되는 시기이다.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즐겁게 놀이하는 경험을 하고 또래와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이 시기는 또래와의 놀이 경험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갈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또래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공평함과 분배정의, 그리고 나누는 삶의 보람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께 터득할 수 있다. 또한, 또래와 어울리는 가운데 자신과 또래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래는 외모, 습관, 태도, 성격, 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아는 각자 자신의 있는 그대로가 소중하므로 또래와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유아들이 점차 증가하고 가계소득의 수준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는 자신과 모습이나 환경, 능력이 다른 유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지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서 유아가 또래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민주적이고 따뜻하게 보육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정하고 수용적인 보육교사의 언어와 행동은 자유롭고 깊이 있는 또래끼리의 놀이를 격려하여 유아들이 또래와의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또래와 협력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다. 협동작업을 하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또래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용하며 서로 의논하여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역할영역과 쌓기영역 등에서 협동놀이를 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협동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러한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래들 간에 놀잇감을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보를 하면 친구가 고마워하고 이로써 더욱 깊은 우정을 형성할 수 있음도 경험해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아들이 또래와 생활하면서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또래와 민주적인 태도로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이 묘사된 그림책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내며, 해결방안들의 결과를 예측해 보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결정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선택하는 경험을 한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을 경험해보도록 하고 비록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표하는 방법도 경험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민주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태도를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를 가진 유어나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수하고, 밥을 먹고, 자고, 활동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유아가 신체나 외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아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접할 때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배척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는 다른 문화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 유아가 편견을 가진 다른 유아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유아의 부정적 반응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인종 인형,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가사일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일(예: 의사, 소방관, 청소미화원, 변호사 등)을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인 편모나 편부 가정, 확대가족, 조부모 가정, 입양 가족 등에 대한 동화책이나 이야기 나누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위인을 다룰 때도 남성만이 아닌 여성과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 다양한 직업의 사람을 소개한다. 보육교사는 보육실의 교재·교구를 구입할 때 다양한 문화를 반영한 것(예: 다양한 인종의 인형, 다양한 직업을 나타내는 인형 등)을 구입하여 배치한다. 편견적인 교재와 교구가 있을 경우에는 유아들과 함께 토의하여 개작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다.		집단 구성원의 상호 협조 관계를 이해하고 협력한다.
	보육교사나 자신의 생활에 관련 있는 성인과 친숙하게 지낸다.		

유아는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유아는 또래 외에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소속감을 기르며, 다른 사람과 나누고, 협력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협상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즉 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성인과의 관계도 예의바르고 친숙하게 맺어야 한다.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어른들, 일상생활에 관련 있는 성인에 대해 어른을 존경하는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서의 이러한 관계가 원만한 사회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보육교사는 유아의 공동체 정신을 길러주기 위하여 놀이를 통하여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탐색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유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과 규칙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또래와의 협력이나 토의가 필요한 소집단과 대집단 활동을 소개하여 협력과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또래와 함께할 때에 더욱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게임이나 과제를 제공해 준다. 유아가 집단의 규칙을 지키거나 또래와 협력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정서적 지지, 물리적 지원, 승인과 칭찬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또한, 견학 장소나, 음식점, 박물관, 놀이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각 장소에 적합한 질서와 예절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보육교사나 성인 외에 견학이나 야외학습 시 만나는 성인에 대해서도 공손하고 친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보육교사는 유아에게 공동작업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한 대의 컴퓨터에 두 개의 의자를 배치하거나, 조작영역에 두 세 명이 함께 놀이하는 판 게임을 배치하는 등 또래 간의 협력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실에 흥미영역을 배치한다.

라) 사회적 지식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	우리 동네의 좋은 점과 특징을 안다.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알고 고마움을 갖는다.		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유아는 만 3~5세가 되면 주변을 탐색하면서 자신이 속한 환경과 기관에 대해 학습하고 지리적 특성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기는 사회과학적 지식에서 지리의 영역에 해당된다. 유아는 자신의 동네 이름과 특징, 지역의 여러 기관과 위치, 지역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알고, 각 직업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을 알고 고마움을 갖는다.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으며, 나아가 자신이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리적 관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동네 돌아보기 등의 현장 견학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아들이 친숙한 문방구, 놀이터, 제과점, 어린이집 등이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은행, 병원 등의 위치와 기능을 알아본다. 그리고 유아에게 쌓기영역이나 미술영역에서 동네 꾸미기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가 경험한 공간관계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만 5세 유아는 동네 지도에서 친숙한 기관의 위치를 찾아보고, 지도를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내용과 연계해서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한다. 현장 견학 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직업을 체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직업의 특성을 알게 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장래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보육실에 있는 역할놀이 영역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의복과 도구 등을 준비한다. 의사, 소방대원, 경찰, 운동선수, 농부, 법관 등의 역할놀이 복장이나 도구들을 갖춰놓고 유아가 주제별로 다양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여러 복장을 입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병원, 운동경기, 법정 등의 상황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보육교사를 이를 위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개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 명절과 풍습 등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험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유아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폭을 넓힌다. 유아가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이 된다. 유아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명절과 풍습 등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친숙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친숙감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기초가 되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세계 여러 나라를 알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

만 3~5세 유아는 상징물이 장소나 나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한다. 보육교사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등의 상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 상징물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돕는다. 유아가 태극기를 제작해 보고, 국기를 대하는 예절을 배우고 소중히 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우리나라 국경일의 기원과 의미를 알아보고,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전통놀이인 윷놀이, 고누, 투호, 연

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비석치기, 풀각시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와 활동을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룰 때에는 남북분단과 통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북한이 같은 민족임에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게 된 분단 과정과 북한의 현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과 상징,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여러 면에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한다.

현대 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존재하므로 유아는 여러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아는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임을 안다. 또한 인간이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듯이 세계 여러 나라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상호 관련되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음을 알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함을 안다. 현대 사회는 우리나라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없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세계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보육교사가 유아에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때, 유아가 속한 문화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부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이점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고, 가깝게 지내기에는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인식과 함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기 쉽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할 때,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와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소개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긍정적인 정서로 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면,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품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설 등의 일로써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만 3세 유아는 이미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며, 이들의 다양한 문화, 신체적 특징, 언어적 차이, 능력, 피부 색깔 등에 대해 인식하고 평가하기 시작한다. 유아는 주변에서 언어나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성, 신체적 특징, 언어적 차이, 피부색깔 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소유물 등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의식을 기른다.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별한다.		공정함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일상생활에는 돈이 필요함을 안다.	돈의 가치와 효용성을 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는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들이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정함, 책임감, 경제적 개념 등은 사회 정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다.

유아가 자신의 생각, 행동, 소유물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 행동, 소유물도 그들에게 소중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내 것과 같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러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자기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주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유아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기주장적이고 이기적이 되기 쉽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는 따뜻한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강조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유아, 다문화가정 유아, 저소득가정 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

고 배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공정함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으로, 공정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그른 것은 용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함이 있는 사회에서 구성원은 주어진 결과를 억울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공정함이야말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다. 보육교사는 유아들 간에 다툼이나 이견이 있으면 모든 유아가 억울함 없이 분쟁이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유아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봄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서로 의논하게 하여 일치된 결론을 얻도록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책임감이다. 보육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의무라는 것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리주장을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유아에게 가르치고,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이익을 가져오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지키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한, 결과의 성패보다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현대 사회에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개념이다. 유아는 경제개념을 습득할 수 있고, 이런 경제 개념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지역사회의 제과점이나 문방구를 방문하여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유아가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을 구분하고 계획을 세워 물건을 사도록 한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사하고, 조사한 것에 기초하여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살 것인지를 계획해 보도록 한다. 보육교사가 유아와 함께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보육교사가 유아와 함께 물건을 비교하고 고르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물건 구입의 기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유아에게 소유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보육실 내에 있는 모든 유아의 소지품과 작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적도록 한다. 그리고 유아가 경제개념을 형성할 때 도움이 되는 제과점, 백화점, 슈퍼마켓, 여행사, 우체국, 은행 등의 다양한 소품들을 역할영역에 구비하여 유아가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해 보도록 격려

한다. 다양한 역할 놀이는 유아가 직업을 경험하고, 돈의 유통과 소비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의사소통영역

가. 목표

□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며 상황에 맞는 언어를 익혀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른다.

- －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양한 동요, 동시, 동화를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 － 정확한 발음으로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기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능력을 기른다.
- － 글과 글자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 글자모양을 인식하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 －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데 흥미를 가진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양한 동요, 동시, 동화를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듣기는 구두로 전달된 말소리의 상징을 의미로 바꾸는 활동으로 들리는 말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말소리의 의미를 구별해야 하며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의 발음을 변별하여 전달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말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함으로써 말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멈추는지, 그리고 전해지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듣기 과정에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말소리를 구별하고 나면, 그 말소리가 모여 의미를 형성하는 단어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영유아는 낱말의 뜻은 물론 그 낱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의 의미도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 말소리에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눈길이나 표정, 손짓 그 밖에 주위의 분위기를 종합하여 듣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말하는 사람의 눈과 입에 시선을 고정하고 중간에 이야기를 끊거나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 **정확한 발음으로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기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능력을 기른다.**

말하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생각, 감정 그리고 의도를 음성적 상징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나 단어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지적 활동이다. 이러한 말하기 활동은 소리내기 즉 발성을 기초로 하여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서 출발한다.

영유아들도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다. 영유아는 매일 전개되는 삶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는 영유아가 알고 있는 정보, 생각, 감정 그리고 의도를 음성적 상징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나 단어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지적 활동이다. 이러한 말하기 활동은 소리내기 즉 발성을 기초로 하여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서 출발한다. 영유아들은 새롭게 듣고 알게 된 단어를 자신의 음성으로 바꾸어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영유아는 우선 교사나 다른 교사들의 정확한 발음을 자주 들어야 하며, 들은 바를 정확하게 반복하여 발성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말하기 능력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향상되므로 영유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간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교수매체를 통하여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유아기의 말하기는 독백이 아니라 주로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므로 상호 관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도 가르쳐져야 한다.

○ **글과 글자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 글자모양을 인식하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읽기란 쓰인 글자를 읽어내는 ‘해독’과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즉 읽기는 문해 및 낱글자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단어 확인 과정을 거치고, 포함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 및 정보와 함께 즐거움을 주는 동요, 동시, 동화에 대한 경험을 수반한다. 영유아는 글로 쓰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만 스스로 글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여 읽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교사에게 읽어주기를 요청한다. 이 때 교사는 영유아의 욕구와 흥미를 수용하여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어주고,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고 글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글자의 생김새나 글을 읽는 방법과 규칙 등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배우게 한다. 영유아는 좋아하는 과자 이름, 보육시설 장에 붙어있는 이름표, 영역표시판, 가게 간판, 교통표지판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접하게 되고 글자에 친숙해지고 글자를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다.

○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데 흥미를 가진다.

쓰기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쓰기에 대한 관심은 영아기 때부터 나타나 종이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끼적거린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준비해 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유아가 좋아하는 낱말, 관심 있는 글자 등을 그림이나 끼적거리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유아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쓰기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문자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쓰기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나. 연령별 목표와 내용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목표	듣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한다.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언어와 바른 언어생활 태도를 익힌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한다.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목표		1)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를 듣고 좋아하며 반응한다. 2) 표정, 소리,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여 주고받기를 즐긴다. 3) 그림책과 인쇄물에 관심을 가진다. 4) 끼적거리기를 시도하며 쓰기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1)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운율이 있는 동요, 동시, 짧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기며 반응한다. 2) 생각과 느낌을 말로 주고받기를 즐긴다. 3) 그림책이나 인쇄물에 관심을 가지며 글자모양과 글의 내용에 흥미를 가진다. 4) 글자형태와 비슷한 끼적거리기를 시도하며 다양한 쓰기 도구에 흥미를 가진다.	1)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동요, 동시, 동화를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력을 기른다. 2) 정확한 발음으로 바르게 말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글과 글자에 친숙해 점으로써 글자모양을 인식하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4)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로 나타내는데 흥미를 가진다.
내용 범주	듣기	·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 · 경험과 관련된 말의 의미 알기 · 운율이 있는 말 듣기	·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 알기 · 운율이 있는 말과 짧은 이야기를 듣고 즐기기	·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 이야기듣고 이해하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내기 · 친숙한 사람과 사물의 이름 말하기 · 표정, 말소리, 몸짓으로 의사표현하기	· 바른 발음 시도하기 · 새로운 단어 말하기 · 자신의 느낌과 생각 말하기 · 행동에 맞는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상황에 맞는 언어 바르게 사용하기
	읽기	· 그림책과 인쇄물에 관심 갖기	· 글자 모양에 흥미 갖기 · 읽어주는 글 즐기기 · 그림책과 인쇄물에 흥미 갖기	· 읽기에 흥미 갖기 · 동요, 동시, 동화 읽기를 즐기기 · 책읽기에 관심 갖기
	쓰기	· 끼적이기를 시도하기 · 쓰기 도구에 관심 갖기	· 끼적이기 · 쓰기 도구에 흥미 갖기	· 말과 글의 관계 알기 · 쓰기에 흥미 갖기 · 쓰기 도구와 매체 사용하기

1) 만 2세 미만

가) 듣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	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인다.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다.			
	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영아 언어발달의 기초가 된다. 영아는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에 호기심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점차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 소음 및 말소리 중에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소리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아는 말소리와 말소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 중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의 말소리를 구별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영아를 위하여 영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간단한 조작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딸랑이, 모빌 등과 같은 놀잇감을 비치하고, “○○야, 나비 모빌에서 예쁜 소리가 나네, 만져볼까?”와 같이 말을 걸어 영아의 관심을 유도해 주도록 한다. 영아가 팔을 휘젓다가 우연히 만들어낸 소리, 의도적으로 놀잇감을 두드리다 나는 소리 등 영아가 스스로 자유롭게 탐색하며 만들어낸 소리에,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네.”, “북을 두드리니까 통통통 소리가 나는구나. 통통통!”같이 놀잇감의 소리를 모방하여 말해주어 영아의 행동을 격려해 준다. 또 영아가 듣고자 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꼬마 자동차에서는 무슨 소리가 날까?”, “강아지 인형이 내는 소리를 들어 볼까?” 등의 질문을 하도록 한다.

말소리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에게 교사는 높낮이가 있는 목소리, 크고 작은 목소리, 웃는 소리 등과 같이 여러 느낌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자주 말을 걸어주어,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영아가 교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할 때, 교사는 영아에게 웃으며 “○○야, 선생님이지? ○○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등의 말로 격려하도록 한다. 또, 집으로 돌아갈 때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 “○○야, 누구 목소리지?”와 같이 물어보아 영아가 스스로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영아에게 간단한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때의 말소리는 일상적으로 영아와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말소리, 길이, 높낮이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읽

어주는 글은 대화하는 말소리보다 길고, 높낮이가 있다. 영아가 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읽어주는 글의 특성을 가진 말소리를 영아가 즐기도록 교사도 중점을 둔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경험과 관련된 말의 의미 알기	일상적인 행동과 말소리를 연결하여 듣는다.		행동과 관련된 말을 듣고 따른다.	
	익숙한 사물의 명칭과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자신에게 들리는 말소리가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 등과 연결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말소리의 의미를 점차 이해하게 된다. 교사가 기저귀 갈기, 옷 갈아입기, 손 씻기, 음식 먹기, 잠자기 등 일상적으로 보살필 때 구체적인 말을 하면, 영아는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 익숙한 사물의 명칭과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과정에서 점차 말소리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익숙한 사물의 명칭과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게 된다.

교사는 “기저귀 갈자”, “이렇게 누워서”, “와, 다 갈았다. 뽀송뽀송하지?”처럼 행동의 과정을 말로 표현해 준다. 또 이불, 베게, 변기, 칫솔 등 친숙한 일상용품을 사용할 때도, “칫솔로 양치하자”, “변기에 쉬하러 가자”와 같이 사물의 이름과 동작을 함께 말해준다. 놀이 중에도 “곰인형을 안고 있구나.”, “블록을 아주 길게 놓았는데 걸?”과 같이 영아가 가지고 놀이하는 놀잇감과 행동을 말로 표현해 주도록 한다.

행동과 말소리를 연결할 수 있는 영아는 일상적인 보살핌과 관련된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다. 교사는 영아에게 옷을 입히기 전에 미리 “○○야, 옷 입자.”와 같이 말하여, 영아 스스로 고개를 내밀어 보거나 팔을 옷에 끼워보도록 하고, “코~ 자는 시간이야. 자리에 가서 누워볼까?”와 같이 말해 주어 영아가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찾아 눕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때 교사가 영아에게 자주 사용하는 요구나 지시에 대한 말을 일관성 있게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영아는 반복경험을 통해 좀 더 자연스럽게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영아에게 교사가 말할 때나 노래를 불러줄 때 “○○야, 어서와. ○○야 안녕?”, “○○는 어디 있나?”와 같이 영아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영아가 자신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어 영아가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여 행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 “이건 나비야, 나비!”, “나비가 어디 있지?”, “우리 나비 인형이랑 같이 놀자”와 같이 이름

이 쉬운 놀잇감의 명칭을 알려주고, 영아와 대화할 때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운율이 있는 말 듣기	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 듣기를 즐긴다.			

만 2세 미만 영아는 리듬감 있게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를 즐겨 들으므로, 교사는 모든 영아에게 간단한 말이 반복되는 짧은 이야기를 자주 읽어주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말이 반복되는 짧은 그림 이야기책을 제공하고, 점차 영아가 즐기는 노랫말과 동시를 그림과 글자가 있는 자료를 만들어 게시해 주도록 한다.

교사가 영아와 함께 놀이할 때 하는 행동을 운율이 있는 짧은 말로 들려주면, 영아는 교사의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행동에 더욱 흥미를 보인다. 교사는 영아에게 놀이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짧은 이야기로 만들어 운율을 살려 들려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영아의 몸을 마사지하는 신체 놀이를 할 때 ‘♫부드러운 우리 ○○ 예쁜 팔♫’이라고 말하며 팔을 주물러 주고, ‘♫말랑 말랑 우리 ○○ 예쁜 다리 ♫’라고 말하며 다리를 주물러 줄 수 있다. 또, 영아의 손을 씻어줄 때도 ‘♫○○는 손을 씻어요. 깨끗이 손을 씻어요, ○○는 손을 씻어요. 싹싹싹~ 손을 씻어요♫’라고 말해준다.

또 낮잠 시간에 영아를 재울 때도 교사는 간단한 말이 반복되는 자장가나 짧은 이야기 등을 리듬감 있게 들려준다. 즉, 영아를 재울 때 ‘♫자장 자장 우리 ○○, 예쁜 ○○ 잘도 자네♫’와 같이 말하며 가볍게 등을 토닥거리 주면, 영아는 교사가 읊조리는 조용한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며, 좀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다.

나) 말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내기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웅알이를 한다.	여러 가지 말소리를 낸다.		의미 있는 음절을 소리 낸다.
		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한다.		
		웅알이와 말소리에 대해 말로 반응해 주면 모방하여 소리 낸다.		

다양한 발성과 웅알이를 시도하는 영아는 소리를 내는 자체를 매우 즐거워하고, 반복하여 소리를 내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아는 점차 의미 있는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실제 단어를 말하려 시도하게 된다.

만 2세 미만의 시기에 교사나 양육자가 영아의 소리에 반응하여 잘 듣고 격려해 주는 것은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자기 소리를 듣고 즐길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영아와 말을 주고받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들고, 영아가 다양한 소리나 웅얼이, 말소리를 낼 때 개별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반응해 주도록 한다.

영아가 “마~마~마”와 같이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알아차려 “마~마~마라고 했어? 마~마~마”라고 반복해 주고, 분명하게 기쁜 표정을 영아에게 보여 주어 격려해 주도록 한다. 그러면 영아는 교사의 말소리와 표정에 다시 반응하여 조금 더 길고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어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재강화의 과정을 거쳐 영아의 언어 표현은 웅얼이에서 말소리로 진보하게 된다. 즉, 영아는 “마~마~, 엄마라고 말했어? 그래 엄마 해볼까?”와 같은 교사의 반응을 듣고, 자신이 발음해 내는 소리 중에서 의미 있는 말소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점차 의미 있는 발음으로 소리를 내게 된다. 좀 더 나아가 영아에게 정확한 발음과 짧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여 영아가 쉽게 교사의 말을 따라서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친숙한 사람과 사물의 이름 말하기		친숙한 사물을 가리켜 말하려 한다.		친숙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

영아기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된 엄마, 아빠, 교사, 보육시설의 또래, 놀잇감 등으로 점차 주변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시기이다. 주변에 대한 영아의 호기심이 커짐에 따라 영아는 주변의 친숙한 사물을 알아보고 지칭하려 한다.

영아에게 교사는 놀이실에 늘 비치되어 있는 친숙한 사물과 놀잇감의 이름을 자주 반복하여 알려준다. 특히, 영아가 놀잇감이나 사물을 가리키며 말소리를 낼 때는 금방 알아차려 반응해 준다. 예를 들면, 영아가 자동차 놀잇감을 가리키며 “빠방”이라고 말하면, “○○는 자동차놀이 하고 싶어?”와 같이 말해주고 자동차를 가지고 함께 놀아 준다.

사물의 이름을 말하려 시도하는 영아에게 교사는 정확한 발음으로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말해주고, 영아가 “샌님”처럼 새로운 이름을 말하려 하면, “선생님하고 불렀어?” 같이 알아차려 반응해 준다. 영아가 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시기와 표현

하는 단어의 양은 개별적인 차이가 매우 크므로, 무리하게 단어를 말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영아의 표현 정도와 욕구를 헤아려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비록 몇 단어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단어의 4~6배 이상의 단어를 영아가 이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교사는 직접 시범을 보여 영아에게 따라하도록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말소리를 시도해 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아가 송아지 인형을 보고 “머~머~”하면, “송아지가 음머~ 음머~ 했어? 정말 잘 하는구나”, “송아지한테 음머~ 하고 같이 해볼까? 음머~”처럼 말해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표정, 말소리, 몸짓으로 의사표현하기	표정과 소리로 표현한다.	표정, 소리와 몸짓을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한다.	표정, 몸짓과 말로 의사표현을 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도 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면, 교사가 자신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려 반응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말소리와 몸짓이 교사나 또래의 반응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영아는 초기에 표정과 소리로 주로 의사를 표현하다가 소리와 몸짓을 사용하게 되고, 만 1세가 넘어가면서 몸짓과 말을 섞어 의사표현을 하게 된다.

영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영아가 사용하는 말소리는 대부분 영아가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나 하고자 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영아의 행동이 영아가 말한 단어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영아의 말소리가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가 물이 놓여있는 곳을 가리키며 “무~울”이라고 말한다면, “물이 먹고 싶었니? 자~, 물 여기 있어.”처럼 영아의 말소리를 행동과 함께 해석하여 영아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한다.

또 영아에게 말을 걸 때나 개별적인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과 함께 몸짓을 사용하여 표현해 준다. 예를 들어, 영아가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야, 올라가면 안 돼요(손을 옆으로 흔든다). 위험하지? 내려오자(아래를 가리킨다).”와 같이 말과 행동을 함께 하면서 말해주도록 한다. 또 “고맙습니다(고개를 숙인다), 반가워(영아를 안아주거나 웃는 얼굴로)”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영아가 말로 표현을 시도할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불확실하게 표현한다면 교사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아가 말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사물을 가리키거

나 몸짓만으로 부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면 “뭐라고? 잘 모르겠는 걸. 말로 얘기해 줄래?”와 같은 말로 반응해 줄 수 있다. 교사의 적절한 반응과 도움 행동은 영아가 언어표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의사소통을 즐기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다) 읽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그림책과 인쇄물에 관심 갖기	그림책과 인쇄물에 관심 갖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림을 알아본다.	
		선호하는 그림책을 자주 본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책과 장난감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숙한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책에 관심을 나타낸다. 영아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없이 그림만 쳐다보다가 그림을 지적하거나 그림의 명칭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하다 보면 자신에게 친숙한 그림이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 책에 대한 선호가 생긴다.

교사는 영아가 책을 볼 준비가 되면 친숙한 사물의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책을 선정하여 보여준다. 또한 영아의 침대 주변이나 기저귀갈이대 등에 친숙한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주고, “멍멍이가 있네, ○○가 만져볼까?”처럼 말하며 그림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영아는 점차 친숙한 그림이나 사물을 알아가고, 그림책 속에 있는 친숙한 사물의 그림이나 사진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가리킬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보여줄 때, “그래, 이건 토끼야, 토끼가 어떻게 하고 있지?”처럼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사물의 이름을 말해 주고, 그림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한다. 좀 더 나아가 교사는 영아에게 “여기 좀 봐. 누가 왔지?”, “이게 뭘까?”와 같이 질문하여 영아가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아의 반응을 기다려 준다. 영아가 책장을 넘기려 시도하면, 무리하게 이야기의 내용을 읽어주기 보다, 영아의 요구를 수용하여 간단히 내용을 들려주고 다음 장을 보여준다. 영아가 반복하여 같은 그림책을 듣고 싶어 하면, 교사는 새로운 책을 번갈아 가며 읽어주기보다는 영아들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책을 반복하여 각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들이 편안하게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교실의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곳에 책보기 영역을 구성하고 쿠션, 소파, 카펫 등을 마련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는 넘기기 쉬운 딱딱한 종이책, 여러 가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형질책, 비닐책, 소리 나는 책 등 다양한 책을 비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되어 운율과 리듬감

이 있는 책, 배변훈련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습관을 다룬 내용이 담긴 책, 한 단어 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책 등을 제공한다.

라) 쓰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끼적이기를 시도하기		팔 전체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끼적인다.		
			자신의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도 쓰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팔 전체를 움직이며 종이에 끼적거리기를 시도한다. 영아가 손과 팔을 눈과 협응하여 의도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은 끼적거리기의 기초가 된다. 만 1세 영아는 마음대로 손과 팔을 움직이며 종이에 끼적거리는 것 자체를 즐기며, 자신이 움직인 자리에 나타난 끼적거리기에도 관심을 보인다.

교사는 간단한 손동작으로 작동되는 놀잇감을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고, 영아가 마음대로 흔들거나 누르면서 놀이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야, 큰 종이가 붙어 있지? 여기에 그림을 그려볼까?”, “팔을 크게 움직이며 그려보자.”와 같이 말해주어 영아가 제공된 종이나 공간에 마음껏 끼적거리기를 시도해 보도록 격려해 준다. 또한 끼적거리는 것에 익숙한 영아에게는 “굉장히 큰 동그라미가 그려졌네.”, “우와, ○○가 옆으로 팔을 움직이니까 기다란 줄이 생겼네.”와 같이 관심을 보이며 격려해 준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유아가 끼적거리기를 할 수 있도록 벽면이나 바닥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주거나, 낮은 상을 마련해 끼적거리기를 할 수 있는 종지와 쓰기도구를 제공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쓰기 도구에 관심 갖기		종지와 쓰기 도구를 반복하여 탐색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주변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며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즐기며, 그리기와 쓰기도구인 종지류와 쓰기도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교사는 영아의 주변에 쓸 수 있는 자료와 장소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종지를 제공하여 마음대로 흔들고, 찢고, 구기고, 뭉치며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 영아가 종지를 가지고 탐색하며 놀이

하는 데 익숙해지면, 다양한 쓰기 도구를 제공해 주고 쓰기 도구의 특성(색, 굵기, 진하기 등)에 관해 말해 주어 쓰기 도구에 대한 영아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야, 빨간색 크레파스로 선생님처럼 그어볼까?”, “우와, 빨간색 줄이 길게 생겼네. ○○가 빨간색 줄을 만들었구나.”와 같이 말해주어 영아가 자연스럽게 쓰기 도구를 탐색하고 즐기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에게 신문지, 한지, 복사지, 휴지 등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제공해 준다.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움켜쥘 수 있는 무독성의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함께 구비해 준다.

2) 만 2세

가) 듣기

내용	1수준	2수준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알기	다양한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에 담긴 감정을 느낀다.	
	친숙한 단어를 듣고 이해한다.	시키는 말에 따라 행동한다.

말소리에는 말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어서 언어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알기’는 사람마다 음성이 다르며, 같은 사람의 말소리라도 소리의 크기나 빠르기 등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영아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공통 수준은 말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인지를 알아내며,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큰소리와 작은 소리, 빠른 소리와 느린 소리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할머니 선생님 등의 말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면서 “누구의 말소리일까? 알아맞혀 보자.”와 같이 이야기하고, 눈을 감고 말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사는 말소리에 담긴 감정을 영아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영아의 귀에다 속삭여 준다. 또, 보통의 목소리로 “사랑해”, 큰 소리로 “사랑해” 아주 작은 소리로 “사랑해”라고 말해 주고,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화를 내신다. 아이 무서워.”, “할머니가 웃으면서 반겨주시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기분 좋지?” 등으로 상호작용하여 영아가 말소리의 상태와 감정을 연결하여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얼굴 표정이 들어있는 또래 영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표정에 알맞은 말소리를 들려주거나, “큰 소리 내보자.”와 같이 영아와 교사가 함께 말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다.

영아는 두세 단어로 구성된 단순한 요구 문장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여 따를 수 있다. 생후 30개월 전후의 영아들은 어머니 교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교사가 하는 행동이나 말소리를 흉내 내려고 하고, 교사가 요구하는 것을 즐겁게 따름으로써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교사는 다양한 요구에 따라 영아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그대로 멈춰라’라는 노래를 들려주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노래에 익숙해지면 그대로 멈춰라 대신에 ‘의자에 앉아라, 인형을 안아라.’ 등 다양한 요구어로 바꿔준다. 또 만 2세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큼’과 ‘작음’, ‘위와 아래’, ‘많음과 적음’, ‘지금, 곧’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책상 위에 있는 큰 컵을 가져와라’, ‘바구니 안의 양말을 꺼내라’등으로 요구한 말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운율이 있는 말과 짧은 이야기를 듣고 즐기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듣기를 즐긴다.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을 듣고 따라한다.

만 2세의 영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와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 교사는 하루 일과 중에 일어나는 일이나 생각을 영아에게 들려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공을 위로 던지자.”, “선생님은 ○○를 사랑해.”와 같은 두세 개의 단어로 된 짧은 문장을 들려준다. “옛날 옛날에 ○○가 살았어요. ○○는 엄마, 아빠, 강아지 뽀뽀와 함께 살았어요.” 식의 짧은 동화를 만들어 들려주는 것도 좋다. 또 영아가 좋아하는 노랫말을 속삭이듯 불러주도록 한다. ‘♫ 사각사각 수박 먹자. 아이 맛있다♫’ 같이 일상 활동에 가락을 붙여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도 영아가 문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영아가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듣기를 충분히 즐기고 익숙해지면, 따라해 보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노랫말을 들려줄게. 선생님 노랫말 잘 듣고 따라해 봐”, “○○야 ○○야 코를 짚어라, ○○야 ○○야 두 눈을 감아라.” 교사는 노랫말을 들려줄 때 얼굴을 짚어가며 한다. 이번에는 반대로 영아에게 노랫말을 들려달라고 한다. “○○야, 이번엔 네가 선생님한테 노랫말을 들려줘. 선생님이 잘 찾는지 봐.” 교사는 이 같은 활동을 즐겁게 하면서 영아가 잘 듣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나) 말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바른 발음 시도하기	바른 발음으로 말하기를 시도한다.	

만 2세 영아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영아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 한다. ‘아끼엄(아이스크림), 시금통(저금통), 꼬이(고기), 야꿀크(야쿠르트)’ 등과 같이 발음이 분명치 않아 교사들을 난처하게도 하고 웃음 짓게도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생물학적으로 혀와 입천장의 구조가 기능적으로 조화롭지 못하여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아의 잘못된 발음을 지적하고 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사는 영아의 감정과 생각을 잘 파악하여 올바른 발음으로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저금통이구나. 고기가 맛있어? 그래. 야쿠르트야. 맛있지?”와 같이 영아가 낸 발음의 단어를 수용하여 바르게 말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큰 벽거울 앞에서 교사의 무릎에 영아를 앉히고 서로의 입모양을 보면서 “고기, 야쿠르트” 등의 발음을 즐겁게 소리내보는 것도 좋다.

영아들은 교사가 영아에게 맞추어 말을 해줄 때 언어학습이 촉진된다. 예를 들면 경험 많은 교사나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면 교사와 대화할 때보다 영아에게 말할 때 과장된 억양을 사용하고, 단어나 음절을 불러서 길고 분명하게 말하거나 조금은 높은 톤으로 말을 강조하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영아들은 쉽게 바른 발음을 익히고, 말하기를 시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새로운 단어 말하기	사물의 이름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즐긴다.	
		새로운 단어를 말한다.

만 2세는 말이 부쩍 느는 시기이다. 알고 싶은 단어도 많아져서 “이게 뭐야?”라는 질문을 곧잘 한다. 특히 자신에게 이름이 있듯이, 사물에도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아는 보이는 대로 사물들의 이름을 물어본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사물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물을 때, 그 이름을 바르게 알려주고, 영아가 그 이름을 따라할 때 격려해 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응, 그것은 거북이야.”, “거북이?”, “그렇지, 거북이”라고 말해준다. 이 때 그 사물이 가진 특징을 함

게 말해주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거북이가 엉금엉금” 또는 “자동차야, 자동차가 부릉 부릉”처럼 사물에 적합한 의태어, 의성어를 그 느낌에 맞게 들려주면 더욱 기억을 잘 하게 된다. 또 영아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물에 대하여는 “저게 뭐야?”라고 질문을 하여 사물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격려해 준다.

영아는 새로운 사물에 호기심을 느끼므로, 교실 내의 교재, 교구나 사물들을 주제에 따라 또는 정기적으로 일부 교체하여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영아는 교사가 명명하거나 기술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새로 관심을 갖게 된 의미 있는 물건을 언급할 때 쉽게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다. 영아가 새로운 물건을 조작하거나 놀이를 할 때 교사가 영아의 활동이나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해 명명이나 묘사를 해주면 영아는 관련된 새로운 단어를 익히게 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 자동차가 무척 빨리 가네.”라고 말하면 아이는 교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더 흥미를 가지며, “빨리”와 같이 새로운 단어에 대해 반응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그래, ○○가 자동차를 무척 빨리 ‘쌩쌩’달리게 하고 있네.”라고 다시 이야기 해주어 영아가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2세 영아의 언어 복잡성 수준 정도에 맞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의 느낌과 생각 말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날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

만 2세 영아기는 놀랄 만큼 어휘가 풍부해지는 시기이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일상생활 언어가 많이 발달하게 된다. 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낙엽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 입은 옷에 대한 설명 등을 들으면서 영아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축적하게 되고, 이는 말하고 싶은 동기나 기폭제로서 영아에게 작용하게 된다. 어느 순간에 영아는 갑자기 종달새처럼 끊임없이 말하는 아이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만 2세 영아는 고집이 세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구 떼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교사는 영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을 먼저 들려준 후,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가 화가 많이 났구나. 인형을 업고 싶었어? 자, 인형 업자. 이제부터 울지 말고 ‘인형 업고 싶어요.’ 라고 하자.”라고 말해준다.

특히 만 2세 영아는 인형이나 블록, 소꿉 놀잇감을 가지고 교사들이 한 말들을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한다. 이 때 영아가 주로 혼자 놀이하면서 주변에 일어났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평소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혼잣말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혼잣말은 언어발달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이 시기에는 상상하며 놀이하는 가작화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므로, 영아는 생각하고 느낀 것을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이 전화로 말하기를 즐긴다. 실제 전화기를 사용하여 말하는 놀이를 하다가, 놀잇감 전화기로 마치 상대방이 있는 듯이 말하곤 한다. 전화 외에도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마이크 대용물을 이용하여 말하는 놀이를 한다. 이것은 영아가 의사소통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늦더라도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용	1수준	2수준
행동에 맞는 말하기	먹는다, 잔다와 같은 행동에 맞는 말을 한다.	
		고마워, 반가워 등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

만 2세 영아는 주변을 인식하는 능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행동과 상황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말들이 늘어나게 된다.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하는 행동에 맞는 말을 해주고, 영아도 행동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 귀에다 말해주세요. 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인형 아기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는 발로 공을 차고 있네.”같이 말해준다. 또 영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 속의 인물들이 하는 행동을 영아가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다.

영아가 30개월 전후가 되면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인사말, 존댓말 등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보자.” 간식을 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습니다.”, 그 밖에 “미안합니다.” 등의 인사말을 하게 한다. 또 교사와 아이를 구분하여 ‘잡수신다, 먹는다’, ‘주무신다, 잔다’와 같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높임말과 예삿말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읽기

내용	1수준	2수준
글자 모양에 흥미 갖기	여러 가지 모양을 탐색한다.	글자의 기초가 되는 모양을 구분한다.

읽기는 글자 모양에 흥미를 갖고 변별하는데서 시작된다. 아직 글자 모양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양에 대해 친숙감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사는 기초 모양 놀잇감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이름을 말하여 준다. 영아들이 모양 놀잇감의 조각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구성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모양 놀잇감의 모양 감각을 손가락에 익히도록 한다. 모양 탐색이 익숙해지면 영아들이 스스로 모양들을 구분하고 이름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같은 모양의 도형 찾기’ ‘같은 모양의 주변 사물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형태나 모양을 탐색하고 각 형태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보육실 내에 ‘○, □, △’ 등 기초 모양과 ‘동물퍼즐’ ‘자동차 퍼즐’, ‘과일 모양 퍼즐’ 등 형태 변별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해 준다. 또 글자의 기본 형태로 구성된 조작놀잇감과 그림과 글자가 있는 광고지, 책의 표지, 과자 봉지 등을 제공하여 영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읽어주는 글 즐기기	읽어 주는 글에 관심을 가진다.	
		글자를 읽는 흥미를 낸다.

만 2세의 영아는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고 삽화를 눈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책은 재미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마치 글자를 읽는 흥미를 낸다.

교사는 짧은 동화, 짧고 리듬감이 있는 동시, 엄마가 써준 편지,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읽어주고 영아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사는 “우리 글 읽자!”라고 하면서 책을 가져와 글을 읽는 흥미를 내는 영아에게 “글을 읽고 있구나.”라고 말하여 격려하며, 매일 의도적으로 책을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도록 계획하고, 책을 읽어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책장을 넘기는 등

바르게 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들이 낮잠을 자고자 할 때 개별적으로 영아 머리맡에서 글을 읽어주거나, 언어영역에서 영아를 교사의 무릎에 앉히고 글을 읽어줌으로써 영아의 언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한다. 특히 만 2세 영아들이 좋아하는 책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주는 것이 좋다.

내용	1수준	2수준
그림책에 흥미 갖기	그림책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그림책을 보고 읽는 흉내를 낸다.	

영아의 읽기 발달에서 그림책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영아는 실물이나 놀잇감, 사진 등에서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들(예: 강아지, 자동차 등)이 들어있는 그림책을 좋아하며 책보기를 즐기게 된다. 영아는 책을 다른 물건과 다르게 다룰 줄 알고, 책장을 손가락으로 넘기는 것이라든지,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혼잣말을 하는 등 그림책을 보고 마치 글을 읽는 듯이 흉내 내기도 한다.

교사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글을 읽어줌으로써, 영아가 그림과 글을 연결하여 내용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또 개별적으로 책을 읽듯이 흉내 내는 영아에게 “oo야, 책 읽고 있구나?”, “이 책 정말 재미있겠구나!”와 같이 관심을 보임으로써 책 읽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격려해 준다.

이를 위해 교사는 보육실 한쪽 영역이나 언어영역 책꽂이에 그림책을 다양하게 제공해 준다. 이때 영아들이 그림책 표지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놓아둔다.

라) 쓰기

내용	1수준	2수준
끼적이기	의도적으로 끼적인다.	글자형태로 끼적인다.

만 2세 영아가 손가락 사용이 유연해지고 손목의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쓰기 도구를 가지고 힘을 주어 끼적거리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영아는 끼적거리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상징화하는 글쓰기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느끼고, 글자와 유사한 모양을 그려내기도 한다. 또 끼적거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교사는 영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선을 긋고 자신이 끼적거린 그림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영아에게 “이게 뭘까? 뭘 그린거야?”라고 질문을 하여 영아가 명명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힘 있게 그려보자, 진하게 그려보자.”라는

말을 해주면서 영아의 옆에서 힘 있게 선을 그리며 본을 보이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영아는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여 함께 선을 그려보면서 점차 힘을 주고 빼는 감각을 익히며 의도적으로 끼적거리기를 하도록 한다. 점진적으로 교사는 영아가 글자 형태로 끼적거리기를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영아에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자. 동그라미를 그렸니? 무엇을 그린거야?” 등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 준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유롭게 끼적거리기를 하도록 놀이실의 한쪽 벽면이나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준다. 또 영아의 끼적거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 영아가 끼적거린 종이에 어떤 내용을 끼적거렸는지 적어주어 글자를 쓴 것을 영아의 이름을 적어 교실 벽에 게시하여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쓰기 도구에 흥미 갖기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만 2세 영아는 끼적거리기를 좋아하여, 기회가 있으면 뭉든지 어디든지 끼적거리게 된다. 반복하여 종이 위에 끼적거리기를 하면서 영아의 손목에 힘이 생기게 되면, 쓰기 도구를 잡는 소근육도 발달하게 된다.

교사는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제공하여 마음대로 끼적거리 보도록 격려하고, 각 도구가 갖는 감각적 특징을 영아가 인식하고 구분하여 사용해 보도록 한다. 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될 수 있으면 커다란 종이를 준비해 주어 영아가 마음껏 끼적거릴 수 있도록 해준다. 교사는 영아들이 쓰기 도구를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해한 색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쓰거나 조형영역에 도화지, 신문지, 달력 뒷장, 벽지 등 다양한 질감의 종이류와 영아에게 무해한 크레파스, 두꺼운 사인펜, 색연필 등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제공하여 준다.

3) 만 3~5세

가) 듣기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구별하여 듣는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만 3세쯤의 유아는 발음하기를 어려워하고 때로는 다른 낱말로 잘못 발음하기도 하지만, 만 4세쯤의 유아는 단모음과 복모음, 단자음과 복자음의 발음을 구별하며, 만 5세 정도에는 성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유아가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을 귀 기울여 듣고, 특히 발음이 유사하게 들리는 서로 다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변별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며, 일상생활 속의 용어들을 하나하나 올바른 발음으로 들려주도록 한다. 아직 음성체계가 정교화 되지 못하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유아들의 말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시 한 번 교사가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줌으로써 유아가 정확한 발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단어들에 대한 또래 유아들의 발성이나 어눌한 발음 즉 ‘돛트’, ‘구름’ 등을 ‘주스’, ‘구름’ 등 정확한 발음과 변별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여러 사물의 이름을 적어 놓은 낱말카드를 읽어 들려주고, 유아가 발음한 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며 비교하게 하거나, 다양한 내용의 짧은 이야기를 녹음자료로 들려주어 유아들이 정확한 발음에 자주 접하게 한다. 또는 교사의 발음을 귀 기울여 듣고 교사의 입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동일한 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작은 손거울 등을 이용해 유아 자신의 입 모양을 관찰하며 교사의 입 모양과 비교하고 흉내 내며 정확한 소리를 내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유아가 말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화영화 이야기, 가족 이야기, 동물 이야기 등 유아가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교사는 정확한 발음으로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등을 다양하게 하여 유아가 흥미를 느끼며 집중하고 들을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을 꾸준히 관찰하고 변화하고자 노력한다.

듣기 과정에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말소리를 구별하고 나면, 그 말소리가 모여 의미를 형성하는 단어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유아는 각각 낱말의 뜻을 이해함은 물론 그 낱말들이 문법체계를 구성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단위인 한 문장의 의미도 가늠하여야 한다. 유아가 들은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은 배우기 위한 기초 능력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유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낱말이나 문장을 듣고,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교사는 “긴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구나.”, “밥을 꼭꼭 씹어서 잘 먹고 있구나.”와 같은 유아의 일상적인 행동, 유아 주변에 있는 사물의 명칭, 유아의 이름, 모습, 기분, 날씨, 환경 구성내용 또는 상황에 관

련된 동사, 형용사 등과 관련된 낱말이나 문장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해 준다. 또 유아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유아 스스로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며, 교사나 또래 유아들과 이야기할 때 적절한 낱말과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예쁜 나의 ‘눈’, ‘과일’, ‘단팥죽’처럼 장단음으로 구별되거나 복모음이 있거나 받침이 있는 낱말이 쓰인 여러 가지 낱말카드나,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민지의 생일입니다’ 등 문장을 적어놓은 카드를 마련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주고 언어영역에 비치함으로써 유아 혼자서 따라하고 반복 연습하여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유아가 교사의 말한 내용을 경청하여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자 노력한다. 유아에게 “손 씻고 선생님 앞에 한 줄 기차 하세요.”, “뽀 소리가 나면 소방관 옷을 입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서 아기를 구출해오는 게임이에요.”와 같이 두세 가지 정도의 지시사항이 포함된 과제를 제시하고, 유아의 행동을 관찰한다. 교사는 유아가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평소에 자신의 언어습관을 자주 평가해 보고 노력한다.

만 4세 이상이 되면 유아는 활동 중에 교사나 또래 친구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여 이에 상응하는 말을 하며, 교사가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이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듣기 경험을 돕기 위하여, ‘오늘은 2008년 5월 3일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입니다.’와 같이 문장으로 된 낱짜판과 같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유아에게 말하거나 읽어주고 무엇을 들었는지 다시 물어보거나, 유아 스스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성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유아 상호간에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도록 한다. 또 “○○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는 보육시설에 오지 않는 날 무엇을 했니?”, “○○가 놀잇감을 빼앗아 갔을 때 넌 기분이 어땠니?” 등과 같이,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쉽고 적당한 길이의 말로 다양한 상황을 일과시간 중 자연스럽게 질문하여 유아가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여 다시 말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듣기를 즐길 수 있도록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유아가 이야기를 듣고 기억나는 부분을 회상해 보도록, 설날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지?”, “설날에는 어떤 놀이를 하지?” 등과 같이 이야기 속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만 5세경의 유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요리 활동을 할 때 ‘요리의 순서’를 교사가 읽어주면, 유아가 이를 기억하고 활동으로 연결하며 중간 중간 생각이 나지 않거나 의문이 생길 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며, 동화를 듣고 ‘궁금이 상자’ 등에 넣어 둔 친구들의 궁금한 점을 듣고 기억하여 이야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사고를 전개하여 들려주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다시 질문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는 유아들의 관심을 끌만한 신문이나 잡지에 난 기사가 있을 때 교사가 쉬운 말로 바꾸어 들려 준 후, 기사 내용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였는지 물어보거나 유아에게 생긴 또 다른 관심이나 의문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도록 한다. 이때 유아의 질문이나 의견이 다소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낯설어도 유아의 표현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두어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유아가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을 언제든지 물어 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듣는다.		
		다양한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동요, 동시, 동화는 유아기에 듣는 노래와 짧은 시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유아의 듣기 경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만 3세가 된 유아들은 단순한 손 유희와 운율이 있는 노래를 좋아하며,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 노래로 여러 단어를 배운다. 만 4세쯤에는 간단한 노래 부르기와 짧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림이 있는 동화를 이해한다. 만 5세에는 간단한 동시의 운율을 기억하고 즐기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특히 리듬이나 같은 음이 반복되는 TV광고, 광고 노래 등을 따라 부른다.

교사는 유아가 동요, 동시, 동화를 자주 듣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루 일과

중 이들을 자주 소개하며, 각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동시판, 용판동화, 막대동화, OHP동화, 동요·동시·동화가 담긴 테이프나 CD, 카세트 플레이어, 헤드폰, 동요·동시·동화가 담긴 CD-ROM, 컴퓨터 등을 준비해 준다. 또 교사는 유아가 동시나 동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 수 있도록 자연 채광이 좋은 교실의 조용한 곳에 언어영역을 배치하고, 편안한 의자나 쿠션, 카펫 등을 준비해 다른 유아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여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동화나 동시 등을 다양하게 접한 유아들은 동요나 동시 그리고 동화를 듣고,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여 말하거나,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해 보며, 동요나 동시 그리고 동화와 관련하여 떠올랐던 생각을 표현해 보게 한다. 교사는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난 후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을 하여 유아의 느낌을 말이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언어영역에 색연필, 크레파스, 종이 등을 제공하여 유아의 느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인형, 손가락 인형 등을 제공하여 유아가 동화를 들은 후 동화의 내용을 인형극이나 동극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바른 태도로 듣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 내용에 집중하여 끝까지 듣는다.	

듣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 말소리에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눈길이나 표정, 손짓, 그 밖에 주위의 분위기를 종합하여 듣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유아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머리를 끄덕인다거나 말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향하고, 말하는 사람의 눈과 입에 눈길을 고정하고 중간에 이야기를 끊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유아의 올바른 듣기 태도 형성에는 교사의 듣기 태도가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교사는 유아와 이야기할 때 무릎을 낮추어 눈높이를 맞추고 유아의 눈을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며 말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고, 유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반응을 한다.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귀를 열고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은 물론, 유아는 이야

기의 내용이나 의미를 생각하며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교사는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의 주제나 목적을 알림으로써 서로 집중하여 듣도록 격려하고, 교사나 친구가 말하는 동안 유아가 듣는 사람으로서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는 태도와 예의를 실천하도록 반복적으로 알려 준다. 유아의 집중시간이 짧으므로 듣기 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는 TV 모형, 책상, 의자 등을 준비하고, '오늘의 아나운서'로 지목된 유아가 친구들을 관찰한 후 한 친구의 외모나 특성, 사는 동네, 옷 색깔 등에 대해 이야기하여,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알아맞히는 활동을 준비한다. 그리고 누군지 알아맞힌 유아가 새로운 '오늘의 아나운서'가 되어 또 다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유심히 듣고 누군지 알아맞히도록 한다.

만 4세경이 되면 유아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리도록 조용히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게 한다. 교사는 전화 걸기나 라디오 듣기 또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유아가 몸을 고정하고 교사나 친구, 주위 교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필요할 때마다 듣는 사람의 태도를 상기시키며 이를 실천하는 유아들을 말이나 눈빛으로 칭찬해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종을 울림으로써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알려거나, 듣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게 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바른 자세로 경청하는 유아들을 교사가 직접 언급하거나 눈빛으로 칭찬해 준다. 또 듣고 있는 이야기가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새롭거나 의아한지,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조용히 눈빛으로 반응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해하지 않으며 듣고 있는 유아 모두가 이야기 진행의 참여자임을 알려 준다. '친구야, 고마워.'라는 작은 투표 상자를 만들어, 유아가 이야기에 참여하였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준 친구의 이름과 그렇게 느낀 이유를 간단히 표현하여 넣어두었다가, 일과가 끝난 후 대그룹 시간에 발표하여 칭찬해 준다. 이때 투표수의 많고 적음은 언급하지 않고 칭찬받은 친구의 이름과 이유만을 알리도록 한다.

나) 말하기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낱말과 문장으로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정확한 발음으로 또렷하게 말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문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말한다.	
	새로운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여 말한다.	여러 상황을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만 3세 이후 유아기는 단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말하기를 즐기는 시기이다. 말하기 능력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가장 쉽게 길러진다. 유아들의 말하기는 언어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의 간식시간, 실내 자유놀이시간, 실외 자유놀이시간 등 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유아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유아들은 새롭게 듣고 알게 된 단어를 자신의 음성으로 바꾸어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유아는 우선 교사나 다른 교사들의 정확한 발음을 자주 들어야 하며, 들은 바를 정확하게 반복하여 발성하여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후,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고, 유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구강 구조 때문에 “저기 나비 모양 구름이 있어요.”라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할 때 잘못된 발음을 바로 지적하지 말고, “아, 저기 나비 모양 구름이 있구나.”라고 다시 바르게 발음하여 들려준다. 또 유아가 여러 가지 말소리를 편하게 발음해 볼 수 있도록 교실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조성한다.

유아가 연령이 높아지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의 원래 소리를 구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발음되는 단어만이 아니라, 유아에게는 순음, 비음, 격음, 경음, 연음 등 단어의 구성과 문장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굴절 발음되는 단어들을 귀 기울여 듣고 정확하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교사는 책, 녹음기, 거울을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신의 발성과 발음을 듣고, 그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와 대화할 때 자세를 낮추어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2음절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선택해 그림과 글자가 같이 들어있는 카드를 만들어 제시하고 발음 해보도록 제공한다. 두 유아가 친구들 앞으로 나와 교사가 보여준 카드를 먼저 읽고 한 글자씩 동시에 말하면 앉아 있는 유아들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맞히거나, 단어나 짧은 말 전달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교사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사물과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할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만 3세쯤 되면 한 번에 세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한 문장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주어-목적어-동사’로 구성되는 단순한 문장 형태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들 각 요소들은 좀 더 긴 절로 확장되기 시작하며, 언어들의 특수한 규칙, 문법의 습득과 더불어 언어가 급속하게 발달한다. 이때 교사는 단어의 적합성이나 문법이 맞는지에 초점을 두

기 보다는 유아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동물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유아의 말하기를 지원한다. “○○가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이 뭐니(예: 진돗개, 강아지)?”, “강아지 털은 무슨 색이니?” 등과 같이 오감각으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질문을 하여, 유아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들은 종종 시제나 문법 체계를 혼동하여 사용한다. 이때 교사는 문맥에 맞지 않거나 적절치 않은 시제를 사용한 유아의 말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살펴 이해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문장으로 다시 들려준다. 예를 들어, 유아가 “선생님, 내가 아침에 기린반에 가장 먼저 늦게 왔어요.”라고 말한 경우, 교사는 “아, ○○가 오늘 아침에는 기린반 친구 중에 가장 늦게 왔구나.”라고 적절한 단어와 시제 및 문법체계에 맞추어 다시 말해준다. 이렇게 유아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여 유아가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는 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만 5세경에는 유아의 언어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세련되어서, 교사 언어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이미 모두 습득한 상태가 된다. 이 때 유아의 어휘를 늘리기 위하여 교사는 주변의 일상사를 기초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아가 참여하는 행동이나 놀이 등의 상황과 관련된 단어를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거나 유아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 등도 포함시켜 표현해 준다. 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유아가 말해 볼 수 있도록, 비슷한 말, 반대말, 단문, 복합문, 가정문 등 문법적 요소를 갖추어 말해 준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병원차를 보았어요.”라고 유아가 이야기 할 때 “그래, ○○가 오늘 아침에 구급차(앰불런스)를 보았구나. 어떻게 구급차인 걸 알았니? 구급차 소리를 들었니?” 등과 같이 관련된 여러 상황의 질문을 하여 다양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교사는 비슷한 말, 반대말 카드놀이, 상황표사카드 설명하기, 두 세 문장 연결하기, ‘만약 ~ 라면’을 이용한 말하기게임 등으로 유아들의 말하기 경험을 늘려주고, 평소에 말로 표현하는 일이 것을 잘하지 않는 유아들도 말하기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할 기회를 준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말한다.	
		경험한 것을 동시나 간단한 동화로 꾸며 말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간단한 내용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은 주변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나름대로 풍부하게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다. 나날이 전개되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여 유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만 3세 이후의 유아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종종 유아들끼리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며 언어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유아가 실수로 다른 유아가 맞추어 놓은 퍼즐을 건드려서 퍼즐 조각들이 빠졌을 때, “○○가 매우 화났구나. △△가 ○○가 맞춘 퍼즐을 망가뜨려서 화나 났니?”라고 말해주면 유아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가 ○○가 맞춘 퍼즐을 실수로 망가뜨렸네. △△도 맞추던 퍼즐이 망가지면 화가 나고 속상하겠지. 이럴 때 △△가 ○○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어떨까? 그리고 ○○랑 같이 퍼즐 맞추는 것도 도와주고 말이야.”라고 말해주면 유아들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표현까지 배울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만 4세 이후의 유아들은 아침저녁 시간이나 주말 또는 휴일, 보육시설, 견학 등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각각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들을 이어서 동시나 동화로 꾸며서 말할 수 있다. 이야기 시간에 발표한 유아들의 일상적인 표현을 한데 엮어서 표현하거나,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각의 표현을 하나씩 묶으면 나름대로 한 편의 동시가 구성된다. 견학 후 유아의 경험을 간단한 동화나 동시로 꾸며 말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아의 경험에 대해 “우체국에서 무엇을 보았니?”, “너희들이 편지를 주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어떻게 하셨지?”, “그럼, 우리 우체국에 대해 동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하는 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돕는다.

연령이 높아지면 유아는 여러 환경적 변화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생각해야 하는 합리적 사고과정 또는 신체적 활동이나 창의적인 예술적 경험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를 배우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구사하게 된다. 교사는 유아가 경험한 것이나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유아들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즐겁고 편안하게 말하도록 교사는 웃으며 부드러운 태도로 들어주고, 유아가 “선생님, 나 어제 마트에 갔었어요.”와 같은 말을 건넬 때 “○○가 어제 마트에 갔었구나. 마트에 가서 어떤 걸 샀니?”,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했니?” 등과 같은 말로 받아주어 유아의 대화 상대가 되어 준다. 또 이유, 원인, 결과가 되는 상태를 기술하도록 요청하는 질문을 준비하여 유아들이 대화, 토의, 발표하는 기회에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며, 요구하기, 지시하기, 설명하기, 묘사하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로 자기주장이나 표현의 경험을 하게 한다. ‘오늘의 관심’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주제판이나, ‘만약 ~라면’의 주제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유아가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로 문맥에 맞게 말하며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도록, 교사는 “친구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겠니?” 등의 말로 이끌어 준다. 또한 4세 이후의 유아들은 들은 말을 정확히 듣고 이해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언어영역에서 소그룹이나 대집단시간에 모여 교사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 유아에게 전달해주는 릴레이 같이 전달하며 마지막에 들은 내용이 교사가 한 이야기와 같은지 비교해보는 게임 같은 활동을 하면, 들은 내용을 옆 유아에게 전달하기 같은 게임은 들을 때 유아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들은 내용을 말로 그대로 전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상황에 맞는 언어 바르게 사용하기	듣는 사람과 마주 보며 말한다.		
	듣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말한다.	듣는 사람, 때, 장소에 알맞게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헤아려 말한다.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헤아리고 차례를 지켜 말한다.	

말하기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이다. 3세 이상의 유아들은 혼자서 독백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위해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아는 효율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예절이 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유아들은 말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와 대화 관계를 형성한다. 유아는 눈을 마주보며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피력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는 등,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평소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거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본적인 말하기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교사가 유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듯이 유아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방해하지 않고 눈을 맞추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아가 서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유아의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존중하고, “○○도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가 이야기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으로,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유아는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되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에 이어서 또는 새로운 이야기 소재로 대화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교사는 대집단이나 소집단 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유아가 말하는 차례를 지키도록 자주 상기시킴으로써 말하는 태도의 기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육시설이나 거리, 시장, 공원, 공연장, 공공장소 등 유아들의 활동 범위의 상황은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시간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달라진다. 교사, 또래 친구, 평소에 알고 있던 교사, 처음 만나는 사람, 형, 누나, 동생 등 유아가 말을 건네고 받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표현이 다르다. 교사 앞에서는 존댓말을 써서 공손하면서도 친근하고 발랄한 자세와 말씨로, 형제나 친구 등 대등한 관계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씨로, 동생에게는 다정한 태도와 말씨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교수매체를 제공하여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자기 소개하기’나 ‘TV 아나운서가 되어 물건을 광고하기나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기’의 활동을 구성하여 유아가 바른 태도로 말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동화나 언어 및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가 상대방에 맞추어 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점차적으로 유아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고 아침·점심·저녁 시간대에 따라 또는 과거·현재·미래 시제에 따라 각기 다른 인사 내용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 음식점, 공원, 병원, 연주회나 마당극이 연출되고 있는 공연장, 사찰이나 교회 등의 종교 기관, 우체국 등 공공기관 같은 장소들이 엄숙한 장소인지, 즐겁고 활동적인 장소인지 등 환경을 고려하여, 목소리의 크기나 문장의 길이, 말의 속도 그리고 선택하는 용어 등을 생각하며 말해야 함을 알게 된다. 교사는 이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상황판을 마련하여 제공하거나 역할극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준비한다. 또 교사가 박물관이나 낮잠시간 등과 같이 조용한 곳과 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실외놀이터 등과 같이 넓

은 장소에서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도 되는 때와 장소에 맞춰 목소리를 조절하는 본보기를 보여준다.

유아는 스스로 말하기에 충실한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살피고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에 동일한 관심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동의하는지 반대 입장인지, 즐겁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지, 지루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자신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지 또는 기분이 상했는지 등, 유아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자신의 말을 조절한다. 유아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가 기분이 어떨까?” 등의 질문으로 교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활동 시간에 유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주제를 찾아 문제 상황을 제기하거나 역할놀이를 유아가 직접 구성하게 하는 등, 적절한 언어적 대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읽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읽기에 흥미 갖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글자를 흥미를 가지고 읽어본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알아본다.		
	주변에서 자주 보는 글자를 읽는다.		

읽기란 쓰여 있는 글자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해독(解讀)’과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분석하고 비판하는 ‘의미 이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읽기에는 말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소리의 단위와 유형을 지각하고 글자를 아는 문해, 낱글자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는 단어 확인의 과정,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 그리고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이 함께 작용한다. 유아는 글로 써진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만, 스스로 글을 읽는 것은 아직 힘들다. 유아는 읽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 주세요.” 하며 교사에게 읽어 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유아는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자에 친숙해지고 글자를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진정한 읽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읽어볼 수 있도록 “여기 자동차라고 써 있구나.” 하며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낱말, 문장 등을 자주 읽어주고,

유아가 서툴게 글씨를 읽더라도 “○○가 토마토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읽었구나.” 하며 다시 한 번 읽어주어 유아의 일상적 읽기 활동을 격려한다. 교사가 읽어 주는 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이야기 또는 동물, 좋아하는 놀잇감 등과 같이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소재나 내용을 다룬 이야기 책 뿐 아니라 신문기사, 편지,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적은 글, 안내문, 전단지 등 다양한 글을 선택하여 읽어준다. 또 교사는 점진적으로 읽어준 글을 듣고 그에 대해 유아의 느낌, 생각, 이야기의 내용 등을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읽어준 책과 관련하여 “첫째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지?”, “왜 집이 부서졌을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니?” 등의 질문을 하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알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 유아가 자신의 이름을 인식하고 다른 글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유아의 소지품, 옷장 등에 유아의 이름을 써놓고 자주 소리 내어 읽어주고, 유아가 자신의 이름을 가리킬 때 유아의 욕구와 흥미를 인정하여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라고 쓰여 있지?” 하며 반응해 준다. 이것에 익숙한 경우 교사는 유아 자신의 이름, 친구 이름,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 이름 등과 같이 유아가 자주 보고 친숙한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또 유아가 아는 글자를 읽어보려고 할 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선생님한테 읽어 줄래?” 하며 유아의 읽기 행동을 격려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접할 수 있도록 유아들이 좋아하는 과자이름, 보육시설 장에 붙어있는 이름표, 영역표시판, 교실문패, 가게 간판, 교통표지판, 책상, 의자, 놀잇감 이름과 같은 교실에 있는 사물들, 친구 이름 등을 문자로 적어 게시하여 유아가 글자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보육실 내에 그림책 뿐 아니라 신문, 전단지, 안내책자, 잡지, 화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인쇄물을 제공하고 읽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 글자 읽기에 흥미를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글자퍼즐, 낱말카드, 글자짜짓기 게임 등 다양한 글자놀이를 제공하고 유아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도 유아와 함께 글자놀이를 즐기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동요, 동시, 동화 읽기를 즐기기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동요, 동시, 동화를 읽어 본다.		
		동요, 동시, 동화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등의 동요, 동시, 동화는 유아에게 가장 친숙한 읽기 교재이다. 동요, 동시는 표현된 노랫말이나 시어가 간결하고 명쾌하며 작품의 길이가 짧아 유아가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리듬감과 운율이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동화는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장르보다 유아가 흥미 있어 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수준에 맞는 동요, 동시, 동화를 선택하여 유아가 큰 책, 만든 책, 그림동화, 테이블동화, 융판동화, 앞치마 동화, 자석동화, TV동화, OHP동화, 컴퓨터용 플래시 동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개별 또는 소집단이나 대집단을 대상으로 자주 읽어줌으로써 유아의 흥미를 자극한다. 유아의 수준에 맞는 동요, 동시는 쓰인 언어가 반복과 리듬감이 있고, 명쾌하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으며,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소재를 담고 있고, 읽었을 때 주제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짧은 글로 창작동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래동요도 포함된다. 교사는 유아가 동요, 동시, 동화를 읽을 때 맞춤법이나 띄어 읽기 등을 정확히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활동으로 유아의 읽고자 하는 욕구가 자극되고 읽기에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가 동요, 동시, 동화 전달매체에 익숙해지면 동요, 동시, 동화를 읽는 동안 글의 내용에 대해 “어떤 말이 있었지?”, “무슨 내용이지?”,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질문을 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동요, 동시, 동화를 읽은 느낌,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림, 신체표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책읽기 영역에 창작동화, 환상동화, 생활동화, 전래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동화를 준비하여 유아의 동화 읽기를 지원하고, 동요, 동시를 아름답게 구성한 자료를 언어영역에 게시하거나, 읽기 활동이 컴퓨터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요, 동시가 담겨있는 CD-ROM을 함께 제공한다. 유아로 하여금 이들 자료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언어영역에 색연필, 크레파스, 종이 등을 제공하고, “백설 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니?”라고 질문하여 유아의 느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한다. 또한 동화를 읽고 난 후 유아의 느낌이나 생각을 인형극이나 동극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손인형, 손가락 인형, 막대인형, 등장인물 그림 머리띠 등을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책 읽기에 관심 갖기	책에 흥미를 가지고 책 보는 것을 즐긴다.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교사와 함께 책을 찾아본다.		스스로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찾아 읽는다.

그림책은 그림이라는 미술적 요소를 동반하여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며,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로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책은 유아가 글자를 읽지 못해도 그림만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동요, 동시, 동화이다. 그림책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의 유아는 교사나 부모가 자주 읽어준 그림책의 일부 내용을 외어 마치 그림책의 글을 스스로 읽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유아는 점차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모두 읽게 되고, 읽기에 자신감이 생긴 유아는 스스로 또 다른 주제의 그림책을 찾아 읽는 독자가 된다. 유아가 그림책 읽기를 즐기게 되면 특별히 선호하는 그림책이 생기고, 좋아하는 그림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다. 좋아하는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글자를 눈에 익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익숙한 글자를 읽게 되며, 그림책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책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긴다.’ ‘책은 위와 아래가 있다.’, ‘단어와 단어 사이는 끊어 읽는다.’와 같은 책 읽는 규칙, 책을 다루는 바른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그림책을 자주 접한 유아의 경우, 유아가 제기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을 비롯하여 그림 백과사전, 과학 동화그림책 등을 교사와 함께 찾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는 책은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및 개념,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후에는 유아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책에 다가가 관심을 가진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그림책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보며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장르와 주제의 다양하고 질 좋은 그림책을 제공하며, 언어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 중 유아가 흥미를 느끼거나, 활동과 연관되는 경우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꺼내어 읽어준다. 특히 실외놀이 후 점심 먹기 전 조용히 기다리며 쉴 때, 낮잠 자기 전후에 준비하고 정리할 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귀가 순서를 기다릴 때 등 교사는 조용한 시간에 그림책을 자주 읽어 주어 유아가 그림책 읽기에 집중

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책을 읽어 줄 때는 목소리의 크기나 높낮이, 호흡의 길이 등에 변화를 주어 유아에게 듣는 기쁨을 제공하고, 그림책을 읽으며 책의 내용, 유아의 느낌, 생각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읽어 준다.

책 읽는 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해 교사는 유아가 바른 태도로 책을 읽지 못할 때, 책 읽을 때의 바르지 못한 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사태를 유아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봄으로써 올바른 책 읽기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유아가 책을 바르게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사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니? 한 장씩 넘겨볼까?” 하며 책장을 바르게 넘기며 읽는 시범을 먼저 보이고 안내한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가 책을 읽고 나면, “자기가 읽은 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책을 제자리에 정리해 보자.”라고 말하며 책을 읽고 난 후 제자리에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그림책을 자주 접한 유아에게 교사는 책은 즐거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해 “공룡은 뭘 먹고 살까?”, “공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룡은 어디에 살까?”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우리 공룡에 관한 책을 찾아볼까?”와 같이 제안함으로써 유아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 그림 백과사전, 과학 동화책 등을 찾아본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영역에 큰 쿠션, 부분 카펫, 소파 등을 마련한다. 책 읽기 영역에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생활 주제와 관련된 그림책이나 환상동화, 전래동화 등과 같은 그림책을 제공한다. 또한 유아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가 자발적으로 그림책에 다가가 관심을 가진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도록 언어영역과 기타 관련된 영역에 ‘나의 몸, 동식물,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지구와 우주’ 등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그림책을 다수 비치하여 준다.

라) 쓰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말과 글의 관계 알기	유아의 말을 교사가 글로 받아 적을 때, 말이 글로 바뀌는 과정에 관심을 보인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쓰기는 무엇인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내고 생각한 바를 문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아들은 상징체계로서 기호로 표기하는 표준 글자를 나타내기 훨씬 이전에도 문자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문자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쓰기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우친 유아는 쓰고자 하는 동기가 강렬하여 끼적거리기, 창의적으로 꾸며 쓰기 등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표준적인 글쓰기에 쉽게 다다른다.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말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 할 때 교사는 하루 일과 중 언제라도 유아의 말을 종이에 기록해 준다. 교사는 유아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어 할 때, “○○가 하는 말을 선생님이 종이에 써 줄게.” 또는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니?” 라고 물어 유아가 생각한 바를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게 하고 이를 글로 적어준다. 교사는 언어영역에서 하는 편지쓰기와 같은 활동 뿐 아니라 과학영역에서 하는 관찰일지 쓰기,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정한 약속 쓰기 등 유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주 받아 적어주도록 한다. 또 유아의 말을 교사가 받아 적어준 글, 유아가 직접 쓴 글,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주 읽어줌으로써, 앞서 오는 반대로 글이 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유아가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글자나 그림책에 익숙한 유아의 경우 읽어주는 그림책의 내용이 글로 쓰여 있음을 인식하도록, 교사는 글자를 손가락을 짚고 움직이며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주면서 유아와 함께 친숙한 단어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쓰기에 흥미 갖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끼적거리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쓴다.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과 글자로 쓴다.	
		글자를 보고 모방하여 쓰기를 한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쓴다.

쓰기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유아는 영아기 때부터 쓰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종이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끼적거리다. 유아는 점차 가족이나 또래 친구가 함께하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쓰기를 배우며, 유아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반복하면서 쓰기도 자신의 느낌,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유아의 쓰기는 그림 그리기, 끼적거리기,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쓰기, 낱글자들을 연속해 쓰기, 창안적인 글자 쓰기, 관례적인 철자법으로 쓰기 등 다양한 수준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쓰기 발달단계에 따라 공식적인 글쓰기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유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과 글자로 쓰기, 글자를 보고 모방하여 쓰기,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 쓰기 등에 흥미를 갖게 되며, 특히 유아는 병원놀이, 음식점놀이, 미장원놀이 등 역할놀이를 할 때 쓰기 활동을 많이 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에게 동물원 견학 활동 후 “동물원에 가서 무엇을 보았니?”,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니?”, “잘못 쓰는 건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그림이나 끼적거리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아가 쓴 것에 대해 칭찬한다. 또 편지쓰기, 동화, 동시 만들어 쓰기 등의 활동도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유아가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쓰거나 유아에게 친숙한 글자는 맞춤법에 맞게 써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글씨체나 맞춤법에 맞춰 유아의 쓰기를 평가하지 말고, 유아의 생각 및 쓰고자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쓴다’는 것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즐거운 도구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교사는 유아가 쓰기에 압박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쓰기 도구와 종이, 글자놀이 교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글쓰기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 되도록 지도한다. 또한 유아가 글 쓴 결과물을 게시하여 쓰고자 하는 동기를 격려하고,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기회를 주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교사는 유아가 역할놀이 할 때 “음식점 이름을 뭐라고 할까? ○○가 한번 써볼래?” 또는 유아가 끼적거린 것에 대해 “뭐라고 썼는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니?”와 같이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여 유아가 지속적으로 쓰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격려한다. 유아가 낱말에 흥미를 가지면 교사는 생활주제에 맞는 낱말카드, 유아의 관심을 이끄는 낱말이나 문장을 적은 카드를 제공하여 유아가 낱말과 문장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써보거나 자신에게 친숙한 낱말을 글자로 써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소지품과 옷장 등에 적인 이름표와 주변의 놀잇감과 사물에 붙여진 이름카드를 보고 본을 삼아 따라 써보는 활동을 제공한다. 쓰기를 즐겨하는 유아의 경우 그림, 끼적거리기, 글자 등을 이용하여 놀잇감, 동물 등의 이름을 적거나

그림으로 나타낸 책, 박물관 견학에서 보고 느낀 점 등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낸 책, 유아들이 협동하여 만든 동화책, 동시책 등의 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하루 일과 중에 유아가 자연스럽게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언어 영역, 역할영역, 과학영역 등 쓰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준비해 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언어영역에 생활주제에 맞는 낱말카드, 좋아하는 과자이름, 만화 캐릭터 등 유아의 관심을 이끄는 낱말이나 문장을 적은 카드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유아의 소지품, 옷장 등에 이름표를 붙여 주고, 주변에 사물들과 놀잇감, 놀이영역의 이름을 쓴 카드를 붙여준다. 책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과 모양의 종이, 사인펜, 크레파스, 색연필 등의 필기구, 풀, 테이프, 가위 등을 제공하며, 유아가 자신이 만든 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가 지속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유아가 만든 책은 교실에 게시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쓰기 도구와 매체 사용하기	여러 가지 쓰기도구와 쓰기 관련 매체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만 3세 유아들은 ‘쓴 것’과 ‘그린 것’을 구별하며 연필이나 볼펜, 사인펜 등의 여러 가지 쓰기도구를 사용해 보곤 한다. 만 4, 5세 유아도 자석글자나 글자 퍼즐 등 여러 가지 글자놀이 도구와 컴퓨터 CD-ROM, 터치스크린 등 쓰기 관련 매체 사용하기를 즐긴다. 유아들은 다양한 쓰기도구의 특성과 바른 사용법을 알게 되면서 점차 생일카드, 편지, 초청장, 규칙지시문 등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조직의 글과 서로 목적이 다른 쓰기 행위의 요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생활주제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글을 써보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쓰기도구와 쓰기 매체의 특성을 유아가 탐색하도록 격려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준다.

이를 위해 교사는 언어영역뿐 아니라 교실 전반에 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지우개 등의 필기구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 재질의 종이를 제공한다. 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쓰기 활동을 하도록 교사는 컴퓨터 CD-ROM과 터치스크린, 프린터를 제공하여 키보드나 마우스, 손을 이용하여 글자를 써보고, 출력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유아가 필기구를 이용하여 쓰는 활동을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생활주제에 맞게 모래종이 글자, 부직포 글자, 자석 글자, 스탬프와 잉크,

글자게임, 낱말카드 등 다양한 쓰기 놀이도구를 비치해 준다.

5. 자연탐구

가. 목표

- 영유아는 자연에서 사물, 생명체, 사진, 현상 등을 경험한다. 즉 자연이란 영유아의 경험 대상이 된다. 영유아가 탐구를 통해 자연을 이해하는 것은 전인적 발달에 관련되지만, 특히 수학적 그리고 과학적 탐구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자연 탐구란 영유아가 수학과 과학을 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부분과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구성되는 이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는 탐구 능력을 토대로 수학적·과학적 탐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구성한다.
- 주변 세계에 대해 지각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수학적·과학적 과정 기술 및 사고 기술을 사용하여 탐구한다.
-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기초지식을 구성한다.
-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탐색하고 조사하여 발견함으로써 지식과 이해를 구성한다.

○ 주변 세계에 대해 지각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수학적·과학적 과정 기술 및 사고 기술을 사용하여 탐구한다.

영유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주변 환경에 대해 관찰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복하여 탐색한다.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반복적 탐색은 영유아들이 지속적인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기초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들이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를 지속함으로써 관찰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수학적, 과학적 태도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해서 살펴보

면, 영아 때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을 지각하고 인식하며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아기 때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관찰하고 분류하고 실험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등의 과정 기술과 사고 기술을 사용하여 탐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탐구 수행을 통하여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기초지식을 구성한다.

영유아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름대로의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과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체의 수량과 공간을 인식하고, 수량적 관계, 산술적 관계를 이해하는 등 기초 수학적 지식을 갖게 된다. 크기·길이·둘이·무게 등을 비교하고 일상의 규칙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경험과 구체적 탐색과 조작 활동으로 여러 상황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한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공간적 이해를 구체물이나 그림, 언어 등을 매체로 표상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고, 적용해 본 결과와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나타내면서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과 기초 수학적 지식을 구성한다.

○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탐색하고 조사하여 발견함으로써 지식과 이해를 구성한다.

영유아들은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을 탐구함으로써 기본적인 과학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들은 자신들에게 전수되는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과학적 이해를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이나 생명체와 생태환경 그리고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련된 과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표상하고 소통한다.

나. 연령별 내용

주변 세계와 자연환경에 대해서 영아는 인식수준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감각 경험

을 통해 개인적 의미를 구성해가는 탐색의 수준으로 이동한다. 유아는 탐구를 통해 이해를 정교화하고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를 적용할 수 있다. 자연탐구의 내용은 탐구하기, 수학적 이해, 과학적 이해로 구분된다. ‘탐구하기’는 태도와 기술에 관련되며, ‘수학적 이해’와 ‘과학적 이해’는 지식 구성에 관련된다.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목표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하여 인식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등 다양한 감각과 조작으로 반복하여 탐색한다. 1)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를 지각하고 탐색한다. 2)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경험을 지각한다. 3)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인식한다.	주변의 사물, 사람, 사건, 자연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다양하게 탐색한다. 1)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 2) 주변 사물과 일상생활 속의 수학적 경험을 인식한다. 3)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사물과 자연환경의 특징을 안다.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탐구 과정을 즐기며 기초적인 탐구기술과 수학적·과학적 이해를 구성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1)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탐구 과정 및 사고 기술을 사용한다. 2) 일상생활 속의 수학적 경험을 수학적 사고 과정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 수학적 지식을 구성한다. 3) 탐구를 통하여 주변의 사물, 생명체, 자연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구성한다.
내용 범 주	탐구하기	·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 지각하기 · 반복하여 탐색하기 ·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인식하기	·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호기심 가지기 · 반복하여 탐색 즐기기 ·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 탐구 즐기기 ·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및 사고 기술 활용하기
	수학적 이해	· 수량지각하기 · 주변 공간 탐색하기 · 지각적으로 비교하기 ·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 수량인식하기 · 공간과 도형 인식하기 · 비교하기와 순서 인식하기 · 간단한 규칙성 인식하기 · 구분하기	· 수의 기초 개념 알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기 · 측정하기 · 규칙성 이해하기 · 자료수집과 나타내기
	과학적 이해	· 주변의 사물 지각하기 · 주변 생명체 인식하기 · 자연 현상 지각하기 · 조작 놀잇감(소리, 움직임)	· 물체와 물질의 특성 탐색하기 · 주변 생명체의 외적 특성 알기	·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 · 생명체와 생태 환경 알기 · 자연현상 이해하기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내용 범 주		임, 영상 등) 사용하기	• 자연현상 인식하기 • 생활도구와 기계 사용하기	• 일상생활 속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활용하기

1) 만 2세 미만

가) 목표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하여 인식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등 다양한 감각과 조작으로 인식하고 반복하여 탐색한다.

-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를 지각하고 탐색한다.
- (2)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경험을 지각한다.
- (3)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 환경에 대해 인식한다.

나) 수준별 내용

내용 범 주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탐구하기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 지각하기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를 지각한다.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반복하여 탐색하기	주변의 사물을 보고 만지고 빨기를 반복한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인식하기	주변의 사물을 감각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표현한다.
수학적 이해	수량 지각하기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한다.	‘있다’와 ‘없다’를 구별한다.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한다.
	주변의 공간과 도형 지각하기	주변 공간을 탐색한다. 물체가 없어지는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없어진 물체를 찾는다.			

내용 범주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수학적 이해				주변 사물의 여러 가지 모양의 차이를 지각한다.	
	지각적으로 비교하기	사물의 여러 가지 감각적 속성을 지각한다.		주변 사물의 여러 가지 감각적 속성의 차이를 지각한다.	
					크기를 지각하고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간단한 규칙성을 지각한다(소리, 동작 등).		
과학적 이해	주변의 사물 지각하기	주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한다.			주변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그 결과를 안다.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는 등의 감각적 행위를 통하여 사물을 지각한다.	사물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키는 등의 조작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	
	주변 생명체 인식하기	주변(환경)의 움직이는 생명체를 지각한다.			동물과 식물을 구분할 줄 알며 주변의 생명체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체의 부분을 탐색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명명한다.
	자연 현상 지각하기	주변의 자연현상(바람, 햇빛, 비, 눈 등)을 느낀다.			날씨 상황을 감각을 통해 느낀다.
	조작 놀잇감(소리, 움직임, 영상 등)사용하기	소리, 움직임, 영상 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놀잇감을 사용한다.			특정한 조작 놀잇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1) 탐구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 지각하기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를 지각한다.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만 2세 미만 영아들은 주변의 사물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관심을 보이며,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나름대로 주변 세계를 지각하고 알아간다. 영아들은 각 감각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감각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지각하는 능력이 일찍부터 발달한다. 생후 한 달 된 영아들은 시각과 촉각 간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어 자신이 물었던 젖꼭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안다. 그리고 시각과 신체감각 간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어 타인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근육을 움직여 같은 표정을 짓는 모방을 할 수도 있다. 영아의 지각 능력은 보다 일찍부터 발달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정교해 지고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각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거나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계속 발달된다. 한편, 이 시기의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은 감각 및 신체 기능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영아가 머리를 가눌 수 있게 되면 좋아하는 사물을 시각적으로 탐색한다. 손과 팔의 움직임이 능숙해지면 사물을 손에 쥐고 보거나, 입에 넣고 빨아보면서 탐색한다. 기어 다니거나, 잡고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가능해지면, 주변에 대한 관심과 탐색을 통해 지각하는 범위를 넓혀간다.

교사는 자신의 손발을 갖고 놀기, 물체가 내는 소리에 흥미보이기, 발을 입으로 가져가기, 자신의 손을 살펴보기, 물건의 냄새를 맡기 등의 탐색 행동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격려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반복하여 탐색하기	주변의 사물을 보고 만지고 빨기를 반복한다.	관심 있는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의 관심 있는 사물에 대해 탐색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손에 쥐 물건들을 일단 입 속에 넣고 빨기를 반복하거나 소파나 식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찾고, 집어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매번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보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며 즐긴다. 이러한 반복되는 탐색을 위한 행동은 영아가 사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적 경험을 통해 수학의 기초 지식을 형성하고, 탐색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물건을 떨어뜨리고 찾기를 반복하기, 물건을 표면에서 반복해서 미끄러뜨리기, 물건을 반복적으로 던져보기, 물건의 뒷면을 탐색하기,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떨어뜨리기 등의 중요한 탐색행동이 나타날 때 이 행동에 주의를 함께

집중해 주고 관심을 보이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특정 사물이나 환경을 반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영아의 반복되는 탐색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원하고, 탐색의 범위를 확장해 가도록 격려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인식하기	주변의 사물을 감각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표현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주변의 사물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지각하고 인식한다. 이 시기는 지각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일상적 세계를 이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관찰하는데 여러 가지 감각과 신체기능을 주로 사용한다.

교사는 이 시기의 영아가 다양한 감각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감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흥미를 보이는 놀잇감과 일상용품과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지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아가 궁금해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표정, 몸짓, 의성어, 의태어 등을 이용하여 관심을 공유하도록 한다. 어린 영아가 천장에 달린 모빌을 주시하면, 교사는 영아를 안고 손으로 모빌을 쳐서 움직이게 한 후, “나비가 움직이네, 한 번 해 볼까?”라고 하면서 영아와 함께 모빌을 보면서 움직임이나 특성에 대해 말을 해 준다.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사물을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2) 수학적 이해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수량 지각하기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한다.	‘있다’와 ‘없다’를 구별한다.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가 생활용품, 놀잇감, 음식 등 주변 사물을 ‘하나, 둘’ 세는 것을 듣는다. 아주 어린 영아들도 적은 물체의 양을 수량화할 수 있다. 물체 두 개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세 개를 보여주거나, 물체가 있다가 사라지면 영아의 표정과 응시시간이 달라진다. 12개월 이전의 영아들은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하게 되고, 점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된다. 또한 12개월 이전 영아는 더 많고 더 적은 수량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지 다르다는 것만 지각

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14개월 이후의 영아들은 같고 많음 적음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일상생활에서 눈앞에서 물건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있다’, ‘없다’에 관심을 보인다. 아직 수 이름과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하나, 둘’ 정도의 수 이름을 말하고, 사물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 ‘많다’ 등의 수량 관련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사는 일상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하나’, ‘둘’ 세어 영아들이 수 이름을 듣게 하고, 수량 관련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 교사는 영아들이 초기에 있고 없는 상황과 수량을 자연스럽게 지각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 주도록 한다. 놀이를 하면서 ‘있다’와 ‘없다’, ‘하나’와 ‘많다’를 지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영아들이 초기에 있고 없는 상황과 수량을 지각하는 데는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아가 수량을 지각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수준에서는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할 수 있도록 잘 가지고 노는 놀잇감이나 항상 놓여 있는 곳에 있는 물건을 없어지게 했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인식을 하게 하면, 3수준에서는 ‘있다’ ‘없다’를 구별하게 된다. 4수준에서는 형묘자동차 같은 것을 한 개 담아두다가 두 개, 세 개 담아두어 한 개와 그 이상의 수량이 있는 것을 인식하여 구별하는 경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의 공간과 도형 지각하기		주변 공간을 탐색한다.		
		물체가 없어지는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없어진 물체를 찾는다.		
			주변 사물의 여러 가지 모양의 차이를 지각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들의 주변 공간에 대한 지각은 매일의 생활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아는 주변 공간에 대한 탐색은 자신의 성장 발달과 연관되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간 지각은 영아 자신을 중심으로 시야에서 사물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경험에서 시작된다. 1세 이전에는 감각 운동적 자기중심성을 보이면서 물체의 위치를 단지 자신의 감각운동과 관련해서 보지만 12~18개월이 되면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대상과의 관계, 또는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영아가 스스로 혼자 움직이는 경험이 많고 여기저기 주도적으로 다닐 수 있을 때 외부의 위치파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지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간 탐색 능력의 발달은 대상영속성 개념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아들의 주변사물의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지각은 생활용품이나 놀잇감, 자연물 등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을 보거나 사용하거나 가지고 노는 것으로 시작된다. 영아들은 관심 있는 이러한 사물을 접하고 가지고 놀면서 사물이 가진 도형의 특성을 지각할 수 있다.

교사는 대상영속성 개념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우연한 상황이나 의도적으로 물건이 없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숨기고 찾기 놀이, 까꿍 놀이 등을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없네.” 등의 말로 지원하고 놀이를 확장한다. 사물의 위치에 변화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영아가 보는 앞에서 숨겨서 찾는 놀이를 할 수도 있다. 사물이 사라져도 계속 찾아보게 하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 주도록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놀잇감을 제공해 주어 도형을 탐색하게 하고 영아의 관심이 지속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도형의 이름과 ‘잘 굴러가네.’ 같은 도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며 놀이 경험을 격려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지각적으로 비교하기	사물의 여러 가지 감각적 속성을 지각한다.		주변 사물의 여러 가지 감각적 속성의 차이를 지각한다.	
				크기를 지각하고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만 2세미만 영아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에 많은 흥미를 보인다. 영아들은 흥미 있는 사물을 보고 만지고 놀면서 사물이 가진 속성을 자연스럽게 지각적으로 알아간다. 영아들은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사물의 속성을 지각하고 탐색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물들을 직접 조작해보면서 사물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영아들은 사물의 색, 크기, 길이 등의 속성의 차이를 지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영아들이 크기나 길이를 비교하여 ‘똑같다, 길다, 크다, 무겁다’ 등의 간단한 비교 관련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무겁다, 가볍다,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등의 어휘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2세 미만 영아의 비교하기의 수준별 내용에서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물의 속성을 알아가는 탐색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통한 상호작용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

는 주기적으로 영아들의 키, 몸무게 등을 재어 기록하며 “키가 많이 컸네.” 등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니?”, “어느 것이 더 길까?”, “누구 손이 더 크니?”, “어느 것이 더 가벼워?”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영아들이 비교하기를 경험하게 하는 활동으로는 ‘둘이 키 대보기, 신발 대보기, 손 대보기, 블록 길이 대보기’ 등을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크기를 비교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간단한 규칙성을 지각한다(소리, 동작 등).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색, 모양, 리듬, 동작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간단한 규칙성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영아는 하루일과 속에서 일과를 통해 간단한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세 미만 영아의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영아들이 지각할 수 있는 규칙성은 시각적 규칙성, 청각적 규칙성, 동작적 규칙성 등이 있다. 시각적 규칙성으로 색, 모양, 크기 등에 규칙성이 있고, 청각적 규칙성은 음악, 단어, 문장 등에 규칙성이 있고, 동작적 규칙성은 몸동작, 율동 등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이다.

영아들은 일상적으로 규칙성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이나 말을 들으며 소리나 리듬의 규칙성을 경험한다. 또 ‘ 짹짹 짹짹, 도리도리, 잼잼’ 등의 활동으로 청각적 규칙성과 동작적 규칙성을 지각한다. 영아들은 이와 같은 운율 있는 말, 음악, 율동 등 청각적, 동작적 규칙성을 매우 즐긴다. 영아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일과의 규칙성을 잘 알아차린다. 놀이 후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이나 간식을 먹은 후 다시 놀이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 간단한 규칙성을 지각하게 된다.

교사는 규칙성을 포함하고 있는 시각적, 청각적, 동작적 자극들을 제공하여 영아들의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를 도울 수 있다. 간단한 규칙성이 포함된 음악이나 노래를 반복해서 들려준다. 또한 언어의 발달에 따라 어휘 바꾸기 놀이나 간단한 어휘가 반복되어 있는 그림책 등을 이용하여 단어의 규칙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다음 일과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말을 해 주어 규칙성을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학적 이해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의 사물 지각하기	주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한다.			주변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그 결과를 안다.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는 등의 감각적 행위를 통하여 사물을 지각한다.		사물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키는 등의 조작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

사물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은 과학적 탐구 능력 형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이다. 감각적인 지각은 태내에서부터 습득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아기는 태내에서부터 엄마의 장기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양수를 거쳐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도 듣는다. 따라서 갓 태어난 신생아라도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는지, 색다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익숙하지 않은 맛이나 좋지 않은 냄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월령이 증가하면서 영아는 이렇게 타고난 감각적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의 수많은 자극에 반응하고, 더 나아가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인한 결과를 알기 시작한다.

영아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특징을 지각하는데,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사물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며 만지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진보된 감각적 탐색을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맛을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비누와 로션 등 다양한 사물을 제공하여 영아의 감각 능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특히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손가락의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영아는 파고, 두드리고, 누르고, 주무르고, 구기고, 접고, 비틀고, 문지르고, 당기고, 끄는 등 매우 다양한 손놀림(조작)으로 사물의 특징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아가 마음대로 구기고 찢을 수 있는 종이나, 파고 문지르고 주무를 수 있는 밀가루 반죽, 끌거나 당겨서 움직임이나 변화가 나타나는 놀잇감 등 손을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제시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 생명체 인식하기	주변(환경)의 움직이는 생명체를 지각한다.			동물과 식물을 구분할 줄 알며 주변의 생명체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체의 부분을 탐색한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명명한다.

생명체에 대한 영유아의 관심은 움직이는 곤충이나 동물을 접하거나,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체 부분을 만지거나 주의 깊게 보면서 시작된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애완동물을 보게 되거나, 마당에서 곤충을 발견하거나, 동물원에서 특이한 동물들을 만나는 등의 우연한 기회가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집이나 교실에서 키울 수 있는 새, 거북이, 개구리, 붕어, 병아리, 달팽이 등을 보면서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월 밖에 안 된 유아들도 어항 속을 헤엄치며 다니는 선홍색 붕어를 보면 긴장한듯한 눈길로 주시한다. 또는 걸음마를 시작한 영아가 마당에서 달음질치는 병아리 뒤를 계속 따라다니기도 한다. 교사는 이러한 영아의 관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몸으로 흉내 내며, “붕어가 정말 예쁘지? 꼬리를 흔들면서 물속을 돌아다니네.”라고 하여 영아의 관심을 붕어의 생김새와 움직임에 모아본다. 또는 “○○야, 병아리 배고프지 않게 맛있는 것을 주자. ○○가 이거 주면서 병아리야, 이리와, 그래봐!”라고 하여 영아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한다.

아주 어린 유아들은 움직이는 생명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흥분하기 보다는 유심히 바라보면서 감각을 집중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 동물이나 곤충의 소리와 움직임에 대하여 심하게 두려움을 보이는 영아도 있고, 반대로 흥분 섞인 호감을 보이는 영아도 있으며, 또는 이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보이는 영아도 있다. 자연탐구 주요 목표인 생명체에 대한 관심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경이롭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체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아기부터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움직이는 동물이나 곤충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영아도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가 생명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편,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생후 3~4개월 무렵 시선 모으기를 연습하는 것

처럼 영아가 자신의 주먹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거나,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에 관심을 보이면서 발달한다. 그런가하면, 교사 등 친근한 사람들의 얼굴을 만지거나, 입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거나 하면서 생명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해간다. 이때 교사는 “○○ 손이 잘 보이지? 손을 보는 것이 재미있지?” 또는 “배꼽이 신기하지? 동그랗고 톱 튀어나왔지?” 등으로 반응해 주거나, “○○가 선생님 얼굴 예쁘다고 만지네. 선생님도 ○○ 예쁘다고 할게. 이건 ○○ 코, 이건 선생님 코”와 같이 주고받는 식으로 영아의 관심을 북돋워 준다. 더 나아가 교사는 영아가 이러한 관심을 신체부위 명명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자연 현상 지각하기	주변의 자연현상(바람, 햇빛, 비, 눈 등)을 느낀다.			날씨 상황을 감각을 통해 느낀다.

영아들은 맑은 날 바깥을 산책할 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인다. 날씨가 좋을 때 느낄 수 있는 공기의 쾌적함이나, 바람의 따스함과 부드러움 등은 영아에게도 기분 좋은 감각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경험은 나아가 자연에 대해 고마움을 알 수 있게 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순화를 도모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들이 가능한 한 맑은 공기와 햇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산책과 바깥놀이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다.

월령이 증가하면서 영아는 날씨의 변화에 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연 현상에 관심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비 오는 광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랫동안 주시하거나, 천둥소리에 놀라운 표정을 짓고 그 소리를 흉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지각적 반응들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이용하고, 즐기는 과학적 능력의 발달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사는 “그래, 밖에 비가 오는구나. 창 위에 물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진다. 우리 친구들하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라고 하거나, “큰 천둥소리가 났지? 조금 놀랐지? 그래, 그렇게 정말 쿵쿵 그랬지?”와 같이 반응하여 자연현상을 영아와 함께 경험한다. 이외에도 교사는 바람개비놀이, 낙엽 줍기, 눈 만지기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영아가 날씨와 온도, 바람, 햇빛 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조작 놀잇감(소리, 움직임, 영상 등)사용하기	소리, 움직임, 영상 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놀잇감을 사용한다.			특정한 조작 놀잇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영아들은 버튼을 누르거나 뚜껑을 열거나 등의 조작을 통해서 소리, 움직임, 영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며 스스로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작 놀잇감은 테크놀로지의 한 유형이다. 영아들이 이러한 조작 놀잇감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시발점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들이 작동 하면 흥미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버튼형, 손잡이형, 뚜껑형 등으로 작동 스위치가 각기 다른 놀잇감을 골고루 경험하게 하여 특정한 속성 및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2) 만 2세

가) 목표

주변의 사물, 사람, 사건, 자연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다양하게 탐색한다.

- (1)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
- (2) 주변 사물과 일상생활 속의 수학적 경험을 인식한다.
- (3)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사물과 자연 환경의 특징을 인식한다.

나) 수준별 내용

내용 범주	내용	1 수준	2 수준
탐구하 기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호기심 가지기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한다.	
	반복적인 탐색 즐기기	관심 있는 사물을 주도적으로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관찰, 분류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수학적 이해	수량 인식하기	‘하나’, ‘둘’ 정도의 수 이름을 말하고 센다.	‘하나’, ‘둘’, ‘셋’ 정도의 수 이름을 말하고 센다.
		많고 적음을 구별한다.	많고 적음을 인식하고 수량 비교

내용 범주	내용	1 수준	2 수준
수학적 이해			어휘를 말한다. 친숙한 사물이 더해지고 줄어드는 것을 인식한다.
	공간과 도형 인식하기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안다. 자신을 중심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인식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사물의 특성을 모양에 따라 인식한다.	
	비교하기와 순서 인식하기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탐색하고 비교한다. 일상에서 두 물체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하고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크기, 길이, 높이, 시간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일상의 단순한 순서를 인식한다.	
	간단한 규칙성 인식하기	소리, 동작, 단어 등의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한다.	
	구분하기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자료를 구분한다.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짓는다.	
	물체와 물질의 특성 탐색하기	물체와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탐색을 능동적으로 시도한다.	
	주변 생명체의 외적 특성 알기	주변의 애완동물이나 (작은) 곤충 등의 특성을 지각한다.	친숙한 동물의 기본 특성(소리, 생김새, 움직임 등)을 구별한다. 주변 식물의 기본 특성(색깔, 생김새 등)을 인지한다.
	자연현상 인식하기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안다. 주변 사람의 신체적 특징(목소리, 움직임 등)을 구분한다.	
과학적 이해	생활도구와 기계 사용하기	다양한 자연현상(바람, 눈, 비, 낮, 밤 등)과 자연물(흙, 돌)을 인식한다.	간단한 도구와 조립 놀잇감을 사용한다. 주변의 단순한 기계와 설비(TV·녹음기 등의 스위치, 문의 손잡이 등)를 조작한다.

(1) 탐구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호기심 가지기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한다.	

만 2세 영아들의 사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호기심으로 발전한다. 호기심은 어떤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이다. 호기심은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선행 요인으로 학습이나 문제해결의 동기로 작용한다. 호기심은 직접적인 탐

구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직접적인 탐구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호기심을 유발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되면 흥미로 발전한다. 만 2세 이전의 영아들은 주로 여러 가지 사물이나 물리적 자극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하여 현상을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주변세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만 2세 영아는 새롭고 신기한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 하며, 이를 즐기기 시작한다.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기해하거나, “이게 뭐야?”라고 묻는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고 공간을 이동하며 주변을 탐색한다. 감각과 소근육도 보다 발달되어 사물의 생김새와 움직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신체적 이동성과 감각의 발달은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후에 다양한 탐색과 탐구로 연결되게 한다.

교사는 영아가 나타내는 호기심이나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 또는 “이게 뭐야?”라는 질문에 대하여 함께 관심을 가져주도록 한다. 영아의 호기심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격려하거나 영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을 더 제공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반복적인 탐색 즐기기	관심 있는 사물을 주도적으로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만 2세 영아들은 오감각과 대·소근육을 사용하여 사물에 대한 감각적 탐색을 반복하는 데서 발전하여 반복적인 탐색을 즐긴다. 영아들은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 새로운 탐색이나 흥미 있는 활동을 반복하게 된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는 등의 감각적인 탐색을 하던 영아는 재미난 결과인 ‘손가락으로 구멍 내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여 밀가루 반죽으로 놀 때마다 한동안 같은 놀이를 반복하면서 즐겨워한다. 영아가 이렇게 반복적인 탐색을 즐기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탐색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자신이 예상한 바를 재확인하는 데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탐색이 주는 즐거움은 새롭게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것을 분명하게 습득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일단 한 가지 탐색이 끝나면 영아는 연관된 다른 탐색을 시도하게 된다. 교사가 새로 내어준 플라스틱 막대로 한참 동안 밀가루 반죽을 탐색한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구멍 내기와 플라스틱 막대로 자르기를 번갈아 하면서 반복적이지만 창의적인 조합이 첨가된 탐색을 시도하기도 한다.

교사는 반복적인 탐색을 즐기는 영아를 지원하기 위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영아가 시도하는 흥미 있는 탐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일한 재료를 여러 번 제공하여 탐색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정도 지나면 관련된 다른 자료를 제공하여 연계성이 있으면서도 확장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구체적인 조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아의 능동적인 탐색을 돕는다.

내용	1수준	2수준
문제해결을 시도하기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관찰, 분류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만 2세 영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찰하기, 비교하기 등의 기본적 탐구과정을 사용한다. 영아들은 시각적 관찰과 촉각, 미각, 청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관찰을 시도하며 이러한 것을 토대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 탐색을 통해 사물과 사건 또는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를 나름대로 연관 짓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 원인과 결과를 관련짓는 이러한 성향은 만 2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작동시키기 어려운 물건을 작동시키기 위해 성인에게 놀릿감을 돌려주는 행동으로 성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후에는 놀릿감을 작동시키기 위해 손으로 치거나 건드리기, 버튼이나 줄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시도를 한다. 물건을 갖기 위해 우회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손가락이나 컵을 잘 못 잡았을 때 손가락이나 컵의 방향을 바꾸는 등 도구를 다루는 법을 익히면서 문제해결을 하기도 한다. 보관할 공간이 좁을 때 물건을 포갠다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놀릿감을 침대나 소파위로 끌어올리기도 한다. 18개월을 전후하여 기억력이 발달하고 내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면 두 개의 사물이나 사건을 관련지을 수 있게 된다. 영아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거나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행동을 시도하고, 시행착오도 여러 번 반복한다. 영아가 상황을 무심히 지나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향은 사물과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문제해결력의 기반이 된다.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아의 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영아의 문제해결 욕구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기는 자율성이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신체적인 조절력은 아직 미숙하여 놀릿감이나 주변의

사물을 사용할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교사는 이를 잘 관찰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도록 한다. 영아가 놀잇감을 사용할 때 무엇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 교사는 “모양이 조금 달라서 잘 안 들어가는구나. 잘 살펴보자. 어떻게 할까?”라는 말을 해 주어 영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수학적 이해

내용	1수준	2수준
수량 인식하기	‘하나’, ‘둘’ 정도의 수 이름을 말하고 센다.	‘하나’, ‘둘’, ‘셋’ 정도의 수 이름을 말하고 센다.
	많고 적음을 구별한다.	많고 적음을 인식하고 수량 비교 어휘를 말한다.
		친숙한 사물이 더해지고 줄어드는 것을 인식한다.

만 2세 영아들은 친숙한 사물의 수를 재고 양을 알고, 수를 이용하여 많고 적음을 표현하여 수량을 비교하는 것이 그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고 익숙해진다. 만 2세 영아들은 수량관계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 둘, 셋 정도의 수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며, 발달이 빠른 영아들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의 수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영아들은 ‘많다, 더 많다, 크다, 더 크다’ 등의 사물의 개수나 양을 비교하는 어휘를 사용하며 많고 적음을 구별하고, 물체가 더해지고 덜어지는 것이나, 일 대 일 대응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차 수량관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어휘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수학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지기 시작한다.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수 이름을 사용하고 영아들이 놀잇감, 자연물 등을 일 대 일 대응으로 하나, 둘, 셋 세어보는 경험을 자주하도록 격려한다. 일상적 놀이시간이나 간식, 점심을 먹을 때에도 ‘많다’, ‘적다’, ‘누구 것이 더 많니?’ 등의 수량 비교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상적 경험 속에서 수 이름을 자주 말하도록 하여 고유한 수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담아보고 꺼내는 경험을 하게 하여 물체가 더해지고 줄어드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놀잇감이나 음식을 나누어 줄 때에도 교사가 먼저 일대일 대응으로 ‘지연이 한 개’, ‘정호 한 개’ 등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정호가 똑같이 나누어 줄래?’ 등의 제안으로 영아 스스로 나누어 보면서 일대일 대응을 경험하도록 한다. 놀잇감으로는 여러 종류의 블록, 공, 담고 쏟을 수 있는 용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활동으로는 담고 덜어내기, 세어보기, 많고 적음

을 비교해 보기, 한 개씩 차례로 나누어주기 등을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공간과 도형 인식하기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안다.	
	자신을 중심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인식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사물의 특성을 모양에 따라 인식한다.	

만2세 영아들이 공간과 도형을 인식하는 능력은 2세 이전부터 물체를 시각적으로 따라가고 잡고 싶은 물체를 잡게 되면서부터 발달한다. 만 2세 영아들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영아들이 자신의 몸과 사물을 움직여 자신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위치, 방향, 거리 등의 관계를 경험해 보고,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알고 사물의 위치 변화를 인식하며 이들 관계를 설명하는 어휘를 사용해 봄으로써 발달한다. 만 2세 영아들은 물체의 모양에 의존하여 물체의 특성을 시각적 수준에서 탐색하는 경향이 높다. 어린 시절부터 자주 접했던 공과 같은 대상을 통해서 원은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지만 정사각형, 삼각형, 직사각형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 않다. 만 2세 영아의 도형 인식은 생활용품, 놀잇감, 자연물, 책, 종이 등을 접하면서 좀 더 분명해 진다. 영아들은 사물의 모양을 탐색하며 사물의 모양에 적합한 놀이로 확장시켜간다. 편편한 것은 쌓기와 늘어놓기를 하고 구멍이 있는 것은 끼워보면서 모양에 따른 특성을 인식한다. 영아들은 모양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탐색할 뿐 아니라 자신이 찾은 모양을 표현하기를 즐겨한다. 또한 만 2세 영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공간적 관계를 탐색한다.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이쪽으로 와 보자.”, “안으로 들어가자”, “밖으로 나가자”, “내려가자”, “수빈이 뒤에 앉자” 등의 공간관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산책을 하면서도 “벤치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할까?”, “어린이집은 어느 쪽으로 가야할까?”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공간적 활동으로 만 2세 영아들은 블록으로 높이 쌓기, 줄지어 늘어놓기, 폐쇄 공간 만들기, 단순한 구조물 만들기 등을 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가 자주 접하는 사물의 모양에 나타난 지각적 특성을 언어로 표현하며 상호작용 해 준다. 여러 가지 모양의 생활용품이나 놀잇감, 자연물, 종이벽돌 블록, 끼우기 블록, 공, 2~3조각의 그림 맞추기 등을 제공해주고 탐색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한다. 모래놀이 용기, 밀가루 반죽, 점토를 마련해 준다. 막대로 땅에 그림 그리기, 종이에 그리기, 가위로 오리기, 찢기와 붙이기 등의 활동을 하게 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게 한다. 이 시기의 영아가 자신의 보육실 내에서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알고,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 어휘를 사용해 보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비교하기와 순서 인식하기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탐색하고 비교한다.	
	일상에서 두 물체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하고 관련어휘를 사용한다.	
	크기, 길이, 돌이, 시간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일상의 단순한 순서를 인식한다.	

만 2세 영아들은 많은 것에 호기심을 나타낸다. 이런 영아에게 비교하기 및 순서 인식하기와 관련된 적절한 수학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의 속성을 탐색하게 해야 한다. 사물을 탐색하여 사물의 속성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이를 기초로 비교하기와 순서인식하기가 가능해 진다. 만 2세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물의 속성을 탐색하면서 두 물체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하며 ‘더 길다, 더 크다, 더 무겁다.’ 등의 비교 어휘를 사용한다. 일과 속에서는 ‘아까, 지금, 조금 있다’ 등의 시간 비교 용어를 사용하며 일과의 순서를 인식해 나간다.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비교 어휘를 자주 사용하도록 한다. 주기적으로 영아들의 키, 몸무게 등을 재어 기록하며 “키가 많이 컸구나.”, “신발이 작아졌네.” 등의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두 물체를 비교하여 “이것과 이것 중 어느 것이 더 길어?”, “어느 소리가 더 크니?”, “누가 만든 공이 더 크니?” 등의 비교하기를 격려하는 질문을 한다. 하루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운영하며 순서를 인식하도록 한다. “조금 기다리자”, “손 씻고 나서 간식 먹을 거야.”, “아까 간식 먹었지?” 등의 시간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 스스로 영아가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도록 한다. 쌓기 컵,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블록, 가볍고 무거운 블록, 자연물, 크고 작은 인형 등의 놀잇감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활동으로는 돌이 키대보기, 신발 대보기, 손 대보기, 물건 두 개의 크기, 길이, 무게 비교해보기 등을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간단한 규칙성 인식하기	소리, 동작, 단어 등의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한다.	

만 2세 영아들은 일상적으로 실내외 벽지나 바닥재의 색이나 모양의 규칙성을 경험하며 포장지나 그림책 속 그림의 간단한 규칙성도 경험한다. 간단한 리듬이 반복되는 소리 감상이나 간단한 반복 어휘가 들어 있는 동화나 동시 듣기와 말하기를 매우 즐긴다. 간단한 규칙성이 포함되어 있는 노래나 율동도 매우 즐긴다. 만 2세 이전부터 발달 하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으로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규칙성이 있다. 아주 어린 영아들도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노래나 행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영아기에 일상생활의 사물과 경험들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면 다음을 예측하고, 생활 속에서 수학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반복되는 음악을 듣고 동작을 해 보며 즐기는 것은 간단한 규칙성이나 패턴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교사는 영아들이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규칙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보육실의 규칙성이 있는 띠벽지의 무늬 살펴보기, 보도블록 위 걸어보기, 간단한 어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짧은 동화를 들려주기, 친근한 리듬이나 멜로디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되어 있는 음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기, 구슬 꿰기, 색과 모양이 다른 블록으로 간단한 규칙성을 표현해 보도록 한다. 노랫말에 규칙성이 있는 노래와 규칙성 있게 손뼉 치기 등의 동작 활동을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구분하기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자료를 구분한다.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짓는다.	

만 2세 영아들은 관심 있는 놀잇감이나 사물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함께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구분하기는 속성에 따라 사물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영아의 구분하기 능력은 사물을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 나중에 통계개념 이해의 기초가 된다.

2세 영아에게는 사물을 한 가지 속성에 의해 구분하기, 비슷한 것 끼리 모아서 구분하기, 비슷한 것을 단순하게 짝짓기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세 영아는 차이점에 따라 사물을 모을 수 있다. 2세 영아의 경우 사물을 구분하는 속성이나 기준은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영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사물을 구분하고,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지어보는 활동이 영아들의 놀이 속에 나타난다.

2세 영아들은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장난감 등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기 시작한다. 또 ‘내 것’과 ‘남의 것’도 구별하게 된다. 만 2세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료

를 한 가지 속성에 따라 간단한 범주를 정하고 구분할 수 있다. 영아들의 간단한 구분은 분류하기의 기초가 된다.

교사는 영아들이 일상생활에서 구분하기를 할 수 있도록 놀잇감을 구별하여 정리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붙여 놓는다. 같은 종류의 작은 놀잇감을 구별하여 담을 수 있는 통도 준비해 준다. 개인 사물함에 영아의 사진을 붙여두고 자신의 물건을 남의 물건과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한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소리 나는 것과 소리 나지 않는 것, 굴러가는 것과 굴러가지 않는 것, 물에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 같은 것 또는 비슷한 것끼리 짝짓기 등의 활동을 한다.

(3) 과학적 이해

내용	1수준	2수준
물체와 물질의 특성 탐색하기	물체와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탐색을 능동적으로 시도한다.	

만 2세 영아는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사물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물체와 물질을 다양하게 탐색한다. 물체에 대한 탐색은 주로 사물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질에 대한 탐색은 물질을 만지고, 섞는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만 2세 영아들이 할 수 있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탐색으로는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나, 큰 공·작은 공·울퉁불퉁한 공 등 다양한 종류의 공을 굴려보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유모차, 자동차, 자전거와 같은 놀잇감에 밀고, 끌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가하여 사물의 움직임과 자신의 행위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놀이도 움직임에 관한 활동에 속한다. 한편, 물·모래 등의 자연물로 만지기·담기·쏟기·섞기·체에 거르기 같은 시도를 하거나, 비누거품이나 녹말풀에 물감을 섞어서 그리기를 하는 것 등은 물질에 관한 탐색 활동이다. 교사는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탐색을 지원하려면, “끈을 그렇게 천천히 잡아당기니까 끝차가 잘 굴러가네.”와 같이 반응하여 영아가 행한 행위와 그 결과를 관련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 물질에 대한 탐색에 대해서는, “이것 봐. 하얀 풀에 빨간 물감을 섞으니까 색이 점점 바뀐다.”와 같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영아와 상호작용 한다. 이 때, 교사는 영아가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활발함이나 언어적 표현이 없다고 하여 탐색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주변 생명체의 외적 특성 알기	주변의 애완동물이나 (작은) 곤충 등의 특성을 지각한다.	친숙한 동물의 기본 특성(소리, 생김새, 움직임 등)을 구별한다.
		주변 식물의 기본 특성(색깔, 생김새 등)을 인지한다.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안다. 주변 사람의 신체적 특징(목소리, 움직임 등)을 구분한다.	

생명체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관심은 주변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발견하고 주의
를 기울이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생명체의 외적 특성을 아는 정도로 발전한다. 즉 이
시기의 영아는 주변의 애완동물이나 작은 곤충의 특성을 지각하고 나아가 친숙한
동물들의 소리나, 생김새,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는 새는 날지만, 붕
어는 헤엄치고, 개미는 기어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코끼리와 토끼는 움직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며, 개의 소리와 오리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또 식물
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어, 꽃과 나무를 구분할 줄 알고, 꽃의 색깔과 나무의 열
매를 오래 들여다보거나 주워서 손에 쥐고 다니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교
사는 동물과 곤충에 관한 책 읽어주기, 동식물 키우기, 동물의 움직임과 소리 흉내
내기, 동물을 위한 집짓기, 동식물 관찰하기, 나뭇잎과 열매 줍기와 같은 활동을 통
해서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생명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편, 생명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이해는 자신과 주변 사람의 신체 각
부분의 생김새나 움직임의 특성을 아는 정도이다. 거울을 보면서 신체 각 부분 움직
이기, 어른과 마주 앉아서 신체 부분의 이름을 대고 짚기, 물감으로 손발 찍기 등의
활동은 사람의 신체가 갖는 외적 특징을 변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이다.
또 자신의 신체 상태를 ‘아파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등의 단어로 적절히 표현하
는 것도 생명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므로 교사는 영아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도
록 격려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연현상 인식하기	다양한 자연현상(바람, 눈, 비, 낮, 밤 등)과 자연물(흙, 돌)을 인식한다.	

영아는 자연이 주는 시각적·촉각적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날씨와 계절
에 관련된 자연현상과 자연물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만 2세가 지나면서 언어발달에
힘입어 영아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명명하면서 인식할 수 있다. 또 자연현상과 사람

의 생활을 단편적으로나마 연결 지을 수도 있게 되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땅이 젖어서 장화를 신는다는 것과, 밤은 매일 오고 그 때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것, 바람이 불면 시원하거나 춥고 머리카락이 휘날린다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점차 자연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규칙적인 자연현상에 맞춰 생활습관을 조절하며, 나아가 이례적이거나 불규칙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들이 ‘바람’, ‘눈’ 등으로 자연현상에 관하여 명명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그래, 바람이 솔솔 분다. 시원하지?”, “나무에 눈이 쌓였지? 나뭇가지를 흔들어보자. 와! 다시 눈이 오는 것 같다!”, “비가 왔었는데 해가 나니 땅이 다 말랐네?”, “산에서 주운 돌과 강가에서 주운 돌이 다르게 생겼네?”, “봄에 탄 잎과 가을에 탄 잎들이 서로 다르네!” 등으로 자연현상과 자연물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또 영아가 다양한 자연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깥놀이 활동과 산책을 계획·실시하고, 일상의 경험에서도 바람, 눈, 비, 어둠, 밝음 등과 관련된 우리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연현상에 대한 영아의 인식이 증진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생활도구와 기계 사용하기	간단한 도구와 조립 놀잇감을 사용한다.	
	주변의 단순한 기계와 설비(TV·녹음기 등의 스위치, 문의 손잡이 등)을 조작한다.	

만 2세 영아의 호기심과 대·소근육의 발달로 인해서 영아는 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도구, 기계, 시설, 놀잇감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영아는 쌓고, 넣고, 끼우기를 하면서 노는 조작 놀잇감과 구성 놀잇감에 집중하여 놀이를 하고, TV·녹음기·전등의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서랍을 여닫거나,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는 등 생활에 관련된 도구와 기계 다루기에 흥미를 보인다. 때로는 이러한 관심이 걸음마기의 고집스러움과 겹쳐져서, 어려운 만들거나 조작도 꼭 자신이 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기조작을 다른 사람이 하면 분노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만 2세 영아의 이러한 표현은 앞서 기술된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조립할 수 있는 다양한 조작 놀잇감과 구성 놀잇감을 제공해 주고, 영아가 놀잇감들을 가지고 집중하여 놀 수 있도록 소음이나 다른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놀잇감은 조각이 너무 많거나 크기가 작으면 영아에게 난이도가 높고, 삼키거나 밟는 등의 안전문제도 있으므로, 크기가 적당히 크고 조각도 많지

않은 것을 제공한다. 생활도구와 기계에 대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용품들의 조작방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가능한 한 많은 조작 기회를 부여하여 영아가 기계와 도구 조작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려는 영아가 스스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숙달감을 성취하는데도 효과적이다.

3) 만3~5세

가) 목표

사물과 자연 환경에 대한 탐구 과정을 즐기며 기초적인 탐구 기술과 수학적·과학적 이해를 구성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탐구 과정 및 사고 기술을 사용한다.
- (2) 일상생활 속의 수학적 경험을 수학적 사고 과정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 수학적 지식을 구성한다.
- (3) 탐구를 통하여 주변의 사물, 생명체, 자연 현상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구성한다.

나) 수준별 내용

내용 범주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탐구하기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관심 있는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궁금해 한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알고자 한다.	
	탐구 즐기기	궁금한 점을 알아내는 것에 흥미를 가진다.	궁금한 점을 알아내는 것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기술 및 사고 기술 활용하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시도한다.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탐구결과에 기초하여 추론하고, 결과를 문제해결에 적용한다.
수학적 이해	수의 기초 개념 알기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다섯 개 가량의	열 개 가량의	스무 개 가량의

내용 범주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수학적 이해	수의 기초 개념 알기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에서 부분과 전체를 안다	열 개 정도의 구체물에서 부분과 전체를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도합 다섯까지 더하기를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도합 열까지 더하기를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다섯 개에서 빼기를 한다.	
		처음과 끝을 안다.	다섯 번째까지 서수를 안다.	
			열 가량의 숫자 읽기와 쓰기를 한다.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기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안다.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공간적 어휘로 표현한다.		
			친숙한 장소에 대해 단순한 지도를 만들고 사용한다.	
		물체의 모양에 따른 특성을 인식한다.	크기와 방향이 다양한 도형(입체, 평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도형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칠교놀이, 조각그림, 맞추기 등)를 한다.
			대칭을 지각한다.	대칭을 찾는다.
			도형을 보거나 기억하여 그린다.	
			평면과 입체도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구성한다.	
	측정하기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인식하고 설명한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무게, 높이, 크기, 시간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두 물체의 크기, 길이, 비교를 한다.	크기, 길이, 무게, 높이, 면적, 시간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매긴다.	
		반복적인 일과의 간단한 순서를 인식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를 안다.	
			길이, 용량, 시간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길이, 높이, 시간, 무게, 면적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규칙성 이해하기		어림하여 측정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소리, 색, 모양 등)을 알고 모방 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한다.	반복 확장되는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한다.
		소리, 동작, 단어, 문장 등의 간단한 규칙성을 인식한다.		한 가지 유형의 규칙성을 다른 유형으로 바꾼다.

내용 범주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수학적 이해				스스로 규칙성을 만든다.
	자료 수집과 나타내기	관계있는 것끼리 짝을 짓는다.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다.	다른 속성에 따라 자료를 다시 분류한다.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한다.
			구체물이나 그림, 사진을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한다.	수집된 자료를 조직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한다.
과학적 이해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특성을 인식한다.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자신의 행위와 물체의 움직임과의 관계를 안다.
		물질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한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자신의 행위와 물질의 변화와의 관계를 안다.
	생명체와 생태 환경알기	관심 있는 동·식물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인식한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탄생, 성장, 죽음에 대하여 인식한다.	
		다양한 동·식물의 기본 특성(소리, 움직임, 색(깔), 생김새 등)을 인지한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 (영양, 호흡, 배설 등)을 안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인식한다.	주변 사람의 출생과 성장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해 인식한다.	우리와 생태 환경과의 상호 관계와 자연보호 방법을 안다.	
	자연현상 이해하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을 인지한다.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인식한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안다.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음을 안다.	낮과 밤의 변화와 규칙성을 안다.	
	일상생활 속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활용하기	주변의 간단한 도구와 자료를 사용한다.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와 자료를 사용한다.
		주변 물건(블록, 상자 등)으로 구성체를 만든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로 새롭게 조립해본다.

내용 범주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과학적 이해	일상생활 속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활용하기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CD 플레이어, 녹음기 등)를 사용한다.		
		테크놀로지의 편리성을 인지한다.		테크놀로지의 편리성이 자연과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 탐구하기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관심 있는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궁금해 한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알고자 한다.	

유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유아들이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유아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이것은 뭐예요?”와 같은 질문은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조금 더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한 가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해가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바깥 놀이를 하거나, 보육시설을 오고 가면서 보게 되는 꽃이나 나무 등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꽃과 나무가 있는지, 자신이 본 꽃이나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이 활동의 시작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신이 알고 싶고 궁금한 꽃이나 나무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유아들의 호기심을 계속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보이는 잠깐의 호기심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아들은 때로 별 생각 없이 “왜 그래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호기심을 지속시켜 가기가 어려우므로, 유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탐구 즐기기	궁금한 점을 알아내는 것에 흥미를 가진다.	궁금한 점을 알아내는 것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유아들이 탐구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궁금한 점을 알아내는데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인 태도로 관찰이나 반복 실험 등과 같은 탐구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고 이를 적용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탐구심을 갖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풍부한 자료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유아들에게 자유롭게 자료와 도구를 사용할 기회와 스스로 조사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때 교사는 유아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상황을 제시하고,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유아들에게 인지적 갈등, 모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자신이 예측한 것과 결과가 다른 것을 비교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뜨고 가라앉는 활동에서 ‘어떤 것이 뜨고 어떤 것이 가라앉는지’에 의문을 지닌 유아가 ‘큰 것은 가라앉고 작은 것은 뜬다.’라는 이론을 세운 후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유아는 교사가 제시한 자료 중 ‘크기는 크지만 뜨는 물체’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이론과 나타난 반응이 다른 것을 인식하고 여러 번 실험을 하여 자신의 이론을 수정해 나간다. 이처럼 유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탐구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기술 및 사고 기술 활용하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시도한다.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탐구결과에 기초하여 추론하고, 결과를 문제해결에 적용한다.

유아들이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관찰, 비교, 분류, 측정, 예견 및 추론,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토론 등의 과정 기술과 사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수학, 과학 활동을 계획할 때 유아들에게 다양한 과정기술과 사고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린 유아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정도

의 과정 기술 및 사고 기술을 사용하게끔 하고, 이 후 점차 수준을 높여서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수준, 탐구 결과에 기초한 추론과 적용을 유도하는 수준으로 난이도에 변화를 주어 각기 필요한 과정 기술과 사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학적 이해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수의 기초 개념 알기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에서 부분과 전체를 안다.	열 개 정도 구체물에서 부분과 전체를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도합 다섯까지 더하기를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도합 열까지 더하기를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다섯 개에서 빼기를 한다.	
	처음과 끝을 안다.	다섯 번째까지 서수를 안다.	열 가량의 숫자 읽기와 쓰기를 한다.

만 3~5세 유아의 수학적 이해에서는 기초적인 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유아가 물체를 헤아리고 수량을 알기 위해서 기수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를 일상생활 속에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아는 수세기를 해봄으로써 수의 수량적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처음에는 기계적 수세기를 하는데 기억에 의해 숫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암송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적 수세기를 하는 유아들은 흔히 물체를 건너뛰고 세거나 동일한 물체를 두 번 세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물체를 반드시 한번 씩 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기계적 수세기의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합리적 수세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 수세기를 위한 원리를 안 다음에 합리적 수세기를 할 수 있다.

유아는 수를 셀 때 항상 동일한 순서로 일관성 있게 세어야 하는 안정성의 원리, 헤아려지는 물체 한 개에 수 단어가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하는 일대일 대응의 원리를 이해하고, 모든 집단의 물체는 셀 수 있으며 셀 수 있는 대상은 구체물뿐 아니라 경험, 사건, 느낌 등이 될 수도 있다는 추상화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체로 구성된 집합에도 수세기 과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수의 수량적 의미인 물체의 수를 셀 때 마지막에 센 수가 물체의 전체 수량을 나타낸다는 기

수의 원리를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물체 세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의 어떤 방향으로 헤아려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순서무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가 물체를 셀 때 한 개씩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세거나, 센 물체를 한 쪽으로 놓아서 아직 세지 않은 물체와 분리하게 한다. 그림의 물체를 셀 때는 이미 센 그림은 ○표를 하거나 ×표를 해서 지워 나가게 한다. 기수 개념 및 계속 세기를 위해 특정 수 다음에 이어서 수세기를 하게 한다.

수의 수량적 의미에 기초하여 유아가 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물체들의 집합 크기를 비교하여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탐색하게 한다. 집합의 크기 비교는 두 집합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커서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두 집합 간의 차이가 적은 집합들의 크기를 비교하게 한다.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 1:1 대응뿐만 아니라 수세기를 하도록 하고, 유아에게 주어진 물체의 수와 같은 수의 집합을 만들어 보게 격려한다.

유아의 수 개념 발달에서 부분과 전체의 개념은 전체가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도 있고, 부분과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특정한 수를 일정한 하위 수들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유아의 수 개념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아들은 도합 10까지의 작은 수들을 다양한 구체물을 사용해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의 연산은 두 개 이상의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다. 아주 어린 영아들조차 적은 수량의 더하기와 빼기를 이해할 수 있다. 만 3세 유아들은 들어내면 수가 적어지고 더하면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아는 일상생활이나 놀이에서 더하거나 빼기를 해야 하는 경우 물체의 수량을 더하거나 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간식이나 놀잇감 나누기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양을 나누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 놀이나 활동을 속에서 주어진 물체를 사람 수에 따라 동일한 수량으로 나누는 경험을 하게 한다. 유아가 자신의 문제해결 전략을 말하도록 하면, 유아의 문제해결 전략을 알 수 있다.

순서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의 이름은 물체를 헤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 어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수는 순서적으로 배열된 집합 안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수이다. 따라서 서수 개념의 핵심은 기준에 따라 위치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유아가 한 줄로 서 있을 때 앞에서부터 세면 다섯 번째이지만 뒤에서부터 세면 두 번째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유아

들이 일상생활 속의 놀이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수를 경험하게 한다.

숫자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유아가 숫자의 모양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를 가져야 하며, 수량과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해야 한다. 숫자의 모양과 이름을 인식하고 수량을 세어보고 수 어휘와 숫자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교사는 유아의 수의 기초개념 발달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몇 개가 있는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숫자 7만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이 숫자 다음에는 어떤 숫자가 올까?”, “A는 B보다 몇 개가 더 많을까?”, “여기에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될까?”, “숫자를 뒤로 세어볼까?”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안다.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공간적 어휘로 표현한다.		
		친숙한 장소에 대해 단순한 지도를 만들고 사용한다.	
	물체의 모양에 따른 특성을 인식한다.	크기와 방향이 다양한 도형(입체, 평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도형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칠교놀이, 조각그림, 맞추기 등)를 한다.
		대칭을 지각한다.	대칭을 찾는다.
		도형을 보거나 기억하여 그린다.	
		평면과 입체도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구성한다.	

만 3~5세 유아는 자신에게 익숙한 위치와 장소에서 보고, 만지고 움직여 보면서 공간과 도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공간이란 위치, 방향, 장소,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과 밖, 열림과 닫힘, 근접과 분리와 같은 개념을 말한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데 유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방향과 위치, 거리에 대해 지각하고 탐색하면서 점차 공간 내에서의 물체의 위치, 방향, 거리를 인식하고 설명하게 된다. 공간 내의 물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유아는 ‘피아노 옆’, ‘교구장 뒤’와 같이 피아노, 교구장과 같은 특정 물체를 표지물로 사용하여 단순하게 위치를 설명하다가 지도 같은 것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설명하게 된다. 나아가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의 경로를 인식하여 심적 지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5세 유아들은 교실이나 놀이터 같이 친숙한 장소의 지도를 블록과 같은 입체물을 사

용하여 나타내 보거나 그려볼 수 있다. 지도를 만들면서 유아는 멀리, 가까이, 옆, 앞, 뒤, 같은 방향에 있는 것 등과 같은 공간관계를 알게 된다.

유아의 물체의 형태에 대한 개념은 영아기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삼차원 공간 속에서 살면서 유아가 접하는 물체들이 기본적으로 입체 형태이므로 원기둥, 직육면체, 구와 같은 기본 입체도형의 모양을 구별하고, 둥글고 굴러가는 것 또는 납작한 상자모양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것 등과 같은 입체 도형의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

유아는 입체도형뿐만 아니라 평면도형에 익숙한데 물체의 형태 중에서 보이는 한 면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체도형의 보이는 한 면에서 평면도형을 찾아보게 하여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을 연결할 수 있는 자연스런 경험을 하게 한다. 유아는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기본 도형을 시각적 수준에서 속하므로 ‘상자같이 생겼으니까 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공간개념 발달을 위해서 유아 자신을 중심으로 가깝고 먼 것을 인식하기, 상대방의 관점에서 거리 인식하고 비교하기(근접), 한 물체에 다른 물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기(분리), 열림과 닫힘, 사물의 앞과 뒤, 옆, 다음에, 좌, 우, 위, 아래 등을 이해하기의 개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유아의 도형 개념 발달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유아가 생활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입체, 평면도형, 도형이 다른 도형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동과 대칭, 즉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 등의 개념을 이해하게 해 준다. 교사는 도형들의 크기, 방향, 모양이 다양한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하여 유아가 각 도형마다 이름을 알 필요는 없으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의 공간과 도형개념발달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이 모양은 이것과 어떤 점에서 같을까?”, “왜 이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닐까? 왜 세모가 아닐까?”, “이 모양을 이렇게 돌리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이것과 같은 모양을 본적 있니?”, “이것과 같은 것을 집에서도 볼 수 있니?”, “친구에게 블록으로 이것과 같은 모양을 만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니?”, “이런 모양의 물건이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어디를 자르면 될까?”, “원통, 직육면체, 세모뿔 등의 모양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우리가 만약 이 모양의 이름을 다르게 짓는다면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내가 만약에 이 원통을 떨어뜨려서 반으로 잘라진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 끈으로 네모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측정하기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인식하고 설명한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무게, 높이, 크기, 시간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두 물체의 크기, 길이, 비교를 한다.	크기, 길이, 무게, 높이, 면적, 시간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매긴다.	
	일상의 간단한 순서를 인식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를 안다.	
		길이, 높이, 시간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길이, 높이, 시간, 무게, 면적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어림하여 측정한다.		

만 3~5세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측정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측정은 한 집단 혹은 물체의 연속적 양에 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길이, 무게, 부피 등 연속적인 물체의 양을 다루어 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주 어린 영아도 임의의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기에는 주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 대어보거나 알아보는 것 중심으로 측정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블록, 휴지속대, 끈 등의 임의의 단위를 가지고 측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임의 단위를 가지고 재어보는 경험을 충분히 한 후에는 측정의 결과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뭔가를 잴 때에 표준화된 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측정은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측정은 길이, 무게, 면적, 시간 등과 같은 연속량의 크기를 기준량(단위)을 정하여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아는 측정을 하면서 연속량을 다루는 경험을 한다.

유아의 측정 경험은 물체의 여러 속성 중에서 길이, 무게, 높이, 면적, 시간과 같이 측정 가능한 속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유아가 물체의 측정 가능한 속성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길이나 무게와 같이 측정 가능한 물체의 속성을 인식하고 이들 속성에 따라 물체를 비교하고 순서 정하기를 하는 것은 단위를 사용하여 물체의 양을 정하는 측정개념 발달의 토대가 된다.

유아는 비교하기를 통해 ‘~보다 길다·짧다, 더 크다·더 작다, 더 무겁다·더 가볍다’ 등과 같은 비교 어휘를 사용한다. 물체 간의 비교에서 비교한 차이까지 알고자 할 때는 단위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측정을 한다. 유아의 측정 활동은 자신들의 신체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신체단위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숙한 물체와 같은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도록 지도한다. 실제 측정

이전에 어렵하기를 해 보게 하고 실제 측정 결과와 비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아는 더욱 합리적으로 어렵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가 단위를 사용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측정할 속성에 준하여 적합한 단위를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책상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손 뺨이나 연필을 단위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젤 판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이나 색종이가 적절한 단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적합한 단위가 선정되면 측정할 물체에 단위를 비교하여 단위의 수를 결정하고, 동일한 크기의 단위를 반복사용하고, 단위가 반복될 때 앞에 놓였던 부분과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연결하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유아의 측정개념 발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길까”, “이것보다 짧은 것을 찾아보자”, “ 여기부터 저기까지 리본을 붙인다면 얼마나 필요할까?”, “ 이 빨대를 이용해서 가장 길게 놓는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 크레용은 이 연필보다 작는데 만약 이 크레용으로 길이를 잴다면 연필보다 더 빨리 잴 수 있을까? 크레용은 몇 개가 필요할까? 연필은 몇 개가 필요할까?”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규칙성 이해하기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소리, 색, 모양 등)을 알고 모방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한다.	반복 확장되는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한다.
	소리, 동작, 단어, 문장 등의 간단한 규칙성을 인식한다.		한 가지 유형의 규칙성을 다른 유형으로 바꾼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든다.

만 3~5세 유아는 생활 속에서 규칙성을 자주 경험한다. 규칙성은 사물의 모양이나 양상이 일정한 규칙을 나타내면서 반복되는 형태로 유아의 사물들 의 관계에 대한 예측과 통찰능력 발달을 돕는다. 유아에게 규칙성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수학적인 논리적 추상적 추리 능력의 발달을 나타낸다. 규칙성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림, 색, 소리, 위치, 수량, 동작 등에서 나타나는 규칙성과 반복성을 관찰하면서 패턴을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학습될 수 있다. 유아를 위한 규칙성으로 시각적 패턴, 청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이 있다.

사물이나 사건의 양상에서 구별되는 요소가 반복되는 규칙성 또는 확장되는 규칙성이 있을 수 있다. ‘세모-네모-세모-네모-세모-네모’와 같이 구별되는 요소가 계속해

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고 ‘1, 2, 3, 4, 5……’와 같이 일정한 양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칙성과 반대로 감소하는 규칙성도 있다.

유아는 가장 단순한 AB 반복 유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점차 어떤 수에 1을 더하면 항상 그 다음 수가 되는 성장 유형까지 다양한 유형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주어진 유형을 보고 순서대로 계속해서 유형을 이어가기도 하고 제시된 유형의 중간 일부분이 비어있을 때 추론하여 알맞게 끼워 넣기, 한 가지 유형으로 표시된 것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유형 전이하기(예: 쿵- 짹-쿵- 짹을 ☆○☆○으로 나타내기), 스스로 유형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규칙성을 찾고 만드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노랑-파랑-노랑-파랑……’과 ‘1-2-1-2-1-2……’와 같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규칙성이라도 AB 유형의 동일한 수학적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의 구별되는 요소가 반복되는 규칙성을 파악하여 두 사건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아의 규칙성 개념발달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똑 같은 것들을 찾아보자”, “다음엔 어떤 것이 와야 할까?”, “다른 물건으로 이것과 똑같은 순서대로 물건을 놓는다면 어떻게 놓을까?”, “이 블록이 놓인 순서대로 우리 몸으로 표현해 보자”, “만약 여기서 이것을 빼다면 어떻게 될까?”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료 수집과 나타내기	관계있는 것끼리 짝을 짓는다.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다.	다른 속성에 따라 자료를 다시 분류한다.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료를 분류한다.
		구체물이나 그림, 사진을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한다.	수집된 자료를 조직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한다.

만 3~5세 유아는 생활 속에서 관계있는 것 끼리 짝을 짓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료수집하기와 나타내기의 내용은 자료수집, 자료 분류, 자료 조직과 결과 나타내기, 자료 비교하기, 확률적 사고와 표현이다. 자료 수집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며, 자료의 분류는 자료를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따

라 구분하는 것으로 어떤 기준이나 속성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유아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려면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분류 능력은 색깔, 크기, 형태, 기능 등의 물체의 여러 속성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체의 속성에 따라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는 비슷한 것, 같은 색, 같은 모양끼리 모아보기를 하면서 한 가지 기준에 맞춰 분류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분류 능력의 발달을 돕기 위해 초기에는 성인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유아가 분류하도록 하고, 점차 유아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분류하게 한다. 한 가지 속성이나 기준에 따른 분류에 익숙해진 후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류를 하도록 한다.

유아들이 수집하여 분류한 자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물, 그림, 사진으로 그리거나 붙이기, 기호나 숫자를 이용하여 표 만들기, 그래프 만들기 등을 한다. 유아가 처음 그래프를 만들 때는 구체물을 사용하는 그래프에서 시작한 후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한 그래프로 바꾸고, 다음으로 기호나 숫자를 사용한 그래프로 연결함으로써 점차 추상적인 형태로 진전하도록 지도한다. 그림, 표 또는 그래프 등으로 제시된 자료들은 유아가 이를 읽고 자료가 나타내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다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게 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적절하게 분류하고 조직해서 궁금했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분류할 때 유아의 원래 의문이 무엇이었던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한다.

교사는 유아의 자료 수집하기와 나타내기 발달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상호 작용 해 줄 수 있다. “이것들의 다른 점을 찾아보자.”, “왜 이것이 이 묶음에 있을까?”, “왜 이것은 이 묶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묶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찾아보자.”, “이 묶음에 이름을 붙여주면 무엇이라고 할까?”, “이 묶음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어 보자.”, “어떤 묶음이 가장 많니(적니)?”, “이 그래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3) 과학적 이해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특성을 인식한다.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자신의 행위와 물체의 움직임과의 관계를 안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한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	자신의 행위와 물질의 변화와의 관계를 안다.

유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은 색, 크기, 모양, 무게, 질감, 점성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유아들은 어떤 물체와 물질을 접했을 때 직관적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두드러진 특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동그랗고 커다란 공’을 보여주면 유아들은 대체로 ‘빨간 공’, ‘동그란 공’, ‘커다란 공’과 같이 자신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한 가지 특성에 초점을 두어 물체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유아들로 하여금 물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탐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빨간색의 동그랗고, 폭신폭신했으며, 커다란 공’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인지?’, ‘무슨 모양인지?’, ‘크기는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탐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들이 한 가지 물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탐색한 다음에는 물체의 특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게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물체는 움직임에 따라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공은 밀면 굴러 가고, 튀기면 튀는 특성이 있다. 물체의 또 다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에 어떤 행위를 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가한 힘의 작용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더 큰 흥미를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따라서 자유 선택 활동 영역에서 여러 가지 교구를 가지고 놀 때나 교사와 상호 작용을 할 때 유아들이 직접 여러 가지 움직임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들은 공·육면체·바퀴·구슬·물감·물 등을 밀고, 미끄러뜨리고, 굴리고, 기울이고, 던지면서 사용해 보거나, 물이나 비탈진 곳에서 물건들을 움직여 볼 수 있다. 한편, 교사는 일단 유아들이 자신이 행위를 가해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후에는,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가지고 노는 공이나 구슬 등 여러 가지 물체를 움직이게 한 후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고, 다음 수준에서는 공이나 구슬

등 한 가지 물체를 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굴러 본 후 움직임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아가 직접 물체를 움직이게 한 후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와 물체의 움직임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밖에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언다든가 물이 모래와 섞이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며 물질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또 유아들은 물질의 변화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스스로 변화를 만들며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흥미 있어 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질의 변화 과정이나 물, 모래 놀이, 요리 활동 활동을 통해 물질의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관찰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행위와 변화와의 관계를 알도록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활동을 일회적으로 하기 보다는, 한 가지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가며 여러 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요리활동을 할 때 오늘은 계란 삶기, 내일은 샐러드 만들기, 그 다음날은 팝콘 만들기 등으로 매번 다른 활동을 하게 하면 변화과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기가 어렵다. 이보다는 계란을 이용한 요리 활동으로 계란을 깨트려서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본다든지, 계란 프라이, 계란 찌기, 계란 입혀서 전 불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란을 요리하고 각각의 상태에 대하여 탐색하고 비교해 보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물을 얼려보았다면 그 얼음을 다시 물이 될 수 있도록 햇빛에 놓아보거나 끓여보는 등의 활동을 하여 같은 물질의 여러 가지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생명체와 생태 환경 알기	관심 있는 동·식물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인식한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탄생, 성장, 죽음에 대하여 인식한다.	
	다양한 동·식물의 기본 특성(소리, 움직임, 색(깔), 생김새 등)을 인지한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영양, 호흡, 배설 등)을 안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인식한다.	주변 사람의 출생과 성장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해 인식한다.	우리와 생태 환경과의 상호 관계와 자연보호 방법을 안다.	

유아들은 주변에서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원하는 그렇지 않은 이 생명체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유아들은 움직이는 동물에 더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는 면이 있지만 나무와 꽃, 풀 등의 식물에도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 이와 같은 관심을 토대로 동물이나 식물의 색이나 생김새 또는 탄생과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유아들이 직접 기르거나 키우는 동식물일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에서 상황에 따라 유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동식물을 직접 길러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유아들이 작은 씨앗을 심은 후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직접 관찰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게 되고, 잘 보살펴 주려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 또 씨앗을 받아 두었다가 다시 심어보는 경험을 하면서 식물의 성장주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만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변화가 크고 빠르게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성장주기가 너무 긴 식물보다는 콩이나 무순, 양파 등과 같이 빠르게 성장과정을 볼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유아들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다. 우리의 몸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아기였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현재의 자신과 비교해 보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시켜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생명체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식물과 동물,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길러보는 차원을 넘어서, 유아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관찰해 보도록 격려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을 기를 때는 잘 기를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유아들과 함께 기르고자 하는 동식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교사가 모든 지식을 다 알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화원이나 동물병원 또는 부모 인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유아들과 함께 정보 책자나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

또한, 유아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의 방법, 자원의 재활용 방법 등을 알아보며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자연현상 이해하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을 인지한다.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인식한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안다.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음을 안다.	낮과 밤의 변화와 규칙성을 안다.	

유아들은 돌, 물, 흙 등과 같은 자연물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연물을 가지고 놀기를 즐겨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로 하여금 자연 속에서 돌, 물, 흙과 같은 자연물을 자주 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탐색하고 이를 즐기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아들이 살아가는 지구에는 수많은 돌, 물, 흙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자연 현상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 변화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가을과 겨울이 이어진다. 또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뜬다.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은 유아들이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유아들의 생활에서 자연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 날씨나 생활 또는 주변 모습이 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교사는 유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침에 보육시설에 오면서 본 나무의 색깔은 어떤지와 같이 유아들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로써 유아들은 자연 현상의 변화와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또 낮과 밤에 대해서도 유아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단순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때 유아들에게 낮과 밤이 변하는 원인이나 지구와 해, 달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 과학적 지식이 많은 일부 유아들은 천체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아들이 있을 경우 교사가 개별적으로 정보책자나 인터넷으로 함께 알아봄

으로써, 과학적 지식 뿐 아니라 탐구하는 태도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자연현상에 대한 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의 흥미와 관심 정도에 있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보만을 전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아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그리고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의 방법,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의 재활용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며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일상생활 속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활용하기	주변의 간단한 도구와 자료를 사용한다.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도구와 자료를 사용한다.	
	주변 물건(블록, 상자 등)으로 구성체를 만든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로 새롭게 조립해본다.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CD 플레이어, 녹음기 등)를 사용한다.		
	테크놀로지의 편리성을 인지한다.	테크놀로지의 편리성이 자연과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유아들은 주변에서 도구와 기계로부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접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첨단화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은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들이 주변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뿐 아니라 용도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보고, 특정한 용도를 위해 새로운 구성체를 조립해 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카메라, 녹음기, CD 플레이어, OHP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유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빛과 그림자 활동을 하면서 OHP 기기를 조작해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동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를 조작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즉석카메라 등)를 사용하여 직접 사진을 찍어 보면서 필요에 따라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지를 선택해 보게 할 수 있다.

유아들이 테크놀로지의 편리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들이 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편리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차가 없었다면 어린이

집에 어떻게 올까?”, “만약 가위가 없다면 어떻게 종이를 자를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유아들이 자동차나 가위를 이용할 때의 편리한 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나 가위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6. 예술경험

가. 목표

□ 주변의 친근한 환경과 일상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예술적 요소를 직접 경험하고 즐기으로써 창의성과 감성을 기른다.

- 주변 생활에서 발견한 예술적 요소와 아름다움에 관심을 보이고 탐색한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자연물과 사물, 자신 및 또래의 작품,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고 즐긴다.

○ 주변 생활에서 발견한 예술적 요소와 아름다움에 관심을 보이고 탐색한다.

영유아는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 성장한다. 영아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며 탐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는 태어나자마자 주변에서 나는 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손을 뻗으며, 점차 목소리로 소리를 만들어 내다가 다른 사물이나 리듬악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만들 수 있다. 영아들이 만드는 소리도 처음에는 산발적이거나 점차 리듬 있고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며, 주위에서 들리는 음악에 맞추어서 리듬을 탐색하기도 한다. 영유아는 몸 움직임이나 미술, 극놀이를 통해서도 단순한 심미적 요소에서부터 점차 복합적인 심미적 요소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게 되며 이러한 탐색활동은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각능력을 발달하게 하고 다시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심미적 태도를 증진시킨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영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예술적 표현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내려온 대표적인 표현방식이며 음악이나 춤, 미술은 언어 이전부터 있어 왔던 표현양식이다. 영유아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리듬이나 노래, 악기, 몸 움직이기, 춤, 극놀이, 그리기와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자유롭게 나타내보고, 자기 나름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창의적 표현력 향상과 심미감 증진에 중요하다.

○ 자연물과 사물, 자신 및 또래의 작품,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고 즐긴다.

영유아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듯 예술감상은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배우기보다 영유아가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할 줄 아는 지각, 인식 및 심미감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악, 움직임, 극놀이, 미술을 통한 자신이나 또래의 작품 및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고 듣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게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

나. 연령별 목표와 내용

1) 만 2세 미만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목표		자신의 신체와 감각자극에 호기심을 보이고, 소리나 간단한 노래를 즐겨 듣고 점차 소리나 몸 움직임, 끼적이기 등의 복잡한 반응을 즐기며, 주변 사물이나 자연물에 관심을 보인다. 1) 자신의 신체와 주변의 감각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한다. 2) 모방행동을 즐기며 소리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미술경험을 시도한다. 3) 친근한 소리나 노래를 즐겨 듣고, 자연물, 사물, 주변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본다.	주변 생활과 다양한 표현물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며,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발달의 기초를 마련한다. 1) 주변 생활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견하고 흥미롭게 탐색하고 즐긴다. 2) 모방이나 단순한 상상놀이를 즐기고 간단한 리듬이나 노래, 몸 움직임, 단순한 미술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즐긴다. 3) 주변의 환경과 자연 및 다양한 표현에서 예술적 요소를 관심 있게 보고 즐긴다.	자연이나 생활생활,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물에 대한 느낌과 이해를 음악, 춤, 미술, 극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창의적 역량을 발휘한다. 1) 음악, 춤과 움직임, 극놀이, 미술의 다양한 예술적 요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2) 음악, 춤과 움직임, 극놀이,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3) 음악, 춤과 움직임, 극놀이, 미술작품, 그리고 자연물 등을 듣고, 보는 것을 즐기며 풍부한 감성을 가진다.
내용범주	심미적 탐색	· 소리, 움직임, 시각적 자료에 호기심 가지기	· 주변 환경의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 가작화 요소 탐색하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	· 리듬 있는 소리로 반응하기 ·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 모방행동 즐기기 · 단순한 미술 경험 시도하기	· 리듬 있는 소리, 노래, 춤으로 표현하기 · 모방과 단순한 상상놀이하기 · 단순한 미술활동 즐기기	· 리듬 만들기 · 노래로 표현하기 · 춤으로 표현하기 · 극놀이를 표현하기 · 미술활동 즐기기 · 여러가지 미술재료사용하기 ·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	· 소리나 노래 즐겨듣기 · 주변의 아름다움 경험하기	· 주변 환경의 예술적 요소에 관심 갖고 즐기기	· 음악 감상하기 · 춤 감상하기 · 극놀이 감상하기 · 미술작품 감상하기

가) 심미적 탐색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소리, 움직임, 시각적 자료에 호기심 갖기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			
	시각적 자료에 호기심을 가진다.		친근한 사물의 색, 질감, 모양 등에 호기심을 가진다.	

영아는 출생 시 부터 대부분의 감각 기능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감각을 통해 소리, 움직임 호기심, 시각적 자료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이에 관심을 갖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세 미만의 심미적 탐색이란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에서 미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으로써 이를 즐겨하여 점차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적 표현도 감상 영역과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영아의 정서함양과 심미적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만 2세 미만 영아가 처음 접하는 환경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친숙한 양육자의 목소리 또는 움직임 등이다. 이후 영아가 앉고 기는 시기가 되면 바닥에 놓여 있는 놀잇감이나 사물들,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영아가 주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 된다. 걷기가 가능해질 때는 영아의 행동반경 내에 있는 모든 실내외의 주변 환경들까지 관심이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나 움직임, 사물의 미술적 요소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영아가 주로 누워 있거나 조금씩 앉고 서서히 기기를 준비하는 시기에서 영아의 주된 경험은 눈의 시각과 손의 촉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아가 주변 사물에 눈을 고정하거나,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는 사물 또는 사람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친근한 사물이나 사람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미소 짓기 등의 반응을 보일 때를 관찰하고 있다가 교사는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누워있는 영아가 모빌을 쳐다보고 있을 때 교사는 살짝 모빌을 흔들며 “어! 움직이네.,” “예쁜 강아지네.,” “이리 와라” 등의 한 두 단어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어조로 영아의 얼굴을 보며 반응해 준다. 또한 언어자극과 함께 가리키거나 손짓하는 움직임 등 비언어 자극을 동반할 경우 영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생후 4~6개월 사이의 영아는 소리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의도적으

로 주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므로 교사는 영아에게 시계 소리와 음악이 나오는 놀잇감 같은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소리를 들려주어 영아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며 다양한 소리에 반응을 할 때 부드럽고 온정적인 태도로 반응한다. 영아가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 주위의 다양한 소리, 움직임을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스스로 탐색하고자 손을 뻗어 만지거나 입에 넣는다. 이때 영아는 부드럽고, 까끌까끌하고, 차갑고, 폭신한 등의 질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고 모양이나 크기 등을 입으로 빨면서 탐색하려 한다. 교사는 안전한 놀잇감(예: 딸랑이, 천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 모형, 단순한 자동차 등)을 색, 모양, 질감이 다양한 것으로 구비해 주고,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은 색, 모양, 질감이 같은 여러 개를 제시해 준다.

한편 보육실은 영아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소리가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기저귀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등 일과 중 말을 걸 때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등을 다양하게 하여 이야기해 준다. 또 간단하고 부드러운 리듬의 말이나 노래(자장가) 등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 주로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있는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의 손목이나 발목에 작은 방울을 매달아 손, 발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듣게 하거나, 딸랑이 등 소리 나는 놀잇감을 손에 쥐어줄 수 있다. 좀 더 개월이 높은 영아에게는 마라카스, 탬버린, 노래가 나오는 조작 놀잇감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예술적 표현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리듬있는 소리로 반응하기	좋아하는 소리에 반응한다.		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낸다.	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
			주변의 사물이나 리듬악기로 단순한 소리를 만든다.	

2세 미만 영아들이 리듬 있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리와 리듬이 있는 운율을 구분하는 것으로 단지 청각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영아는 리듬이 있는 소리를 더 선호하여 이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가 청각의 식별능력을 발전시켜 점차 아름다운 리듬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며 이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심미적 표현력 발달에 기초를 이루게 해 준다. 또한 영아가 점차 간단한 노래의 일부분을 따라하고 단순한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리듬 있는 소리를 반복하며 즐거으로써 차체에 언어발달에 도 도움이 된다. 영아는 발달적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이 되면 소리의 차이를 구별하고, 9개월 정도가 되면 음악

을 듣고 좋고 싫음을 울음이나 웃음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부터 18개월 정도가 되면 음악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음높이와 리듬 유형을 다르게 하며 리듬감 있게 발성을 하고, 18개월 이상의 영아는 음높이와 리듬을 대략 맞추고, 흥얼거리며 간단한 노래의 앞이나 뒷부분의 한 단어를 듣고 따라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가 리듬감 있는 웅얼이나 발성을 낼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어야 한다. 이때 영아가 내는 음높이와 리듬 유형을 적어도 한두 번 부드럽게 따라해 주며 반응해 준다. 교사는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노래를 자주 불러주되 영아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천천히 불러주며 영아가 함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영아들이 좋아하는 동요가 녹음된 테이프나 CD를 실내외에서 자주 들려준다. 생후 9개월 이상이 되면 영아는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을 직접 흉내내려하고, 주변의 사물이나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감이 있는 소리를 만들며 즐거워한다. 예를 들면 소리 나는 놀잇감을 교사 등 뒤에 숨기고, 몇 초 동안 소리를 내어 영아의 호기심을 자극한 후 “○○야, 무슨 소리일까? 어디서 소리가 나니?” 등 흥미를 유도해도 좋다. 그리고 교사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영아가 보는 앞에서 소리를 만들어 내어 이 소리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딸랑이를 흔들거나, 놀잇감을 비벼서 소리를 만든 후 미소를 지으며 영아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교사가 만든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영아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영아가 사물을 이용하여 소리는 내었다면 “와! 무슨 소리를 만들었니?”, “쿵쿵쿵(그대로 리듬을 따라하며) 재미있는 소리네.” 등과 같이 영아가 만드는 소리에 교사가 관심을 보인다. 영아가 돌을 전후하여 간단한 노래를 녹음하여 들려주다가 영아가 더욱 관심을 보이는 노래가 있다면 노래를 따라 불러주고 손뼉으로 리듬을 맞추어 영아의 흥을 돋아준다. 그러나 점차 영아가 한 두 부분을 따라 부르면 “○○가 노래를 하는구나. 함께 해보자. 아유 다시 해보자.” 하며 영아가 노래를 반복할 수 있게 격려한다.

교사는 영아가 리듬있는 소리에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소리를 낼 수 있는 놀잇감이나 간단한 리듬악기를 준비해 주어 두드리기, 좌우로 굽기 등을 자유롭게 하며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격려한다. 또 냄비 뚜껑, 그릇, 숟가락 등 주변의 일상 사물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도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아가 숟가락이나 안전한 채를 쥐고 재질이 다른 바닥이나 사물(예: 페트병, 나무 상자) 등을 직접 두드려 보게 하여 사물마다 서로 다른 소리가 나며 스스로 리듬감 있는 소리를 만드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격려해준다. 이 때 영아가 흥에 겨운 나머지 막대기나 숟가락 등으로 또래를 치거나 때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테이프나 녹음한

노래가 나오는 전자악기(예:전자기타),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음악박스 등을 제공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단순한 손 놀이와 몸 움직이기를 한다.		몸동작으로 반응한다.	

몸 동작으로 표현하기는 영아들이 운율에 맞추어 흔들거나 움직이는 표현을 의미한다. 영아의 몸동작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활용하여 즐거움을 경험한다. 몸동작을 반복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체조절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통합된 정서를 점차 분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세 미만 영아기는 아직 정서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다. 그러나 몸동작을 통해 흥에 겨워 흔들기, 뛰기, 발 구르기, 손짓하기, 꿈지락 거리기 등의 동작을 통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마음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교사는 리듬감 있게 영아의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쪽쪽 늘려주거나 몸을 위아래로 약간씩 들어주며 꿁꿁놀이를 해주어 영아가 몸 움직이기를 즐기며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이때 교사가 언어적 자극을 함께 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야! 다리가 꿁꿁, 발이 꿁꿁, 팔은 꿁꿁~~” 등 리듬 있는 운율을 청각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상호작용한다. 영아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때 영아는 리듬에 맞춰 몸(손, 발 등)을 흔들거나 움직이는 것을 즐긴다. 이때 영아는 교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쉬운 동작을 흉내 낼 수도 있다(예: 손을 위로 들기, 앉았다 일어선 후 다시 앉기 등). 따라서 교사는 영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 몸 움직임을 즐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영아 스스로 몸 움직이기를 시도할 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

영아가 몸동작을 격려하기 위한 보육실 환경으로는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데 또래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도록 한다. 또한 몸동작과 청각적 자극이 함께 수반되면 효과적이므로 흔들 때 소리가 나는 모자, 머리띠, 팔찌, 발찌, 허리띠 등을 제공해주고 몸을 움직일 때 전신을 비춰볼 수 있는 안전거울과 스카프, 레이스, 보자기 등을 함께 구비해준다.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신나는 음악(예: 익숙한 동요 등)과 카세트 레코더 등을 구비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모방행동 즐기기	소리나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모방한다.	모방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출생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영아라도 친숙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영아가 출생 시 부터 주변사람을 모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아가 성장해 나가는 데 모방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방행동은 영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획득하고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줄 아는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 한편 모방행동을 통해 영아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내고, 상대의 모방을 유도하며, 영아가 이를 다시 모방하는 순환관계를 보여주면서 발달해 간다. 이렇듯 영아는 모방행동을 놀이하듯 즐기게 된다. 모방행동은 향후 상징놀이와 역할놀이와도 상호 연계되어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가 모방행동을 보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아가 처음에는 전화기를 들어서 귀에 대거나 컵 안에 수저를 넣는 등의 단순한 모방행동부터 시작한다. 모방행동은 영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주로 자신을 양육해 주는 친근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처음에는 어른의 소리나 얼굴 표현, 몸동작 등을 단순히 모방하지만, 점차 이러한 모방을 영아 스스로 즐기기 시작한다. 그 후 영아는 빈 컵을 입에 가져다 대고, 빗을 머리에 대는 행동 등을 하다가 점차 컵을 입에 대고 소리를 내며 마시거나, 머리를 빗으로 빗는 시늉 등을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모방 행동은 주로 영아 자신의 신체와 일상생활 활동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교사와 함께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온 주인공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 또 자신의 몸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이 시기 영아의 모방 행동에 중요하며 영아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기해하면서 손도 올려보고 고개도 돌려보는 등 여러 행동을 해 보기를 즐긴다.

이 시기에 교사는 영아가 모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흥미있는 소리와 얼굴 표현, 몸동작 등을 많이 보여주도록 한다. 영아가 모방해보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야! 눈을 찡긐, 이렇게 해봐라.”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함께 영아의 관심을 이끌어 본다. 특히 짹짹이나 까꿍놀이처럼 영아들이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며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자신의 신체와 일상생활 활동에 집중되는 영아의 모방행동을 격려하고 반응해 준다(예: “후루룩 시원한 물이에요”, “○○도 마시고, ○○도 마시고, 너도 마실래? 후루룩 아이 시원해”). 또 간단한 단어가 반복되는 그림책을 영아와 함께 보며 읽어주고 놀이로 유도한다(예: “코

코코 코를 실룩, 눈눈눈 눈을 깜짝, 입입입 입을 쪽쪽 등"). 그러다 교사가 영아의 동작을 모방할 수도 있다(예: "○○ 손을 따라해 볼까, 너도 ○○ 손처럼 해 볼까?, 재밌다. □□처럼 따라해 보자.").

영아의 모방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안전거울을 구비하여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며, 모방행동이 일어나기 위한 소품(예: 인형, 의성어 의태어가 실린 동화책, 동물이 나오는 감각책, 탈 것이 나오는 그림책, 소꿉놀이용 놀잇감류, 전화기 등)을 제공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단순한 미술 경험 시도하기			간단한 감각적 경험을 한다.	
			끼적거리를 한다.	

영아는 대소근육이 발달로 기어가기 시작하다가 생후 1년을 전후하여 점차로 걷기가 능숙해지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주변 사물을 쥐어보고, 누르고, 던지고, 뜯어보고, 문지르고, 비벼보는 등 촉감을 사용한 다양한 질감 놀이를 즐긴다. 감각적 놀이를 하다 영아는 자연스럽게 미술 경험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술경험을 시도는 우연치 않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처음에는 영아가 의도되지 않은 표현을 만들어 내나 점차 의도된 모양이나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필기류를 활용하여 끼적거리는 경험도 하게 된다. 이렇게 감각적 자료나 필기류를 활용한 단순한 미술표현을 통해 영아는 자신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얻는다. 또한 끼적거리는 표현은 향후 그림 표현 뿐 아니라 쓰기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영아의 손이나 손가락에 힘이 생겨 크레파스를 칠 수 있게 되면 영아는 여기저기에 끼적거리고는 자신이 끼적거린 결과물을 보고 좋아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의 첫 미술작품을 축하해 주고 긍정적으로 격려함으로써 영아의 지속적인 표현 욕구에 반응해 준다. 교사는 바닥이나 벽, 책상 위에 큰 전지를 붙여주고, 이를 자주 교체해 주며 무독성의 굵은 크레파스를 제공하여 원할 때에는 언제나 자유롭게 끼적거리를 즐기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영아가 다양한 시도를 할 때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 영아가 자신의 결과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이후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격려의 말을 할 때 아직 영아가 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가적인 언어적 표현하기보다 영아가 만들어 낸 노력과 과정을 짧게 언급하여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참 멋지네, 정말 잘 했어"

라는 평가의 말보다 “정말 큰 모양이네.” “주먹으로 꺾꺾 눌러서 만들었네” 등으로 격려의 말을 해준다. 한편 영아가 미술경험을 할 때에는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물감을 제공할 때에는 손이나 손가락, 팔 등 다양한 신체부위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사가 청소나 치우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과감한 시도를 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영아들은 선입견 없이 미술경험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며 미술경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다양한 질감과 색, 모양의 재료들(예: 밀가루 반죽, 전분반죽, 모래반죽, 면도크림, 물감, 풀그림, 안전한 찌기틀, 찢기 용이한 종이, 다양한 크기의 종이, 스티커 등)을 제공해 주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되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영아가 끼적거리던 결과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벽면이나 줄을 이용하여 전시할 공간을 마련한다. 전시 또는 게시를 할 공간은 교사가 기획하고 꾸민 공간이라기보다, 영아가 끼적거리고 난 현장에서 바로 게시해 줄 수 있도록 영아의 눈높이 부근의 빈 벽을 활용하거나 줄을 매어 달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영아가 자신과 또래의 결과물을 보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되고 향후 예술 감상 영역과도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다) 예술 감상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소리나 노래 즐거듣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소리와 노래에 관심을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리듬있는 소리와 노래를 즐거 듣는다.	

소리나 노래를 즐겨듣기를 통해 영아는 청각을 이용한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즐기며 익숙하게 하여 심미감 발달 증진에 도움을 주게 된다. 감상이란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으로 일상 속에서 예술 하는 좋은 느낌을 자리 잡아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경험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예술 감상 관련된 경험을 제공할 때에는 영아가 친숙하고 자주 접하는 소재(예: 어린이집 주변의 소리, 노래소리, 음악소리 등)를 활용하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태내기부터 시작하여 생의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리듬 있는 소리와 음악을 경험한다. 태내기에 들었던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하여 생후 4주가 지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3개월이 지나면 자신을 양육하는 사람이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매우 편안해한다.

4~6개월 사이의 영아는 소리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의도적으로 주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며 사람의 리듬감 있는 소리와 노래에 더 관심을 보인다.

교사가 리듬있는 소리나 노래를 들려줄 때에는 직접 불러주는 것도 가능하나, 교사의 목소리나 부모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들려주면 효과적이다. 영아가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한 테이프를 반복하여 듣는 것을 즐기는 것도 감상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포근포근하네. 노래를 들으니까, 시원하다, 졸리다.” 등 영아와 간단한 언어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다. 영아가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은 차후에 영아가 언어발달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사는 부모나 양육자의 목소리, 친근한 노래, 조용한 클래식이 녹음된 테이프나 CD, 음악이 나오는 놀잇감 등 부드럽고 다양한 소리나 노래를 영아가 기분이 좋을 때에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것이 좋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의 아름다움 경험하기	자연이나 주변 환경, 사물의 아름다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한다.			

영아는 저마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지며 경험해 가는 것은 감상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감상활동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아 시기에는 자신이 매일 둘러보는 자연이나 생활환경을 통해서 일상 속의 무엇이라도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 정기적인 실외놀이, 주변 산책을 계획해야 한다. 실외놀이와 주변 산책을 할 때 영아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수 있도록 화창한 날, 비오는 날, 눈 내리는 날의 자연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게 영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언어적 자극을 제공한다(예: “바람이 집으로 가나보다”, “햇님이 목욕한 날이다.”). 또한 주변 사물의 형태 등에 대해서도 변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꽃이 피었구나, 나뭇잎이 떨어지네.” 같이 말해주어 영아가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영아가 반복적으로 자연이나 주변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주변 사물에 친숙해지고, 자연현상과 주변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느껴보도록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

물 이외에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소재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야 책상보가 새로 생겼네. 만져보자. 보들보들한 느낌이네.” 와 같이 보육실 환경의 변화에서도 느낌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영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감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실과 실외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의 공간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예술표현 관련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연물 재료도 제공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도록 보육실의 공간배치나 소품을 교체하도록 한다. 다양한 질감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재료(예: 딱딱한, 거칠거칠한, 부들부들, 말랑말랑 등)도 교체하여 경험을 확장하도록 한다. 게시물이나 전시대의 위치나 모양 등도 변화를 주어 영아와 이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한다.

2) 만 2세

가) 심미적 탐색

내용	1 수준	2 수준
주변 환경의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주변 환경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탐색한다.	
	주변 환경에서 색, 질감, 모양 등에 대하여 탐색한다.	

영아가 2세가 되면 왕성한 활동으로 주변 환경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영아는 인지적 발달을 이루어가지만 예술적 요소에 대한 탐색도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영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예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영아의 감성계발과 심미감 발달과 함께 창의성 발달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만 2세 영아에게 주변 환경은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예를 들면 바람에 팔랑팔랑 떨어지는 나뭇잎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들을 주워 다양한 모양과 질감을 느껴보며 위로 던져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낙엽을 밟으며 부서지는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실외놀이터에서 마른 모래와 젖은 모래의 감촉 차이를 느끼고 각각의 것을 모양틀로 찍어보아 질감이 다름을 느끼며, 김 서린 창문의 불투명성을 관찰하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사물들을 영아가 자유롭게 반복적이며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물을

를 때 나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거나 동물의 울음소리, 실외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바닥에서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등에 즐거워한다. 또 영아는 탬버린, 마라카스, 북 등 리듬악기가 내는 다양한 음색 탐색하기를 즐긴다. 교사는 음률 영역에 악기가 잘 보이는 개방된 교구장을 준비하고 영아가 악기를 쉽게 꺼내어 악기의 소리, 장단, 리듬, 강약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한편 “무슨 소리가 나니?”, “딸랑딸랑 소리가 나네.”와 같은 말로 영아의 탐색 행동을 격려한다. 이때 교사는 마라카스나 방울, 탬버린, 작은 북, 소고 등에 영아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접근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악기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가 보육실에서 자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질의 악기를 구비해준다. 악기류는 내구성이 강하고 안전한 리듬악기를 준비하여 주되, 영아들이 좋아하는 악기는 색, 모양, 크기가 같은 것으로 여러 개 비치해 둔다. 감각기관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재료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촉감을 이용한 재료(예: 천, 솜, 모래종이, 톱밥, 모래, 면도 크림 등), 다양한 각도에 따라 빛을 느낄 수 있는 자료(예: 반사 모빌) 등이 있다.

나) 예술적 표현

내용	1 수준	2 수준
리듬 있는 소리, 노래, 춤으로 표현하기	신체, 악기, 사물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과 소리를 만든다.	
	친근한 노래를 즐겨 부른다.	
	노래나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즐긴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몸 움직이기를 한다.

만 2세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춤추기,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즐긴다. 만 2세 영아들은 스스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낀다. 특별한 준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손뼉을 치거나 손으로 바닥 치기 등 신체를 이용한 소리 만들기이다. 이외에 영아는 주변의 악기나 사물(예: 마라카스, 탬버린, 소고, 작은 북, 리듬막대, 실로폰, 상자 등)을 이용하여 리듬감 있는 소리들을 만들며 강약, 빠르기, 음색 등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영아는 음높이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지만 노랫말 중의 몇 구절은 익혀 노래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노래 부르기를 즐긴다. 이를 통해 영아는 다양한 감정을 발산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킨다.

교사는 영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아가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볼 수 있

도록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소리가 날까?”, “상자끼리 부딪히니까 ‘꽁꽁’ 소리가 나네.” 등과 같이 말해준다. 또 교사의 신체(입, 손 등)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영아에게 들려주고 영아와 함께 신체로 소리 만들기를 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노래의 빠르기나 강약 등을 다르게 하여 친근한 노래를 반복하여 불러보도록 한다. 이때 영아 자신과 관련된 노래(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족, 친구, 생일, 일상생활 등을 주제로 한 짧고 간단한 노래)를 선택하고 우리나라 전통놀이에서 부르는 노래(예: 두껍아 두껍아)나 전래동요(예: 자장가) 등을 직접 불러주거나 테이프와 CD로 자주 들려주도록 한다. 한편 교사는 영아와 함께 생일잔치 놀이를 할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거나, 정리정돈을 할 때 ‘모두 제자리 노래’ 등을 불러 보육실의 일과와 연결된 노래를 반복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또 영아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영아를 안고 익숙한 노래를 불러주어 영아가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만 2세 영아들은 신체운동능력이 발달하면서 친근한 리듬이나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즐긴다. 그러나 아직은 신체 각 기관의 협응력이 발달되지 않아 움직임에 몰입감이 결여되거나 어색한 경우가 많다. 교사는 영아들이 편안한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춤추기를 즐길 수 있도록 영아의 움직임을 격려한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놀이 중에 영아의 흥미를 끄는 움직임이 있으면 영아와 항상 즐겁게 표현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영아와 몸 움직이기를 할 때 간단한 도구(예: 짧은 스카프, 짧고 가벼운 천 등)를 가지고 위아래로, 옆으로 흔들며 몸 움직임에 즐거움을 더하며, 몸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영아는 움직임의 요소나 동작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영아가 리듬있는 소리, 노래, 춤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 또한 음악을 듣거나 녹음 할 수 있는 카세트 레코더, MP3,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들(예: 막대, 다양한 재료의 마라카스, 방울, 기로 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사진 화보 등을 제공하면 효과적이다. 도구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스카프, 리본테이프, 부채 등도 비치한다.

내용	1 수준	2 수준
모방과 단순한 상상놀이하기	모방 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단순한 상상놀이를 즐긴다.

만 2세 영아 초기에 인지적 표상이 발달하면서 영아는 대체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징을 표현한다. 모방행동을 자주하다 점차 다양한 상징을 만들어 내며 상상놀이를 진행한다. 상상놀이는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주고, 감정을 해소하는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언어 및 인지발달을 증진시켜 준다. 향후 다양한 가작화 요소를 표현하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며 발달해 간다.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모방 행동을 하던 만 2세 미만 영아와는 다르게 만 2세 영아들은 거울을 보며 좀 더 다양한 모방 행동을 놀이처럼 즐기게 되고 분산된 가작화요소가 나타나며 상상놀이를 진행한다. 영아는 엄마처럼 화장하는 놀이나 인형에게 우유 먹이는 행동을 놀이로 표현한다. 그 외에도 만 2세 영아들은 우유 먹이기, 전화놀이, 운전놀이 등과 같이 주변에서 관찰된 일상생활의 단면을 놀이로 표현하며 ‘마치 ○○처럼’ 행동을 즉흥적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컵과 주전자를 보고 즉흥적으로 음료수를 따르는 놀이를 하지만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특징이 있다.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격려하고 교사도 영아의 행동을 따라하거나(예: 그림책 속의 우유를 손으로 들어서 마치 먹는 것처럼 함께 가작화하기), “맛있어? 선생님도 줄래?”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교사는 영아의 상상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실물이나 유사한 소품들을 제공해 준다. 자동차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제공하고, 동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동물모양 모자나 머리띠를 제공하며, 엄마, 아빠놀이에 사용할 의상과 소품을 마련해준다. 주사놀이를 할 수 있도록 주사기를 제공하고, 불끄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소방차영아가 자신의 행동을 거울을 통해 보고 즐기면서 다양한 행동 표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한 전신거울도 준비해 준다.

내용	1 수준	2 수준
단순한 미술활동 즐기기	그리기, 만들기를 자발적으로 한다.	
	간단한 도구와 미술재료를 다룬다.	

영아는 대부분 무엇을 완성해 보겠다는 결과보다는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어 보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미술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며 미술경험 과정을 즐기며 이로써 표현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영아가 미술활동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도록 교사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아가 낙서를 하면서 미술표현을 하다가 점차 자신이 낙서한 것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의 단계에 이른다, 이때 교사는 “○○가 그린 것이 사과라구? 맛있어 보이네. 사과가 동글동글 하구나.”와 같은 언어적 격려나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포옹, 토닥임과 같은 비언어적 몸짓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 자발적인 표현을 격려해 준다. 또 영아가 만든 미술작품은 영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게시해 주어 영아의 표현 욕구를 계속적으로 자극해 주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한편 영아는 종이상자나 밀가루 반죽, 폐품, 신문지 등을 사용하여 단순한 구성물을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창의적 표현이 향상되고,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영아는 자연물이나 사물뿐 아니라 미술재료와 도구에도 관심을 나타낸다. 교사는 밀가루 반죽, 크레파스, 물감, 색연필, 사인펜, 연필 등의 기본적 미술 재료를 마련해 주고 미술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활동을 계획할 때, 교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적절한 영아의 수를 고려하여 집단 구성을 한다. 또 미술 재료나 도구를 선택할 때 영아들이 다투지 않도록 충분한 재료나 도구를 준비하고 영아의 행동반경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재료나 도구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활동이 끝난 후 영아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과 장소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계획한다. 활동을 진행할 때는 영아가 재료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천천히 탐색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영아가 많이 기다리지 않게(예: 교사가 종이를 한 장씩 각 영아에게 나누어주는 동안 기다리지 않게) 재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다) 예술 감상

내용	1 수준	2 수준
주변 환경의 예술적 요소에 관심 갖고 즐기기	자연과 생활의 소리나 움직임, 친근한 음악과 춤을 관심 있게 보고 듣는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질감, 모양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자신과 또래의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만 2세 영아들은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나 음악, 움직임 등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듣고 보는 것을 즐기기 시작한다. 특히 자신에게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좀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즐기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영아의 심미감을 계발과 감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 자연탐구와 관련된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몸 움직임이나 행동, 전래동요를 비롯한 친근한 노래와 연주곡, 다양한 자연의 소리나 움직임 등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며 이에 대해 심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한다. 예를 들면, “구슬이

또르르 굴러가네.”, “미끄럼처럼 쭉 내려오네.” 등 움직임이나 소리, 음악의 요소 등을 부각하여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적 자극을 해주도록 한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 바람 소리, 빗방울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움직임 등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음악 및 동작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또한 영아 자신이 만들어낸 다양한 표현들과 또래가 표현한 결과물을 통해 감상의 기회를 가질 때 영아에게 예술 감상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도 풍부해진다. 교사는 영아가 표현물에 나타난 의도를 들어주고 이를 언어로 표기해 주어 영아가 자신의 표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흥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교사가 영아의 작품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이를 게시하여 다른 또래의 관심을 갖게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감상 활동의 중요 내용이라고 하겠다, 만 2세 영아는 실외놀이나 견학, 산책 등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연과 사물 속의 미술적 요소를 접하고 놀이로 활용함으로써 흥미감의 기초인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교사는 만 2세 영아들이 좀 더 많은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흥미롭게 조성해 준다. 이 시기의 영아는 실외놀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나무나 꽃 색의 변화나, 보육시설 건물 표면의 색이나 질감, 놀이터 표면의 다양한 질감(예: 딱딱함, 부드러움, 폭신함, 거친, 매끄러움 등) 등의 미술적 요소에 제공하여 이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도록 하면 좋다.

3) 만 3~5세

가) 심미적탐색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음악적 요소(강약, 속도, 리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소리, 악기, 음악을 탐색한다.		음악적 요소(멜로디, 장단)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소리, 악기, 음악을 탐색한다.

만 3세가 되면 유아들은 새로운 소리를 듣고 흉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흥미를 보인다.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따라하거나 특정한 소리에 선택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새로운 소리를 찾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와 악기가 내는 소리 및 음악은 음악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탐색하는데 적합하다. 유아들이 자연환경과 일상생활 환경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의 특징, 즉

소리의 크기, 세기, 속도, 음색, 리듬 등이 어떠한가를 관심 있게 탐색하는 것은 음악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연의 소리로서 비 오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동물과 곤충의 소리, 숲속에서 듣는 바람소리, 그리고 바다의 파도소리 등의 각양각색의 자연의 소리와 영유아의 주위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가위나 손으로 종이를 자르거나 찢는 소리, 자전거 페달 밟는 소리,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 물건과 물건이 부딪치는 소리, 발자국 소리, 사람들 말 소리, 자동차의 경적 및 사이렌 소리 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리듬이나 크기, 음색 등을 구별해 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둘 간의 소리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리듬 악기와 우리나라 악기, 폐품으로 만든 악기 등을 가지고 직접 음악의 요소를 탐색해 보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여러 가지 음악을 곡 전체를 감상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의 리듬, 소리, 음의 고저, 음색의 변화, 크기, 대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산책이나 견학 등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새롭게 발견한 소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어 유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대집단보다는 개별이나 소집단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유아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소리를 찾고 들어볼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 주며 활동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유쾌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의 요소를 탐색한다.

만 3세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경험을 즐긴다. 움직임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하며 자신의 흥미를 끄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흉내 내기 하기도 한다. 만 4세와 5세 유아는 움직임의 차이를 지각하고 움직임의 차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유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주변의 다양한 움직임이나 춤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로 표현하는 창의적인 움직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교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움직임, 즉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깃발, 움직이는 구름, 새들의 날갯짓, 여러 종류의 사물의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춤 등을 유아가 관심 있게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움직임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때 유아가 신체의 특징

한 부분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직임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는 움직임을 다양한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도구를 충분히 제공한다. 유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적절하면서 새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유아가 움직임과 춤의 요소를 탐색할 때에는 움직임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가, 움직임이 거친가, 얼음 위에서와 같이 매끄럽게 미끄러지는가, 움직임이 무거운가, 깃털처럼 가벼운가, 움직임이 뻗뻗한가, 부드러운 가, 움직임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가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유아가 스스로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해 보게 하고,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각기 다른 움직임을 연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움직임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일지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아의 동작을 무조건 따라하도록 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는 친구들과 움직임을 연합하거나 연속해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유아가 움직임이나 춤 표현을 즐기는 것은 창의적 표현 능력의 향상을 돕는다.

교사는 춤이 발생한 문화적 배경과 춤과 관련된 직업이나 사진이나 비디오, 공연 인쇄물 등에서 춤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심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유아가 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가작화 요소 탐색하기	상상적 움직임과 목소리를 탐색한다.	역할, 사물, 행동이나 상황 등 가작화 요소를 탐색한다.	관객, 배우, 무대 등 극놀이의 기본적인 요소를 탐색한다.

만 3~5세 유아들의 탐색은 자연과 주변 사물들의 예술적 요소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과 지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이 더욱 향상되도록 도와주고 촉진한다. 이 시기가 되면 ‘마치 ○○처럼’이라는 가작화 요소를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만 3세가 되면 특히 가상적 움직임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동물의 움직임이나 울음소리, 다양한 인물들의 특징적인 움직임이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 후 극놀이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작화 요소(예: 역할의 가작화, 사물의 가작화, 행동이나 상황의 가작화)를 인식한다. 즉 나와 너, 이것과 저것, 여기와 저기에 대해 마치 ○○인 척하는 가작의 소재가 되는 다양한 재료를 찾는다. 아울러 가작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 차이에 흥미를 보이고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지각에 고정시키기도 한다. 또한 극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게 되는데, 즉 극놀이를 위해서는 무대를 꾸며야 하고 무대 위에서 극에 참여하는 배우와 극을 감상하는 관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극놀이를 하면서 가작화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해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과 행동, 상황을 가작화하고 있는지, 극놀이에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수단 혹은 소리의 크기가 적절한지, 몸짓 및 움직임 등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감정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극놀이를 위해 필요한 소품을 ○○인 척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여 언급해줌으로써 극의 구성을 위한 가작화 요소에 관심을 갖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나에 관유아들이 극을 만들거나 감상할 때 극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예: 관객, 배우, 무대 배경, 의상, 조명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에서 미술적 요소(색, 크기, 질감, 형태, 공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	여러 상황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한다.	

만 3~5세 유아는 주변의 자연과 사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하고 나름대로 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유아는 주변의 친숙한 생활환경이나 사물에서, 또 시간과 계절이 바뀔 때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에서 미술적 요소인 색, 크기, 질감, 형태, 공간의 특징 및 변화를 경험한다. 다양한 미술적 요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는 기회를 제공하며 탐색과정에서 유아가 적극적인 흥미를 보일 수 있도록 형태, 질감, 색, 크기 등에 대해 언급해 준다. 이를테면, ‘마치 ○○처럼 둥글게 생겼네, 하늘과 같은 색깔이구나,’ 등과 같은 교사의 언어적 자극은 3~5세유아의 미술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미술재료와 도구의 특성이나 용도를 자유롭게 활용해 보고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유아가 접하는 환경이나 주변사물이 미술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유아가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유아는 미술재료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동시에 사물의 모양, 무게, 질감, 색, 성질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유아가 미술재료와 도구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유아들이 자신의 흥미와 주제, 아이디어,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한 미술재료와 도구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료와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한다. 또한 유아들이 새로운 미술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새로운 도구와 재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연물, 종이류, 폐품류, 찰흙류, 그리기 재료 등이나 찍기 도구, 붓, 가위 등의 기본도구 뿐 아니라 유아의 손, 발 등의 신체의 일부 더 나아가 교사의 도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까지 충분한 탐색과 실험을 해보도록 배려한다면,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아이디어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나) 예술적 표현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리듬 만들기	목소리나 신체,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속도, 리듬, 셈여림)를 만든다.	즉흥적으로 리듬과 음악을 만든다.	
	노래를 들으며 리듬악기를 연주한다.	노래에 맞추어 리듬악기를 연주한다.	

유아들은 스스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신체로 만드는 소리들이다. 만 3세가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부드러운 소리, 센 소리 등을 내어보고 목소리나 여러 재료(예: 나무블록 두 개)로 유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일상생활 주변의 소리(예: 경찰차량의 경고음, 앰블런스 사이렌, 전철 등의 자동자소리 등)와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것을 즐긴다. 또 자신의 몸을 이용해 소리를 만드는 것도 소리 만들기의 중요한 경험인데 이때 동작보다는 소리 만들거나 소리 듣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즉 크게, 작게, 부드럽게, 세게 소리를 내어보고 그 소리를 들어봄으로써 다양한 소리의 표현에 대한 경험을 즐기도록 한다. 교사는 신체로 낼 수 있는 소리 즉 손뼉치기, 발 구르기, 무릎치기, 입술을 닫았다가 열면서 내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 만들기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박자와 리듬을 다르게 하면서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사물의 특징에 따라서도 소리의 세기나 리듬 등을 변형시켜 가면서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한

다. 다른 유아들이 만드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함께 소리를 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격려한다.

한편 교사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셀로판지나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찢거나, 구기거나, 비비거나, 높이 던져서 떨어뜨리거나, 접어서 불거나 하면서 어떤 다른 소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들어보도록 한다. 이처럼 다양한 소리에 민감해지고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보고 이를 즐기면서 음악적 요소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더 나아가 친근한 동시나 책 이야기, 극놀이, 동극 등에 필요한 배경 음악이나 소리들을 여러 재료나 목소리, 악기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고 이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면서 창의적인 소리나 리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비, 바람, 눈 등의 자연현상이나 가족 그리고 유아의 일상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나 소리 등을 만들어 보도록 격려한다.

악기는 음악을 위해 어떤 특색 있는 음색을 내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기능을 하는 도구이다. 음의 고저와 화음 등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리듬악기와 가락악기로 구별한다. 리듬악기는 음의 고저는 없으나 강약이나 속도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음색의 소리를 낸다. 유아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리듬악기로는 리듬 막대, 나무 블록과 톤 블록, 손가락 심벌즈, 핸드벨, 마라카스, 캐스터네츠, 탬버린, 기로, 작은북, 트라이앵글, 봉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 리듬악기로는 장구, 북, 소고, 징, 췌과리 등이 있다. 다른 나라의 전통악기 소리와 우리나라 전통 악기가 내는 소리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함께 소리를 만들어 보도록 격려한다.

유아들이 소근육 기능이 발달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통제력도 증진되므로 개별적으로 각 악기들의 소리 내는 방법, 쥐는 방법 등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탐색하게 하고 점차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악기 사용이 익숙해지면 친숙한 노래나 짧은 리듬 패턴, 음악 등에 맞추어 리듬악기로 연주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이때 개별 또는 소집단, 그리고 대집단으로 유아의 음악에 대한 흥미를 고려하여 유아가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을 활용하여 리듬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노래로 표현하기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른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로 만들어 표현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르며 이와 관련된 놀이를 한다.			

만 3세가 되면 유아는 8마디 정도의 반복적이고 노랫말이 쉬운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교사는 유아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음역(레~라)의 노래나 흥미로운 소재의 노래, 문답식 노래나 그리고 사전 경험이 있는 노래(예: 소방서 견학하고 나서 소방서 노래 부르기)들을 선정한다. 이때 노랫말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음악성이 있고 즐거우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억하기 쉬운 것이 좋다. 교사는 일상생활(예: 등원할 때, 점심시간, 낮잠시간, 자유놀이 시간 등)에서 다양한 노래를 자주 들려주며 함께 따라 부르고, 익숙한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을 격려한다.

만 4세쯤 되면 음역이 확장되고 리듬 감각도 생기며 어휘도 다양해지므로 유아는 여러 주제나 종류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 노랫말을 바꾸거나 음악적 요소(강약,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유아들은 간단한 음정을 내고 리듬이 정확해져 친숙한 노래를 빠르게, 느리게, 크게, 작게 등으로 변화시켜 부르는 것을 즐긴다. 돌림노래도 가능하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동요를 불러보는 경험은 유아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령이 증가하면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이나 느낌에 대해 단순한 선율과 리듬을 만들어 노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흥미나 경험을 통해 즉흥적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창의적 표현에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노래로 표현해 주어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노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준다.

교사는 우리나라 전래동요를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래동요를 들려주고 이와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 해 주며 관련된 놀이(예: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야 여우야, 연 날리기)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춤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춤이나 움직임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단한 춤을 만들어서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만들고 표현한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 춤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움직임과는 다르다. 춤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아의 흥미와 노력이 요구된다. 몸으로 표현하기는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를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아는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이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봄으로써 신체가 의사소통의 주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아가 창의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는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환경에서 다양한 동작을 탐색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만 5세아의 경우 동작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및 동작을 만들기 위해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신체 부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치 작곡가가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도레미의 음계를 알아야 하고, 박자·음표·화음 등을 이해해야 가능한 것처럼 춤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유아기에 습득해야 할 기본 동작에 심미적 요소를 포함한 탐색을 경험해야 한다.

만 4세와 5세 유아들은 친구의 동작에 덧붙여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래들과 함께 상황과 내용, 분위기에 따라 단순한 춤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다른 유아들은 친구들이 만들어 내는 동작을 감상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다.

한편 동작이나 춤은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리본, 스카프, 한삼, 응원용 꽃술, 막대, 공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동작을 표현해 볼 수도 있다. 도구를 활용한 동작들은 동작을 만드는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움직임에 대한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유아는 움직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자유로운 표현과 독창적인 움직임을 격려하고 적절한 음악을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유아들이 따뜻하게 반응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좀 더 자연스런 움직임이나 표현이 되도록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극놀이를 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의 역할놀이에 참여한다.	다양한 역할, 사물, 행동, 상황이 설정된 극놀이에 참여한다.	이야기를 만들어 극놀이를 한다.
	간단한 이야기나 상상한 것을 극화해 본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경험을 극놀이를 표현한다.	음악, 미술, 춤을 극놀이에 활용한다.

유아기는 자신의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극놀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경험을 재현하고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도 가능하다. 아울러 새로운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아는 감정표현 및 자신감을 발달시키고 창의적 역량도 계발하게 된다.

만 3~5세 전조작기 유아의 놀이를 보면 대부분의 놀이가 극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생활 및 또래관계에 관련된 놀이부터 시작하여 친근한 동화 이야기나 지역사회와 환상적인 이야기로까지 놀이주제가 확장된다. 만 2세 영아들의 놀이처럼 즉흥적인 놀이가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세운 놀이를 하게 되므로 놀이가 다양하게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만 3세 유아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놀잇감을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직성을 보이지만, 만 4~5세가 되면 창의력을 발휘하여 한 가지 놀잇감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놀이 에피소드를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만 5세가 되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바람, 기대 등을 표현하면서 극놀이를 즐긴다. 즉 극놀이의 공간·시간·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소품·배경·의상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극놀이를 하게 되며, 자신들의 극놀이를 촉진하기 위해 음악, 미술, 춤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통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처음에는 친숙한 역할이나 상황(예: 가정, 음식점 등)을 만들어 역할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물과 유사한 소품을 많이 제공해 준다. 또 간단한 이야기, 시 또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안내된 극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극놀이에 관련된 자세, 언어적 표현, 몸짓 등에 대해 안내 해 주고 새로운 몸짓을 만들어 표현하도록 돕는다. 점차로 다양한 극놀이 주제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제공해주고, 견학 또는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여 극놀이 주제를 활성화한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극놀이도 계획할 수 있다. 또 개방적인 질문으로 유아의 극놀이를 확장한다. 극놀이가 잘 이루어지면 일과 중 시

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주제의 극놀이에 협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극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유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격려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미술활동 즐기기	다양한 미술재료를 활용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미술활동작품을 활용하는 경험을 즐긴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유아기는 표현능력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미술 표현 활동은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유아들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미감을 경험한다. 유아는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되고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기르게 된다. 교사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만들기와 꾸미기 등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며 그림 그리기, 찰흙 주무르기, 조형물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은 완성된 작품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것, 느낀 것, 아이디어 등을 표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교사가 알아야 한다. 교사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을 유아가 똑같이 따라 하기, 다른 유아들이 모두 같은 것 만들기 등의 활동보다 유아가 스스로 만들려는 동기나 자발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표현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이를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미술표현 과정에서 교사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몸짓(예: 끄덕임, 미소, 응시 등)이나 언어적 표현(예: “새롭게 무늬를 넣었네.”, “그려진 나무의 열매가 아주 맛있게 빨갛게 익었네.”, “네가 그린 자동차에 탄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여기에 붙여진 나뭇잎은 무엇을 의미하니?” 등)은 유아들의 독창적 미술표현 능력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미술활동에서는 유아 스스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돕는 지원 전략이 필요한데, 적절한 방법이 바로 동기유발이다. 동기유발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만 3~5세 유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는 유아의 공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아이디어 얻기, 주변환경의 변화 찾기, 어떻게 사물이 변화하는지 그 과정 찾아보기, 주변환경에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 찾아보기, 유아에게 여러 가지 소재를 끌어내기 위해 질문하기, 교사와 유아 간의 토의하기 등이 있으며 유아들이 서로 미술표현 과정에서 생각을 나누도록 배려한다.

유아는 자신의 미술작품을 활용하여 놀잇감을 만들거나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놀이 활동의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또한 동화에 나온 소품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아는 자신이 만든 작은 그림들을 게임판의 말로 사용하거나, 지점으로 만든 조각들을 수세기 실물로 이용하거나 신문지를 뭉쳐 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유아의 노력과 결과물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고 확장하여 유아들이 이것들을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즉 유아가 그린 그림을 조각으로 나누어 퍼즐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또, 시장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시장놀이하기, 폐품 상자로 집을 만들고, 쌓기 영역에서 동네꾸미기, 막대 인형이나 가면을 만들어 극놀이에 사용하기 등은 유아의 미술작품을 활용하여 다른 놀이영역과 통합한 예로서 이러한 경험들은 유아로 하여금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응용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교실에 전시하여 자신의 예술활동 표현물을 또래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지게 하는 것은 특히 유아의 성취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유아는 또래와 함께 협력하는 미술활동을 조금씩 계획한다. 또래와 함께 협력하는 미술활동 경험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과 대화를 하고, 양보하기와 다른 사람 존중하기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후 사회성 발달을 자극하는 기초가 된다.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갖게 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므로 벽의 일부분에 그림 그리기, 부분 콜라주하기, 무대 장치나 소품 꾸미기 등 여러 명의 유아가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여 함께 미술활동을 해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여러 가지 미술재료 사용하기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		

미술활동에서 창의성은 소재와 다양한 재료들을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유아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만들 것인지, 어떠한 도구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사고하고 추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해결력이 향상된다. 또 아이디어를 고찰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독창적 사고가 발휘되고, 상상력을 높이며, 자신의 결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유아는 미술활동을 위한 재료와 도구의 다양한 활용에 앞서 미술재료와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찢기, 데칼코마니, 종이 붙이기 등 손의 미세한 근육을 훈련하도록 돕는 활동을 반복 경험하게 하고 종이, 물감, 색연필과 안전가위, 풀, 테이프 등 미술재료와 도구의 사용 기술을

숙달시켜서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익숙하게 함과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유아의 창의적 미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사는 기본적인 미술 재료를 구비하고 미술재료나 도구를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마련한다. 또 미술재료나 도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거나 유아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이나 사물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표현재료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 주변의 모든 사물은 표현활동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어 풍부하게 재료 경험을 한다면 유아의 자유로운 자기표현 및 독창성이 높게 향상될 것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음악, 움직임, 미술, 극 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음악, 동작, 미술, 극놀이는 분리되어 단편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경험하게끔 할 때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더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신만의 개별적 의미를 더 느낄 수 있게 된다.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유아에게 음악, 미술, 극놀이, 동작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모자장수 아저씨의 모자를 미술영역에서 만든 후 이를 모자 가게에 모아서 팔아보는 역할놀이를 진행할 수 있고 모자장수 아저씨의 행동을 따라하는 원숭이들이 되어 창의적 동작 표현을 즐길 수 있다. 더 나아가 모자장수 아저씨의 이야기에 필요한 배경음악을 만들어서 ‘다시 듣는 모자장수 아저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만 5세아의 경우 음악, 동작, 미술, 극놀이 중 어떤 하나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우선 주제로 선정하여 나머지 영역의 활동을 그 주제에 맞게 활동을 조직하여 통합적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교사가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 각의 예술영역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유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과 흥미 있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활동과정에서 유아의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유아들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림과 음악, 움직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음악에 관심이 많으나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던 유아의 흥미를 확장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음악, 동작, 미술의 예술적 요소들을 유아 자신의 경험 속에서 통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또래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다) 예술 감상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음악 감상하기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듣고 즐긴다.		좋아하는 음악을 자주 듣는다.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만 3세가 되면 보육시설 일과에서 여러 종류의 음악(예: 동요, 전래동요, 우리나라 전래음악, 클래식, 악기연주곡, 영화음악, 다른 나라 음악, 성악곡 등)을 즐겨 들으면서 그 음악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만 4세가 되면 들었던 음악적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만 5세가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 성숙한 태도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문화, 음악적 양식, 악기 등에 대한 선호나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고 즐겨 듣고자 할 때부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사는 유아 자신이 음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음악을 즐기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가 음악 감상을 위하여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예: 낮잠을 준비할 때, 낮잠을 자고나서, 점심이나 간식을 먹을 때, 등원이나 하원할 때, 자유놀이시간에 등) 여러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음악 감상이라고 하면 클래식 음악만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이것 뿐 아니라 여러 장르의 음악(예: 동요, 고전음악, 국악, 이야기가 있는 음악 등)을 교사와 함께 감상하면서 아이가 어떤 음악에 좀 더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고, 여러 종류의 음악에 대해 듣는 즐거움 등)을 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음악 감상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음악 감상 그 자체에 몰입하기에는 유아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음악과 관련된 그림, 책, 연주회 사진, 포스터, 팸플릿, 음악CD 등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음악 포스터를 수시로 음악영역에 붙여주거나 연주회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또 음악에 맞춰 고개를 움직인다든지, 박자에 맞춰 손을 가볍게 흔들어보기 등을 하며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춤 감상하기	여러 종류의 춤을 보고 즐긴다.		
			여러 종류의 춤을 보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한다.

유아들은 춤 감상하기 활동으로 심미감을 형성하며, 정서를 순화할 수 있다. 작품을 보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춤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면 유아들은 단순히 춤 감상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국무용가나 발레리나(노), 스포츠 댄스 전문가, 혹은 다른 나라의 전통 춤을 추는 사람 등을 초청해 춤을 감상하고 이들과 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감상을 하기 전에는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갖고 감상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그냥 감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감상이 익숙해지면 유아들은 감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과정에서 동작을 따라해 볼 수도 있다. 감상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유아는 서로의 생각이나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이 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의 개별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아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극 놀이 감상하기	극 놀이를 보고 즐긴다.		극 놀이를 보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극놀이는 주로 표현활동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유아들이 표현하는 것이나 전문 극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감상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유아는 다양한 극놀이를 보고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이 공연할 때 조용히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상에 익숙해지면 유아들은 극놀이를 보고 감상한 것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교사는 유아들이 다른 친구들의 극놀이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준다. 또래 친구들이 보여주는 단순하고 간단한 동극이나 인형극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 자신들보다 조금 연령이 높은 유아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또 유아들

을 위한 좋은 영화, 인형극 등을 선택하여 감상하게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문인을 초청하여 관람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며 부모 또는 교사들이 계획하여 제작한 인형들로 구성된 인형극 공연, 어린이 극장에서 공연하는 좋은 연극이나 인형극을 관람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경험을 좀 더 확장해 준다. 더불어 청중으로서 극놀이를 보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 나누어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미술작품 감상하기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다양한 자연,사물, 미술작품을 접하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자신과 다른사람의 미술작품을 소중히 다룬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유아가 즐거움을 느끼고 미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만 3~5세 유아가 경험하는 미적 대상은 크게 자연대상과 미술작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연에 대한 감상 영역은 삶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는 심미적 안목을 기르고 자연을 애호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실외놀이나 정기적인 동네 둘러보기 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 영역은 유아 자신과 또래들의 미술작품을 보고, 느끼고, 경험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는 벽면에 게시된 미술 작품들, 언어 영역에 마련된 미술 관련 서적 또는 그림책의 삽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견학, 예술 작가들과의 만남 등으로 점차 확장된다. 교사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가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가를 통해 직접 듣는 것은 예술작품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흥미감을 높일 수 있다. 유아는 친구들과 함께 미술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미술 작품을 만드는 창조자로서 또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로서의 적절한 태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작품에 대한 흥미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때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소중히 다루고 보관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작품 역시 소중히 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미술 감상이 감각과 지각을 통해 작품의 미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느끼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을 접하는 경험은 유아를 위한 미술 감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붓으로 그림 그리기, 화선지 사용해 보

기, 전통문양 베끼기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점차 전통놀이의 소품(예: 제기, 부채, 투호 등)을 만들어 유아가 직접 놀이에 활용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 전통예술이 친숙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경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작품을 소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문화권의 예술작품과 우리의 전통예술의 차이와 특징을 구별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 강보라·이숙재(2009). 보육교사의 영아음악활동에서 표준보육과정 반영 실태. 한국아동교육학회. Vol.18 No.4. 2009. pp.57~69.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운영 초등교육과 연계 강화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 주요 내용 상보. 제28권 제4호 통권465호 2008.4. pp.104-107.
- 구수연·최대훈(2009). 가정보육시설에서의 보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Vol 13 No1. 2009.02.29. pp.229~248.
- 김경미(2009). 만 2세 미만 영아보육에서의 표준보육과정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김나경(2008). 만 2세 영아보육과정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제. 이화여대 대학원 학위논문.
- 김명희(2010). 영아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아주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김숙자·김희경(2009).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프로그램에 나타난 경제 관련 개념 분석.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Vol.13 No.6 2009. pp.367~389.
- 김영명(2007). 보육시설장의 교육요구에 기초한 현직교육 내용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Vol. 12 No.3. 2007. 6. pp.95~124
- 김정원·김유정(2007).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한 보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보육정책학회. 2007.12.39. pp.105~127.
- 김해경·오숙현(2009). 표준보육과정 보육프로그램 과학관련 활동 내용 분석: 만 3, 4, 5세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Vol.13 No.2. 2009. pp.29~46.
- 노은호(2008).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병행·협력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Vol.8 No.1. 2008. pp.93~107.
- 박애경(2007).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보육학회. Vol.7 No.4. 2007. pp19~37.
- 박지영(2009). 가정보육시설 영아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적용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대 대학원 학위논문.

- 박진옥·최순자·윤매자(2007). 한국의 표준교육과정과 일본 보육소보육지침의 비교.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Vol.11 No.4. 2007. pp.237~266.
- 서문희(2004).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2004). 영·유아보육 법령·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영숙(2010). 표준보육과정과 보육프로그램 활용 및 효과분석. 보건복지가족부·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 서영희(2008). 표준보육과정과 생태보육과정의 운영 실체에 관한 연구 :교사와 유아의 일과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학위논문.
- 서진경(2009).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학위논문.
- 성낙영(2008). 취업모의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과 이용 만족도 연구 :대전광역시 보육시설 만 0세아 반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신화식·박진옥(2008).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52. pp.103~123.
- 오연주(2007). 한국의 표준보육과정과 일본의 보육지침에서 건강영역의 비교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2 No.5. 2007. pp.479~503.
- 유희정·김은영·최혜선(2007). 보육프로그램 개발 : 총론, 제1권. 여성가족부, 2007. 육아정책개발센터.
- 유희정 외(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여성부
- 이동률(2009).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 :대구광역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경운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
- 이석순(2007).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 연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Vol.11 No.4. 2007. 12. pp.183~208.
- 이한은(2008). 보육교사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실행정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효순(2008). 직장보육시설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실태. 동국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이훈희(2008). 보육교사의 「표준보육과정」 인식과 운영실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임명희(2004).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보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보육학회 Vol.4 No.2. 2004. pp 32~62.
- 장미경(2004). 표준보육과정의 제정을 위한 보육과정의 개념 및 구성요인에 관한 고찰. 보건복지 연구 논집 Vol. 1 No.1. 2004. pp 242~259.
- 정수미(2009). 만3~5세 보육교사의 『표준보육과정』 인식과 운영실태. 경원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정을순(2007). 영유아 보육 표준보육과정 적용실태연구 :수원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위논문.
- 정효정(2010). 한국의 표준보육과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60, 2010.2.1. pp.19~37.
- 조희진(2009). 표준보육과정에 나타난 전통문화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 Vol.18 No.-2009. pp.49~77.
- 지성애(2008).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Vol. 12 No.3. 2008. 6. pp.91-110
- 최영미(2006). 창원시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 실태.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한순화(2009). 표준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관심 및 활용도. 경희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황인주(2008). 만2세 영아반에 적절한 음악경험이 음악적성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8). 2008년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부록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영역의 수준별 비교

부록 1.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 영역의 수준별 비교: 2007년 고시 및 개정

1)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표: 기본생활임) vs. 유치원교육과정의 건강생활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1. 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이를 깨끗이 닦는다.	이를 깨끗이 닦는다.	스스로 이를 깨끗이 닦는다.	이를 깨끗이 한다.	스스로 이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7.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스스로 손을 씻는다.	손 씻는 습관을 기른다.	스스로 손을 씻는다.	손과 몸을 깨끗이 한다.	스스로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몸을 씻는다.	스스로 몸을 씻는다.	몸을 씻는 습관을 기른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2. 식생활을 바르게 하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진다.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	스스로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8. 바른 식생활하기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음식물의 필요성을 알고 골고루 먹는다.	몸에 필요한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골고루 먹는다.	
	영양이 건강에 중요함을 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안전한 음식을 안다.	안전한 음식을 먹는다.				
*3. 알맞게 잠자기와	올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식사 예절을 지킨다.	식사 예절을 지킨다.	음식을 바른 자세로 즐겁게 먹는다.		9. 질병 예방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알맞은 휴식이 필요함을 안다.	스스로 알맞게 휴식을 취한다.	스스로 알맞게 휴식을 취한다.	놀이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휴식하기					
*4. 긴장한 배설습관 갖기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배변 후 적절한 뒤처리를 한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배설 후에 손을 씻는다.			
*5. 상황에 맞게 옷 입기	날씨에 맞는 옷을 입는다.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선택하여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9. 질병 예방하기
*6.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여러 가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10. 즐겁게 생활하기
*7. 긴장에 관심을 갖고 건강생활 실천하기	긴장에 관심을 가진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안다.	긴장의 중요성을 안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질병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9. 질병 예방하기
*8. 안전하게 놀이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배려하기	놀이구나 놀잇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논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놀잇감, 도구, 시설물의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놀이한다. 미디어에는 유익한 것과 유해한 것이 있음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12. 안전하게 놀이하기
*9. 위험한 상황에서	화재, 재난, 사고 상황을 인식한다.	화재,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위험한 물건과 상황에 대해 알고, 대처한다.	14. 위험한 상황을 알고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안전하게 행동 하기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인식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상황을 알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행동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함을 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보행 안전 규칙을 지킨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10. 교통안전 실천하기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보행한다. 탈것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하게 행동한다.	
*11. 안전교육의 중요성 알고 참여하기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하게 행동한다.	정직하게 행동한다.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알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인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에 대해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에 참여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친구와 어른께 바르게 인사한다.	
*12. 예절 바르게 생활하기	실수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실수에 대하여 사과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실수에 대하여 사과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킨다.	
				도움을 받거나, 잘못했을 때 표현하는 말을 안다. 옳바름을 바르게 한다.	
				질서를 지켜야 함을 안다. 질서를 지킨다.	
*13. 질서 지키며 생활하기	공공규칙을 인식한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지킨다.	

하위 내용	대처하기	11. 나와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히 하기	13.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15. 환경오염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사회생활 6. 예절 바르게 생활하기	사회생활 8. 질서와 규칙 지키기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한다.	자신의 물건을 정리·정돈한다.			
*14. 아끼며 생활하기	자원을 아낀다.	자원을 아끼고 재사용 한다.		물건을 잘 간수하고 아껴 쓴다.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재활용한다.	사회생활 11. 경제생활에 관심 가지기
1. 감각능력 기르기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		
2. 감각기관 활용하기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한다.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기관을 활용해본다. 감각 기관을 협응하여 활동한다.	1. 감각기관을 활용하기
3.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알고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신체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신체 각 부분의 특징을 활용하여 움직인다.	몸의 각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몸의 각 부분의 특성을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2. 나의 몸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4. 신체조절력과 균형감 기르기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바른 자세로 앉고 선다.	신체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바른 자세로 걷는다.			
5. 이동 운동하기	빨리 걷기, 달리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안정된 자세로 달리기 등 다양한 이동 운동을 한다.	두 발로 뛰기, 빠르게 달리기 등 이동 운동을 능숙하게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을 하면서 몸을 걷기, 달리기, 뛰기 등에 따라 몸을 움직인다.	3. 이동하며 움직이기
6. 비이동 운동하기	팔과 몸통을 움직여 보는 등 비이동 운동을 한다.	몸을 흔들거나 꼬기 등 여러 가지 비이동 운동을 한다.	한발로 균형 잡기 등 숙련된 자세의 비이동 운동을 한다.	체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체자리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몸을 균형감 있게 움직인다.	4. 체자리에서 움직이기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7. 조작 운동하기	가위나 크레피스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본다. 공을 던지거나 잡기 등 조작 운동을 한다.	그리거나 만들기 도구 등을 활용한다.	그리거나 만들기 도구 등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 운동을 한다.		
8. 움직임의 요소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동작의 크기나 빠르기 등 동작의 요소(공간, 시간, 흐름, 힘)를 인식한다.	동작의 크기나 빠르기 등 동작의 요소(공간, 시간, 흐름, 힘)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9.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새로운 신체활동과 기술을 시도한다. 여러 가지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클로투 참여한다.	신체활동을 할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10.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 운동 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능숙하게 한다.	공, 리본, 후프, 평균대, 매트 등 도구와 놀이 시설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	5. 도구 및 놀이시설을 활용하기
11. 안전하게	안전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신체활동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6.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2)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vs. 유치원교육과정의 사회생활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안다.	나에 대해 알아보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진다.	1.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2. 자신감과 독립심 기르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자신 있게 해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자신 있게 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마무리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마무리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해본다.	2. 나의 일 스스로 하기
		자신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	자신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하루 일과에 적응한다.	하루 일과를 알고 생활한다.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위 내용
3. 정서체감과 양성행동 의식가지기	자신의 성별을 안다.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차이를 안다.	자신이 일생동안 같은 성을 가지며, 외모와 행동이 변해도 성은 변하지 않음을 안다.			
4.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여러 정서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할 수 있음을 안다.	
5.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기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나의 감정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안다.	3. 나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자신의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문제 해결과정에서 작절하게 정서를 이용한다.			나의 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표현한다.	
6.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4.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부모 형제 등 가족과 사이좋게 지낸다.	
	가족구성원을 안다.		가족구조가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가족 구성원을 안다.	5. 가족과 협력하기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이 행복해지기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이해하기		남북분단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지킨다. 통일에 관심을 가진다.	전통문화에 관심 가지기
11.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여러 나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여러 나라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존중한다.	13. 다양한 문화에 관심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과 상징, 문화적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여러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평화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능력과 문화를 존중한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12. 경제생활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함을 안다.	돈의 가치를 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차이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11. 경제생활에 관심 가지기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의 차이를 안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아껴 쓰며 저축한다.			
			계획을 세워 물건을 구입해 본다.		필요한 물건을 계획해서 사 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안다.	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우리 가족의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모든 직업이 소중함을 안다.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3) 표준보육과정의 의사소통 vs. 유치원교육과정의 언어생활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1. 낱말의 발음 정정하기		낱말 각각의 발음에 관심을 가진다. 비슷한 발음의 낱말을 주의 깊게 구별하여 듣는다.				
2.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안다. 교사가 제시하는 사항을 듣고 지시에 따른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지시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 지시를 듣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1.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3.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여 다시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		2.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4. 동요, 동시, 동화 듣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듣는다.			다양한 문학 작품 듣기를 즐긴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듣고 그 내용을		3. 문학 작품 즐거듣기

내 용	표준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동화, 동시, 동요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해한다.
5. 바른 태도로 듣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이야기의 내용을 집중하여 듣는다.			전래동화, 동요, 동시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반응을 보이며 주의 깊게 듣는다.	
6.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여러 낱말을 바르게 발음한다.	정확한 발음으로 또렷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7.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일상생활의 경험을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낱말과 문장을 문맥에 맞게 말한다.		여러 상황을 다양한 어휘로 말한다.	문장으로 구성하여 말한다.	5.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8.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새로운 어휘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말한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말한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말한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정확하게 말한다.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말한다.
				이야기를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다양한 자료를 보고 창의적으로 꾸며 말한다.	
				동화, 동시를 창의적으로 지어본다.	7. 이야기 지어 말하기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1수준	2수준
동화읽기				
13. 읽어 주는 글 이해하기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동요, 동시, 동화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14. 그림책 읽기를 즐기기	책에 흥미를 가지고 그림책을 즐겨 본다.	읽어 주는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흥미하는 책을 자주 본다.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교사와 함께 책을 찾아본다.	스스로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찾아 읽는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10. 책에 관심 가지기
15. 낱말과 문장으로 쓰기에 흥미 가지기	낱말과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적거린다.	낱말과 문장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쓴다. 글자를 보고 모방하여 쓰기를 한다.		
16.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쓰기에 흥미 가지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적거린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쓴다.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과 글자로 쓴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글적거리기를 즐긴다.	11. 쓰기에 관심 가지기
17. 쓰기 도구와 매체 사용하기	여러 가지 필기구와 종이, 키보드, 마우스 그 밖의 쓰기 관련 매체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12. 쓰기 도구 사용하기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하위 내용
18. 말과 글의 관계 알기	유어의 말을 교사가 글로 받아 적을 때, 말이 글로 바뀌는 과정에 관심을 보인다.			11. 쓰기에 관심 가지기

4) 표준보육과정의 자연탐구 vs. 유치원교육과정의 탐구생활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1. 주변의 사물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호기심 가지기	관심 있는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궁금해 한다.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물) 분명하게 인식한다.		생활 주변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2. 탐구과정 즐기기	궁금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알아내는 버릇을 들인다. 스스로 답을 찾는다.	스스로 답을 찾고 이를 적용해 본다.	자신의 답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한다.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	내가 궁리한 방법대로 해본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음을 안다.
3. 기초 탐구기술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는 방법(관찰, 실험, 질문)	자신이 알아낸 방법대로 해 본다.	나타난(탐구) 결과를 모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탐구과정에 참여한다.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하위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활용하기	1 수준 등을 찾는다.	2 수준	3 수준 해석한다.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헤아리고) 수량을 안다(이해한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헤아리고) 수량을 안다(이해한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헤아리고) 수량을 안다(이해한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생활 속에서 익숙한 큰 수를 세는 경험을 한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가지고 '같다/더 많다/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생활 속에서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에서 부분과 전체를 안다.	열 정도 구체물에서 부분과 전체를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도합 다섯까지 더하기를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도합 열까지 더하기를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본다.	
	처음과 끝을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다섯 번째까지 서수를 안다.	다섯 번째까지 서수를 안다.			
		열 가량의 숫자 읽기와 쓰기를 한다.	열 가량의 숫자 읽기와 쓰기를 한다.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안다.					
	위치와 방향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단순한 지도를 만들고 사용한다.		나를 중심으로 위, 아래, 앞, 뒤, 옆을 알아본다.	위치나 경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4. 수 개념 형성하기						7. 수 감각 기르기
5. 공간과 도형 개념 형성하기						8. 공간 및 도형에 대해 알아보기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하위 내용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물체의 모양에 따른 특성을 인식한다.	크기와 방향이 다양한 도형(입체, 평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도형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칠교놀이, 조각그림 맞추기 등)를 한다.	기본 입체(둥근 기둥, 상자, 공 모양 등) 및 평면 도형(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의 생김새를 구별하고 이름을 알아본다.	기본 입체 및 평면 도형의 특징을 알아본다.	9. 기초적인 측정해 보기
		도형 옮기기, 뒤집기, 돌리기(칠교놀이, 조각그림 맞추기 등)를 한다.	대칭을 찾는다.		기본 평면 도형을 합하거나 나누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도형을 보거나 기억하여 그린다.	도형을 보거나 기억하여 그린다.		그림을 보고 구성물을 만들거나 만든 구성물을 그려본다.	
			형태에 대한 설명대로 그리거나 만든다.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탐색한다.			주변 물체의 여러 가지 측정 가능한 속성(길이, 크기, 무게, 들어, 시간)을 탐색한다.		
6. 측정하기	길이, 무게, 용량, 크기, 시간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9. 기초적인 측정해 보기
	두 물체의 크기와 길이 비교를 한다.	길이, 무게, 용량, 면적, 시간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매긴다.		두 물체의 길이와 크기를 비교하고 말한다.	길이, 크기, 무게, 들어를 비교하고 순서지어 본다.	
	일상의 간단한 순서를 인식한다.	사건의 순서를 안다.				
	길이, 용량, 시간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길이, 용량, 시간, 무게, 용량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길이, 용량, 시간, 무게, 면적을 비표준화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임의 측정(손, 뺨, 블록 등) 단위에 관심을 가진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해서 길이, 들어 등의 측정 경험을 한다.	
7. 규칙성	주변에서 반복되는	주변에서 반복되는	반복 및 확장되는	여러 가지 물체나 무늬의 배열에서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알고	10. 규칙성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이해하기	규칙성(색, 모양 등)을 인식한다.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한다.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한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본다.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이해하기	
	소리, 동작, 단어, 문장 등의 간단한 규칙성을 즐긴다.		한 가지 유형의 규칙성을 다른 유형으로 바꾼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방법을 찾는다. 다른 속성에 따라 다시 분류한다.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한다.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설명한다. 다시 분류한다.			
8. 자료 수집과 분석하기	관계있는 것끼리 짝을 짓는다.	한 가지 속성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다.	구체물이나 그림, 사진을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여러 자료를 모으고 비교해 본다.	모은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11. 자료 정리 및 결과 나타내기.	
			자료 수집과 분석의 결과를 설명한다.				
9.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 알기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색, 크기, 모양, 무게, 질감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3. 물체와 물질에 대해 알아보기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를 관찰한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상태를 비교한다.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2007년 개정)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10. 생명체와 환경의 관계 알기	물체와 물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물체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물체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물체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물체와 물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물체와 물질의 변화 과정을 알아본다.	
	여러 가지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물체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비교한다.	물체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비교한다.			
	주변의 동·식물의 탄생과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행위와 물체의 움직임을 비교한다.	자신의 행위와 물체의 움직임을 비교한다.			
	주변 동·식물의 기본 특성(소리, 움직임, 색깔, 생김새 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동·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 (영양, 호흡, 배설 등)을 알아본다.	주변 동·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 (영양, 호흡, 배설 등)을 알아본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나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4. 생명체와 자연 환경 소중하게 여기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려는 마음이 생긴다.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다.	생명체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안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을 즐겨 탐색한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을 즐겨 탐색한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을 즐겨 탐색한다.	생활 주변의 자연물(돌, 물, 흙 등) 탐색을 즐긴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을 비교한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을 비교한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을 비교한다.	자연물의 상태와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물의 상태와 변화를 관찰한다.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지구, 달, 해, 별 등에 관심을 가진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가진다.	자연물의 상태와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물의 상태와 변화를 관찰한다.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음을 안다.	낮과 밤의 차이점을 안다.	낮과 밤의 변화와 규칙성을 안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5.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11. 자연현상 이해하기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허위 내용
2.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의 요소를 탐색한다.	다양한 소리, 악기, 음악을 탐색한다.				
3. 가작화 요소 탐색하기	가상적 움직임과 목소리를 탐색한다.	역할, 사물, 행동이나 상황 등 가작화 요소를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의 요소를 탐색한다.	관객, 배우, 무대 등 극놀이의 기본적인 요소를 탐색한다.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움직임의 모양·힘의 세기·빠르기·흐름 등을 찾아본다.		
4.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에서 미술적 요소(색, 크기, 질감, 형태, 공간)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자유롭게 탐색한다.	여러 상황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한다.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색·형태·질감 등을 찾아본다.		2. 예술적 요소 찾아보기.
5. 리듬 만들기	목소리나 신체,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속도, 리듬, 셈여림)를 만든다. 리듬악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을 만든다.	목소리나 신체,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속도, 리듬, 셈여림)를 만든다. 리듬악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을 만든다.	노래에 맞추어 리듬악기를 연주한다.	즉흥적으로 리듬과 음악을 만든다.	신체나 리듬 악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리듬 패턴을 만들어 본다. 단순한 즉흥 연주를 해본다.		3. 음악으로 표현하기
6. 노래 부르기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르며 이와 관련된 놀이를 한다.	노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르며 이와 관련된 놀이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로 표현한다.		노래를 즐겨 부른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3. 음악으로 표현하기
7. 춤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자극에 대해 느낀 것을 춤이나 움직임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간단한 춤을 만들어서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하여 친숙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4.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하위 내용
내 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8. 극놀이로 표현하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의 역할놀이에 참여한다.	다양한 역할, 사물, 행동, 상황이 설정된 극놀이에 참여한다.	사건계획을 세워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계획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6. 극놀이로 표현하기
9. 미술활동 즐기기	간단한 이야기나 상상한 것을 극화해 본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극놀이를 한다.	음악, 미술 춤을 극놀이에 활용한다.	미술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독창적으로 표현한다.	조형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5. 조형 활동으로 표현하기
10. 여러 가지 미술재료 사용하기	미술 재료와 도구를 적절히 사용한다.	미술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미술 활동작품을 활용하는 경험을 즐긴다.	협동적인 조형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7.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11.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소재에 대해 음악, 움직임, 미술, 극 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춤, 조형 활동,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시도한다.	8. 창의적인 표현과정 즐기기
12. 음악 감상하기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듣고 즐긴다.	음악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집중하여 듣는다.	자연과 다양한 음악, 춤, 조형물,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9. 아름다운 느끼기
13. 춤 감상하기	친근한 여러 종류의 춤을 보고 즐긴다.	여러 종류의 춤을 보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이야기 한다.			자연과 다양한 음악, 춤, 조형물, 극놀이 등을 감상하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14. 극 놀이	극 놀이를 보고 즐긴다.		극 놀이를 보고 생각과			

내 용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허위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감상하기			느낌을 서로 나눈다.			
15. 미술작품 감상하기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다양한 자연, 사물, 미술작품을 접하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의 차이를 느낀다.	10. 예술적 표현 존중하기 11. 우리 전통 예술 감상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미술작품을 소중히 다룬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다른 문화의 미술작품에 관심을 가진다.		전통 예술에 관심을 즐긴다.	

연구보고 2010-14

표준보육과정 활용도 제고 방안
-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해설서 작성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1년 2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7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67-7